

킹제임스 성경의 4중 우수성

지은 이 / D. A. 웨이트

옮긴 이 / 정동수



도서출판 '그리스도예수안에'는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출간하는 성경 전문 출판사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에 힘입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복음과 진리가 훼손되지 않고 신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존되고 전파되는 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The King James Bible publishing company, 'In Christ Jesus', makes all efforts through the grace of God and the leading of the Holy Ghost to preserve and spread the only gospel and the truth of the Lord Jesus Christ as revealed in the New Testament without any defect.



킹제임스 성경의 4중 우수성

지은 이 / 웨이트(Donald A. Waite)
옮긴 이 / 정동수

초판 / 2006년 12월 12일
2판 1쇄 / 2023년 3월 31일

발행처 / 그리스도예수안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방산로 83
웹사이트: www.KeepBible.com
전자우편: webmaster@KeepBible.com

ISBN 978-89-92485-67-8 03230

정가 : 13,000원

잘못된 책은 바꿔 드립니다

*Defending
The King James Bible:
A Fourfold Superoity*

—D. A. WAITE—

◆ **일러두기**

본서에 있는 성경 구절은 2021년도에 우리말로 출간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마케스티 에디션>
(도서출판 그리스도예수안에, www.KeepBible.com)에서 모두 인용했습니다.

성경(The Bible)

위엄 있고 영원하며 변함없는 책!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오류가 없으며 완전한 책!
그것은 살아생전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안내자요, 등이다.

안의 모든 기록이 기록하고 구구절절 참되니
성경은 변하지 않는 빛의 법규로다.
또한 성경은 교리와 바로잡음과 책망하기에 유익하며
바른 길로 인도하는 확실한 안내자로다.

성경은 나의 보배요 나의 위로며
또 나의 도움이요, 나의 버팀 기둥이니
그것은 비할 바 없는 잣대요 막대로다.
성경은 장마다 본문의 증거로 가득하니
진실로 그것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로다!

그레이스 샌본(Gertrude Grace Barker Sanborn)
(D.A. 웨이트 박사의 장모)
1979년 9월



목 차



목 차	5
헌 사	7
감사의 말	8
머리말	10
한국의 친구들에게	12
도 입	13
A. 용어의 정의	13
B. 킹제임스 성경에 나오는 618개의 생소한 단어들	13
C. NASB, NKJV, NIV의 여러 가지 결함들	14
D. 1611년판 킹제임스 성경과 현재 킹제임스 성경 사이에는 겨우 421개의 단어 차이가 있을 뿐이다	15
E. 오늘날의 킹제임스 성경은 사실상 1611년판 킹제임스 성경과 같다	16
제 1 장: 성경 보존	19
A. 하나님께서는 성경 보존을 약속하셨다	21
B. 하나님께서는 성경 보존에 대한 약속을 지키셨다	28
C. 성경 보존을 가르친 역사적 증거들	29
D. 영어로 이루어진 성경 보존과 킹제임스 성경과의 관계	30
제 2 장: 킹제임스 성경 본문의 우수성	33
A. 킹제임스 성경이 영어로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그것의 우수한 히브리어 구약 성경 본문 때문이다	35
B. 킹제임스 성경이 영어로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그것의 우수한 그리스어 신약 성경 본문 때문이다	58
제 3 장: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의 우수성	83
A.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에 관한 자료들	85

B.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의 영적 통찰력 -----	85
C.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의 그룹 편성과 위치 -----	87
D. 세 명의 우수한 킹제임스 구약 성경 역자들 -----	88
E. 두 명의 우수한 킹제임스 신약 성경 역자들 -----	91
F. 나머지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의 언어 관련 이력 요약 -----	95
G.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의 우수성에 대한 맥클루어의 평가 -----	99
제 4 장: 킹제임스 성경 번역 기법의 우수성	101
A. 팀 단위 번역 기법의 우수성 -----	103
B. 번역 기법의 우수성 -----	107
제 5 장: 킹제임스 성경 신학의 우수성 -----	145
A. 본 장의 배경 -----	147
B. 현대 역본들에서 발견되는 신학적 오류 -----	151
부록 A: 하나님의 말씀들의 중요성 -----	197
부록 B: 영어 성경전서와 신약전서의 연대기별 목록 -----	206
부록 C: 킹제임스 성경 관련 질의응답 -----	223
부록 D: 킹제임스 성경 연구와 관련된 251가지 질문 -----	250
부록 E: 용어 설명과 영어 성경 및 사본 약자 -----	260
부록 F: 킹제임스 성경 관련 B.F.T 자료들 -----	268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흠 도가니에서 정제하여 일곱 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시12: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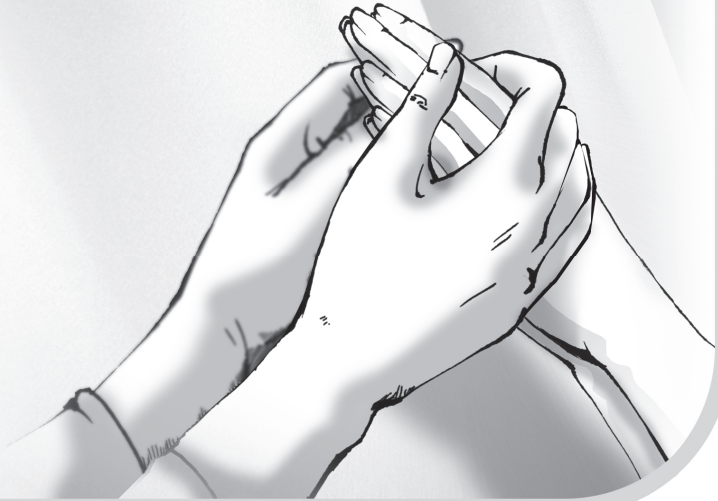


헌 사

1948년 8월 27일 이후 52년 동안 내 곁을 지켜 준 아내 유본(Yvonne Sanborn Waite)에게 이 책을 바친다.

아내는 늘 내게 힘이 되었고 날 위해 기도해 주었으며 변함없는 나의 조력자가 되어 주었다. 아내는 주님의 일에 나와 함께 하였고 주님의 고귀하고 완전한 말씀을 지킬 때도 그러하였다.

아내의 도움과 자발적인 헌신의 결과로 이 책이 출간되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무쪼록 이 책이 킹제임스 성경을 비롯한 전통 성경 본문을 지키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감사의 말

이 책을 출간하는 데 도움을 주신 여러 사람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 먼저 강의 내용을 타이핑해 준 베이커 씨(Ruthe Baker), 표지 디자인을 맡은 게이블 박사(Galen Gavel), 원고 교정과 함께 유익한 제안들을 해 준 아내 유본(Yvonne S. Waite), 아들 웨이트 주니어(Mr. D. A. Waite Jr) 그리고 디트와일러(Phyllis B. Detwiler)에게 감사를 드린다.

특별히 디비트로 박사(Dr. KirK DiVietro)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디비트로 박사는 컴퓨터 전문가로서 새로 들여온 내 IBM PC를 두 번씩이나 세팅해 주었을 뿐 아니라 Word Perfect 5.1로 본문을 잘 정리하고 나중에 6.0 포맷으로 전환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또 컴퓨터와 관련한 계속된 질문에도 친절히 답변해 주었다. 목사님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현재의 모습을 갖춘 이 책을 보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들 스테반 웨이트(Daniel Stephen Waite)에게 감사한다. 그의 수고로 인터넷에서 많은 인쇄소에 대한 정보를 얻었고 거기서 저렴한 비용으로 인쇄할 수 있는 곳도 찾았다. 덕분에 하드커버로 낸 5판과 6판을 인쇄할 수 있었고 여러 총판을 통해 이 책이 성공적으로 배포될 수 있었다.

이 책의 원고는 킹제임스 성경을 지키는 일에 가능한 가장 효과적인 도구가 되고자 여러 손을 거쳤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작업에 도움을 주긴 했지만 혹 활자를 그냥 지나쳐 버린 경우나 내용이 누락된 곳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다.

하나님의 말씀

나는 어젯밤 대장간 문 옆에서 잠시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모루가 울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저녁 기도를 알리는 종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낡은 망치들이 보였습니다.
수년 동안 두들긴 탓에 망가져 버린 낡은 망치들을.

그때 나는 물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모루를 사용하셨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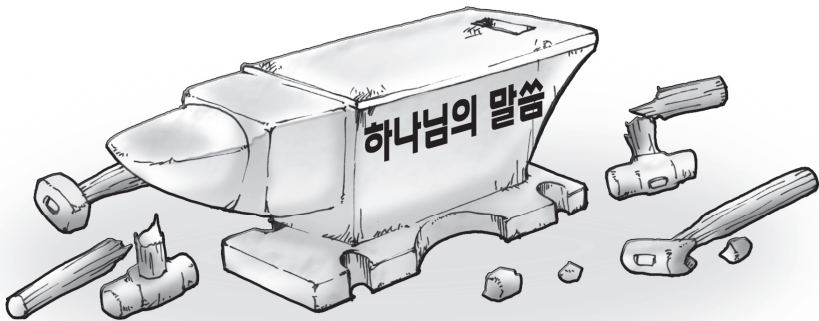
“이 모든 망치들이 이렇게 망가지고 닳아 못쓰게 됐으니 말입니다.”

“오직 하나뿐이시오.” 이렇게 대답하며 그는 반짝이는 눈동자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모루가 이 망치들을 다 망가뜨렸습니다.”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모루와 같구나! 수 세기 동안
회의와 의심의 망치질은 거세게 말씀의 모루를 내리쳤지만,
두들기는 소리는 요란했지만 모루는 지금도 변함없이 건재하며
그 많은 망치들은 간데없이 사라져 버렸구나!” 하고 말입니다.



머 리 말

‘킹제임스 성경 수호 - 4중 우수성 - 영어로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들’에 관한 본 연구는 28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주제에 대해 내가 생각하고 연구하고 저술한 것과 또 출판물과 강연 원고가 집약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있어서 성경만큼 중요한 주제는 없다. 그중에서도 중요한 첫째 질문은 다음과 같다.

과연 오늘날 우리가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전하고 사용해야 할 영어 성경은 어떤 것인가?

이것과 연결되는 둘째 질문은 이와 같다.

우리가 확신 있게 ‘이것이 영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영어 성경이 과연 어떤 것인가?

본 연구의 목적은 위의 두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킹제임스 성경의 네 가지 우수성을 입증함으로써 이루고자 한다. 이 4중 우수성은 (1) 우수한 본문 (2) 우수한 번역자들 (3) 우수한 번역 기법 (4) 우수한 신학이다. 이 네 가지 측면에서 킹제임스 성경은 독보적인 자리에 있다.

독자들은 본 연구가 관념적인 내용보다는 해당 주제에 대한 함축적인 개요를 담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 주제와 관련된 관련 정보가 주위에 넘쳐 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중요한 논쟁은 사실상 끝이 나지 않을 것이다.

본 저서에서는 보다 심층적인 주제에 관한 한 여러 가지 유용한 문헌들을 인용하였다. 또한 책의 마지막 부분에는 출판 시점을 기준으로 900개가 넘는 타이틀로 구성된 참고 문헌 목록을 실었다. 여기에는 해당 주제에 대한 책과 테이프, 비디오 및 기타 소중한 자료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것들은 독자들도 자기 서재에 두고 싶어 할 자료들일 것이다. 여기에 매달 새로운 자료들이 추가되고 있다. 최신 자료 목록을 원한다면 내가 운영하는 BIBLE FOR TODAY¹⁾(www.BibleForToday.org)에 연락해서 브로슈어 #1을 요청하면 된다.

분량이 계속 늘어나긴 했지만 본 저서 내용의 대부분은 1988년 2월 13, 14일 이틀 동안 뉴욕주 코틀랜드에 있는 은혜침례교회에서 개최된 킹제임스 성경 세미나에서 발표한 것들이다. 세미나 내용은 5개의 2시간짜리 오디오 카세트 혹은 비디오 카세트에 수록되었으며 필요하면 BIBLE FOR TODAY에서 구할 수 있다[B.F.T #1594/1-5].

본래 이 책에는 3개의 장만 있었는데 후에 제5장과 부록 A, B 그리고 색인, 참고 자료 등이 추가되었다. 부록 C에는 세미나가 진행되는 동안 청중들이 물었던 질문들과

1) BIBLE FOR TODAY는 웨이트 박사가 킹제임스 성경과 그것의 근간이 된 전통 히브리어/그리스어를 변조하기 위해 세운 비영리 단체로서 성경과 바른 교리의 정립을 위해 많은 책을 출간하고 판매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이것을 우리말로 옮기지 않고 그대로 영어로 적었다.

그것들에 대한 답변들이 들어 있다. 부디 이 질의응답이 킹제임스 성경을 수호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다음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신약 성경에 관한 한 그리스어 공인 본문²⁾과 웨스트코트/호르트의 비평 본문 사이에 실제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여기서 쉽게 볼 수 있듯이 신약 성경에서만 추가되거나 삭제되거나 변개된 그리스어 단어 수가 무려 10,000개에 달한다!

<신약 성경 그리스어 본문들 간의 전쟁터>

공인 본문	공인 본문에서 웨스트코트와 호르트가 변개한 내용
140,521개의 그리스어 단어가 있다. 그리스어 본문은 총 647쪽이다. 페이지당 217개의 그리스어 단어가 있다. 그리스어 단어의 100%가 있다. 647쪽 모두가 그대로 있다.	신약 성경에서 5,604군데가 바뀌었다. 9,970개의 그리스어 단어가 바뀌었다. 페이지당 15.4개의 그리스어 단어가 바뀌었다. 그리스어 단어의 7%가 바뀌었다. 그리스어 본문에서 총 45.9쪽이 바뀌었다.

10,000개라는 단어가 어느 정도인지 언뜻 와 닿지 않는다면 그 단어들을 한 곳에 모아 놓았다고 가정해 보라. 10,000개의 영어 단어가 모이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것은 (1) 로마서 전체(9,447개 단어) 혹은 (2) 고린도전서 전체(9,489개 단어) 혹은 (3) 고린도후서와 갈라디아서(9,190개 단어) 또는 (4)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및 데살로니가전서를 합친 것(9,096개 단어) 또는 (5)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요한1, 2, 3서 및 유다서를 합친 것(10,088개 단어) 혹은 (6)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후서, 디모데후서, 빌레몬서, 베드로후서, 요한2, 3서, 유다서를 합친 것(9,819개 단어)과 맞먹는다.

결국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는 이만큼 많은 단어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거나 변개하였다. 나는 독자들이 이 성경 전쟁에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인정하리라 생각한다. 바로 지금이 말씀을 위해 싸울 때이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수호하며



웨이트 목사(Pastor D. A. Waite, Th.D., Ph.D.)
Director, THE BIBLE FOR TODAY, Inc.
900 Park Avenue, Collingwood, NJ 08108, USA

2) 이것은 영어로 'Received Text', 그리스어로 'Textus Receptus'(짧게 TR)라고 하며 국내에서는 대다수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했다는 뜻의 '공인(共認) 본문'으로 알려져 있다. 본서에서는 이것을 대다수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수용했다는 뜻의 '수용 본문'으로도 표기하였다.

한국의 친구들에게

정동수 박사와 그의 동료들은 킹제임스 성경을 변호하는 나의 책 「Defending the King James Bible - A Fourfold Superiority」를 「킹제임스 성경의 4중 우수성」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출간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이 책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이 있으면 아마도 정동수 박사와 동료들이 잘 대답해 줄 것입니다. 또는 내게 e-mail(BFT@BibleForToday.org)로 직접 질문하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정동수 박사는 지난 여러 해 동안 나의 절친한 친구로 지내 왔으며 내가 시무하는 BIBLE FOR TODAY 침례교회의 신실한 선교사들 중 하나로 한국에서 일해 오고 있습니다. 저는 또한 독자들이 이 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동수 박사가 본서에 여러 가지 도표와 각주 등을 넣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세상의 여러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분석할 때 여러분은 다음의 네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1. 번역의 대본이 된 히브리어, 그리스어 본문이 우수한가?
2. 그것을 번역한 번역자들이 영적으로, 언어 면에서 우수한가?
3. 그것이 우수한 번역 기법을 통해 수용 언어로 신실하게 번역되었는가?
4. 그것이 우수한 신학을 담고 있어 성경의 교리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가?

이 책은 영어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 위의 네 가지 우수성을 다 만족시킨다는 것을 보여 줄 것입니다. 이 책을 구입하고 주의 깊게 읽어 주신 데 대해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여러분의 친구



웨이트 목사(Pastor D. A. Waite, Th.D., Ph.D.)³⁾

3) (*) 2004년 가을에 저는 한국의 서울제일침례교회에서 이 책의 내용을 주제로 4일 동안 12시간의 세미나를 인도했습니다. 세미나는 모두 녹화되어 현재 '사랑침례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볼 수 있으니 참조하기 바랍니다.(웨이트 박사 킹제임스 성경의 4중 우수성)으로 찾으시면 됨).

도 입

A. 용어의 정의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이 ‘온전히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할 때 ‘온전한’(in-tact)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온전한’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intactus’에서 왔는데 이것은 ‘아니다’라는 뜻의 ‘in’과 ‘손대다’라는 뜻의 ‘tactus’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이 말은 ‘손대지 않은’ 또는 ‘훼손되지 않은’이라는 뜻을 갖는다. 즉 이 단어는 어떤 것이 어떤 것에 의해 해를 입거나 더럽혀지지 않았음을 뜻한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온전히 보존되었다.’고 할 때 우리는 이런 의미를 염두에 둔다.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과 그리스어로 된 신약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영어로 알고자 한다면, 내가 연구한 경험으로는 킹제임스 성경만이 유일하게 원어(히브리/아랍어 및 그리스어)를 영어로 완전하고 정확하게 옮겨 놓은 역본이다. 나는 이 짧은 연구를 통해 독자에게 이 말이 참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싶다. 아니면 적어도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킹제임스 성경이 아닌 다른 역본들을 사용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있는 모든 구절, 문장, 단어가 정확히 하나님께서 주신 히브리어, 그리스어에서 번역된 것인지 확신할 수 없다. 오히려 거기에는 사람의 말들이 여기저기 섞여 있다. 다른 역본들의 경우 소위 ‘동적 일치’라 불리는 번역 기법이 사용됐기 때문인데 이 기법의 적용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들을 더하고 빼고 바꾸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당신은 이렇게 물을지 모른다. “글쎄요, 킹제임스 성경은 1611년에 번역된 것 아닌가요? 벌써 400년 이상 되었는데 이것은 결코 짧은 기간은 아니지요. 이런 시간적 격차로 인해 킹제임스 성경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B. 킹제임스 성경에 나오는 618개의 생소한 단어들

킹제임스 성경을 읽다가 1611년 이후로 그 의미가 바뀐 단어들을 만나게 된다면 영국의 ‘트리니테리언 성경공회’(Trinitarian Bible Society)⁴⁾에서 출판한 「Bible Word List」라는 소책자를 사용하기 바란다[B.F.T #1060].⁵⁾ 이 책자에는 의미가 바뀐 단어들과 각 단어의 간략한 의미를 기술해 놓았는데 이것은 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사실 킹제임스 성경을 이루는 791,328개의 단어 중에 이런 단어들은 고작 618개에 불과하다. 이 소책자 한 권이면 해당 단어들을 일일이 사전에서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상당히 덜 수 있을 것이다(물론 좋은 영어 사전도 좋다). 이 책자에는 단어

4)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 유일교도들이 성경공회에 침투하는 것을 보고 삼위일체를 수호하기 위해 세워진 영국의 삼위일체 성경공회(www.TrinitarianBibleSociety.org)

5) 앞으로 [B.F.T] 형식으로 소개되는 것은 모두 BIBLE FOR TODAY에서 구입할 수 있는 책자들을 말한다. 킹제임스 성경 관련 B.F.T 목록은 부록 F를 참조하기 바란다. 참고로 이 소책자는 트리니테리언 성경공회 사이트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https://www.tbsbibles.org/store/viewproduct.aspx?ID=9076083>

목록과 함께 단어의 의미가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다. 나도 거기에 있는 618개의 단어 모두를 살펴보았는데 킹제임스 성경을 모르는 상태였더라도 거기서 진짜 찾아볼 필요가 있는 단어는 모두 257개 정도였다. 물론 독자들은 더 많이 찾아봐야 할지 모르겠다. 아무튼 618개 단어가 모두 들어 있다. 예를 들어 ‘draught’는 ‘drain’(배수구) 또는 ‘sewer’(하수구)라는 의미가 되고 ‘fan’이란 단어는 ‘winnowing fan’(키질에 쓰이는 키), ‘Press vat’는 ‘vat of a wine press’(포도즙을 짜는 통)이며 ‘Ossiphrage’(수염수리)는 ‘떡이의 뼈를 부러뜨리는 독수리’라는 뜻이다. 목록에 있는 단어들 말고도 뜻을 모르는 단어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단어들은 좋은 영어 사전을 찾아보거나 비슷한 종류의 소책자를 이용하면 된다.

우리가 처음으로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 이러한 618개의 단어(혹은 그 이상)의 정확한 의미를 연구한 내용을 선보이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한 것은 1992년이였다. 내 친구는 이 과제를 구상하기 시작했고 몇 명의 조력자들과 함께 그 일에 착수했다. 한동안 그 일은 진행되었지만 결국 그는 이 일이 자신이 완성하기에는 너무나도 복잡한 과업이라 결론내리고 자기가 현재 작업 중인 다른 과제들을 위해 이 일을 내려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

1996년, BIBLE FOR TODAY는 싱가포르의 토우(S. H. Tow) 박사와 협력하여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유사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토우 박사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산부인과 의사이며 싱가포르에 있는 갈보리 성경 장로교회의 목사이다. 나의 장남인 웨이트 주니어(D. A. Waite Jr.)가 킹제임스 성경의 어려운 단어들의 뜻을 정의하는 각주를 넣은 「단어를 정의한 킹제임스 성경」(*Defined King James Bible*)을 완성했을 때 토우 박사는 이것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였고 4,000여 권의 「Defined King James Bible」을 배포했다. 그는 몇몇 머리말과 편집인의 말에 대한 초안을 작성했고 거기서 성경을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원문 전쟁의 역사와 배경을 설명하였다. 토우 박사는 이 킹제임스 성경을 필리핀이나 인도 같은 많은 제3세계 국가들에게 보급하려는 부담을 갖고 있다.

C. NASB, NKJV, NIV의 여러 가지 결함들

이제 나는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려 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말하고자 한다. 당신은 성경의 히브리어나 그리스어에 실제 어떤 영어 단어가 연결되어 있는지 모른다. 킹제임스 성경과는 달리 대부분의 현대 역본들은 이탤릭체를 사용하지 않는다. 알다시피 이탤릭체 표기는 원어에는 없지만 수용 언어에서 의미가 통하도록 하기 위해 어떤 단어를 추가해야만 할 때 추가한 것을 보여 주기 위해 사용된다.

물론 현대 역본 중에서 신미국표준역(NASB)⁶⁾도 원어, 즉 히브리어나 그리스어에 없는 영어 단어를 이탤릭체로 표시한다. 하지만 문제는 본문 자체에 추가되고 빠진 단어가 워낙 많아 무엇이 본래 있던 단어들이고 무엇이 아닌지 가려낼 수 없다는 데 있다. 현대 역본들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나는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해야 했다. 아마 독자들도 이것을 위해 같은 작업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나는 NASB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으며 동시에 귀로는 카세트테이프에 녹음된 킹제임스 성경을 들었다.

6) 본문에 나오는 영어 성경은 NASB, NIV, NKJV 등과 같이 대부분 약자로 표시될 것이다. 부록 E에 있는 용어 설명과 영어 성경 약자 목록을 참조하기 바란다.

그리고 펜을 가지고 NASB 본문에서 킹제임스 성경과 확연히 차이가 나는 부분들을 붉은색으로 표시해 두었다. 그다음 나는 킹제임스 성경의 기초가 되는 히브리 본문과 그리스어 본문, 즉 내가 바르고 정확하다고 받아들이는 원어 본문과 밀줄 그은 부분들을 비교해 보았다. 이 과정을 통해 나는 하나님의 말씀들에서 4,000군데 이상 첨가되고 삭제되고 변개된 부분들을 발견하였다[B.F.T #1494-P].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다른 역본들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어, 그리스어 본문에 있는 모든 단어들을 일일이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다. 자 어떨까? 이것보다는 아까 그 소책자에서 생소한 618개의 단어를 찾아보는 일이 훨씬 쉽지 않겠는가? 그 소책자는 정확한 안내자의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 찾아봐야 하는 단어도 몇 개 되지 않을 것이다.

사실 뉴킹제임스 역본(NKJV)도 정확성에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물론 다른 역본들만큼은 아니지만 NKJV에서도 2,000군데 이상의 '동적 일치'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으며 그런 데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고 빼고 바꾸는 일이 일어났다. 나는 NKJV에도 킹제임스 성경과 다른 부분과 원래의 히브리어, 그리스어와 다른 부분들을 붉은색으로 표시해 놓았다. 본문뿐 아니라 각주에도 바뀐 부분이 있었다. 어쨌든 NKJV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중 어떤 단어가 정확하고 어떤 단어가 아닌지 궁금하지 않은가?[B.F.T #1442]

신국제역(NIV)도 마찬가지다. 가령 사무엘기하 말씀의 경우 변경을 나타내는 붉은색 표시로 인해 NIV는 페이지마다 거의 다 도배되다시피 했다. 나는 중요한 차이점을 발견하면 테이프에 그 내용을 이런 식으로 녹음해 두었다.

원래의 히브리어나 그리스어 또는 킹제임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NIV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결국 나는 올바른 히브리어 그리스어 본문과 달리 NIV에서 추가하고 빼고 변개해 버린 부분만 무려 6,653군데가 넘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일에 2년 8개월이란 시간이 소요되었다. 지면과 시간 관계상 생략된 예를 모두 포함한다면 NIV에는 이런 곳들이 아마도 수만 군데가 될 것이다. 우리에게는 이것을 모두 정리한 프린트물이 있다[B.F.T #1749-P]. 이 자료는 284쪽의 분량이고 BIBLE FOR TODAY에서 구할 수 있다.

D. 1611년판 킹제임스 성경과 현재 킹제임스 성경 사이에는 겨우 421개의 단어 차이가 있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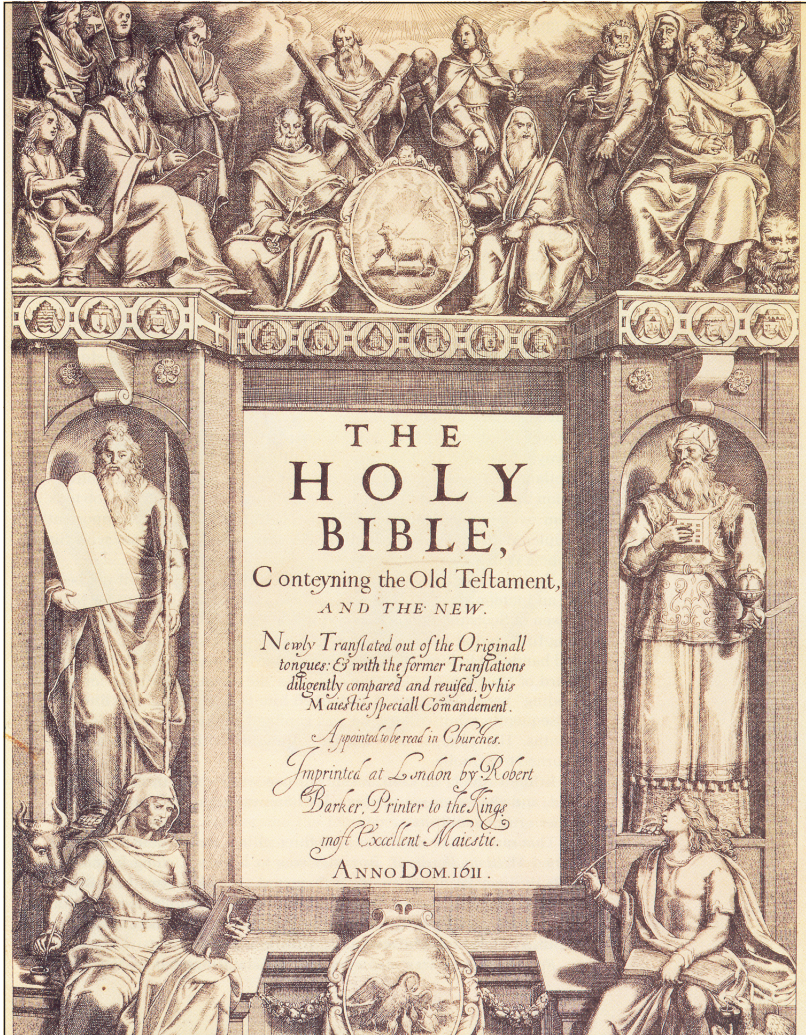
사람들은 종종 현재 킹제임스 성경이 1611년의 킹제임스 성경과 많이 다르다고 말한다. 그래서 나는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면밀하게 살펴보았다. 토마스 넬슨(Thomas Nelson) 출판사는 1611년도에 인쇄된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일반 로마체로 서체만 바꾸어 내놓았다. 이 책은 한때 절판되었지만 다시 출간되었다. 본래 1611년판 킹제임스 성경은 독일어체로 인쇄되었다. 나에게도 독일어체로 되어 있는 1611년판 킹제임스 성경의 사진 복사본이 있는데 이것을 읽기는 사실 어렵다. 예를 들어 소문자 's'는 마치 'f'처럼 보인다. 하지만 넬슨 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읽기 쉬운 서체로 바꾸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그런 작업을 한 것이다.

여러 해 동안 나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 왔다(아마 독자들도 그랬을 것이다). 뉴킹제임스 역본(NKJV)은 그저 1611년판 킹제임스 성경을 기초로 한 또 하나의 ‘판’(edition)으로서 현대인들의 수준에 맞게 개정되어 나왔을 뿐이라는 것이다. 또한 초판이 나온 1611년부터 NKJV가 나온 1979년까지 킹제임스 성경이 여러 번의 굵직한 변화들을 겪어 왔다는 말도 있다. 나는 이 사실을 직접 알아보고 싶었다. 그래서 1917년에 나온 「구(舊) 스코필드 주석 성경」- 킹제임스 성경 본문 사용 - 으로 이것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 나는 「구(舊) 스코필드 주석 성경」은 녹음테이프로 듣고 넬슨 출판사에서 나온 1611년판 킹제임스 성경은 눈으로 읽으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단어 하나하나를 비교해 보았다. 그런데 나의 귀로 듣고 감지할 수 있는 변화는 극히 일부뿐이었다. 물론 철자법은 꽤 다르다. 원판 킹제임스 성경과 오늘날 킹제임스 성경 사이에는 철자법에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는 상당히 크다. 예를 들면 신명기 31장 1절에 “Moses went and spake these words to all Israel.”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1611년판 킹제임스 성경에는 ‘words’라는 단어가 ‘wordes’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비교를 하면서 다르다고 느낀 부분은 발음뿐이었다. 즉 나는 1611년판 킹제임스 성경과 오늘날의 킹제임스 성경을 비교하면서 소리에 있어 몇 가지 변화를 발견했다. 그러나 이것들을 모두 출력해서 확인해 본 결과 이것들은 다 대수롭지 않은 것들이었다.

결국 차이점이라는 것은 신구약 전체에 걸쳐 발음이 다르게 나는 421개의 단어였다. 킹제임스 성경이 몇 개의 단어로 이루어졌는지 아는가? 무려 791,328개의 단어이다. 1611년판 킹제임스 성경과 오늘날의 킹제임스 성경의 차이는 전체 단어들 중에 고작 발음이 다른 421개의 단어들뿐이다. 이 421개의 변화들 중에서도 285개는 ‘형태’만 바뀐 사소한 변화들이다. 나머지 136개만 ‘내용’의 변화, 즉 ‘of’나 ‘and’의 첨가와 같은 변화들이다. 소위 사소한 변화들의 예를 몇 가지 들면 다음과 같다. ‘towards’와 ‘toward’가 다르게 들렸다. 나는 이렇게 달리 들린 단어들을 기록했고 이것들을 모두 세어 보니 14번이었다. 또 나는 ‘burnt’와 ‘burned’의 차이를 감지할 수 있었는데 이 경우는 총 31번으로 아주 적었다. 같은 내용이라도 나는 그것을 모두 따로 계산했다. 가령 ‘amongst’와 ‘among’의 경우 36번의 차이가 있었고 ‘Lift up’과 ‘lifted up’은 51번의 차이가 있었다. ‘You’는 82번 ‘ye’로 바뀌었다. 보다시피 이것들은 아주 사소한 변화들이다. 이러한 종류의 사소한 변화가 214군데 있었고 여기에 71군데의 다른 사소한 변화들을 합쳐서 총 285개의 형태 변화가 있다. 요약하자면, 귀로 구별할 수 있는 변화가 총 421개인데 여기서 ‘모양’만 다른 곳이 285군데, ‘내용’이 다른 곳이 136군데이다. 이 조사 자료는 모두 책자로 정리되어 구할 수 있다[B.F.T #1294].

E. 오늘날의 킹제임스 성경은 사실상 1611년판 킹제임스 성경과 같다

오늘날 우리 손에 있는 성경이 진짜 킹제임스 성경이 아니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틀림없는 킹제임스 성경이다. 따라서 이런 사실을 두고 현시대의 킹제임스 성경이 초판과 비교해 3만, 4만, 5만 개의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철자법의 차이를 말하는 거라면 맞다. 하지만 철자는 말쑥을 듣는 것과 말쑥의 의미를 아는 것에 관한 한 중요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지금 이 시간 출간되고 있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 안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1611년 킹제임스 성경 표지

성경의 내용 번역은 물론 신학 용어 번역에 있어 만인이 수긍할 수 있는 기본 역본이 없다면 상당한 혼돈과 분파를 초래할 것이다. 그런데 다행히 킹제임스 역본이라는 걸출한 역본이 있어서 1611년 이래 수백 년 동안 성경 역본과 신학의 기본 용어를 제공하며 만인이 수긍하고 공인하는 기본 자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는바 이 점에서 킹제임스 역본의 공헌은 잊히지 아니할 것이다. 상술하면 킹제임스 역본은 영어는 물론 세계 각 나라 언어로 성경이 번역될 때 참고가 되는 제1의 통일 자료로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영어의 세계적 발흥과 아울러 킹제임스 역본의 내적 우수성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이다(톰슨대역 한영성경, 기독교회사, 부록 1, 4쪽, 1989).

제 1 장

Chapter 1

온전히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들은 성경 보존을 뜻한다 (성경의 영구성)

A. 하나님께서는 성경 보존을 약속하셨다

참으로 성경은 영구한 책이다. 말 그대로 끝이 없다. 성경은 결코 그 존재를 멈추지 않는다. “성경은 더 이상 없다. 그것은 사라졌다. 그것은 소멸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시점은 결코 없다. 그것이 한 해이든 한 세기이든 현재이든 미래이든 말이다.

본서의 첫째 장에서 우리는 소위 ‘성경 말씀들의 보존’ 혹은 짧게 ‘성경 보존’과 관련이 있는 구절 중 15개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독자들은 이런 의문을 가져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는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들은 완전하게 남아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 즉 모든 단어가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으며 바르게 지켜져 왔다고 믿는다.

내가 이렇게 믿는 데는 두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신구약 성경을 통해 반복적으로 자신의 모든 말씀, 즉 원래의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로 주신 모든 단어를 보존하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둘째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항상 자신의 약속들을 지키셨으므로 당연히 현재와 미래에도 이 완전한 기록들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이다.

1. 시편 12편 6-7절: ⁶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흠 도가니에서 정제하여 일곱 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⁷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7절의 ‘그것들’이라는 단어는 그 앞의 ‘주의 말씀들’을 가리킨다. 이것은 성경 보존에 대한 약속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순수한 말씀들(단어들)’을 보존할 것을 약속하셨다. 이 약속은 ‘이 세대’, 즉 시편 기자의 세대부터 영원까지 이어진다. 매우 긴 시간이 아닌가?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실 수 있으며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은 별의 경로를 유지하고 해와 달과 다른 모든 천체가 제 위치에 있도록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완전하게 자신의 말씀들, 즉 단어들을 지키셨다.

2. 시편 78편 1-7절: ¹ (아삽의 마스길) 오 내 백성아, 내 법에 귀를 기울이고 내 입의 말들에 너희 귀를 기울일지어다. ² 내가 비유로 내 입을 열어 옛적부터 있던 은밀한 말들을 말할 터인데 ³ 그것들은 우리가 들어서 아는 것들이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해 준 것들이라. ⁴ 우리가 그것들을 그들의 자손들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주에 대한 찬양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가올 세대에게 전하리로다. ⁵ 그분께서 한 증언을 야곱 안에 굳게 세우시고 한 법을 이스라엘 안에 지정하시며 그것들을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이

7) 이 책에서는 성경의 용례에 따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말씀들’(words)이 항상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 주신 성경의 모든 단어들’을 뜻한다.

그것들을 그들의 자손들에게 알리게 하셨으니 ⁶ 이것은 다가올 세대 즉 태어날 자손들이 그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이 일어나 자기 자손들에게 그것들을 밝히 알리리니[여기에 세대로부터 세대에 이르도록 보존된 말씀이 있다.] ⁷ 이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아니하며 그분의 명령들을 지켜

이 구절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들을 영원히 보존하고자 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

3. 시편 105편 8절: 그분께서 자신의 언약 곧 친히 천대에 이르기까지 명령하신 그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한 세대가 20년이라면 1,000세대는 20,000년이 된다. 한 세대가 30년이라면 30,000년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절에서 우리가 성경 보존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보기를 원하신다.

4. 시편 119편 89절: (라메드)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정착되었으며

하나님의 말씀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것들은 영원하다. 명확하며 혼란스럽지 않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정착시켜 놓으셨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정착되었다는 것은 말씀들이 보존되었고 순수하게 지켜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중 어떤 것도 소실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정착된 것은 확정된 것이며 강철이나 콘크리트보다 훨씬 더 굳건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글쎄요, 그러나 그것은 하늘에 정착되었지 땅에 정착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기 바란다. 말씀들을 더 필요로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들을 모르실 리가 없다. 따라서 그 말씀들이 필요한 것은 우리들이다. 하나님은 시편 119편 89절을 통해 자신이 정착시킨 말씀들을 친히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보여 주신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시는 만큼 알지 못한다. 우리는 모든 일을 겪지도 않는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고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무엇을 사용해야 할지 자신의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다. 하나님의 말씀들은 ‘하늘에’ 보존되고 정착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늘에 계신 전능한 하나님의 손에 의해 이 땅에서 보존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5. 시편 119편 111절: 내가 주의 증언들을 영원히 유산으로 삼았사오니 그것들은 내 마음의 기쁨이니이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증언들’(testimonies)을 ‘영원히 유산’으로 삼는다면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 증언들은 반드시 보존되어야 한다.

6. 시편 119편 152절: 주의 증언들에 관하여는 주께서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셨음을 내가 옛적부터 알았나이다.

여기에 또다시 ‘증언들’ 곧 하나님의 말씀들이 영원히 보존될 것에 대한 약속이 있다.

7. 시편 119편 160절: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진실하오니 주의 의로운 판단들은 모두 영원히 지속되나이다.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은 곧 성경 보존을 말한다!

8. 잠언 22장 20-21절: ²⁰ 내가 계략과 지식 면에서 심히 뛰어난 것들을 너를 위해 기록한 것은 ²¹ 내가 진리의 말씀들의 확실함을 알게 하며 또 너에게 사람을 보내는 자들에게 네가 진리의 말씀들로 답변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이 말씀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들의 ‘확실함’을 알도록 주님께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주셨음을 말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리의 말씀들(단어들)’ 하나하나를 보존하셔야 가능하지 않겠는가? 따라서 이 구절은 참으로 성경 보존을 약속하신 말씀이다.

9. 전도서 3장 14절: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 그것이 영원히 있을 줄을 내가 아노라. 그것에 무엇을 더하거나 그것에서 무엇을 뺄 수 없나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 앞에서 두려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거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면 그것은 완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말씀들을 주셨다. 따라서 그분의 말씀들은 완전하다. 우리는 거기에 더하거나 거기에서 뺄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들은 정확하게 보존되어 왔다.

10.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기록된 바’(It is written)라고 하신 것은 구약 성경을 가리킨다. 내가 이 구절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다음 두 가지이다.

(1)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들을 보존하여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불가능하다. 우리 모두는 영어를 쓰고 대개는 그리스어나 히브리어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들을 오늘날까지 보존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정확하고 충실하게 번역된 영어 성경이 우리 손에 없다면 우리가 무슨 수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겠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신 것은 보존된 구약 성경이었다. 예수님은 그중에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셨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까지도 보존되고 있었으며 모름지기 사람은 바로 그 말씀들로 살아야만 했다. 그 말씀들을 기록한 모세부터 예수님까지는 약 1,500년의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말씀’을 지키고 보호하고 보존하고 계셨다.

(2) 둘째로 말하고 싶은 것은 ‘기록되었다’(written)는 단어이다. 신약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 이 단어는 그리스어로 ‘게그랍타이’(gegraptai)이며 완료 시제이다. 이것의 원형 동사는 ‘쓰다’(to write)를 뜻하는데 영어의 ‘등사 기계’(mimeograph)나 ‘흑연’(graphite)도 이 단어를 파생되었다. ‘Grapho’가 ‘쓰다’는 뜻의 그리스어이고 ‘게그랍타이’(gegraptai)가 이 동사의 완료형이다. 그리스어에는 주로 세 가지 과거형이 있다.

(1) 불완전 과거 - 과거 진행형: ‘쓰고 있었다’(was writing), (2) 부정 과거 - 한 시점의

행위나 상태: ‘썼다’(wrote), (3)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완료형이 있다.

다나와 맨티(Dana and Mantey)가 지은 「그리스어 신약 성경 중급 문법」(*The Intermediate Grammar of the Greek New Testament*)의 200-205쪽을 보면 완료 시제란 ‘과거에 어떤 행위가 시작되어 그 결과가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록된 바’(It is written)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 시제를 사용하셨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인용하신 구절, 즉 과거에 모세가 히브리어로 기록한 그 히브리 ‘단어들’, 즉 말씀들이 우리 주님께서 마귀에게 인용하신 바로 그날까지 보존되었음을 뜻한다. 따라서 ‘게그랍타이’(gegraptai)가 쓰인 곳이나 동일한 단어의 다른 형태의 완료 시제가 쓰인 곳 - 신약 성경 여러 곳에서 이런 곳을 발견할 수 있다⁸⁾ - 은 바로 성경 보존을 보여 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들은 과거에 기록되었던 그대로 지금도 보존되어 있다.

사실 나는 몇 년 동안 그 단어가 완료 시제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 나는 4년 동안 ‘BIBLE FOR TODAY 침례 신학원’에 있는 우리 집에서 그리스어와 히브리어를 가르쳤다. 몇몇 신학생들이 그리스어 1학년 과정에 들어 왔고 강의는 테이프로 제작되어 현재 전국 모든 곳과 일부 외국의 필요한 곳에 배포되고 있다. 강의는 신학교 수준으로 진행되었고 정규 수업일, 학점제, 기타 필요한 사항들을 갖추었다. 우리는 그리스어 1학년과 2학년 과정을 맡았고 이어서 히브리어 1학년 과정을 가르쳤다. 이후로 나는 또 하나의 그리스어 1학년 강의를 맡았다. 그리고 1, 2학년 그리스어 과정과 1학년 히브리어 과정을 녹음하여 테이프로 제작하였다. 그리스어 2학년 과정을 진행하던 중 우리는 요한복음 전체를 자세히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우리는 요한복음에 있는 모든 구절을 번역하였고 그때 다나와 맨티의 그리스어 문법도 깊이 접하게 되었다. ‘게그랍타이’(gegraptai)라는 이 단어의 중요성이 부각된 것은 바로 이때, 즉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있을 때였다.

11. 마태복음 5장 17-18절: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일점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일점’도 ‘일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성경 보존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주님은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지만 신약 성경에도 이것은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일점일획’(one jot or one tittle)은 무엇을 말하는가? ‘잡’(jot)은 지금 우리가 글을 쓰며 인용문을 만들 때 붙이는 아포스트로피(‘)와 비슷하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yodth’이며 ‘야’(ya)처럼 소리를 낸다. ‘획’(tittle)은 두 히브리 문자 간의 작은 차이점을 나타낸다. 이제 시편 119편에 나오는 두 문자를 살펴보자(히브리어 알파벳 그림 참조). 대부분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9절 위에 베티(beth)라는 글자가 나온다(히브리어 참조). 다시 81절을 보면 그

8) 마2:5; 11:10; 21:13; 26:31; 막1:2; 7:6; 9:13; 11:17; 눅2:23; 7:27; 19:46; 요8:17; 행1:20; 7:42; 23:5; 롬1:17; 3:4; 8:36; 15:3; 고전1:19; 9:9; 15:45; 고후8:15; 갈3:10; 4:27; 벧전1:16 등 신약 성경에만 적어도 62번의 사례가 나온다.

절 위에 카프라는 글자가 있을 것이다. 두 문자를 비교해 보자. 무엇이 다른가? 자세히 보면 알파벳 카프가 조금 더 둥글게 되어 있다. 빼트의 오른쪽 하단에 조그맣게 이어져 나온 부분이 바로 획, 즉 작은 돌출부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다. 73절 위에는 요드(jod)라 불리는 게 있는데 이 작은 아포스트로피가 바로 '점'(jot)이다. 25절 위에 있는 딸레트와 153절 상단에 있는 웨쉬를 비교해 보자. 둘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동일한 작은 확장자가 딸레트 우측 상단에만 있고 웨쉬는 등그스름하다. 이와 같은 것들이 히브리어에서 두 문자를 구별 짓는 가장 작은 특징인 획을 보여 주는 예들이다. 주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것이 성취되기 전에는 성경의 '일점일획'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결국 주 예수님께서 성경 보존을 믿으셨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12. 마태복음 24장 35절: [주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신다.]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은 지금 자신의 말씀들, 즉 신약 성경에 관해 말씀하신다. 마소라 히브리어 구약뿐만 아니라 지금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앞에 나왔던 약속이 신약 성경에까지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개인적으로 히브리어 구약 성경 본문의 모든 단어의 출처요 저자가 주 예수님이라고 믿는다. 그분은 계시자였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따라서 구약 전체가 주 예수님의 말씀들이며 신약 성경의 모든 말씀의 출처요 저자 또한 주 예수님이시다. 성경을 기록한 것은 사람이지만 그 모든 말씀(모든 단어)의 거룩한 저자요 출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a. 복음서의 저자는 그리스도이시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성령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에는 사복음서, 즉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포함된다.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요14:26).

당시 주님은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셨다. 주님께서 사복음서에 말씀하신 모든 것이 여기에 포함된다. 그분의 말씀들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께서 정확한 말씀들을 사도들에게 전해 주어 그중 하나도 잊히는 일이 없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다.

b. 사도행전의 저자는 그리스도이시다. 요한복음 15장 26-27절을 보자.

그러나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서 나에 대해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리라.

여기에서 ‘증언’을 하게 될 사도들에 관한 기록이 사도행전에 있다. 하나님의 영께서 사도들을 통해 증언하셨고 사도행전은 그들의 증언에 대한 기록이다.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리라고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사도행전도 여기에 포함되었다.

c. 서신서의 저자는 그리스도이시다. 요한복음 16장 12-13절로 넘어가 보자. 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직 너희에게 말할 것이 많으나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지금은 너희가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느니라. [그들은 그것들을 알아듣지 못했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자신으로부터 자신이 근원이 되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듣는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제자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신서도 필요하다. 또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의 저자요 근원은 성령님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분명한 사실에 유의하자.

d. 계시록의 저자는 그리스도이시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은 계속하여 말씀하셨다.

[그분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물론 이것은 신약 성경의 다른 예언들도 가리키겠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은 분명히 계시록을 언급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계시록과 서신서, 사도행전 그리고 사복음서가 있고 이 모두는 주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인간을 사용하셔서 기록한 것들이다.

주님께서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여기에는 사복음서, 사도행전, 서신서, 그리고 계시록이 모두 포함된다. 이 모두가 그분의 말씀들이다. 신약전서가 하나의 꾸러미로 묶여 당신의 손안에 있다. 주님은 구약 성경뿐 아니라 신약 성경의 말씀도 보존하겠다고 약속하셨다.

요한복음 16장 14절의 내용도 살펴보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분[성령님]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서 받아 그것을 너희에게 보이실 것이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 또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지 않고 대신 성령님을 영화롭게 하는 오순절 운동을 향한 주님의 답변이기도 하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서 주님은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라고 말씀하셨다. 무엇이 하늘과 땅만큼 굳건할 수 있겠는가? 지진이 일어나도 땅은 여전히 견재하지 않은가? 우리는 그것을 두고 ‘terra firma’라고 하는데 이것은 ‘굳건한 땅’(firm earth)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주 예수님께서 그 하늘과 땅이 없어질 것이라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들을 보존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기독교인들과 불신자들도 땅은 당연히 있을 것으로 여긴다(우리 모두가 그렇다). 지금 땅 위를 걷고 있으면서 땅이 무너지리라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처럼 땅은 굳건하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다. 현재 있는 하늘과 땅이 없어질 것이고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게 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들(단어들)은 계속될 것이다. 영원히 정착된 말씀, 보존된 말씀, 그 말씀들이 장차 없어질 이 땅과 하늘보다 더 굳건히 서 있을 것이다.

13. 요한복음 10장 35절: [지금 예수님께서서는 구약의 재판관(사사)들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여기 나오는 elohim은 종종 ‘재판관들’이라는 의미로 쓰였다. 여기서 주님은 시편 82편 6절을 인용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그분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기록은 깨뜨릴 수 없거든

‘깨뜨리다’(broken)에 해당하는 그리스어 ‘luO’와 ‘luthEnai’는 부정 과거 시제이며 이것에 대해 스트롱 사전⁹⁾은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3089. luO{loo-o}; a primary verb; to ‘loosen’(literally or figuratively): break (up), destroy, dissolve, (un)loose, melt, put off. Compare 4486

이 어근에서 분석을 뜻하는 영어 단어 ‘analysis’가 나온다. 여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하나님의 말씀들이 ‘느슨해지거나’(loosened), ‘깨지거나’(broken up), ‘파괴되거나’(destroyed), ‘분해되거나’(dissolved), ‘녹거나’(melted), ‘꺼지지’(put off) 않는다고 말씀하신다. 그것들은 영원하며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서는 분명히 성경 말씀들의 보존을 믿으셨다.

14. 골로새서 1장 17절: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이다.]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에 의해 존재하느니라.

얼마 전 나는 어떤 여름 성경 사경회에서 골로새서 성경 공부를 맡게 되었다. ‘존재한다’는 뜻의 ‘consist’라는 단어가 내게 큰 의미로 다가온 것이 이때였다. 평소처럼 성경 공부 준비로 그리스어 신약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단어들도 찾아보고 있었는데 그때 나는 ‘consist’라는 이 단어에 ‘함께 붙들다, 결합시키다’ 혹은 ‘보존하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존재한다.”(by Him all things consist)는 구절을 대할 때 흔히 우리는 이리저리 흩어져 있지 않은 세계, 즉 ‘함께 모여 뭉쳐 있는 모습의 세계’를 그려 본다. 그렇지만 ‘존재한다’는 단어는 또한 ‘보존된다’라는 뜻을 갖기도 한다. 그런데 무엇이 보존된단 말인가? 여기에는 없어질 하늘과 땅의 일들과 아울러 그분의 말씀들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보존하셨다. 그리고 현재도 그리스도에 의해 만물이 보존되고 있다.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보존하실 수 있느냐고 물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그 일은 그리스도께서 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므로 그 일을 하실 수 있다. 그분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이 있다.

9) 스트롱(James Strong)이 지은 ‘The Strong’s Concordance of the Bible’은 킹제임스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단어가 위치한 구절을 보여 주는 용어 색인 책으로서 부록에는 중요 단어들의 용례와 정의가 나와 있다. 이것은 성경을 공부하려는 모든 사람의 필수 참고 문헌이다. 약 1,900페이지에 달하는 이 책은 국내의 생명의 말씀사와 미국의 아마존 서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으니(마28:18)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함께 붙들고 계시며 보존하고 계신다.

15. 베드로전서 1장 23-25절: ²³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며 살아 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 ²⁴ 이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기 때문이라.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나 ²⁵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에 의해 너희에게 선포된 말씀이 곧 이 말씀이니라.

23절의 이 말씀도 성경 보존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않는다. 여기에 나오는 ‘썩지 아니할’(incorruptible)에 대해 스트롱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862. apthartos(af-thar-tos); from 1(as a negative particle) and a derivative of 5351; undecaying(in essence or continuance): not(in-, un-)corruptible, immortal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몸처럼 ‘썩거나’(corrupted), ‘부식되거나’(corroded), ‘소멸될 수’(decayed) 없다. 사람이 죽어 땅에 묻히게 되면 그 몸은 썩어서 흙으로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들은 썩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들은 살아 있으며 영원히 거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들을 보존하신다는 약속이다. 24절에는 이것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다. 이 구절은 떨어지는 풀의 꽃과 달리 남아 있는 것, 즉 보존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있다. 꽃이 아무리 그 자태를 뽐내더라도 눈이 오면 어떻게 되는가? 꽃은 시든다. 꽃은 사라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들은 사라지지 않는다. 시들지도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들은 영원히 지속된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들(단어들)을 보존하겠다고 약속하셨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 중 하나라도 어기신 적이 없다. 약속 준수에 관한 한 그분의 성적은 완벽하다. 따라서 우리는 처음에 히브리어, 그리스어로 기록된 자신의 정확한 성경 말씀들을 바로 현재까지도 보존하겠다고 하신 약속을 주님께서 지키셨음을 믿어야 한다.

B. 하나님께서는 성경 보존에 대한 약속을 지키셨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신가? 우리 중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지킬 수 있음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해 보라. 그분은 우주와 은하계를 존재하게 하셨고 거기에 수많은 별들을 두셨다. 그분은 땅 위에 작은 먼지와 더 작은 아메바와 눈에 보이지 않는 원자들을 만드셨다.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셨고 이 두 사람에게서 매우 복잡하고 놀랍게 구성된 몸을 가진 인류가 나왔다. 그렇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모든 약속을 지키실 수 있다. 그리고 그 모든 약속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들을 보존하겠다고 하신 약속도 들어 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지키는 것을 보여 주는 많은 구절이 있지만 여기서는 우선 네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열왕기상 8장 24절: [솔로몬 왕의 말, 그는 성전을 지었고 주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에게 지키셨으며 이날 드러난 것과 같이 또한 주의 입으로 말씀하시고 주의 손으로 그것을 이루셨나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약속하셨고 자기 손으로 그것을 성취하셨다. 하나님은 성전에 대한 약속을 하셨다. 그 성전은 솔로몬에 의해 건축되었고 솔로몬은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였다.

2. 로마서 4장 21-22절: [아브라함에 대해]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이행하실 수 있음을 온전히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전가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지키신다는 사실과 아울러 하나님의 능력을 높이고 있다. 아브라함과 사라 모두 부모가 될 나이는 지났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고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온전히 확신하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3. 디도서 1장 1-2절: 1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믿음에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진리를 인정함에 따라 2 영원한 생명의 소망 안에서 사도가 되었는데 이 생명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약속하셨으나

이 구절도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분은 거짓말하실 수 없으며 자신의 약속들을 지키는 분이다.

4. 히브리서 10장 23절: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가 우리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그렇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자신의 약속들을 지키신다.

C. 성경 보증을 가르친 역사적 증거들

역사적으로 '신앙 고백서'(Confession of Faith)가 많이 있다. 이러한 신앙 고백서들도 성경 보증을 언급하고 있다. 오늘날 성경 보증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란 쉽지 않다. 또 믿음 고백에 성경 보증이라는 주제를 넣는 교회도 별로 없다. 하지만 수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심심찮게 볼 수 있었다. 나는 먼저 역사적으로 성경 보증에 대한 언급이 있는 신앙 고백서들 중 일부를 소개하려 한다. 그리고 그중 한 권을 골라 성경 보증에 관한 문구를 인용하겠다. 고백서는 여럿이지만 성경 보증에 대한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 (1) 런던 침례 성도 신앙 고백서(The London Baptist Confession of 1677, 1689)
- (2) 필라델피아 침례 성도 신앙 고백서(The Philadelphia Baptist Confession of about 1743)
- (3) 웨스트민스터 장로교 신앙 고백서(The Presbyterian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1646)

(4) 사보이 신앙 고백서(The Savoy Confession of 1652)

여기서 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있는 성경 보존에 대한 내용을 인용하겠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직접 영감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섭리 가운데 모든 시대 속에서 순수히 간직된(Kept pure in all ages) [과거 하나님의 백성의 모국어였던] 히브리어 구약 성경과 [기록될 당시 민족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져 있던] 그리스어 신약 성경은 참된 것이다. 따라서 교회의 모든 종교 논쟁들은 최종적으로 이 성경기록에 근거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이것은 성경 보존에 대한 말이다. 고백서를 작성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모든 시대 속에서 순수히 간직되었다고 믿었다. 이것은 성경의 원어인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로 기록된 모든 단어들의 보존을 보여 주는 강력한 증거 중 하나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이어서 원어로 보존된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각 민족’이 쓰는 언어로 바르게 번역하는 것에 관하여 중요한 말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성경기록을 알 자격이 있고 또 성경기록에 관심이 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은 성경기록을 중히 여기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성경기록을 읽고 탐구해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다 성경의 원어들을 알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원어의] 그 단어들은 각 민족이 일상적으로 쓰는 언어로 번역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곳에 널리 거하도록 해야 한다. 이로써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경배를 드릴 수 있으며 성경기록의 인내와 안위를 통해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로 보존된 히브리어, 그리스어 말씀들(단어들)에서 모든 민족들의 언어로 정확하고 바르게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충분히 알 수 있지 않는가? 그런데 영어를 쓰는 민족들에게는 킹제임스 성경으로 이 일이 훌륭히 달성되었다.

D. 영어로 이루어진 성경 보존과 킹제임스 성경과의 관계

1. 관계 개요

나는 하나님께서 영어로는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 성경 보존을 이루셨다고 믿는다. 이것은 절대적인 의미에서 성경 보존이 곧 영어 역본을 가리키는 것은 아님을 뜻한다. 다만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올바른 히브리어, 그리스어 단어들을 영어라는 언어로 정확하게 번역하여 간직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영어로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지고 있다. 내가 이렇게 믿는 데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이유가 있다.

- a. 첫째, 킹제임스 성경의 근간이 된 원어 본문의 우수성 때문이다. 이것은 킹제임스 성경의 근간이 되는 히브리어, 그리스어 본문의 우수성을 말한다.
- b. 둘째,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의 우수성 때문이다.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당대에나 오늘날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 탁월했다. 오늘날 내로라하

는 학자들도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에 비하면 소인국 난쟁이에 불과하다.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다.

- c. 셋째, 킹제임스 성경 번역 기법의 우수성 때문이다. 킹제임스 성경은 다른 역본들과 차이가 있다. 다른 역본의 번역자들은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 기법을 쓰지 않았다.
- d. 넷째, 킹제임스 성경 신학의 우수성 때문이다.

2. 관계 설명

다음에 나오는 네 항목은 모두 고린도전서 3장의 내용이다. 물론 여기에는 성경 번역이라든지 보존 같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지만 건축에 대한 중요한 예화가 나와 있다. 나는 건물을 짓는 과정과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이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건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자.

[사도는 교회의 기초이신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고 있다.] ⁹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¹⁰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¹¹ 아무도 이미 놓인 기초 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고전3:9-11).

이제 건축과 성경 번역을 비교하여 설명하겠다.

- a. 번역에 사용된 히브리어, 그리스어 본문은 건물의 기초와 같다

먼저 바울은 기초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는 자신이 주 건축자로서 그 건물의 기초를 놓았다고 말한다. 건물의 기초가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면 아무리 최고의 건축가가 최고의 건축 기술을 사용하여 건물을 짓더라도 그것은 무너지게 마련이다. 성경도 마찬가지이다. 성경에 있어서 기초는 번역의 대상이 되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과 그리스어 신약 성경이다. 영어 성경, 스페인어 성경, 이탈리아어 성경, 그리고 번역해야 할 어떤 성경이든 제대로 된 기초가 있어야 한다. 정확한 히브리어 구약 성경과 정확한 그리스어 신약 성경에서 번역되어야 바른 성경이 된다.

- b. 번역에 참가한 번역자들은 건물의 건축자와 같다

건축 일에 관한 둘째 주제는 10절에 있다(물론 10절의 핵심은 그리스도이다).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일단 기초가 세워지면 그 기초 위에 누군가가 건물을 짓는다. 그때에는 건물을 짓는 건축자가 중요하다. 그런데 과연 그에게 지을 능력이 있을까? 그는 과연 어떻게 집을 짓는지 알고 있을까? 그는 건축 재료는 갖고 있는가? 만일 기초는 최고인데 그 위에 지을 사람이 건축자가 아니라 음악가나 신학자, 성경 교사, 하키 선수 또는 축구 선수라고 생각해 보자. 완전하고 단단한 땅 위에 질 좋은 시멘트로 기초를 지었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짓는 사람이 건축에 관한 한 문외한이라면 건물을 제대로 지을 리가 없다. 성경도 마찬가지다. 번역자는 건축자와 같다. 건물을 지으려는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는데, 즉 히브리어/아랍어, 그리스어, 그리고 영어나 다른 번역하는 언어에

능숙하지 않은데 어떻게 제대로 된 번역을 할 수 있겠는가?

c. 번역에 쓰인 기술 및 방법은 건물의 건축 기술 및 방법과 같다

셋째도 10절에 있다.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앞의 주제가 ‘짓는 사람’에 대한 것이라면 이번 주제는 ‘짓는 방법’, 즉 건축법이다. 여기 훌륭한 건축자가 있다. 그는 화려한 건축 경력을 갖고 있다. 그는 수많은 교회 건물과 원형 경기장, 대형 건물, 웅장한 고층 빌딩도 건축해 보았다. 이 사람에게 여러분의 집을 맡긴다고 생각해 보자. 건물의 기초도 다르고 건축의 성격도 달라질 것이다. 그가 어떻게 짓겠는가? 분명히 건물의 성격에 맞게 그가 건축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번역 기술도 마찬가지다. 성경 번역에도 어떤 방법을 써서 번역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 여기 최고의 번역자가 있다. 그는 번역에 관한 한 모든 면에서 능숙한 전문가이다. 하지만 그에게 히브리어 구약과 그리스어 신약을 영어로 번역하는 일을 맡겼다고 하자. 이런 특수한 상황에 그가 어떻게 이 일을 해내겠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d. 번역에 쓰인 신학은 건물의 재료와 같다

넷째 주제도 동일한 구절에 있다.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이 말씀에서 ‘어떻게’는 앞에 나온 건축 기술과 아울러 건축에 쓰이는 재료를 나타낸다. 건축에 있어서 재료는 번역에 있어서 신학과도 같다. 번역자의 신학 혹은 교리가 건전한가? 바른가? 번역에서 빠진 것은 없는가? 오류나 결함이 있지는 않은가?

제 2 장

Chapter 2

킹제임스 성경이 영어로 보존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그것의 우수한 원어 본문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온전히 보존되었다고 말하는 첫째 이유는 바로 그것의 기초가 되는 본문이 우수하기 때문이다. 킹제임스 성경의 본문 기초는 현존하는 어떤 영어 성경의 기초들보다도 훌륭하다.

A. 킹제임스 성경이 영어로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그것의 우수한 히브리어 구약 성경 본문 때문이다

킹제임스 성경은 우수한 구약 성경 본문에서 번역되었다. 그것은 우리가 흔히 ‘전통 마소라 히브리 구약 성경 본문’(Traditional Masoretic Hebrew Old Testament Text)이라고 부르는 본문이다. 최근에 번역된 다른 역본들, 즉 1960년의 NASB, 1969년의 NIV, 심지어 1979년의 NKJV도 의심스러운 구약 성경 본문을 그 기초로 하고 있다. 그것은 구약 성경 마소라 히브리 본문, 즉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이 사용했던 본문과 많이 다르다. ‘마소라’(Masoretic)라는 단어는 ‘masorah’에서 나왔는데 이것은 히브리 단어로 ‘전통적인’(traditional)이란 뜻이다. 이 본문은 유대인 서기관들인 마소라들에 의해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마소라들은 그 본문을 잘 지키고 보호하였다.

1. 새로운 역본들의 조악한 구약 본문

a. NASB 구약 본문

예를 들어 NASB를 보자. 서문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다.

히브리어 본문: 우리는 현 역본을 (1) 루돌프 키텔의 「비블리아 헤브라이카」(*Biblia Hebraica*) 최신판을 근거로 (2) 최신 사전 기술을 가미하고 (3) 동족 언어들과 (4) 사해 사본 두루마리를 참고하여 번역하였다.

보다시피 NASB는 마소라 히브리어 본문 - 바른 본문 - 뿐 아니라 다른 문헌들도 사용하였다. 또 자기들이 사용한 히브리어 본문이 키텔의 「비블리아 헤브라이카」라고 했다. 아마도 이것은 1937년판으로 추정되는데 내가 1948-1953년에 델러스 신학교의 엉거(Merill F. Unger) - 「엉거 성경사전」 등을 저술한 분 - 박사 밑에서 히브리어를 공부할 때 사용했던 것과 같은 것이다. 1937년판은 히브리 본문 각 페이지의 각주에 15-20개 정도의 권장 변경 항목들이 들어 있다. 키텔 성경이 총 1,424쪽에 달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구약 성경에서만 무려 20,000 내지 30,000군데가 바뀌었다는 말이다. 그 정도가 크든 작든 말이다. 과연 이것이 ‘보존된’ 성경처럼 보이는가? ‘일점일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의 성취로 보이는가? 나는 이들이 구약 성경 본문을 이런 식으로 다룬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주님께서는 성경의 모든 말, 모든 문자 또 그 모든 문자의 일부분까지도 하나님 자신의 권능으로 보존된다고 말씀하셨다(마5:18). 오늘날

에는 복음주의자들과 심지어 근본주의자들도 이 같은 NASB와 NIV 또 NKJV를 사용하고 또 추천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들은 모두 조악한 구약 본문에 기초하고 있다.

b. NIV 구약 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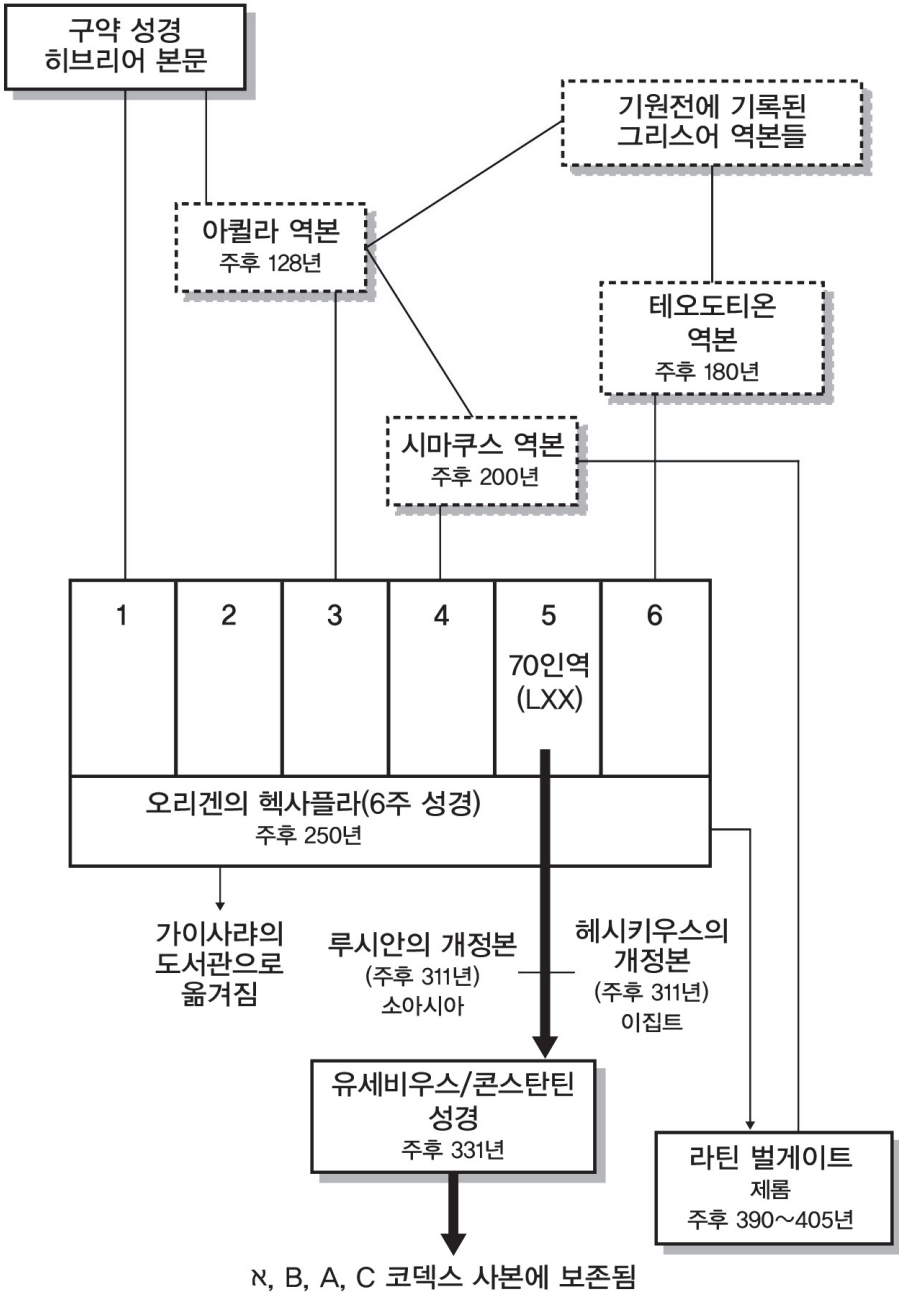
NIV의 구약 본문도 NASB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1978년판 NIV의 viii-ix쪽에 나와 있는 편집자들의 말을 들어보자.

(viii쪽) 구약에 쓰인 표준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마소라 본문, 즉 최신판 (1) 「비블리아 헤브라이카」[앞에서 언급된 것과 같은 키텔 성경] 본문이 전체적으로 사용되었다. (2) 사해 사본 두루마리는 초기 히브리어 본문에 관한 중요 자료가 된다. [그래서 그들은 사해 두루마리를 사용할 것이다. 즉 이것은 그들이 그것의 내용을 본문에 반영할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사해 두루마리와 함께 (3) 사마리아 모세 오경(Samaritan Pentateuch) [전통 히브리어 원문과 다른 또 하나의 본문] 과 (4) 고대 히브리어 필사 전통(Ancient scribal traditions)이 본문 변경에 필요한 참고 자료들로 사용되었다. [이 말은 즉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다면 마소라 본문보다 이 자료들을 우선시하겠다는 말이다. 이것을 하나의 관행으로 삼은 곳도 있다.] 때로는 마소라 본문 대신 (5) 여백에 있는 다른 종류의 히브리어 독본(A variant Hebrew reading in the margin)에 따라 번역하였다. [이제 그들은 아예 본문 대신 난외주를 사용하려 하고 있다.]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그들은 (6) 자음 본문에 나오는 단어들을 마소라 본문과는 다른 방식으로 나누었다. 또한 번역자들은 보다 중요한 (7) 초기 번역본들 [즉] (8) '70인역'(Septuagint) [이것은 그리스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인데 그들은 이것을 자기들의 기반이요 기초로 삼으려 하고 있다.], (9) 시마쿠스(Symmachus)¹⁰와 (10) 테오도티온(Theodotion)¹¹ [이것들 역시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한 역본들이다.], (11) 별게이트 [이것은 라틴어 번역본이다.], (12) 시리아 페시타(Syria Peshitta), (13) 탈굴(Targums)과 (14) 시편은 제롬의 'Juxta Hebraica' 등을 참조하였다. NIV는 종종 이러한 역본들의 해석을 반영하였다. 역자들은 몇몇 단어들은 (15) 상이한 히브리어 모음군(A Different Set Of Hebrew Vowels)을 이용하여 읽었다. 일반적으로 이런 사실들은 각주에서 일일이 언급되지 않았다. [괄호 안의 말은 저자의 것임]

NIV 편집자들은 자기 입맛에 따라 위의 15가지 문헌들 중 하나를 선택하였으며 이로써 매우 대담하고도 노골적으로 구약 성경의 기초를 바꾸어 버렸다! 마소라 본문과 내용을 달리하는 곳이 있을 때 그들은 어떤 부분에선 이 문서를, 다른 부분에선 저 문서를 사용했다. 어쨌든 당신은 그것을 알 길이 없다. 마치 기초로 시멘트를 썼는지 모래를 썼는지 알 수 없는 것과 같다. 처음엔 시멘트를 조금 쓰다가 갑자기 모래를 부어 넣었을 수도 있다.

10) 성경 변경의 장본인 중 하나인 오리겐은 AD 250년경에 '헥사플라', 즉 여섯 개 난에 여러 개의 언어로 기록된 역본을 담은 책을 출간했는데 이 여섯 개 난마다 각각 다른 구약 역본이 들어 있다. 그는 이 책의 넷째 난에 시마쿠스가 번역한 그리스어 구약 성경 역본을 실었다.

11) 오리겐의 '헥사플라'의 여섯째 난에는 테오도티온의 그리스어 구약 성경 역본이 있다.



<오리겐의 헥사플라와 70인역>

이러니 건물이 제대로 서 있을지 아니면 무너질지 알 수 없다.
기초가 다르다!
기초가 바뀌었다!

c. NKJV 구약 본문

당신은 아마도 “NKJV 번역자들은 보다 근본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감히 구약 본문을 고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할지 모른다. 자, 그러면 NKJV 번역자들은 구약 성경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NKJV의 머리말 vi쪽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1) 1967/77년 슈투트가르트판 「비블리아 헤브라이카」를 사용하였다.

NKJV는 키텔의 「비블리아 헤브라이카」가 아닌 새로운 본문을 썼다. 나에게도 이 본문이 있는데 이것은 보통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라고 부른다(독일의 슈투트가르트에서 왔음을 뜻한다). 이 본문도 키텔의 본문과 비슷하데 다만 연도가 1937년이 아닌 1967/77이다. 내가 알기로는 오늘날의 모든 신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히브리어 본문이 바로 이것이다. 웬만한 성경 소프트웨어도 모두 이 판을 쓴다. 사실 내가 운영하는 BIBLE FOR TODAY가 가지고 있는 슈투트가르트판도 원도우용 로고스 성경 공부 소프트웨어(Logos Bible Study Software)에 들어 있는 것이다. 루돌프 키텔의 「비블리아 헤브라이카」는 약자로 BHK(*Biblia Hebraica Kitzel*)이고 NKJV에 쓰인 것은 약자로 BHS(*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이다. BHS는 키텔판과 구성이 비슷하다. 키텔판 처럼 이것도 히브리어 본문(킹제임스 성경에 쓰인 본문과 같은 것은 아니지만)이 각 페이지 상단에 인쇄되어 있고 페이지 하단의 각주에는 히브리어 본문에 대한 권장 수정 항목이 15개-20개 정도 있다. 구약에 들어 있는 이러한 권장 수정 사항을 모두 합치면 20,000-30,000개에 이른다. 이렇게 심히 부적절한 히브리어 본문과 더불어 NKJV 서문은 이렇게 말한다(vi쪽).

다음의 문서들을 참조하여 본문과 여러 번 비교하였다. (2) 1525년 뫼베르그판 [킹제임스 성경의 기반이 된 문서], (3) 구약 ‘70인역’, (4) 라틴 별게이트, (5) 히브리어 성경기록을 번역한 다양한 고대 역본들, (6) 사해 두루마리 사본들 [괄호 안의 말은 저자의 것임]

위에서 볼 수 있듯이 그들은 NKJV를 번역하면서 최소한 여섯 가지 자료를 성경 번역의 기초가 되는 히브리어 본문과 같은 수준으로 참고하고 사용하였다.

결국 오늘날 근본주의를 표방하는 기독교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NASB, NIV, NKJV 등 이 세 역본 모두가 킹제임스 성경과 다른 기초, 즉 다른 구약 성경 히브리어 본문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기초가 다른데 어떻게 건물 - 말씀들 - 이 같을 수 있겠는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으며 실제로 다르다. 명백하게 차이를 보인다.

2. 히브리어 구약 성경 본문은 유대인들이 모은 것이다

킹제임스 성경의 구약과 그 본문의 우수성에 대해 살펴보자. 첫째, 유대인들이 본문을 모았고 둘째, 예수님께서도 그 본문에 권위를 두셨다.

a.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지키는 사람들로 유대인들을 지정하셨다

로마서 3장 1-2절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구약 성경의 관리자였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성경 구절이다. 어떤 이방인도 하나님의 구약 성경 말씀들에 부정할 손을 댈 수 없었다. 심지어 신약 성경도 아마 누가 기록한 두 권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대인이 기록했다. [의사 누가 역시 유대인 개종자였다는 보고가 있다.] 구약 성경을 맡은 그들은 지난날 이 땅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서 그들도 언젠가 메시아를 보고 '자기들이 찢었던 그분'(눅12:10)을 주목하게 될 때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로마서 3장 1-2절: 그러면 유대인에게 어떤 이점이 있느냐? 혹은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나? 모든 면에서 많은데 주된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oracles of God)이 맡겨졌다는 것이다.

스트롱은 여기에 나오는 'oracles'라는 단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3051, logion{log-ee-on}; neuter of 3052; and utterance (of God): -oracle

'하나님의 말씀들'(oracles of God)은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utterances) 혹은 '하나님의 말씀들'(Words of God)이다. 그들, 즉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다. 우리가 그토록 전통 마소라 히브리어 구약 성경 본문을 신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전통 마소라 본문은 유대인들의 보호하에 우리에게 남겨진 것이다. 이 같은 이유로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은 구약 성경을 번역하면서 라틴 벌게이트 - 히브리어는 전혀 없음 - 나 그리스어로 된 '70인역' - 히브리어가 아님 - 혹은 시마쿠스나 테오도티온 같은 그리스어 역본, 고대 부족 전통, 기타 마소라 본문에 없는 자료들이 아니라 자기들이 맡은 이 전통 마소라 본문을 기초로 사용했다. 이런 다른 자료들을 기초로 히브리어 본문을 읽거나 해석해서는 결코 안 된다. 또한 이것들을 내세워 전통 마소라 히브리어 본문을 반박한다는 것은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다.

b.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보호한 방법

이제 우리는 유대인들이 성경의 약속을 어떻게 성취했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것을 위해 먼저 유대인들이 히브리어 구약을 필사할 때 적용했던 엄격한 규칙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60년에 쓰인 밀러(H. S. Miller)의 「일반성경입문」(*General Biblical Introduction*)의 184-185쪽에 이 같은 내용이 있다. 밀러는 구약 성경기록, 즉 유대인 회당에 있던 두루마리들의 필사 과정에서 적용되는 여덟 가지 준수 사항에 대해 기록했으며 이 규칙들은 탈무드에 언급된 것들이다.

- (1) 양피지는 정결한 짐승의 가죽으로 만들되 오직 유대인만이 만들 수 있으며 정결한 짐승에서 만든 끈으로 묶어야 한다.
- (2) 두루마리의 각 난에는 48-60줄이 들어가야만 한다.
- (3) 잉크는 반드시 검은 색이어야만 하고 특별한 방법으로 제조해야만 한다.
- (4) 어떤 단어나 글자도 머리로 외워 적어서는 안 된다. 서기관은 반드시 자기 앞에 정본을 놓고 기록하기 전에 먼저 각 단어를 큰 소리로 읽고 발음해야 한다. [가령 창세기 1장 1절 말씀인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를 기록하려면 먼저 히브리어로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큰 소리로 읽어야 했다. “In the beginning” (*b’reshith*), “God” (*Elohim*), “created” (*bara*), “the heaven” (*eth hash-maim*), “and the earth” (*wa ethha arets*). 서기관은 기록하기 전에 먼저 진본을 앞에 두고 소리 내어 읽어야 했다. 눈으로 읽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것을 통해 그는 가능한 오류와 중복 기록 그리고 누락을 방지했다.]

- (5) ‘하나님’ [즉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기록하기 전에 그는 반드시 두려운 마음으로 펜을 닦아야만 하며 ‘여호와’(Jehovah)라는 이름을 적기 전에는 그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반드시 온 몸을 씻어야만 한다. 이 단어는 영어 성경에서 ‘주’(LORD; 전체가 대문자)로 번역되었다.
- (6) 글자의 형태, 글자와 단어 사이의 간격, 펜을 사용하는 방법, 양피지 색깔 등에 대해서도 매우 엄격한 규정들이 있었다.
- (7) 두루마리를 수정하려면 그것이 완성된 후 30일이 지나기 전에 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그 두루마리는 무효가 된다. 또한 한 장에 단 한 개의 실수라도 있으면 그 장은 버려야만 했으며 전체 필사본에서 세 개의 실수가 발견되면 전체를 버려야만 했다. [다시 말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기록했는데 그중에 단 세 개의 실수가 나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창세기부터 필사해야 한다. 이런 것을 통해 우리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일에 어느 정도 신중을 기했는지 알 수 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필사하는 말씀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들이라 믿었고 그러기에 이런 철저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들을 완전하게 보존해 왔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본문을 빼고 더하고 바꾸는 NIV, NASB, NKJV 등의 현대 역본 기록관들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이런 치밀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들을 보존해 오셨다.]
- (8) 그들은 글자와 단어 수를 세었으며 [자, 단어와 글자의 수를 모두 세었다.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모든 페이지에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라. 너무 엄격하지 않은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약 성경을 보존해 오셨다.], 만일 글자가 삭제 혹은 첨가되었거나 다른 글자와 붙어 있으면 해당 필사본 전체를 잘못된 것으로 여겨 곧바로 폐기하였다. [밀러의 책, 184-185쪽] [괄호 안의 말은 저자의 것임]

위 항목들이 과거 유대인들이 적용했던 규칙들이다. 그리고 밀러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물론 여기에는 얼핏 보기에 조금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내용도 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 우리는 유대인들이 성경 관리자(롬3:2)로서 구약 성경기록을 얼마나 신성하게 여겼는지 알 수 있으며 아울러 2,000년 전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읽으셨던 성경, 즉 처음에 하나님께서 영감을 불어넣으신 성경이 지금 이 시간 우리 손에도 있다는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된다. [밀러의 책, 185쪽]

c. 전통 히브리 마소라 본문에 관한 간략한 역사

이제 히브리어 구약 성경 본문의 역사를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Masoretic’(마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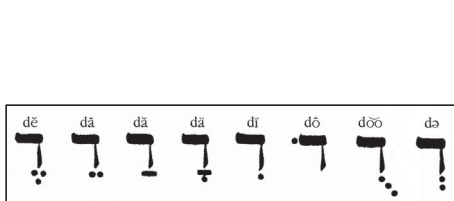
라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masorah’(전해져 내려오다)에서 파생된 것이다. 마소라들은 구약 히브리어 본문을 지켰던 ‘전통주의자들’이었다. 당시 바빌론과 팔레스타인 그리고 티베리우스에는 여러 히브리 학자 그룹이 있었는데 관련 연구에 따르면 이들 마소라들이 ‘히브리어 자음 본문’(Consonantal text)을 보존해 왔다고 한다. [몇몇 근본주의 저술가들은 모음도 처음부터 히브리 언어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모든 마소라들은 히브리어 자음과 모음 모두를 보호할 의무가 있었다. 물론 그들은 이 일에 정통했다.] ‘자음 본문’이라고 한 것은 본래 히브리어가 모음 없이 자음만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וואַנט יאָזאָר (אין צום אַלעם צוואַרן) ווערט געשריבן
 געזען ווערן דער ווערט ווערט ווערט ווערט
 ווערט ווערט ווערט ווערט ווערט ווערט
 און און און און און און און און און און און
 און און און און און און און און און און און
 און און און און און און און און און און און

〈히브리어 자음 본문〉

예를 들어 영어 단어 ‘WATER’(물)를 보면 그 안에 ‘a’와 ‘e’라는 모음이 있다. 그런데 만일 이것이 히브리 단어였다면 모음이 없는 ‘WTR’이 되었을 것이다. 그래도 마소라들은 이 단어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만일 이 단어에 다른 모음들을 넣으면 그 단어가 전혀 다른 뜻을 갖는 ‘WAITER’(웨이터)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단어의 곡해를 막고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보여 주기 위해 마소라들은 모음 표시를 했던 것이다. 예를 들어, 자음 밑에 있는 ‘v’는 ‘아’(ah)라는 발음을 갖는다. 또한 자음 밑에 점이 세 개 있으면 ‘에’(eh), 점이 두 개 있으면 ‘아이’(ay), 그리고 점이 하나 있으면 ‘에에’(ee) 등으로 발음된다.



לְחַדֵּשׁ וְאֲנִי בְּתוֹךְ-
 הַ מְרִאֲוֹתֵי אֱלֹהִים:
 גְּלוֹת הַמֶּלֶךְ יוֹכִיז;
 חִפְתָּן בְּאֶרֶץ כְּשָׂדִים
 יֵא וְהִנֵּה רוּחַ סַעֲרָה
 הָ לֹ סְבִיבִי וּמִתּוֹכָהּ

〈마소라 본문〉

이 같은 기호들은 ‘읽는 것을 도와주는 어머니’라는 뜻을 지닌 ‘마트레스 렉션스’(matres lectiones)라 불리며 이런 기호들을 통해 이방인이나 본문에 익숙하지 않은 유대인들

이 히브리 단어들을 읽고 그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WATER’와 ‘WAITER’는 이런 기호들에 의해 구분이 된다. 그런데 마소라들은 이처럼 ‘히브리어 자음 본문’을 보존하고 거기에는 모음 부호를 달아 준 사람들이다. 유대인이 아닌 우리 이방인들이 히브리어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데는 이 마소라들의 공이 크다. 마소라들은 AD 500-1000년경에 가장 왕성했는데 그들이 자음 본문에 모음 부호를 달아 표준화하는 작업을 마친 시기는 AD 600-700년경으로 알려져 있다.

그 이후로 우리는 그들이 만든 본문을 ‘마소라 본문’(Masoretic Text 혹은 약자로 M.T)이라고 부른다. 철자법은 학자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Massoretic’이라고 하기도 하고 ‘Masoretic’이라고 하기도 한다. 나는 ‘s’가 하나인 ‘Masoretic’을 선호한다.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의 역자들은 이 마소라 본문을 구약 성경 본문으로 채택하였다.

d. 킹제임스 성경에 사용된 히브리어 본문

그러면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이 사용한 히브리어 본문과 그 배경에 대해 알아보자. 1516-1517년 사이에 유대인 랍비들은 ‘다니엘 봄베르그판’(Daniel Bomberg Edition) 혹은 ‘제1 랍비 성경’(The First Rabbinic Bible)이라 불리는 구약 성경을 출간했다. 이어 1524-1525년에 제2판이 출간되었는데 벤 카임(Jacob Ben Chayyim)이라는 사람이 이것의 편집을 맡았다. 그래서 이 본문은 ‘벤카임판 히브리어 본문’ 혹은 ‘벤 카임 마소라 본문’이라 불리며 다른 말로 ‘제2 대(大) 랍비 성경’(The Second Great Rabbinic Bible)이라고도 불린다. ‘벤 카임 마소라 본문’은 출간된 후 400여 년이 지나도록 마소라 본문의 표준으로 인정받아 왔으며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도 바로 이 ‘벤 카임 마소라 본문’을 구약 성경의 본문으로 사용했다. 다시 말하지만 400년 동안 이 본문만이 구약 성경의 본문으로 사용되었다. [이것은 1978년에 해리슨과 워키와 거쓰리(Harrison, Walkie and Guthrie)가 지은 「Biblical Criticism Historical, Literal, Textual」의 47-82쪽에서 인용한 것이다.]

한편 나치 독일의 히틀러에게 반유대주의 사상을 주입시킨 루돌프 키텔도 초기에는 ‘벤 카임 마소라 본문’을 사용했다(1906년과 1912년에 나온 제1판과 제2판). 즉 그도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이 썼던 것과 같은 히브리어 본문을 썼던 것이다. 그런데 내가 델러스 신학교에서 영거 박사의 학생으로 있을 때 사용했던 판은 키텔의 1937년판 「비블리아 헤브라이카」였다. 1937년에 키텔은 갑자기 자신의 히브리어 본문을 바꾸었다.¹²⁾ 즉 그는 ‘벤 카임 마소라 본문’을 버리고 ‘벤 아셰르 마소라 본문’(Ben Asher Masoretic Text)을 채택한 것이다. ‘벤 아셰르 마소라 본문’은 AD 1008년에 만들어진 레닌그라드 사본(B19a 혹은 “L.”)에 기초하고 있다. 레닌그라드 사본은 400년 동안 사용되었던 그리고 킹제임스 구약 성경의 기초가 되었던 그 전통 마소라 본문이 아니다. 키텔은 전통 본문을 버렸고 대신 이 레닌그라드 사본을 받아들였다. 따라서 NKJV, NASB, 그리고 NIV의 히브리어 본문, 즉 키텔의 1937년판 「비블리아 헤브라이카」는 킹제임스

12) 역자 주: 1929년에 키텔이 죽은 뒤 칼레(Paul. E. Kahle)는 키텔의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본문을 전격적으로 ‘벤 아셰르 마소라 본문’으로 바꾸고는 키텔의 이름을 붙여서 1937년에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3판을 출간하였다. 키텔의 작품이 아님에도 보통 키텔의 「비블리아 헤브라이카」(BHK) 3판으로 불리는 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마침내 1967/1977년판 「슈투트가르트 비블리아 헤브라이카」(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BHS)로 개정 출간되었다.

יהוה יהוה א בישת סודו מעט ספוא ויהוה
אני יהוה מוקדן

לא ימטר

על כל הרקן ו הנה אנכי רבתי ויבטח אל יסלד עינו ויאמר גיענו ונזנח ויעמד וייעזר
וגני ויהי נתיקתו ויהיה ויהוה יהוה א ויהי ויהי ויהוה יהוה א ב כי כנפח שלמים ויהוה יהוה א

קדש לחוה

גדעו ערך העם יב הרק
אתם אל חמים ואמר
לדשם ויהי אשר אמר
אלוה ויהוה אמה הוא
ולד אתו וכל אשר אמר
אלוה יה לא ידך עמך הוא
לא ידך ויהוה א את העם
אל חמים ואמר ויהוה א
גדעו כל אשר ידך בלשונך
מהמים כאשר ידך בכלב
תעצ אותו לכו וכל אשר
יכרע על ברכיו לשתות
ויהו מספר המלק קוס בנים
אלפים שלש מאות איש
וכיהת העם כדע עז
ברכיהם לשתות מים
ואמר ויהוה א גדעו
בשלש מאות האיש כי
המלק קוס איש אתכם
ותתו את מדו בנהך וכל
העם יכרעו למקד ויהוה א
את עדה העם בנים ואת
שופרותם ואת כל אשר
ישאלו לראש האיש לא ידכו
וכשר שלש מאות האיש
תחורז ומחנה מדו תהיה לו
מתחבבק
ויהוה א בל לח הוא ויאמר

והחלו וישבם ממדתו ויהוה א
את העם וימץ טל מזחמה
מלא חספם מים ויאמר
גדעו אל האל חים אל
והו אפך ברו ואלכה אף
הפעם אנסה נא בך הפעם
בנה ויהוה א חרב אל
העז לכה ועל כל הארץ
והחמור יעש אל חים
כבבל לח הוא ויהוה א
א העז לכה ועל כל
הארץ החמור
וישכס רדעל הוא גדעו
וכלה עם אשר אתו ויחנן
על עו חרו ומחנה מדו
הנה לו מצפון מגבעת
המורה בעמק
וואמר ויהוה א גדעו
כח העם אשר אתך מתוך
את מדו בנה פוחת פאר
על וישאלו לאמר ויהו
חשיעו לך ועמך קריא
א באנע העם לאמר מי
והו ויהוה א וישב ויעפר מוח
העל עו וישכמו העם
עשרים ושלש אלף כי
ויעשרת אלפים נשאר
ואמר ויהוה א

מזחמה על כל ברת האשה
אשר עליו ואמר וואש
לכל אשר עמך ועל האדם
התימן לבעל אם אתם
חשיעו אותו אשר ירוב
לו וימץ עד הבקר אמי
אל חים הוא רב לו ומעט
את מבחו ויהוה א לו בים
ההוא ויבדע לאמר ירוב
בו חפץ למען את מבחו
וכל מדו ועמלק
ועתה נא חספיהו ויעז
ויהוה א בעמק חוה אלוהו
ויהוה א לכה את געו
ויהוה א עבשו ויהוה א ויהוה א
אתרו ויהוה א בים של חבב
מנשה ויהוה א ויהוה א חוה
וכל בים של חבב אשר
וכב לו ויבטחו ויעז
לקרן אתו ויאמר גדעו
אל האל חים אם נשך
מי שיעבדו אתי שרא
באשר דברתי ויהוה א
מנו את גת הצמר בנה
אם טר יהוה א על גת
לכה ועל כל הארץ חוב
יהוה א כיהת שיעבדו
אתו שרא באשר דברתי

יהוה א ב ידו ויהוה א עז ידו ויהוה א

ויהוה א את העם ויהוה א ויהוה א
לד בים סודו יהוה א עז ידו

ויהוה א ויהוה א ויהוה א
ויהוה א ויהוה א ויהוה א

<전통 마소라 본문>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 본문과 다르다. 페이지 상단의 본문 자체도 많이 바뀌었고 페이지 하단 각주에는 구약 전체에 걸쳐 20,000-30,000군데에 달하는 권고 수정 항목이 빼곡히 수록되어 있다.

대부분의 히브리어 학과(히브리어를 가르치는 단과대학, 종합대학, 신학교)에서 ‘벤 카임 히브리어 본문’ 대신 ‘벤 아세르 히브리어 본문’을 사용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그들에게는 히브리어든 그리스어든 ‘가장 오래된’ 것이 가장 좋다는 신념이 있다. 같은 이유로 그들은 신약 성경에서도 전통 그리스어 본문 대신 비평 그리스어 본문을 사용한다. 과연 그럴까? 내가 확실히 알고로는 ‘B’(바티칸 사본)와 ‘알레프’(시내 사본) 같이 소위 ‘오래된’ 신약 성경 본문들과 이와 관련된 43개의 문서들은 신약 성경이 기록된 이후 100년 사이에 존재한 이단들에 의해 오염된 것들이다. 따라서 그것들이 가장 오래되었을지라도 이단들의 손을 거쳤으므로 결코 가장 좋다고 말할 수는 없다. 반대로 훗날 기록된 본문일지라도 원문에 충실하다면 그것을 써야 하지 않겠는가? 킹제임스 성경은 이렇게 원문에 충실한 본문들을 따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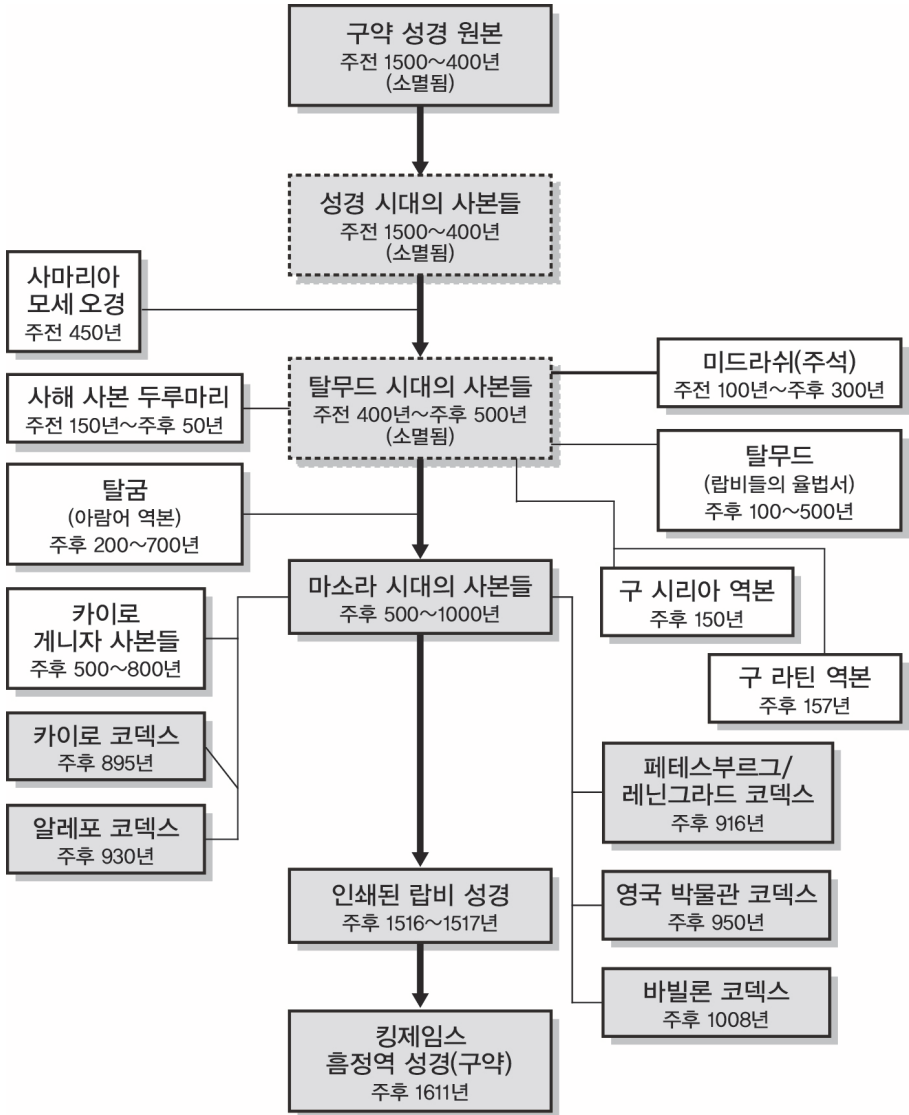
이후에 키텔의 「비블리아 헤브라이카」는 한 번의 개정 작업을 더 거치게 된다. 그 새로운 판은 1967/77년 슈투트가르트판, 즉 BHS인데 이 역시 동일한 ‘벤 아세르 본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1937년판처럼 레닌그라드 사본을 채택하고 있다.

e. 전통 히브리 마소라 본문을 ‘바로잡는 데’ 사용되었다는 19가지 잘못된 문서들

새로운 역본들이 채택한 것은 비단 BHS나 BHK만이 아니다. NIV 등의 현대 역본들은 19개의 또 다른 거짓 척도를 가지고 전통 구약 마소라 본문에 손을 대고 있다.

지금 인용하려는 문헌은 내가 얼마 전에 펴낸 「전통 히브리어, 그리스어 본문을 벗어난 ASV, NASB, 그리고 NIV」라는 책이다[B.F.T #986]. 나는 이 책에 히브리어 본문과 23개의 그리스어 샘플에서 발견한 208개의 변개 내용을 발췌하여 실었다. 우선 킹제임스 성경의 기초가 된 봄베르그판 마소라 히브리어 본문을 수록했고 이어서 미국표 준역(ASV, 1901), 신미국표준역(NASB, 1960), 신국제역(NIV, 1969)을 실었으며 이어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도 실었다. 결과를 살펴보면 마소라 본문과 킹제임스 성경은 서로 일치하지만 다른 역본들은 여러 군데에서 마소라 본문과 차이를 보인다. 사실 208개 외에도 수없이 많은 변개 사항을 발견하였지만 지면 관계상 생략했다. 우리는 여기서 히브리어 본문을 벗어난 문헌들의 목록 - 다음에 나오는 11개와 함께 NIV 서문 viii-ix쪽에 있는 8개의 문서 추가 - 을 실었다.

(1) ‘70인역’(LXX), 그리스어 구약 역본: ASV, NASB 그리고 NIV는 비교 대상인 구약 성경 구절들의 총 73군데 - [B.F.T #986]에 자세히 분석된 208개 차이 중 35%에 해당함 - 에서 히브리어 본문보다 ‘70인역’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였다. ‘70인역’은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그리스어 번역본으로 사실 매우 부실한 번역본이다. 구약의 여러 부분에서 ‘70인역’은 거의 의역성경인 ‘리빙 바이블’에 가깝게 번역되었다. 이것은 대부분 의역에 의존했으며 이로써 구약 성경 본문이 상당히 변질되었다. 위에 언급한 문헌[B.F.T #986]의 서두에서 우리는 이 ‘70인역’에 대한 분석을 실었고 이것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번역인지 제시하였다. 그리고 「국제표준성경백과사전」의 인용과 몇몇 논평을 빌어 ‘70인역’이 아닌 마소라 본문을 채택해야 하는 이유를 실었다.



<킹제임스 흠정역 구약 성경>

(2) **추측**: 208개 중 67개의 예 - 횡수로는 전체의 32% - 에서 그들은 단지 추측만으로 마소라 본문을 제외하였다. 비교 대상이 되는 어떤 히브리어나 그리스어, 라틴어 본문도 없는 상태에서 그들은 짐작만으로 그렇게 했다. 즉 어떤 근거도 출처도 없이 마음대로 번역한 것이다. “자,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이것이 전부이다. 앞에서 내가 델러스 신학교에서 히브리어를 공부했던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영거 박사가 담당 교수였다. 하루는 키텔 성경, 즉 각주를 포함한 루돌프 키텔의 「비블리아 헤브라이카」를 가지고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영거 박사님이 단어 하나를 마소라 본문과 다르게 해석하셨다. 그는 키텔 성경의 각주 중 하나를 그 근거로 들었다. 나는 손을 들고 물었다. “영거 박사님, 이건 본래 히브리어 본문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가 대답했다. “그냥 이런 식으로 읽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다.” 그가 이렇게 말한 데는 이유가 있다. 키텔 성경의 각주를 훑어가다 보면 간혹 밑에 ‘L’이라는 문자를 볼 수 있을 것이다. ‘L’은 라틴어로 ‘legendum’을 나타내며 이것은 “-라고 해석한다, 읽는다.”라는 뜻이다. 이것은 보통 어떤 증거나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본문을 바꾸고 싶을 때 사용한다. 어떤 출처든 간에 - ‘70인역’이든 다른 역본이든 라틴 벌게이트든 - 주석에는 “라틴 벌게이트에는...”이라는 방식으로 출처를 밝히게 되어 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단지 ‘L’이라는 문자 하나만 보인다. 가령 창세기 1장 9절 주석에서 우리는 이 ‘L’을 발견할 수 있다. 그 ‘L’ 뒤에는 ‘아마도 이것은’(probably this)이라고 적혀 있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읽는 데는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도 문헌도 없다는 것이다. 사실 이것은 억측이요 짐작이다.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 주먹구구식으로 성경 말씀을 선택하고 결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적어도 그들에게는 이 방식이 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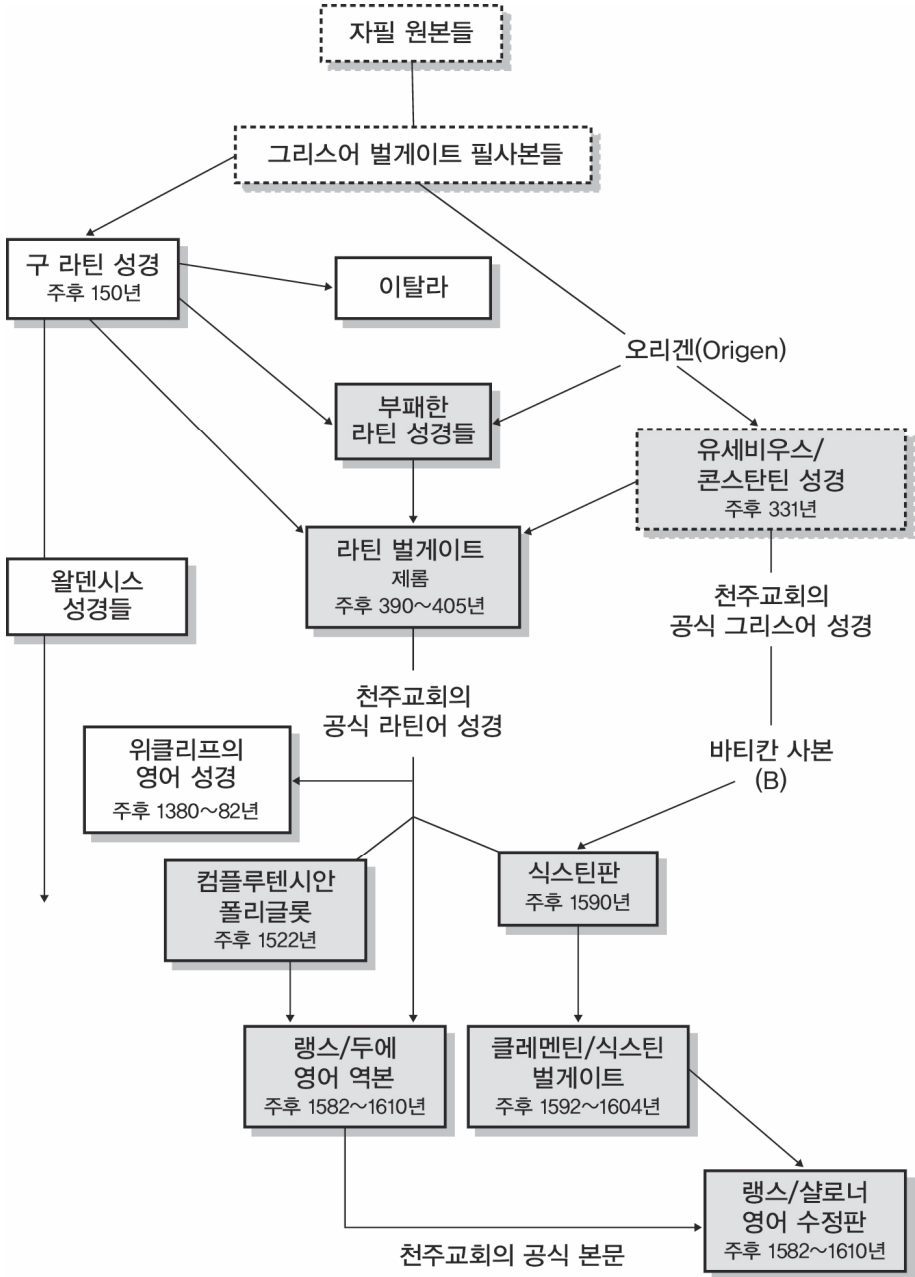
(3) **시리아 역본(The Syriac Version)**: 그들은 208개 중 20개의 예 - 횡수로 전체의 10% - 에서 마소라 히브리어 본문 대신 시리아 역본을 사용했다.

(4) **소수 히브리어 사본(A Few Hebrew Manuscripts)**: 가끔 ‘소수’ 히브리어 사본들이 마소라 본문을 고치는 데 사용되었다.

(5) **라틴 벌게이트(Latin Vulgate)¹³**: 가끔 라틴 벌게이트(라틴어 성경)가 마소라 본문을 고치는 데 사용되었다.

(6) **사해 두루마리(Dead Sea Scrolls)**: 208개 중 8개의 예 - 횡수로는 전체의 4% - 에서 사해 두루마리가 마소라 본문 대신 사용되었다. 1982년 나와 내 아내는 이스라엘을 방문할 기회를 가졌다. 거기서 소위 사해 두루마리가 발견되었다는 쿠파 동굴에도 가 보았다. 사해 두루마리는 에세네파 사람들이 보존했다고 한다. 사해 두루마리 중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지금의 성경과 거의 차이가 없다. 알려지기로는 에세네파가 히브리어 성경 두루마리 중 일부를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이곳으로 피신했다고 한다. 그렇지만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토록 정성을 들여 지켰던 마소라 본문을 놔둔 채 우리가 사해 두루마리를 사용할 이유가 있겠는가? 이 에세네파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던 히브리어 회당을 떠난 사람들이다. 즉 그들은 자기 조상들이 지켜 왔던 유대교의 믿음을 버린

13) 이것은 AD 400년경에 카톨릭교회의 필요에 따라 제롬이 번역한 성경을 말하며 한국에서는 ‘불가타’라고 부르기도 한다. 제롬의 벌게이트가 나오기 전에도 ‘구(舊) 라틴 벌게이트’라는 역본이 있었는데 이것은 제롬의 것과는 달리 공인 본문(수용 본문)을 근거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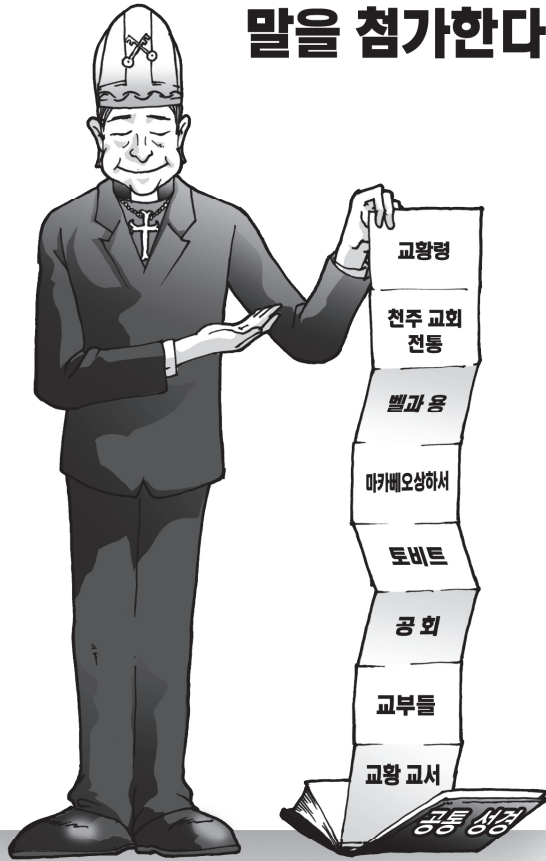
<카톨릭교회 라틴 성경의 부패 과정>

보수주의 학자들은 참 본문에서 삭제한다!



이런 본문은 헤시키우스 본문 혹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본문이라 한다.

**천주교 학자들은
참 본문에 자기들의
말을 첨가한다!**



**이런 본문은
서방 본문이라 한다.**

사람들이다. 그들은 일종의 배도자요, 이단인 셈이다. 이 사해 두루마리가 의심스러운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그들이 가진 본문은 처음에 있던 히브리어 본문을 벗어난 것, 즉 변질된 것일 수 있다. 최소한 몇 군데라도 말이다. 둘째, 그들은 본문 전달 과정에서 부주의했을 수 있다. 이런 불확실한 점들 때문에 사해 두루마리는 결코 마소라 본문을 대체할 수 없다. 그들의 손에 의해 구약 성경 본문의 여러 곳이 변개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다. 그러나 마소라 본문은 이처럼 갑자기 등장한 본문이 아니다. 세세히 보존된 역사가 있는 본문이다. 그런데 어떤 역자들은 성경의 일부분을 이 마소라 본문 대신 사해 두루마리에 근거하여 해석하고 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7) 아퀼라(Aquila)¹⁴⁾: 가끔 그리스어 구약 역본 중 하나인 아퀼라가 마소라 본문을 고치는 데 사용되었다.

(8) 사마리아 모세 오경(Samaritan Pentateuch): 가끔 사마리아 모세 오경이 마소라 본문을 고치는 데 사용되었다. 사마리아 모세 오경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용했던 모세의 책 다섯 권을 담고 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합된 민족으로 정통 유대인들의 것과 다른 구약 성경 역본을 가지고 있었다.

(9) 제롬의 인용문들(Quotations from Jerome): 가끔 라틴 벌게이트를 번역한 제롬이 인용한 문구들이 마소라 본문을 고치는 데 사용되었다.

(10) 요세푸스(Josephus): 가끔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그는 구원받지도 않았다)를 근거로 마소라 본문이 변개되었다.

(11) 고대 히브리어 필사 전통(An Ancient Hebrew Scribal Tradition): 가끔 고대 히브리어 필사 전통이 마소라 본문을 고치는 데 사용되었다.

(12) 키텔의 「비블리아 헤브라이카」나 그 이후의 BHS: 이것들은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참된 기초가 될 수 없는 변개된 히브리어 구약 성경 본문이다.

(13) 여백에 있는 히브리어 이문(A Variant Hebrew Reading in the Margin): 이것 역시 믿지 못할 출처로서 전통 마소라 히브리어 본문에 대항하고 있다.

(14) 다른 방식으로 나누어진 자음 본문의 단어들(Words in the Consonantal Text Divided Differently): 현재 히브리어 자음을 나누는 방식에는 문제가 없다. 이것들을 달리 나눌 필요가 없다.

(15) 시마크스(Symmachus): 이것 또한 그리스어 구약 성경 역본인데 이 책이 마소라 히브리어 본문을 대신할 자리는 없다.

(16) 테오도티온(Theodotion):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리스어 구약 성경 역본이다. 마소라 본문을 반박할 목적이라면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해야 할 책이다.

(17) 탈굼(Targums): 탈굼도 구약 성경의 근거로 권위를 인정받을 수 없는 문서이다. 이 문서는 마소라 본문을 대체하기 위해 존재하는 문서가 아니다.

14) 오리겐의 ‘헤사플라’의 셋째 난에는 아퀼라의 그리스어 구약 성경 역본이 있다.

(18) 시편의 경우 제롬의 헤브라이카(Juxta Hebraica of Jerome for the Psalms): 이것도 참된 구약 성경기록이 아니다. 그저 시편에 대한 자료 중 하나일 뿐이다.

(19) 서로 다른 히브리어 모음군(A Different Set Of Hebrew Vowels): 위에서 자음군에 대해 말했듯이 모음군도 마찬가지이다. 현재의 모음군에는 문제가 없으며 또 다른 모음군이 필요하지 않다. 이것 역시 있는 그대로 두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 보존하셨다.

f. 히브리 마소라 본문에 대한 나의 결론

히브리 마소라 본문에 대해 나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다니엘 뵘베르그판 마소라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일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발견되기도 한다. 가령 왕이 18살이 되기도 하고 8살이 되기도 하는 경우이다.¹⁵⁾ 그렇지만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나는 우리가 전통 마소라 본문을 있는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믿는다. 모순처럼 보이는 부분은 주님께서 풀어 주시도록 맡기면 된다. 우리는 그저 주님께서 주시고 여러 세대를 거쳐 보존하신 것을 지킬 뿐이다. 나머지는 주님의 몫이다. 18살이 될 수도 있고 8살이 될 수도 있다. 여기에는 우리가 모르는 어떤 조화가 있을 것이다.

새 역본들의 편집자들은 마소라 본문과 관계없이 자기들 성경에다 나름대로 주석을 갖다 붙였다. 순전히 추측만으로 판단해서 결정하는 경우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그러니 그들의 결정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은 그냥 두어야 한다.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은 그냥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을 보고 그것을 그대로 영어로 옮겼다. 본문을 두고 알가알부하지 않았다. 뭐 어떻게 잘 맞춰 보려는 시도도 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이사야서 9장 3절에는 ‘not’(LO)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현대 역본들에는 이것이 없다. “주께서 민족을 번성하게 하시되 기쁨을 더하지는 아니하셨나이다...”(Thou hast multiplied the nation, and not increased the joy:...). 여기서 ‘not’을 빼면 의미가 잘 통할 것 같아 새 역본들은 한결같이 이것을 빼버렸다. 하지만 히브리어 본문에는 분명히 ‘not’이 있다.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은 단순하게 이것을 그대로 반영했고 충실히 자기 할 일을 했다.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의 근간이 되는 전통 마소라 히브리어 본문을 부끄럽게 여길 필요가 없다. 마소라 본문은 로마서 3장 1-2절의 성취로서 유대인들이 모은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버건(John William Burgon)의 ‘히브리어 본문을 손보려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시도’[John Willam Burgon, Late Dean of Chichester - A Biography, 1892, by Edward Mayrick Goulburn, Vol. II, p.24에서 인용, B.F.T #1619 참조]라는 표현은 참으로 적절하다고 본다. 그렇다. ‘히브리어 본문을 손보려는 죄를 범한’ 사람은 누구나 터무니없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 우리는 히브리어 본문을 있는 그대로 놔두어야 한다.

15) 왕하22:3-4와 대하34:3-4에 나오는 요시아 왕의 나이와 개혁 사건을 말한다. 이 두 부분은 두 개의 개혁 사건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다.

3. 예수님께서 권위를 인정하신 구약 히브리어 본문

구약 성경기록은 단순히 유대인들이 수집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그 권위를 인정받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통 마소라 히브리어 구약의 권위를 인정하셨던 것이다. 앞서 성경 보존이라는 주제로 관련 성구들을 살펴보긴 했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한 번 더 살펴보기로 하겠다.

a. 이런 입장을 보여 주는 성경 구절들

(1)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님께서 마귀를 성경기록의 말씀들로 논박하신다.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앞서 살펴본 바대로 ‘기록된 바’(it is written)는 완료 시제이다. 이것은 즉 과거에 기록되어 지금도 그때에 기록된 그대로 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말하며 따라서 성경 말씀이 현재까지 보존되고 있음을 뜻한다. 이로써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당시 자신의 손에 있던 구약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셨던 것이다. 구약 성경의 처음 5권 책은 본래 BC 1500년경 모세가 기록하였다. 그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 말씀들(단어들)은 1,500년 간 보존되었다. 주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두고 ‘기록된 바’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들(단어들)이 과거에 기록되었고 바로 그 말씀들이 현재까지 보존되고 있다는 뜻이다. 처음에 기록된 대로 지금도 그렇게 있다. 이것이 바로 성경 보존의 핵심이다.

(2) 마태복음 5장 17-18절: 여기서 예수님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은 성경에서 전통 마소라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가리킬 때 쓰는 대표적인 표현이다. 구약 성경은 보통 크게 율법(Law), 대언서(Prophets) 그리고 기록서(Writings)의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때로는 ‘율법과 대언자들’이란 표현으로 구약 성경 전체를 대신하기도 한다. ‘율법’(Torah)은 처음 다섯 권의 책들을 말하며 ‘대언서들’(Naviim)은 전후기 대언서들을 가리키며 ‘기록서’(Kethuvim)는 시편과 다른 책들을 모두 포함한다. 여기 17, 18절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일점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단 성취되리라.

예수님은 당시 히브리어 성경에 있는 단어들과 문자들 그리고 그 문자들의 각 부분을 모두 언급하시며 이 모두가 성취되기 전에는 그중 일점일획도 없어지거나 삭제되거나 조금이라도 바뀌지 않을 것임을 말씀하셨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친히 당시 있었던 전통 마소라 히브리어 본문의 권위를 인정하셨다.

(3) 누가복음 24장 27절: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두 제자에게 가르치신 내용이다.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니라.

여기에는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이라는 문구가 있다. 비록 ‘기록서’(Writings)라는 표현이 없긴 하지만 이것 역시 히브리어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 말씀 또한 주 예수님께서서 당시 존재했던 전통 히브리어 마소라 구약 성경 본문의 권위를 인정하셨음을 보여 준다.

(4)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 곧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하는 말들이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 너희에게 한 말들이니라, 하시고

여기의 ‘기록된’(written)에 해당하는 그리스어는 ‘게그람메나’(gegrammena)인데 이것 역시 완료 분사로 처음에 기록된 것이 계속해서 보존되어 현재까지 남아 있다는 의미이다. 이번 말씀에는 ‘시편에서’라는 문구가 추가되어 앞에 말했던 구약 성경 정경의 세 부분, 즉 모세의 율법, 대언자들의 글, 그리고 기록서가 다 있다. 오늘날 유대인들은 이것을 통틀어 ‘타낙’(Tanach)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Ta’는 ‘Torah’(율법)에서, ‘Na’는 ‘Naviim’(대언자들의 글)에서, ‘Ch’는 ‘Kethuvim’(기록서)에서 각각 나왔다. 그래서 ‘타낙’은 마소라 히브리어 본문 전체를 나타내는 약자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시 존재하던 마소라 히브리어 구약 성경 본문 전체에 자신의 손을 얹어서 권위를 부여하셨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 보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70인역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서 구약 성경의 70인역을 인용하신 적은 없습니까?” 물론 없다. 예수님께서서는 모세의 율법, 대언자들, 그리고 시편 기록들을 말씀하셨다. ‘70인역’은 결코 이런 식의 구분을 갖지 않는다. 사실 ‘70인역’은 외경을 제외하면 율법, 시편, 그리고 대언자들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에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본문은 율법, 대언자들, 그리고 시편의 순서로 되어 있다. 보다시피 ‘70인역’의 순서는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순서와 비슷하다. 그러나 실제로 히브리어 구약 성경 본문의 순서는 이와는 다르며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은 역대기하이다.

b. 이런 입장을 보여 주는 인용문들

(1) 힐즈(Edward Hills) 박사의 말: 여기서는 힐즈 박사의 글을 인용하였다. 그는 성경이라는 주제에 관한 여러 글을 남겼는데 다음은 그 일부를 인용한 것이다.

이 땅에 계실 때 주 예수님은 구약 성경 본문에 있는 바로 그 말씀들을 그대로 인용하셨다(마22:42; 요10:34-36 등). 이것은 예수님께서서 이 본문이 정확하게 전해졌음을 확신하고 계심을 보여 준다. 뿐만 아니라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그런 확신을 뒷받침하셨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일점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마5:18). 이 말씀으로 우리는 주 예수님의 공생애 당시 널리 쓰이고 있었던 구약 성경 말씀들(단어들)이 과거 모세와 및 성경 기록자들이 기록한 원본의 완전한 사본들로서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음을 확신하게 된다. [힐즈의 「Believing Bible Study」, 5-6쪽]

주 예수님께서서는 결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어떤 본문도 단어도 문자도 반박하지 않으셨다. “자 여기서는 모세의 글이 잘못 인용되었다. 본래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본문 비평 같은 것도 하지 않으셨다. 바뀐 게 있었다면 분명히 고치셨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말씀들이 기록된 그대로 보존되어 있기 때문이다. 마소라 히브리어 본문에는 예수님의 인증이 찍혀 있다. 예수님의 권위가 있다. '70인역'이나 라틴 별게이트, 몇몇 필사 전송, 요세푸스, 제롬, 시리아 역본, 기타 어떤 문서도 마소라 본문처럼 예수님에게서 권위를 인정받지 못했다.

(2) 윌슨(Robert Dick Wilson) 박사의 말: 다음은 장로교인으로서 현대주의가 밀려오기 전에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교수로 있었던 윌슨 박사의 글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코리(Henry Corey)는 윌슨 박사를 45개국 언어와 방언에 능통하고 성경의 축자적 영감을 믿는 지조 있는 사람이라고 했다. 또한 코리는 윌슨이 분명히 마소라 히브리어 본문을 정확한 본문으로 받아들였다고 했다. 코리는 윌슨의 글을 다음과 같이 인용했다.

내가 마소라 본문을 30년간 연구한 뒤 내린 결론 [즉, 윌슨 자신이 히브리어 성경을 연구하여 쓴 내용]은 이것이다. 나는 구약 성경에 의심할 만한 페이지가 하나도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처음부터 있었고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손에 있었던 구약 성경 본문이 사실상 지금 우리에게 있다. 여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풀러(Dr. David Otis Fuller)의 「Which Bible」 1판, 80-81쪽]

그는 수많은 연구 끝에 마소라 히브리어 본문이 정확하고 온전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의 근간이 된 마소라 히브리어 본문, 즉 정확히 말하자면 벤 카임이 편집한 '다니엘 뵘베르그판' 혹은 '제2 랍비 성경' 외에 다른 구약 성경의 기초를 찾을 필요가 없다.

c. 이런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는가?"라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킹제임스 성경 번역의 모체가 되는 '다니엘 뵘베르그판' 마소라 히브리어 본문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말이다. 다른 선택은 말 그대로 다른 기초를 수용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다른 기초를 받아들일 것인가? 한때, 즉 1906년과 1912년에는 킹제임스 성경과 같은 본문 기초를 가지고 있었지만 1937년에 다른 히브리어 본문으로 개정되어 폐물이 되어 버린 키텔의 BHK를 쓰려는가? 아니면 키텔 성경을 기반으로 개정된 1967/77년의 BHS를 쓰려는가? BHK나 BHS 중에서도 페이지 상단에 있는 불완전한 히브리어 본문을 기초로 사용하려는가, 아니면 그 아래 20,000-30,000군데에 달하는 변개 항목을 담은 각주를 기초로 삼으려는가? 각주를 쓰셨다면 어느 각주를 말하는가? NKJV가 사용했던 부분인가? NASB가 사용했던 부분인가? 아니면 NIV가 사용했던 부분인가? 전부 다 가져다 쓰려는가? 아니면 25%? 아니면 50%? 아니면 "무엇이 구약 성경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라고 말하며 아예 회의론자가 되려는가?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확실한 게 없어. 그러니 어느 것 하나도 믿을 수가 없지." 이런 입장인가? 이런 거짓된 의심의 주인이며 이 모든 혼란의 장본인은 사탄이다. 하나의 기준을 붙잡지 않으면 의심의 바다에서 표류할 수밖에 없다. 기준은 말 그대로 기준이며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없다. 수년 동안 교회에 출석했지만 정작 주님을 알지 못하는 젊은이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 "올바른 히브리어 구약 성경 본문에 대해서는 신학자들과 목사들 사이에도 의견이 분분하고 언쟁이 끊이지 않는데 나라고 별 수 있겠는가? 난 포기했다."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혼란과 의심의 씨앗을 심을 수만 있다면 그는 승자가 된다.

이 주제에 관한 오랜 연구와 심사숙고와 기도 끝에 나는 이 전통 마소라 히브리어 본문에 관한 한 치의 양보도 있을 수 없다는 강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 나는 거기서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어떤 것도 바꾸지 않을 것이다. 거기 그대로 서 있을 것이다. 마르틴 루터는 말했다. “내가 여기에 서 있나이다. 나는 다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는 ‘믿음에 의한’(sola fide) 구원, ‘은혜에 의한’(sola gratia) 구원, ‘성경에 의한 구원’(sola scriptura)에서 떠나지 않으려 했다. 그는 교황이나 종교 회의의 신조를 따르지 않았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었다. 비록 마르틴 루터 같은 루터교인은 아니더라도 우리는 거기서 떠나서는 안 된다. 거기서 발을 떼는 순간 우리는 바람에 출렁이는 파도처럼 될 것이다.

d. 이런 입장을 거부하는 실례

이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 본문에 대한 이러한 입장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중 한 가지 실례를 들도록 하겠다. 1979년에 출간되어 나온 「NIV Interlinear Hebrew-English Old Testament」라는 책이 있다. 이것은 콜렌버거(John R. Kohlenberger III)가 편집하여 존더번 출판사에서 출간했으며 총 4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존더번 출판사는 소위 성경대로 믿는, 복음적인 출판사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나는 존더번 출판사가 구약 성경 본문에 무슨 일을 했는지 여러분에게 보여 주고 싶다.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초기 두 판과 1937년판 - 를 쓴 루돌프 키텔은 독일의 배도한 이성주의자이다. 그는 ‘모세 오경에 관한 Graf-Welhausen 문서 가설’, 즉 JEDP 이론이라 불리는 거짓 이론을 믿는 사람이다. 키텔은 성경의 무오성을 믿지 않았다. 그는 해서는 안 될 일만을 한 사람이다. 하지만 키텔은 적어도 페이지 상단에 히브리어 본문을 남겨 두었다. 비록 키텔이 사용한 그 히브리어 본문 - 그는 벤 카임 대신 벤 아세르 본문을 썼다 - 도 우리가 신뢰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는 변경한 부분을 각주로 따로 처리하여 히브리어 본문만큼은 있는 그대로 읽을 수 있도록 했다. 이후 BHS에서도 같은 방법이 적용되었다.

그런데 NIV와 존더번 출판사는 무슨 일을 했는지 아는가? 그들은 마소라 히브리어 본문에서 바꾸고 싶은 곳이 있으면 각주를 사용하는 대신 본문 자체를 바꾸어 버렸다. 예를 들어 킹제임스 성경과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에는 창세기 4장 8절이 이렇게 되어 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과 이야기하더니 그 뒤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대적하여 일어나 그를 죽이니라.

And Cain talked with Abel his brother: and it came to pass, when they were in the field, that Cain rose up against Abel his brother, and slew him(영어 KJV).

그러면 NIV를 보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로 가자....

Cain said to Abel, his brother, ‘Let us go out to the fie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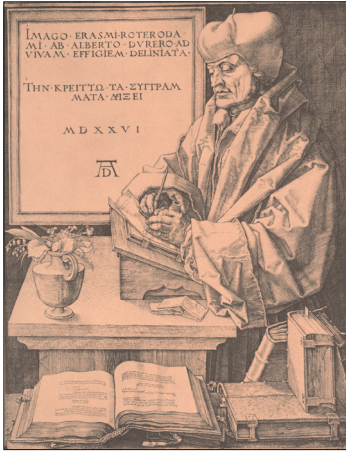


마르틴 루터(1483-15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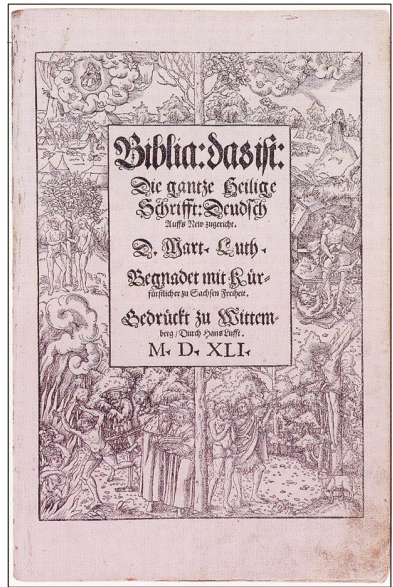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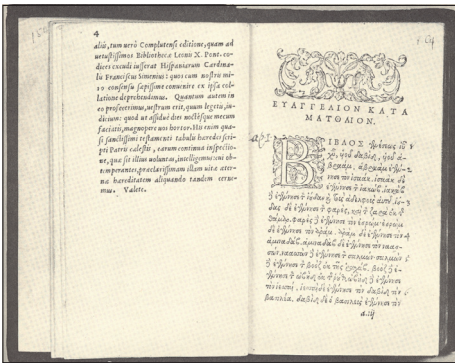
1521년, 보름스 제국 회의에 참석한 황제와 제후들은 그에게 간단한 대답 하나만을 요구하였다. 그것은 그의 개혁 사상을 철회하고 잘못을 인정하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루터는 그들 앞에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였다.

종교 개혁은 내가 고안한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사주를 받아 일으킨 것도 아니며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표현한 것일 뿐입니다. 교황이나 공회들도 반복적으로 실수를 범하며 자기당착에 빠진 것을 나 자신이 목도하였으므로 나는 교황이나 공회들을 믿을 수 없습니다. 나는 거룩한 성경기록에 의해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성경기록의 증언이나 명백한 이유에 의해 나 자신이 확신을 갖지 않는 한 나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고백을 취소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양심을 거스르는 행위는 안전하지도, 합당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기에 서 있나이다.
나는 다른 일을 할 수 없나이다.
오 하나님이며,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에라스무스와 그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



<스테파누스의 그리스어 성경과 루터의 독일어 성경>

히브리어 본문에 과연 이런 말이 어디 있던 말인가? 모든 히브리어 역본들이 이것을 제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콜렌버거는 이것을 버젓이 본문에 넣었다. 그리고 조그마한 글씨로 다음과 같은 각주를 달았을 뿐이다.

이 히브리어 해석과 번역은 위의 각주 1에 있는 초기 역본들을 근거로 추정된 것이다.

그는 무언가 더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추측해서 그냥 본문에다 집어넣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결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키텔이나 슈투트가르트 편집자들과 같은 불신자들도 본문에서 변경하고 싶은 내용이 있을 때 각주로 처리했다. 그런데 소위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콜렌버거와 존더번 출판사는 자기들이 추측한 내용을 버젓이 히브리어 본문에 끼워 넣었다. 전통 마소라 히브리어 본문 자체를 변경하는 주인공이 소위 성경을 믿는 복음주의자들이라니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킹제임스 성경의 구약 성경 기초는 전통 마소라 히브리어 본문 곧 1524-25년에 벤 카임이 편집한 '다니엘 봄베르그판'인 '제2 대(大) 랍비 성경'이다. 첫 번째 봄베르그판은 1516-17년에 나왔으며 '제1 랍비 성경'이라고 불린다. 그 시기에 표준 마소라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나왔고 그것은 무려 400년 동안 지속되었다. 심지어 키텔 성경도 처음 두 판(1906, 1912)은 이 표준을 사용했다. 우리는 이 표준에 굳게 붙어 있어야 한다!

B. 킹제임스 성경이 영어로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그것의 우수한 그리스어 신약 성경 본문 때문이다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이 우수한 신약 성경 본문에 기초하고 있다고 믿는다. 이렇게 믿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킹제임스 성경의 근간이 되는 공인 본문¹⁶⁾ 혹은 수용 본문이 대다수 교회들이 받아들인 본문이기 때문이다. 둘째, 킹제임스 성경의 근간이 되는 공인 본문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먼저 몇몇 배경 지식에 대해 언급하겠다.

1. 오늘날 공인 본문을 적대하는 주요 세력

오늘날 대부분의 대학이나 신학교에서 - 심지어 보수, 근본주의를 표방하는 곳에서도 - 사용하는 신약 성경 본문은 네슬레/알란드(Nestle/Aland)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 26판이다. '26판'이라는 말이 보여 주듯이 이 본문은 지금까지 26번의 개편 작업을 거쳤다. 네슬레는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본문 및 그 당시의 다른 세 가지 판을 기초로 1898년에 자신만의 비평 그리스어 본문을 만들기 시작했다. 내게 있는 그리스어-영어 성경은 1981년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그리스어 신약 성경 26판은 1979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1898년과 1979년 사이에는 81년의 간격이 있다. 그동안에 26번 개정되었으니까 81년을 26으로 나누어 보면 평균 3.1년에 한 번꼴로 새롭게 개정된, 서로 다른 판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이 나왔다는 이야기다! 이 정도면 네슬레/알란드 편집자들이 신약 성경 말씀들의 보존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지 않겠는가?

16)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것은 영어로 'Received Text', 그리스어로 'Textus Receptus'(짧게 TR)라고 하며 국내에서는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인정했다는 뜻의 '공인(共認) 본문'으로 알려져 있다. 본서에서는 이것을 대다수 성도들이 수용했다는 뜻의 '수용 본문'으로도 표기하였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 그리스어 신약 성경인지조차도 모르고 있다. 네슬레/알란드 그리스어 신약 성경은 변개투성이인 1881년판 웨스트코트/호르트 본문과 근본적으로 같은 계열에 속해 있다. 네슬레/알란드 판의 역사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26판은 그리스어/영어 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 영어 본문(RSV)의 저작권이 국가교회협의회(NCC) 앞으로 되어 있다. NCC는 오늘날 배도의 선봉을 달리고 있는 교회협의회이다.

2. 네슬레/알란드 그리스어 본문의 편집자들

네슬레/알란드 본문의 이름은 본래 이것을 편집한 독일 사람 네슬레(Eberhard Nestle)와 알란드(Kurt Aland)의 이름에서 나온 것이다. 네슬레/알란드 본문의 편집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알란드(Kurt Aland, 불신자), 블랙(Matthew Black, 불신자), 마르티니(Carlo M. Martini, 로마 카톨릭 주교), 메츠거(Bruce Metzger, 프린스턴 출신으로 리더스 다이제스트의 편집자로서 이미 배도자로 알려짐), 그리고 위그렌(Alan Wigren, 시카고 출신으로 역시 배도자임)

이들이 네슬레/알란드의 26판 그리스어 신약 성경 본문을 편집한 사람들이다.

3. 현대 영어 역본들의 근간이 되는 그리스어 본문

네슬레/알란드 신약 성경 본문을 기초로 하고 있는 현대 번역본들은 다음과 같다.

1881년도의 영국개역성경(ERV), 1901년도의 미국표준역(ASV), 1960년도의 신미국표준역(NASB), 1969년도의 신국제역(NIV), 1961년도의 신영국성경(NEB)

이 역본들의 대부분은 부록 B에 실려 있다. 네슬레/알란드 본문은 신복음주의자들과 신근본주의자들뿐만 아니라 소위 신학자라 불리는 사람들의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다. 81년 동안 26번의 개편이 있었다는 사실, 즉 3.1년에 한 번씩 새로운 판이 등장했다는 사실은 이 본문을 믿고 있는 사람들과 그 추종자들이 정확하고 바른 그리스어 신약 성경 말씀에 대해 아무런 확신도 갖고 있지 않음을 잘 보여 준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그들과 같은 입장이 될 수 있겠는가? 나는 킹제임스 성경의 근간이 되는 공인 본문을 신뢰한다. 그리고 공인 본문의 가장 정확한 영어 번역이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나는 킹제임스 성경이 영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

4. 킹제임스 성경의 근간이 되는 그리스어 본문

킹제임스 성경은 ‘새 상속 언약’을 뜻하는 ‘HE KainE DiathEKE’라 불리는 본문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트리니테리언 성경공회’가 다시 발간하고 있다. 이 본문은 스크리브너(Frederick H. A. Scrivener) 박사가 만들어 1894년에 최초로 케임브리지 대학 출판사가 출간한 그리스어 본문에서 필사한 것이다. 킹제임스 성경의 기초가 되는 이 공인 본문은 사실상 1598년 베자의 5판 성경이었다. 스크리브너 박사는 자신의 책 「흠정역 성경이 사용한 본문 및 1881년도의 영국 개역 성경에 채택된 변경 사항들을 함께 수록한 그리스어 신약 성경」이라는 책에서 흠정역 성경 편집자들이 베자의 5판보다 다른 8개의

출전들(스크리브너의 책 648-656쪽)을 우선적으로 반영한 190곳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B.F.T #1670]. 이 그리스어 본문이 킹제임스 성경의 근간이 되는 바로 그 본문이다. 그것은 변경된 적이 없으며 지난 381년 동안 개정된 적도 없다. 거기에는 어떤 개정도 필요 없기 때문이다. 이 본문은 다른 말로 전통 본문 혹은 비잔틴 본문, 시리아 본문 또는 그냥 수용 본문(공인 본문)으로 불린다. 이 본문이야말로 그리스어로 된 신약 성경 말씀들을 영어와 다른 언어로 번역할 때 쓸 수 있는 가장 뛰어난 기초요, 유일한 기초이다. 나는 수 세대에 걸쳐 교회를 통해 전해져 내려온 본문이 바로 공인 본문이라고 힘주어 말하고 싶다.

5. 공인 본문은 교회들이 수용했다

앞서 말한 대로 우리가 공인 본문의 우수성을 믿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공인 본문(수용 본문)이 줄곧 교회들이 수용해 온 전통 있는 본문이기 때문이다. 공인 본문은 본문의 진가를 아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 전해져 내려왔다. 둘째, 그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기 때문이다. 즉 공인 본문이 우수한 본문이라는 증거가 있다는 말이다. 우리가 맹목적으로 공인 본문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우리가 왜 이 본문을 사용해야 하는가를 보여 주는 엄연한 역사적 증거가 있기 때문이다.

나는 그러한 역사적 증거의 사슬을 이어 주는 37가지 연결 고리를 제시할 것이다. 나는 교회 역사를 통해 어떻게 해서 그토록 많은 교회와 단체와 조직과 문헌들이 공인 본문을 참된 신약 성경 본문으로, 참된 신약 성경 번역의 기초로 받아들이게 되었는지 보여 주겠다. 신약 성경의 번역은 반드시 그리스어 공인 본문(수용 본문)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거기 기록된 그리스어 말씀들에는 그리스어 신약 성경 원본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으며 성도들은 줄곧 이 본문만을 하나님의 말씀들로 받아들였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6. 공인 본문을 거부한 웨스트코트와 호르트

그 전에도 공인 본문에 대한 산발적인 저항이 있었지만 공인 본문에 대한 협공이 본격화된 것은 1881년부터이다. 1881년에 성공회(영국 국교회) 출신의 이단 신학자(보수를 표방하지만)인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는 공인 본문과 비교해서 5,604군데(내가 직접 세어 봄)나 차이가 나는 자기들만의 비평 그리스어 본문(Critical Greek text)을 출판했다. 그들이 공인 본문에서 더하거나 빼거나 바꾼 부분만 그리스어 단어로 9,970개에 달한다. 이것은 그리스어 신약 성경 본문 한 페이지당 15.4개에 해당하며 이 모두를 페이지로 환산하면 45.9페이지에 달한다. 또한 공인 본문 그리스어 신약 성경 전체에 있는 단어가 140,521개 정도임을 감안할 때 이것은 그중 7%에 해당하는 엄청난 수치이다.

웨스트코트는 성공회의 주교였고 호르트는 케임브리지 대학의 교수였다. 나는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신학적 이단 교리들」이라는 제목의 소책자를 펴낸 적이 있다[B.F.T #595]. 여기서 나는 그들이 직접 쓴 여러 글과 다섯 권의 책을 인용하며 웨스트코트와 호르트가 배교자요 자유주의자이며 믿지 않는 자라는 것을 보여 주었다. 그들은 공인 본문을 변개한 장본인들이다. 특히 그 정도는 호르트가 더 심했다. 호르트는 이 혁명적인 본문을 소개한 입문서를 펴낸 사람이다.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역할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공인 본문과 웨스트코트/호르트 본문이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알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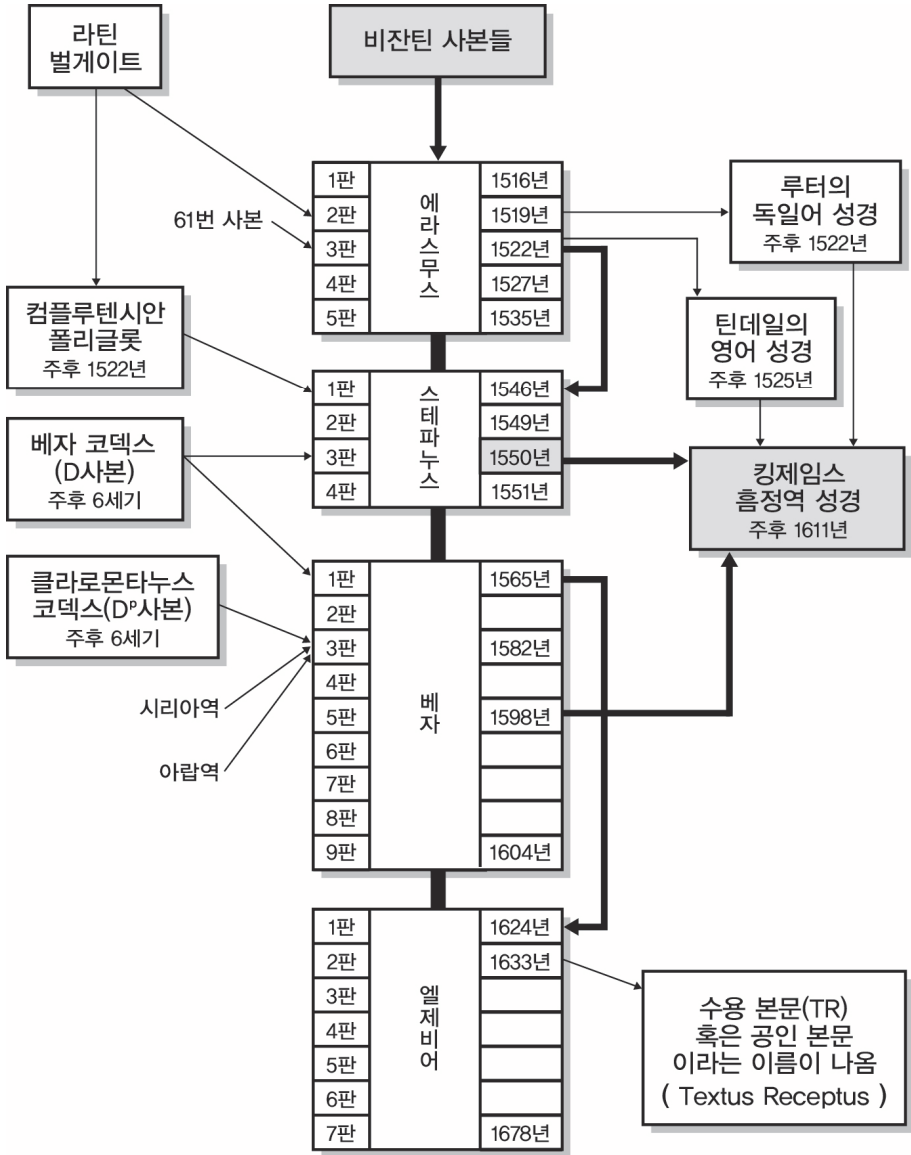
그러면 그렇게 달라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 이유는 호르트가 1882년 자신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 입문을 쓰면서 제시한 530쪽의 오류투성이 학설에 있다. 우리에게는 이 학설을 재판(再版)한 자료가 있다. 관심 있는 독자들은 구해서 한번 읽어 보기 바란다 [B.F.T #1303]. 그의 이론이 얼마나 오류와 모순으로 가득한지 볼 수 있을 것이다. 호르트는 당시 영국, 스코틀랜드, 독일을 비롯한 대서양 이편저편에서 학계 전체를 흔들었던 인물이다. 와필드(B. B. Warfield)와 그의 장로교회는 호르트를 추종했다. 루이빌에 있는 로버트슨(A. T. Robertson)의 남침례 신학교 같은 침례교 신학원들도 호르트를 따랐다. 그러면서 그들은 수백 년 동안 성도들이 써 왔던 신약 성경 본문을 그냥 퇴출시켜 버렸다.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한 때부터 교회가 줄곧 사용해 온 공인 본문을 밀어내고 자기들이 꾸며 낸 새로운 그리스어 비평 본문을 그 자리에 갖다 놓았다.

7. 웨스트코트와 호르트가 공인 본문의 5,600군데 이상을 바꾸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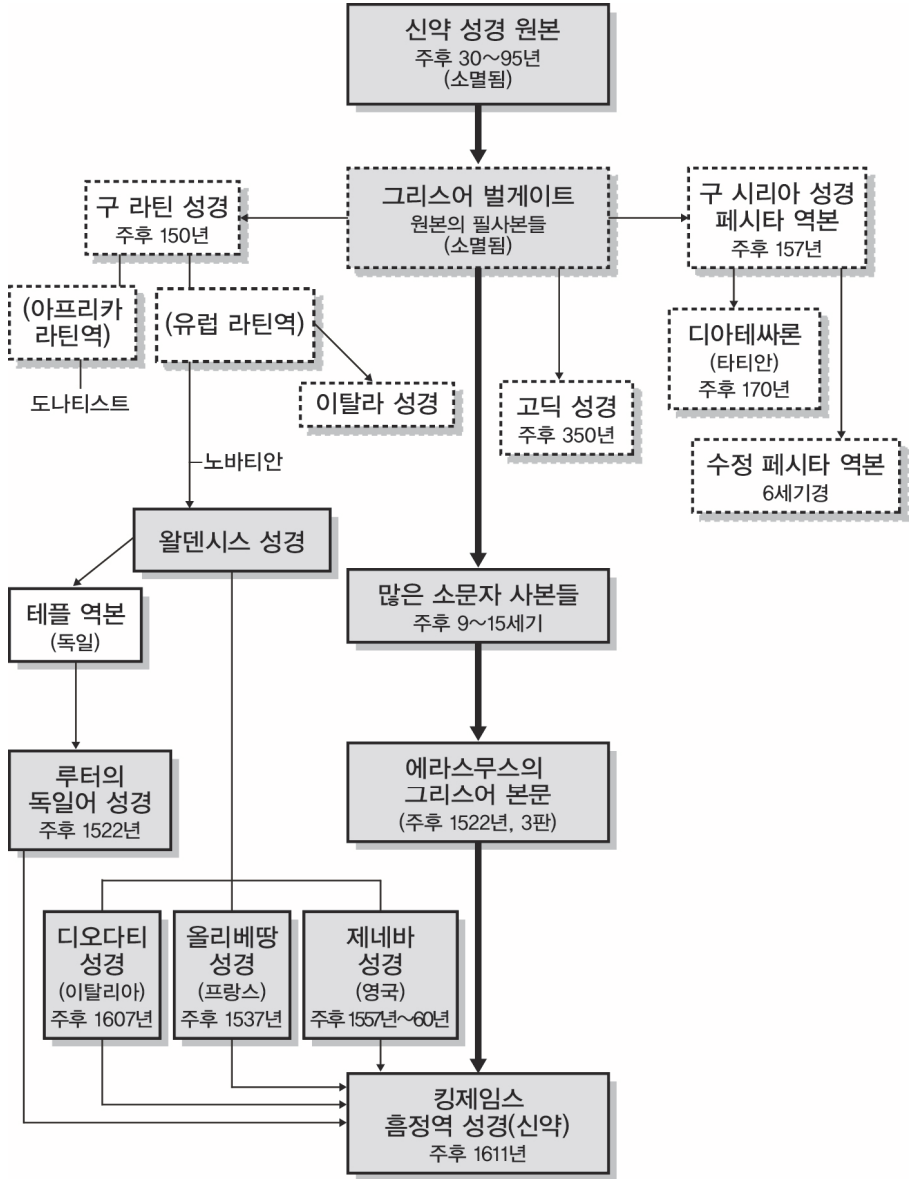
나는 그리스어 신약 성경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다. 1984년 8월 2일까지 앞서 말했던 스크리브너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을 가지고 내가 직접 세어 본 결과 공인 본문과 웨스트코트/호르트의 비평 본문 사이에는 5,604군데의 차이점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5,604개의 변화 중 1,952개는 빠진 것(35%)이고 467개는 더해진 것(8%)이며 3,185개는 바뀐 것(57%)이었다. 여기에는 이렇게 변개와 관련된 5,604군데 말고도 4,366개의 단어가 더 포함되어 있어 총 9,970개의 그리스어 단어가 이 과정에 연루되어 있다. 이 숫자를 647쪽의 스크리브너의 그리스어 본문을 기준으로 나누어 본다면 페이지당 평균 15.4개의 단어가 공인 본문에서 변경된 셈이다. 무어맨(Dr. Jack Moorman) 박사는 공인 본문의 단어들을 세어서 총 140,521개라고 보고했는데 이것을 기준으로 보면 이런 변화들은 전체 단어의 7%이며 이것들을 모두 모아 놓으면 그리스어 신약 성경 45.9쪽을 만들 수 있다. 나는 이것을 표로 만들어 보았다. 그리고 표의 제목을 두 그리스어 신약 성경 사이에 벌어지는 ‘본문 전쟁터’로 했다.

<신약 성경 그리스어 본문들 간의 전쟁터>

공인 본문	공인 본문에서 웨스트코트와 호르트가 변개한 내용
140,521개의 그리스어 단어가 있다. 그리스어 본문은 총 647쪽이다. 페이지당 217개의 그리스어 단어가 있다. 그리스어 단어의 100%가 있다. 647쪽 모두가 그대로 있다.	신약 성경에서 5,604군데가 바뀌었다. 9,970개의 그리스어 단어가 바뀌었다. 페이지당 15.4개의 그리스어 단어가 바뀌었다. 그리스어 단어의 7%가 바뀌었다. 그리스어 본문에서 총 45.9쪽이 바뀌었다.



<공인 본문과 킹제임스 흠정역 신약 성경>



<비잔틴 본문을 사용한 성경들과 킹제임스 흠정역 신약 성경>

무어맨 박사는 1988년 12월 「현대 역본들의 빠진 부분들 - 과연 이야기가 다 들어 있는가?」(*Missing in modern Bibles - Is the full story being told?*)라는 제목의 책을 썼다. 이 책은 BIBLE FOR TODAY가 1989년 4월에 출간하였다. 무어맨 박사는 공인 본문과 네슬레/알란드 본문의 모든 단어를 한 장 한 장 넘겨 가며 다 세어 보았다. 그 결과 네슬레/알란드 본문의 단어가 공인 본문보다 무려 2,886개나 부족함을 발견했다. 이것은 웨스트코트/호르트 본문이 삭제한 단어보다 934개가 더 많음을 뜻한다(1,952개 대 2,886개). 삭제된 2,886개의 그리스어 단어들을 영어 단어로 환산하면 베드로전후서를 만들 수 있다. 무어맨 목사의 책은 81개의 큰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다[B.F.T #1726].

사람들은 말한다. “글쎄요, 뭐 그래도 결국 마찬가지로 아닙니까? 교리가 바뀐 것도 아닌데요.” 그렇지 않다. 바뀐 교리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제5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 여기 공인 본문을 가지고 만든 영어 성경이 있고 네슬레/알란드 26판을 가지고 만든 영어 성경이 있다. 두 영어 성경이 같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수학에는 이런 정리가 있다. “어떤 한 개와 비교해서 같은 것들은 서로 같다.” 따라서 서로 다른 본문에서 나온 두 개의 역본은 서로 같을 수 없다. 네슬레/알란드 본문을 영어로 아무리 잘 번역한다 하더라도 - 그것이 NASB든 NIV든 상관없이 - 그것과 무려 5,600군데 이상 (그리스어 단어로는 무려 10,000개 이상) 차이가 나는 공인 본문에서 나온 킹제임스 성경과 같을 수 있겠는가? NIV나 NASB는 정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의 기초가 되는 그리스어 본문이 진리를 떠나 모든 면에서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즉 그것들은 기초가 잘못되었다.

8. 두 그리스어 본문 사이에는 양립할 수 없는 차이점이 있다

논점이 되고 있는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의 근간 본문들 간의 차이는 매우 본질적이며 서로 조화될 수 없는 것이다. 조화는커녕 혼란만 있을 뿐이다. 교리적인 차이를 살펴보자. 1971년도에 나는 「킹제임스 성경의 근간이 되는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공인 본문에 대한 진실 - 증거와 논쟁 요약」이라는 제목의 책자에서 해당 논쟁을 요약해 놓은 세 권의 책을 분석하여 가능한 한 명료하게 문제를 정리해 놓았다[B.F.T #83]. 이 책자의 후반부에는 ‘킹제임스 성경에 관한 진실’이란 제목의 글을 담았는데 이것은 44개의 서로 다른 신약 성경 역본을 가지고서 삭제 구절과 해당 그리스어 본문 그리고 영어 번역을 비교/분석한 것이다. 이 그리스어 본문들을 서로 비교하는 데는 162개의 핵심 구절들이 사용되었다. 이 핵심 구절들을 기준으로 번역본들을 살펴보면 빠진 구절이나 단어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알 수 있다. 가령 RSV에는 162개의 테스트 구절 중 158개 (97%)가 빠져 있으며 네슬레의 그리스어 본문에는 155개가 빠져 있다(96%).

9. 두 그리스어 본문에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 교리적 차이들

제5장에서 역본들 간의 교리적인 오류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B.F.T #83에서 나는 우선 핵심 구절들을 가지고 목록을 만들고 빠진 부분들을 교리별로 분류하였다. 가령 그리스도의 신성이라는 교리가 있다고 하자. 그러면 나는 우선 관련 구절 세 개를 제시한 뒤 교리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한다. 이런 구절이 총 16개 있다. 둘째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호칭인 주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경우이다. 또한 ‘나신’(begotten)이란 단어를 제거하여 그분의 영원한 아들 되심과 그분과 아버지와의 관계 및 처녀 탄생의 진실을

왜곡하는 구절들도 있다. 이런 내용들은 모두 교리와 관련된 것이다. 이외에도 그리스도의 영원한 세대와 영원한 미래를 나타내는 ‘알파와 오메가’의 사제, 그리스도의 편재하심과 그분의 영원한 미래의 상태, 창조자 되심,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 온다는 진리를 삭제한 것과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 육체적 승천, 육체적 재림, 그리고 그분의 지상 명령 등을 약화한 구절들이 있다. 또한 삭제된 부분들도 많이 있다. 이것이 문제가 된다.

사람들은 대개 이렇게 말한다.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본문에 조금 빠진 것이 있긴 하지만 그것들이 주된 교리와 관련된 것은 아니다.” 과연 그럴까? 빠진 구절들은 주된 교리와 무관하지 않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특정 구절에서 교리 하나를 빼 먹었다 해도 신약 성경 다른 곳에서 그 교리를 다시 발견할 수 있지 않은가?” 글썄, 100개의 다른 구절에서 그 교리가 남아 있다고 한들 빠진 곳이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온전하다고 하겠는가? 불완전하고 결함 있는 그리스어 본문의 기초 위에서는 오직 결함투성이의 역본이 있을 뿐이다.

10. 초기 이단들이 오염시킨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본문

이단들이 왜 성경의 전부가 아닌 일부만 손을 대었는지 아는가? 이단들은 자기들에게 맞는 성경이 필요했다. 그런데 성경이 기록된 후 초기 100년 동안에 변성했던 이단들은 신약 성경의 모든 책을 갖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신약 성경 전체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빼고 바꾸고 짜 맞추어 낼 수 없었다. 그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책에 한해서 그렇게 했을 뿐이다. 그래서 이러한 이단의 난도질을 피한 책들이 있었다. 하지만 하나라도 빠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온전한 것이 아니다. 당신은 몇 구절이 빠져야 성경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들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가? 한 개? 그렇다. 한 개라도 빠지면 더 이상 온전한 말씀들이 아니다. 한 개면 충분하다. 그러나 5,600군데 이상, 10,000개가 넘는 단어가 빠져 있다면 어떤가? 이걸 심각한 문제이다.

11. NIV와 NASB 및 기타 현대 역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유

내가 손에 NIV를 들고 “이것은 영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물론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 그 이유가 무어냐고 묻는다면 나는 만 가지도 넘는 이유를 댈 수 있다. NASB는 어떤가? 마찬가지로. 그러면 NKJV는 어떤가? 대답은 같다. 그러면 킹제임스 성경을 들고 “이것은 영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다. 킹제임스 성경에는 빠진 말씀이 없다.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은 최고의 번역자들의 손에서 가장 정확히 번역된 말씀이다.

12. 나는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학교에서 훈련받았다

「킹제임스 성경에 관한 진실」은 내가 킹제임스 성경의 우수성이라는 주제로 쓴 첫 번째 논문이다[B.F.T #83]. 나는 이것을 1971년에 썼다. 델러스 신학교에서 나는 웨스트코트/호르트의 본문 - 지금은 네슬레/알란드 본문이라 불림 - 을 우선적으로 취급하도록 훈련을 받았다. 변개 작업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1881년까지 사람들이 거의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사용했던 본문은 공인 본문(수용 본문)이었다. 사도들의 시대 이후 거의 1800여 년 동안 교회들이 이 공인 본문을 받아들였다. 그런데 어느샌가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에서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1,800년을 이어온 본문이 어느 날 갑자기 쓸모없이 되어 버렸다. 오늘날 공인 본문을 믿는다고 하면 무시당하거나 못 배운 사람 취급당한다. 네슬레/알란드 본문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으로 인식된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배경에서 1979년에 딘 버건 협회(Dean Burgon Society, 현재 내가 회장으로 있다)가 생겨났다. 이런 이유에서 BIBLE FOR TODAY는 1971년부터 줄곧 성경 본문 이슈에 매달리고 있다. 이 단체들은 대중들에게 성경 이슈의 진실을 알리려 애쓰고 있으며 킹제임스 성경의 기초가 되는 그리스어 공인 본문과 마소라 히브리어 본문을 수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3. 공인 본문을 지지하는 37가지 역사적 증거들

이제 나는 공인 본문을 지지하는 역사적 증거들의 사슬을 이어 주는 37가지 연결 고리를 보여 주려 한다.

a. 공인 본문의 역사적 증거: 사도 시대(AD 33-100년)

- (1) 모든 사도 시대 교회들이 공인 본문을 사용했다.
- (2) 팔레스타인 지방의 교회들이 공인 본문을 사용했다.
- (3) 안디옥에 있는 시리아 교회가 공인 본문을 사용했다.

b. 공인 본문의 역사적 증거: 초대 교회 시대(AD 100-312년)

신약 성경이 완성된 후 처음 100년 동안 초대 교회가 사용했던 공인 본문에 대한 대대적인 변경 작업이 있었다. 이것은 스크리브너 박사와 버건 박사 모두가 동의하는 바이다. 이런 변경의 결과 B(바티칸) 사본과 알레프(시내) 사본을 필두로 대략 42개의 변경본이 쏟아져 나왔고 이것들은 모두 웨스트코트와 호르트 본문의 기초가 되었다. 당시 활동했던 이단들 명단에는 마르시온(Marcion; AD 160년), 발렌티우스(Valentius; AD 160년경), 시린투스(Cyrinthus; AD 50-100년), 시벨리우스(Sibellius; AD 260년경) 등이 있다.

- (4) 페시타 시리아 역본(AD 150년, 2세기)의 기초는 공인 본문이다.
- (5) 66번 파피루스(Papyrus #66)가 공인 본문을 사용했다.
- (6) 북부 이탈리아에 있는 이탈리아 교회(AD 157년)가 공인 본문을 사용했다.
- (7) 남부 프랑스의 골 교회(AD 177년)가 공인 본문을 사용했다.
- (8) 영국의 켈트 교회가 공인 본문을 사용했다.

왜 이 모든 교회들 -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의 교회들 - 이 공인 본문에 기초한 성경만을 사용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공인 본문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AD 150년경에 살았다. 성경이 AD 90-100경에 완성된 것을 감안한다면 그들의 손에는 원본 성경이 쥐어져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존하신 순수하고 정확한 기초 위에서 있었다. 이 교회들은 오로지 공인 본문만을 사용했다. 스크리브너와 버건은 이단들이 대부분 이 시기에 공인 본문을 변경했으며 그중에서도 성경 완성 후 초기 100년 동안에 성경 변경이 가장 심했다고 한다.

- (9)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 교회가 공인 본문을 사용했다.
- (10) 왈덴시안들의 전신이 되는 교회가 공인 본문을 사용했다.
- (11) 왈덴시안들(AD 120년 이후)이 공인 본문을 사용했다.

c. 공인 본문의 역사적 증거: 비잔틴 시대(AD 312-1453년)

- (12) 4세기 고딕 역본이 공인 본문을 사용했다.
- (13) 4-5세기 마태복음의 W 사본이 공인 본문을 사용했다.
- (14) 5세기 복음서의 A 사본이 공인 본문을 사용했다.
- (15) 현존하는 신약 성경 사본의 거의 대부분이 공인 본문을 사용했다. 이것은 전체의 약 99%에 해당하며 5,222개의 사본들 중 5,210개에 달한다.
- (16) 그리스 정교회가 공인 본문을 사용했다. 우리가 그리스 정교회의 교리나 실행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들은 모두 1,000년 이상 공인 본문만을 사용했다. 왜 그럴까? 이것은 그들이 그리스어를 알고 있는 그리스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비록 그들이 현대 그리스인이기는 하지만 그들은 공인 본문에 기초한 신약 성경을 쓰고 있다. 그들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고 있다.
- (17) 현재의 그리스 정교회도 여전히 공인 본문만을 쓰고 있다. 이스라엘 여행 중 우리 부부는 예수님이 탄생한 곳에 세워졌다는 예수 탄생 교회를 둘러보게 되었다. 그 자리에는 큼지막한 교회 건물이 서 있었는데 누가 봐도 예수님이 탄생한 곳으로 보이지 않았고 위치조차 엉터리였다. 그곳은 예수님의 탄생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하나의 관광 상품일 뿐이었다. 사실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곳도 많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곳도 많고 매장되셨다는 곳도 많다. 그 탄생 교회에서 나는 한 그리스 정교회 사제를 만나게 되었다. 나는 몇 가지 궁금한 점을 그에게 물어 보았다. “그리스 정교회 사제시죠?” “예” 그러면서 그는 자기 이름도 알려 주었다. “쓰고 있는 신약 성경도 있겠네요?” “예, 그렇지요.” “무슨 본문을 쓰시나요? 혹시 웨스트코트/호르트 본문이란 것도 들어 보셨나요?” “물론입니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공인 본문을 씁니다. 웨스트코트/호르트 본문도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이다. 그리스 정교회도 여전히 킹제임스 성경의 근간이 되는 공인 본문을 쓰고 있다.

d. 공인 본문의 역사적 증거: 근대(AD 1453-1831년)

- (18) 모든 종교 개혁 교회가 공인 본문을 사용했다.
- (19) 에라스무스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1516년)이 공인 본문을 사용했다.
- (20) 컴플루텐시안 폴리글롯(Complutensian Polyglot, 1522년)¹⁷⁾이 공인 본문을 사용했다. 이것을 편집한 사람은 로마 카톨릭교회 추기경이던 히메네스였다.

17) Ployglot은 한 면에 여러 성경이 들어간 성경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컴플루텐시안 폴리글롯은 왼쪽 난에 라틴어와 함께 그리스어 성경이 있고 가운데에는 라틴어 성경이 그리고 오른쪽에는 히브리어 성경이 있다.

하지만 그가 대부분의 로마 카톨릭교회가 사용했던 웨스트코트/호르트 계열의 본문이 아닌 공인 본문을 썼다는 것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 (21) 마르틴 루터의 독일어 성경(1522년)이 공인 본문을 사용했다.
- (22) 윌리엄 틴데일 성경(1525년)이 공인 본문을 사용했다. 틴데일은 성경 번역 때문에 순교당한, 위대한 성경 역자 중 한 사람이었다.
- (23) 올리베탕의 프랑스어 성경(1535년)이 공인 본문을 사용했다.
- (24) 커버데일 성경(1535년)이 공인 본문을 사용했다.
- (25) 매튜 성경(1537년)이 공인 본문을 사용했다.
- (26) 태버너 성경(1539년)이 공인 본문을 사용했다.
- (27) 그레이트 성경(Great Bible, 1539-41년)이 공인 본문을 사용했다.
- (28) 스테파누스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1546-51년)이 공인 본문을 사용했다.
- (29) 제네바 성경(1557-60년)이 공인 본문을 사용했다.
- (30) 비숍 성경(1568년)이 공인 본문을 사용했다.
- (31) 스페인의 레이나-발레라 성경(1569년)이 공인 본문을 사용했다.
- (32) 베자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1598년)이 공인 본문을 사용했다. 베자의 그리스어 본문이 바로 킹제임스 성경의 기초가 되는 신약 성경 본문이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1598년에 발행된 베자의 5판이었다.
- (33) 체코 성경(1602년)이 공인 본문을 사용했다.
- (34) 이탈리아의 디오다티 성경(1607년)이 공인 본문을 사용했다.
- (35) 영어 킹제임스 성경(1611년)이 공인 본문을 사용했다.
- (36) 엘제비어 형제들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1624년)이 공인 본문을 사용했다.
- (37) 신약 성경의 공인 본문은 말 그대로 성도들에게 수용된 본문이다. 공인 본문은 신약 성경 본문이 기록된 이래로 계속해서 있었다. 이것은 오늘날 신약 성경 원문을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는 유일한 본문이다!

1971년부터 지금까지 이 주제를 연구한 끝에 나는 킹제임스 성경의 근간이 되는 그리스어 공인 본문과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의 말씀들(단어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수 세대를 거쳐 보존해 오신 바로 그 말씀들이며 원어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말씀들이라고 믿게 되었다. 이것은 나의 개인적인 확신이고, 믿음이다. 나는 그 말씀들이 영감된 말씀들이며, 보존된 말씀들이고 오류가 없는 말씀들이며 절대 확실하여 오류를 포함할 수 없는 말씀들이라고 믿는다. 이런 이유로 나는 또한 모든 번역본이 이런 본문에 기초하여 번역되어야 한다고 확고히 믿고 있다.

14.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혁명적 본문

1700년대 후반부터 1800년대 후반까지를 풍미했던 독일의 이성주의가 공인 본문(수용 본문)에 의문표를 달기 전까지 공인 본문은 말 그대로 '모두가 수용한' 본문이었다. 1881년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는 새로운 '영국개역성경'(ERV)을 만들기 위한 그리스어 본문 작업에 동행했다. 역사적으로 교회가 받아들인 본문은 분명히 공인 본문이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호르트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 입문」이라는 책으로 일약 이 분야의 유명 인사로 등극하게 된다. 이 책은 검증되지 않은 가설에 의거한 책이지만 당시 학계를 휩쓸었고 이로써 모든 것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대세로 등장했다. 그리고 공인 본문이

그 표적이 되었다. 초기에는 모든 설교자들이 성경 연구는 잘못된 본문, 즉 웨스트코트/호르트 본문이나 네슬레/알란드 본문으로, 설교는 바른 본문에 기초한 킹제임스 성경으로 했다. 이것은 위선적인 관행이었지만 그들은 이 같은 일을 지속했다. 킹제임스 성경을 믿지 않는 설교자라도 킹제임스 성경을 좋아하는 근본주의자들의 금전적 지원은 포기할 수 없었던 것 같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 뿐 출판사들의 손이 근질거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돈을 만지고 싶었고 그러기 위해선 킹제임스 성경을 다른 어떤 것으로 바꿔야 했다. 또한 당시 교수, 교사, 설교자, 신학자들도 비슷한 생각이었다.

웨스트코트/호르트 본문을 사용하면서도 여전히 본문 기초가 다른 킹제임스 성경을 고수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일이다.

1948-53년 델러스 신학교에 있는 동안 여러 교수들이 내게 미국표준역, 즉 1960년에 나온 NASB가 아니라 1901년에 나온 ASV를 권했다. 그들은 ASV가 가장 좋은 역본이라고 했다. 나는 ASV가 왜 더 좋은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ASV를 높이고 킹제임스 성경을 깎아 내렸다. 그때가 사람들이 공인 본문과 킹제임스 성경을 버리기 시작한 시점이었다. 하지만 ASV(1901년)는 첫걸음도 내딛지 못했다. 사람들은 ASV를 사지 않았다. 그것은 처음부터 실패한 작품이었다.

1881년 영국에서 영국개역성경(ERV)이 맨 먼저 나왔고 이어 1898년에 미국개역성경(ARI)이 출간되었다. 이후 ERV 출판위원회는 후속 작품으로 미국표준역(ASV)을 1901년 미국에서 출판했다. ASV는 웨스트코트/호르트 본문에서 나온 역본이었다. 이후에도 많은 성경 역본들이 등장했다. 그러다가 1960년에 본격적으로 복음주의 성경 신자들과 근본주의 진영을 흔들게 된 역본이 나왔는데 그것은 바로 신미국표준역(NASB)이었다. NASB가 나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ASV가 나왔을 때와는 사뭇 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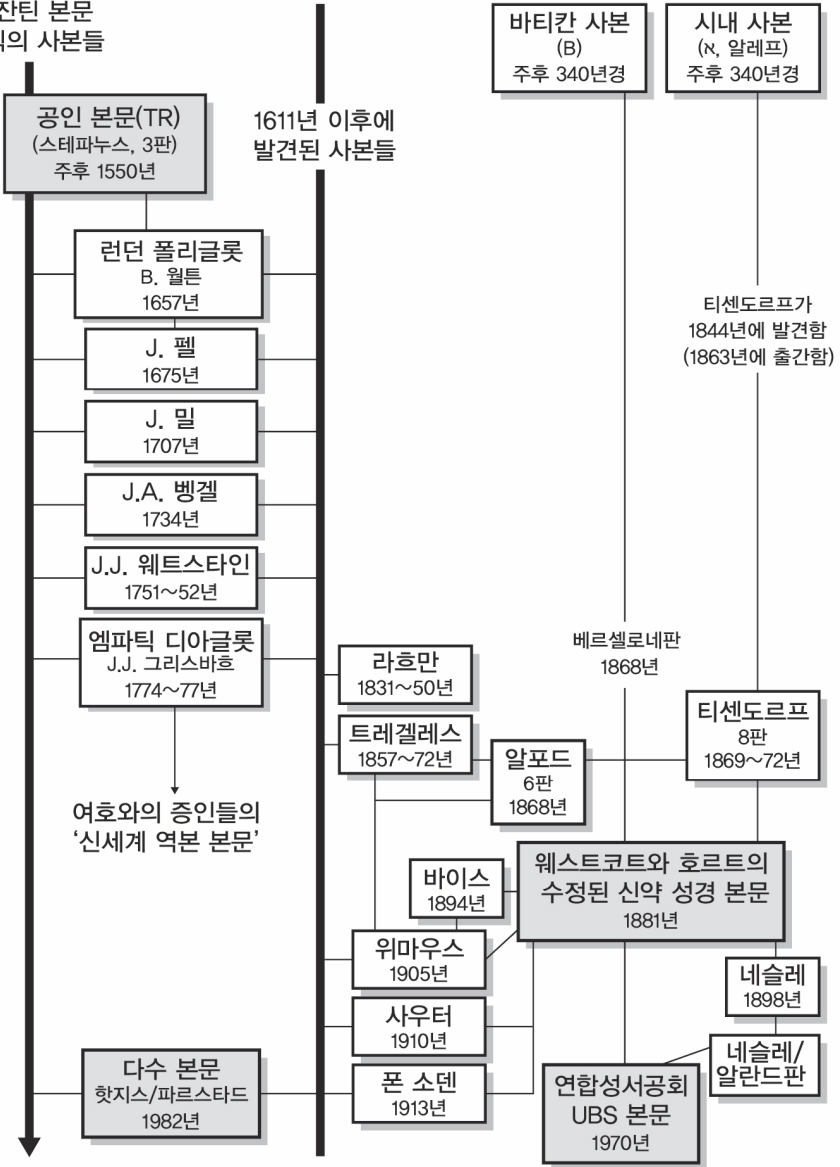
자, 이제 시대가 바뀌었고 그리스어를 영어로 번역할 때에도 조금 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NASB를 추천한다.

NASB가 나왔을 때 누구도 그것이 신약 성경의 공인 본문과 비교해서 5,600군데 이상(10,000개 이상의 그리스어 단어 포함) 다르다고 말하지 않았다. 구약 성경도 마소라 전통 히브리어 본문이 아닌 다른 본문을 사용하였다고 말하지 않았다. NASB를 파는 사람들은 그저 이해하기 어려운 킹제임스 성경 대신 NASB를 사용해 보라고 말했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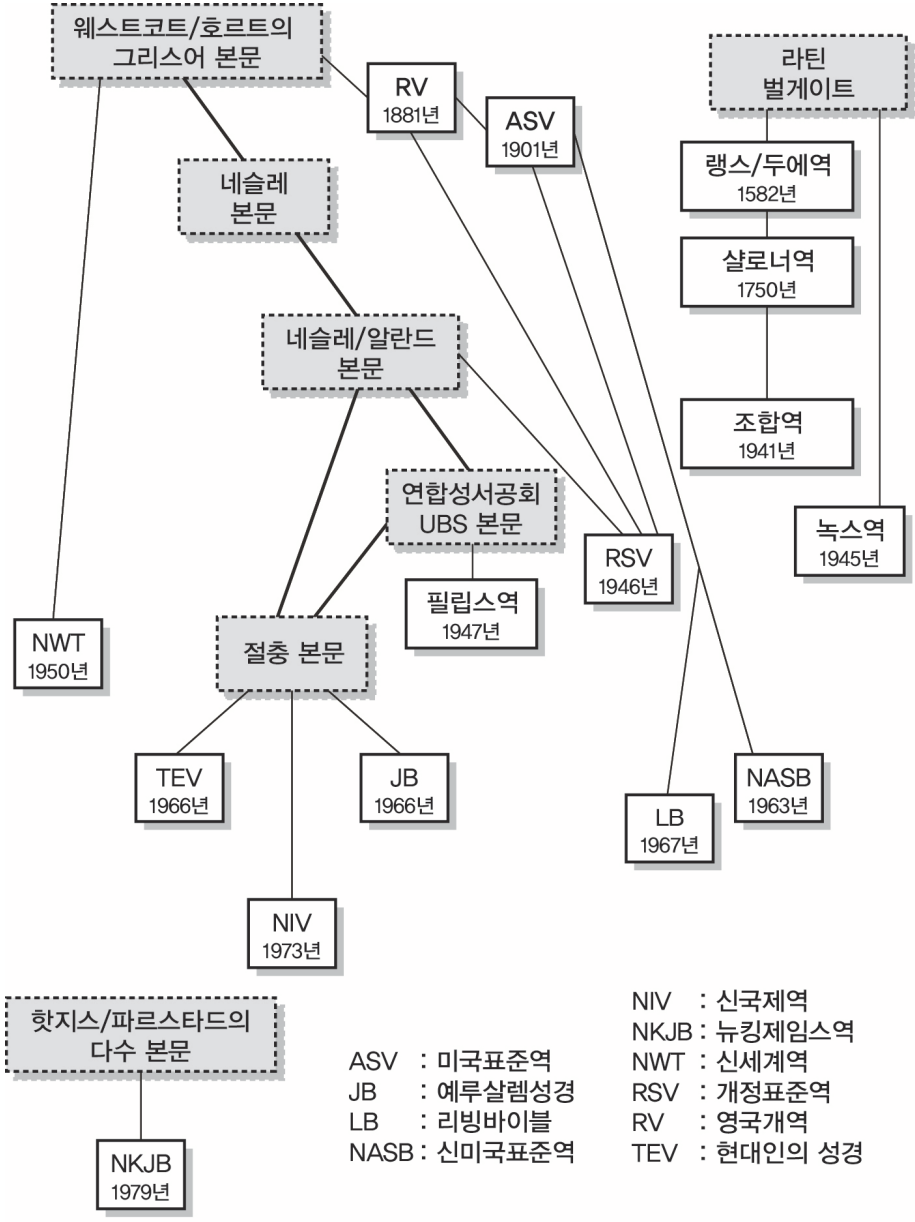
킹제임스 성경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다. 가독성 지표에 대해서는 'Right Writer'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킹제임스 성경의 읽기 수준을 보여 주는 연구를 한 것이 있다.

다음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킹제임스 성경은 결코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이 아니다. 이 'Right Writer'라는 프로그램으로 킹제임스 성경의 다른 장과 절의 가독성도 확인할 수 있다.

비잔틴 본문
형식의 사본들



<그리스어 비평(수정) 본문 계보>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그리스어 수정 본문과 현대 역본들>

<킹제임스 성경의 가독성>

출처	가독성	수준
창세기 1장	8.13	8학년(중학교 3학년)
출애굽기 1장	7.94	8학년
로마서 1장	9.74	10학년(고등학교 2학년)
로마서 3장 1-23절	5.63	6학년
로마서 8장	7.72	8학년

고등학교 때 나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분은 학교 수위였던 앨런 아저씨였다. 그는 초등학교 5학년 과정도 마치지 못한 분이셨다. 찰스 아저씨는 킹제임스 성경을 이해했고 그 말씀을 가지고 당시 고등학교 고학년(10-12학년)이었던 나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였다. 나는 킹제임스 성경이 어렵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낮은 지식과 교육 수준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킹제임스 성경을 이해한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겠는가? 사람들은 킹제임스 성경은 이해하기 어렵고 시대에 뒤떨어진 구식 성경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 보자.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soever believeth in him should not perish, but have everlasting life(영어 *KJV*).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도대체 어디가 어렵단 말인가? 나는 지난 12월에 ‘목자의 집’에서 온 아이들이 크리스마스를 주제로 준비한 연극을 보았다. 아이들은 모두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 구절들을 암송하여 선보였다. 이 아이들은 지능 발달이 늦은 지진아들이었다. 그런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심지어 신학원까지 나온 사람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왜 이해하지 못한단 말인가?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책을 팔기 위한 전략이었다. 출판사들은 새 역본들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쉽다고 선전했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이며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번역본의 종류와 상관없이 이 구절은 여전히 진리로 남아 있다.

15. 공인 본문의 37가지 연결 고리를 한데 엮으면서 생긴 일

내가 공인 본문의 37가지 연결 고리를 한데 엮는 중에 생긴 재미있는 뒷이야기가 있다. 어느 날 미시간주에 있는 어떤 교회의 교역자 한 분이 내게 한 가지 부탁을

했다. 자기 교회가 지금 어떤 성경을 써야 할지에 대한 논란에 휩싸여 있는데 자기 교회에서 공인 본문과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최근 교회 지식층 중 몇 사람이 교회에 NIV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던 것이다. 하지만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 23년 이상 킹제임스 성경만을 가지고 설교해 오셨고 킹제임스 성경을 바꾸기를 원치 않으셨다. 결국 크리스천 학교의 교사이기도 했던 이 NIV 지지 세력들이 논란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급기야 목사님은 교회 집사들을 불러놓고 한 가지 안을 제시하였다.

제가 목사로서 이런 일을 자주 하진 않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한 사람을 데리고 오십시오. 그랜드래피즈 침례 신학교에서든 어디서든 말입니다. 그는 여러분에게 NIV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킹제임스 성경과 공인 본문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 두 사람 이야기를 모두 들어 보고 향후 교회의 방향을 정하도록 합시다.

집사들은 이 제안에 동의했다. 집사들이 결정하는 바가 교회의 방향이 된다는 것이었다. 결론이 어떻게 나든 논란은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목사님이 내게 강연을 부탁한 것이었다. 나는 기꺼이 응했다. 모임에는 8-10명 정도의 집사들이 있었다. 일정 시간 강연하고 나머지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어려운 질문도 있었지만 가능한 한 모두 대답해 주었다. 본래 나는 나중에 발표하게 되어 있었다(사실 나도 나중에 했으면 했다). 그런데 먼저 하기로 한 그랜드래피즈 침례 신학교 사람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안 나오는 것이었다. 반론을 의식해서인지 먼저 말하기를 거부했다. 결국 내가 먼저 하게 되었다. 신학교 쪽에서는 한 사람이 아닌 두 사람이 왔다. 이 두 사람이 NIV와 웨스트코트/호르트의 본문을 변호하는 발언을 했다. 나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와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강의를 녹음할 것을 부탁했다. 그러나 그들은 내게 테이프를 주지 않으려 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랜드래피즈 침례 신학교 사람들은 자기들의 강연 녹음테이프를 공개하지 않았다. 어쨌든 순서는 진행되었고 여러 질문이 오고 갔다. 모든 순서가 끝났고 집사들의 최종적인 결정만이 남게 되었다. 그들은 킹제임스 성경에 손을 들어 주었다. 주일 학교를 포함한 모든 모임에서 킹제임스 성경을 쓰기로 한다는 것이었다. 주님을 찬양하자! 진리(나는 그들에게 진리를 알렸다고 믿는다.)가 이겼다. 적어도 얼마 동안은 말이다.

이런 종류의 전쟁이 나라 전체에 걸쳐 일어나게 될 것이다. 성경 문제로 분열이 생긴 교회들도 있다. 많은 설교자들이 이 일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여러 역본을 두고 서로 갈라져 있다. 교회는 더 이상 똑같은 목소리로 성경 구절을 읽을 수 없게 되었다. 같이 읽을 수 있는 것은 찬송가뿐이다. 왜냐하면 한 사람은 이 역본을 다른 사람은 저 역본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목사들이 성경 문제를 그냥 덮어두고 있다. 어떻게 되겠지 하며 눈을 감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그냥 덮어 두고 지나갈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피할 수 없다. 킹제임스 성경은 영어로 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고 다른 역본들은 아니다. 이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16. 공인 본문은 증거에 의해 입증된다

공인 본문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살펴보겠다. 앞서 우리는 교회들이 공인 본문을

받아들였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 본문에 대한 증거가 있는가? 공인 본문이 보존된 그리스어 신약 성경 본문이라고 믿을 만한 증거 말이다. 증거 자료는 크게 (1) 사본들과 (2) 고대 역본들 그리고 (3) 교부들의 저술들, 이 세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a. 사본학적 증거

1967년까지 남아 있는 그리스어 사본의 수는 5,255개였다. 독일 뮌스터에서 일했던 배도한 독일사람 알란드(Kurt Aland)는 공인 본문을 믿지 않았다. 네슬레/알란드 본문에 그의 이름이 올라와 있다. 그는 거기서 편집장이었다. 알란드는 많은 사본들의 복사본을 갖고 있었는데 대부분은 마이크로필름 형태로 있었다(한 자료에 따르면 그는 총 사본 중 90%를 소장했다고 함). 알란드는 공인 본문과 일치하는 사본 하나를 발견하면 다른 본문에도 이 내용이 있다고 하면서 해당 사본을 별개의 증거로 채택하지 않고 무시해 버렸다. 즉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알란드와 그의 추종자들은 증거들을 이런 식으로 취급했다. 그들은 증거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인 본문과 같은 맥락의 사본을 발견하면 ‘위조되었다’, ‘복사본이다’, ‘중복되었다’ 등의 이유를 대며 그 사본을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공인 본문과 일치하는 증거는 500개도, 1,000개도, 5,000개도 아닌 단 하나가 되었다.

알란드와 그의 추종자들은 초대 교회(AD 250-350년) 시절 당시의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모인 회의가 있었다는 식의 잘못된 가설, 즉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거짓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 주장의 핵심 내용은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 그리스어 본문에 대한 하나의 개정본 혹은 교정본을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웨스트코트/호르트 본문 계열의 그리스어 사본들은 반영되지 않고 공인 본문 계열의 그리스어 사본들만 반영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가설을 뒷받침할 만한 역사적 증거는 전혀 없다. 어쨌든 그 이후로 나오는 모든 공인 본문 계열의 증거는 반복, 즉 복사본에 불과하다고 그들은 주장한다. 그 결과 남아 있는 공인 본문 계열의 사본들은 독립적인 증거로 인정받지 못했고 - 실제로는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 그저 한 증거의 복사본으로 취급받았다.

이 이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아는가? 그것은 바로 이것이 그냥 이론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한 회의가 있었는지, 킹제임스 성경을 지지하는 개정판이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다. AD 250년에서 350년 사이에 당시 존재하던 모든 지역의 감독들과 교부들이 함께 모였다면 이것은 대단한 사건인데 당연히 역사의 기록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것은 호르트가 지어낸 사건에 불과하다. 호르트는 현재 우리 손에 있는 5,255개 사본들의 99% 이상이 웨스트코트/호르트 본문이나 네슬레/알란드 본문이 아닌 공인 본문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설명해야 했다. 그의 생각은 이러했을 것이다.

이 사실을 어떻게 반박해야 할까? 5,255개의 문서 중 겨우 45개의 문서, 즉 전체의 1%도 안 되는 증거만이 우리 본문과 일치하고 다른 모든 증거들은 공인 본문과 일치하지 않는가? 아무래도 증거로는 안 되겠고 이론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즉 증거가 필요 없는 이론 말이다.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 우리가 명시한 것을 따른 교정 본문 하나를 만들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본문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버렸다고 하면 되겠다.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 교정본 혹은 개정본만 남지 않겠는가!

이것이 호르트가 자기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 입문」에 기록한 내용의 골자이다. 이런 희대의 사기극을 담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이 책을 사서 보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네슬레/알란드 26판의 후반부 711쪽에는 여러 사본과 문서들의 목록이 실려 있다. 이 페이지에만 562개의 사본들이 있다. 페이지 하단의 각주에는 라틴어로 ‘그리고 기타 다수’라고 적혀 있다. 웨스트코트와 호르트 그리고 알란드는 공인 본문(수용 본문)을 따르는 모든 사본들을 하나의 증거로 취급했다. 왜냐하면 앞서 말한 주후 4세기의 특별 개정판과 비슷한 사본들은 이 개정판의 복사본에 불과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그런 회의나 개정판에 대한 역사적인 증거는 없다. 이것은 호르트가 지어낸 거짓 이론이요 가설에 불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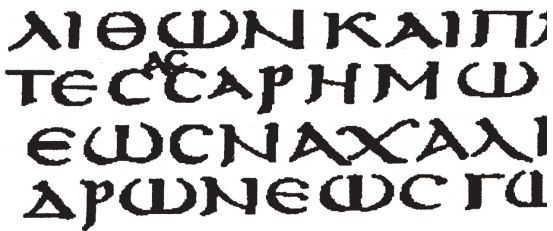
자, 이제 사본에 대해 말해 보자. 먼저 사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그리스어 사본에는 (1) 파피루스(Papyri), (2) 영설 사본(Uncials), (3) 필기체 사본(Cursive), (4) 성구집(Lectonaries)의 4종류가 있다.

(a.1) 파피루스 조각 사본

사본의 종류 중 첫 번째는 파피루스 조각이다. 이것은 말 그대로 파피루스의 작은 조각을 일컫는데 파피루스란 이집트에서 많이 자라는 파피루스 식물에서 나온 종이다. 파피루스는 잘 부서진다. 그래서 대부분의 파피루스에는 그렇게 많은 구절이 들어가지 못한다. 1967년에는 81개의 파피루스 사본이 있었는데 지금은 88개로 늘었다. 무어맨 목사의 책 「영원히 정착된 말씀」(*Forever Settled*)에 따르면 이 88개 중 13개(15%) 정도만 ‘B’(바티칸) 사본이나 알레프(시내) 사본, 즉 웨스트코트/호르트의 본문과 일치하고 나머지 75개(85%)는 공인 본문과 일치한다[B.F.T #1428].

(a.2) 영설 사본

영설 사본은 대문자로 기록된 그리스어 사본을 말한다. 여기에는 글자 간의 구두점이 나 공백이 없다. 조금 오래된 영설 사본도 있고 조금 최근 것도 있는데 이것은 종종 마주스쿨, 즉 대문자 사본이라 불리기도 한다. 영설은 본래 ‘큰 글자 혹은 인치 길이의 글자’라는 뜻이다. 총 267개의 영설 사본 중 오로지 9개(3%)만이 웨스트코트/호르트 본문과 일치하고 나머지 258개(97%)는 모두 공인 본문과 일치한다.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는 이렇듯 267개 영설 사본 중에서 9개만 자기들의 본문과 맥을 같이 한다는 것을 보고는 오로지 오래된 영설 사본들, 즉 A 사본, B 사본, 시내(알레프) 사본, C 사본, D 사본만 사용하기로 했다. 이 사본들은 4-6세기 것으로 추정되는 소위 ‘오래된’ 영설 사본들이다. 그러면 그 많던 나머지 영설 사본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웨스트코트와 호르트가 모두 빼 버렸다. 그것들이 자기들의 본문을 입증해 주지 않기 때문이었다.



<영설 사본>

(a.3) 필기체 사본

필기체(혹은 소문자) 사본은 필기체 혹은 초서체로 쓰인 그리스어 사본이다. 이것의 글자 모양은 오늘날의 필기체와 비슷하다. 오늘날까지 보존된 필기체 사본은 총 2,764개가 있는데 이 중 23개(1%)만 웨스트코트/호르트의 본문과 맥을 같이 한다. 그리고 나머지 2,741개(99%)는 킹제임스 성경의 근간이 되는 공인 본문을 지지한다. 얼마나 많은 문서들이 공인 본문의 편에 서 있는지 보라! 상황이 이러하니 호르트는 역사적 뒷받침이 전혀 없는 거짓투성이의 ‘개정’ 이론을 만들어 낼 수밖에 없었다. 아마어마한 속임수요, 거짓말이었지만 이러한 모순에 대한 해명은 없었다.

(a.4) 성구집 사본

현재 2,143개의 성구집 사본이 있다. ‘성구’의 어원은 ‘읽다’라는 의미를 가진 라틴어이다. 성구집은 그리스어나 라틴어 성경의 일부분들로서 얼마 동안 교회에서 읽혔다. 이것들은 모두 다, 즉 100% 다 공인 본문과 일치하며 웨스트코트/호르트의 본문을 지지하는 성구집은 하나도 없다. 오늘날 로마 카톨릭교회와 그리스 정교회에서는 동일한 것을 실행한다. 그들은 특정한 날 복음서나 서신서의 특정 부분을 읽는다. 즉 특정한 성구를 읽는다. 성구란 그날 읽을 성경의 한 부분을 가리킨다. 과거에 그들은 이렇게 성구집을 만들어 놓았다. 성구집은 그 시기에 어떤 사본들이 있었는지 알 수 있는 좋은 증거가 된다. 왜냐하면 그날 그날 읽을 성구를 만들었다는 것은 성구집이나 그리스어 신약 성경 전체가 그들의 손에 있었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2,143개의 성구집들은 공인 본문을 입증해 주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

버건(John William Burgon)은 1871년 「마가복음의 마지막 12구절」이란 제목으로 책을 써냈다. 이것은 350쪽이 넘는 책이며 BIBLE FOR TODAY가 다시 간행했다[B.F.T #1139]. 우리는 버건이 직접 쓴 내용과 관련 내용을 합쳐 총 3,000쪽 분량의 책을 재판했다. 버건은 킹제임스 성경의 뿌리인 전통 본문을 수호했던 학자였다. 이 책에는 마가복음의 마지막 12구절(막16:9-20)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수많은 증거들 - 사본들, 성구집들, 고대 역본들, 그리고 교부들 - 이 제시되어 있다. 웨스트코트/호르트의 본문에는 이 12구절이 빠져 있는데 사실 이것들은 그들이 변개한 5,604군데 중 일부이다. NIV에는 그 이전 절들과 이 12구절 사이에 검은 선이 그어져 있고 다음과 같은 주석이 달려 있다.

가장 믿을 만한 두개의 초기 사본에 따르면 마가복음 16장 9-20절은 존재하지 않음.

NASB에도 이 구절들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각주가 달려 있다. 그러나 이 12구절은 이스터(부활 주일) 이후 둘째 일요일 날 ‘그리스인들과 멜카이트 시리아 그리스도인들이 읽었던 성경기록의 일부분 곧 성구이다. 버건은 이 때문에 소수 사본들이 이 부분을 빼버렸다고 말한다. 그는 또한 마가복음 16장 9-20절의 앞에 있는 8구절(1-8절)도 이러한 종류의 성구나 독본이라는 것을 보여 주었다. 9절의 첫 부분에는 ‘끝’을 뜻하는 ‘telos’라는 단어가 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마가복음을 뜻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 이것은 해당 성구 혹은 독본의 마지막을 뜻한다. 이 독본은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시작하여 16장 8절에서 끝난다. 이 성구는 이스터 이후 둘째

일요일에 낭독되었다. [버건, 「마가복음의 마지막 12구절」의 226쪽과 238쪽, 238쪽에는 다른 때에도 이 구절들이 성구로 낭독되었다는 내용이 있다.] 따라서 성구들은 공인 본문을 지지하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 다음 표는 공인 본문(TR)의 사본 증거와 웨스트코트/호르트 혹은 네슬레/알란드 본문(WH)의 사본학적 증거이다.

<사본들의 개수>

종류	개수	WH/TR의 수	WH/TR의 비중(%)
파피루스	81(88)	13/75	15%/85%
영설 사본	267	9/258	3%/97%
필기체 사본	2,764	23/2,741	1%/99%
성구집	2,143	0/2,143	0%/100%
	5,255	45/5,210	1%/99%

b. 고대 역본들의 증거

고대 역본이란 초세기부터 있었던 그리스어 성경 번역본들을 말한다. 가령 AD 150년 경에 있었던 페시타 시리아 역본(Peshitta Syriac)은 대부분 공인 본문에 근거하고 있다. 3세기의 큐레톤 시리아 역본(Curetonian Syriac) 역시 공인 본문을 기초로 하고 있다. 2세기의 구 라틴 역본 혹은 베투스 이탈리아 역본(Vetus Itala) 역시 그렇다. 그 외에도 여러 역본이 있는데 이들 중 얼마는 공인 본문에서 왔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어쨌든 고대 역본들도 증거가 된다.

c. 교부들의 증거

교부들은 초기 교회 저술가들로서 주로 당시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던 감독이나 목사들이었다. 편지나 글을 쓸 때 교부들은 종종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리스어나 라틴어 신약 성경의 구절들을 인용했다. 그들은 직간접적으로 성경 구절들을 인용했는데 이러한 인용 구절들로부터 우리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 본문이 어떤 것이었는지 알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이 웨스트코트/호르트의 본문이었을까, 아니면 공인 본문이었을까? 버건은 다음과 같은 5권의 책을 출간했고 우리는 이것들을 다시 간행했다.

- (1) 「개정판의 개정」(*Revision Revised*)[B.F.T #611]
- (2) 「마가복음의 마지막 열두 구절」(*The Last 12 Verses of Mark*)[B.F.T #1139]
- (3) 「거룩한 복음서들의 전통 본문」(*The Traditional Text of The Holy Gospels*)[B.F.T #1159]
- (4) 「거룩한 복음서들의 부패 원인들」(*Causes of Corruption of The Holy Gospels*)[B.F.T #1160]

(5) 「영감과 해석」(*Inspiration and Interpretation*)[B.F.T #1220]

이러한 책들에서 버건은 교부들과 관련된 사항을 자세히 다루었다. 1888년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버건과 직원들은 교부들이 성경에서 인용하거나 암시한 문구 86,000개 이상을 모았다. 이 연구는 문서화되어 오늘날 대영 박물관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으며 2절판 크기의 책 16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국의 선교사이며 우리 딘 버건 협회 집행 위원 중 한 사람인 무어맨 박사는 1992년 1월 10일 내게 쓴 편지에서 이 연구 문서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그 책들 각 권의 크기가 25×30cm 이며 두께는 12.5에서 17.5cm라고 말했다. 버건과 그의 사람들이 이 연구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는지 가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규모이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 자료들은 인쇄된 형태로 출간되지 않았고 수작업의 형태로만 있다. 무어맨 박사는 이렇게 썼다.

이 책들은... 다른 작품들 - 주로 J. P. Migne의 작품들 - 에 있는 하나의 인용문 색인이다. 이것들은 모두 참고 문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직접적인 교부들의 인용문은 없다... 참고 문헌들은 작은 종이 조각에 손으로 기록되어 페이지마다 붙었으며 교부 손으로, 성경 손으로 정렬되어 있다. 각각의 종이 조각에는 해당 성경의 장과 절이 적혀 있고 다음 그 구절을 인용한 교부의 책과 페이지 수가 기록되어 있다. 내가 보기에 16권에 붙은 종이 조각만 86,000개가 넘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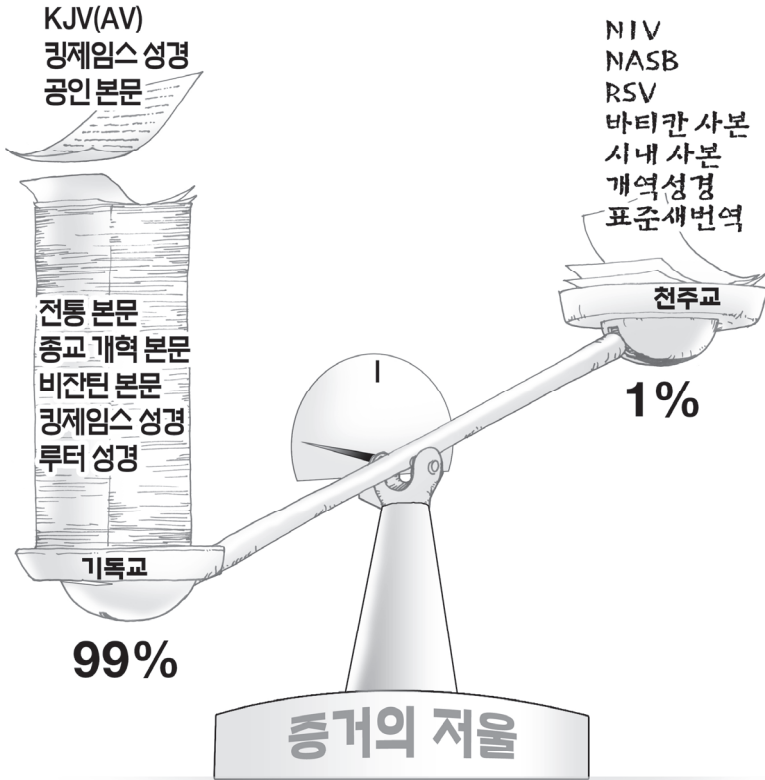
이 편지는 교부들의 신약 성경 인용에 관한 연구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보여 주는 가치 있는 기록이다.

이 인용문들로부터 우리는 교부들이 어떤 그리스어 본문을 사용했는지 알 수 있다. 교부들은 성경 구절을 대개 공인 본문 혹은 전통 본문에서 인용했다. AD 100-300년 동안 저술 활동을 하며 어떤 형태로든 신약 성경 구절을 참고했던 교부만 100명 정도였고 AD 300-600년에는 200명 정도였다. 결국 AD 100년에서 600년까지 활동한 교부들이 300명에 달한다는 이야기다. 여러분은 이렇게 많은 교부들의 글을 통해 그들이 가지고 있던 본문이 무엇인지, 즉 교회가 받아들인 공인 본문인지 아니면 웨스트코트와 호르트가 선호하는 B(바티칸) 사본과 알레프(시내) 사본의 부패된 본문인지 알 수 있다.

신약 성경 본문에 대한 이 방대한 작품을 완성하지 못한 채 버건이 세상을 떠나자 밀러(Edward Miller)가 이 일을 이어 받았다. 1896년 밀러는 버건의 책 두 권을 출간했는데 그중 하나가 「거룩한 복음서들의 전통 본문」(*The Traditional Text of the Holy Gospels*)이란 책이다. 거기에는 공인 본문을 인용한 교부들과 웨스트코트/호르트의 본문을 인용한 교부들의 목록이 실려 있다. 이 목록(99-100쪽)에는 AD 400년 이전에 죽은 76명의 작가들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통해 우리는 상당수의 인용문이 공인 본문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밀러는 (1) AD 400년 혹은 그 이전에 죽은 교부들이 전통 본문(공인 본문)을 인용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2) 공인 본문에서 인용된 구절이 웨스트코트/호르트 본문에서 인용된 것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 즉 (3) 전체 인용문의 5분의 3이 공인 본문에서 인용한 것이라는 점을 발견했다. AD 400년 이전에 죽은 76명의 교부들이 인용한 총 4,383개의 구절 중에 2,630개(60%)의 인용 구절이 전통 본문 혹은 공인 본문에서 나온 것들이며 1,753개(40%)만이 웨스트코트/호르트의 본문에서 나온 것들이었다.

사본들의 증거



인용문 선호도에서 수용 본문이 3대 2 정도로 웨스트코트/호르트의 본문을 앞서고 있다. 오늘날 웨스트코트/호르트 계열의 저술가들은 종종 4세기 이전에는 전통 본문 혹은 공인 본문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런 발언이 잘못이라는 것은 위의 비율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신약 성경 본문에 관한 무어맨 박사의 여섯 번째 책은 「초대 교부들과 권위역 성경 - 실증」이다[B.F.T #2136, 이것은 ‘초기 사본들과 권위역’의 자매편이다]. 이것은 독자들이 갖고 싶어 할 만한 훌륭한 책이다.

무어맨 박사는 조금 더 최근 자료를 사용하여 니케아 시대 및 니케아 시대 이후의 교부들을 연구했다. 그는 AD 110-397년 - AD 400년 이전 - 사이에 세상을 떠난 교부들의 작품 86개를 분석했다. 무어맨은 요약 문헌에 인용된 401개의 성구들을 비교했다. 그는 그중 279개가 공인 본문을 인용한 것들이었고 나머지 114개 혹은 122개가 B(바티칸) 사본과 알레프(시내) 사본 타입의 본문(웨스트코트/호르트 혹은 네슬레/알란드 본문)에서 온 것들임을 발견했다. 버진과 밀러의 자료의 비율은 1.5 대 1이었는데 무어맨의 자료는 2.3대 1의 비율을 보여 주었다. 이것은 훨씬 더 높은 비율이다. 신약 성경 본문 논쟁에 관한 무어맨 박사의 학문적 노고에 고마움을 표시하는 바이다.

17. 바티칸 사본과 시내 사본의 감정 평가

웨스트코트와 호르트 진영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는 비중 있는 사본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은 바로 바티칸(B) 사본과 시내(Aleph, 알레프) 사본이다. 이 두 사본은 4세기의 영설 사본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당시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고 한다. 나는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는다. 이 사본들의 소유자들은 그것들이 이단들의 손에 훼손되고 더럽혀진 타락한 본문이라는 것을 알아보았던 것이다. 그런데도 웨스트코트/호르트와 그 추종자들은 ‘바티칸 사본’과 ‘시내 사본’을 최고라고 치켜세운다. 그들은 이 두 사본이 가장 오래되었고 그 결과 가장 순수하다는 논리를 편다. 하지만 이 둘은 최고(最古)도 아니고 순수하지도 않다. 이것들은 이단들이 오염시킨 본문이다.

그것들이 보존될 수 있었던 이유는 첫째, 두 사본이 보관에 적합한 기후를 가진 이집트에 있었고, 둘째, 이단들이 변개한 사실을 안 교회가 두 사본을 아예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초대 교회가 핍박을 받고 책들이 불태워질 때 장롱 속에 고이 보관되어 있던 두 사본은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던 것이다. 이 두 사본이 널리 사용되었다면 분명히 지금 내 성경처럼 많이 닳아 너털너털해졌을 것이다. 내 성경은 우리가 결혼하기 전 해인 1947년에 아내가 내게 준 것인데 나는 지금껏 이것을 쓰고 있으며 그동안 여러 번 다시 제본했다. 어쨌든 책은 계속해서 사용하면 헤어지게 마련이다.

바티칸 사본(B)은 천주교 바티칸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었고, 시내(알레프) 사본은 시내산의 성 캐더린 수도원의 휴지통에서 발견되었다. 난방용 뿔감으로 준비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어 사본에 대해 밥존스 대학의 커스터(Stuart Custer) 박사와 논쟁할 당시 같이 있던 동료 쿠롤로(James Qurollo) 박사는 이것을 매우 재미있게 풍자했다. 성 캐더린 수도원에서 이 사본을 구입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티센도르프였다. 배도한 독일 학자인 티센도르프는 당시 신약 성경에 관해 연구하고 있었다. 그는 마침 시내 사본을 뿔감으로 쓰려고 했던 수도사에게 수백 달러를 주고 이것을 사들였다. 이것을 두고 쿠롤로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두 사람 중 누가 진정 이 책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었을까? 그것을 구입하려 한 티센도르프인가? 아니면 그것을 태우려고 한 수도사인가?

티센도르프는 쓰레기에 돈을 지불했다. 이단들의 손에 온통 오염되었으니 쓰레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휴지통에서 시내 사본(혹은 알레프 사본)을 발견한 티센도르프는 그 길로 달려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구판 그리스어 신약 성경들을 고치기 시작했고 결국 수백 군데가 바뀐 전혀 다른 본문이 탄생하게 되었다. 버건의 「개정판의 개정」(*Revision Revised*)에는 이러한 바티칸 사본과 시내 사본의 결합들이 잘 분석되어 있다.

같은 주제로 카터(Cecil J. Carter)는 자신이 지은 「가장 오래된 최고의 사본들 - 과연 얼마나 좋은가?」[B.F.T #1733]에서 시내 사본이 '당대 혹은 후대에 걸쳐 15,000군데가 바뀌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티센도르프를 언급했다(10쪽). 여러 사람이 15,000군데나 고친 시내 사본이 얼마나 좋은 사본이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

호르트는 1881년 자신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 본문의 소개에서 바티칸(B) 사본과 시내(알레프) 사본의 공통된 부분이 진정한 신약 성경 사본이라고 했다. 둘 사이에 다른 부분이 있으면 바티칸 사본과 그와 같은 것을 말하는 다른 사본 하나를 취해 그것을 진본으로 삼았다. 그것도 아닌, 다른 사본의 지지를 전혀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티칸 사본 자체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것은 바티칸 사본에 대한 지나친 편애가 분명하다. 호스키어(H. C. Hoskier)는 「B 사본과 그것의 친구들」(*Codex B and Its Allies*)이라는 제목으로 두 권짜리 책을 지었다[B.F.T #1643]. 호스키어는 'B'와 '알레프' 이 두 사본을 매우 면밀히 비교했고 두 사본이 복음서에서만 무려 3,000군데나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것은 둘 중 하나는 잘못되었다는 말이다. B가 맞으면 알레프가 틀린 것이고 알레프가 맞으면 B가 틀린 것이다. 물론 둘 다 잘못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는 주로 바티칸 사본을 신뢰했다. 바티칸 사본은 AD 350-370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들은 거의 숭배 수준으로 이 사본을 신뢰했다. 버건과 밀러가 제시한 86,000개 이상의 교부들의 인용문은 대부분이 바티칸 사본이나 시내 사본보다 앞선 시대의 것이었다. 무어맨 박사는 앞서 언급한 대로 이 주제를 보다 심층적으로 연구했다. 정말 '최고(最古)가 최고(最高)'라고 한다면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는 자기들이 주최한 게임에서도 진 것이다.

시기에 관한 문제에 있어 교부들은 4세기의 바티칸 사본과 시내 사본에 대한 논거를 뒤집는다. 왜냐하면 교부들이 4세기의 B와 알레프보다 훨씬 먼저 있었던 본문에 대해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버건과 밀러는 AD 400년 이전에 저술 활동을 하다가 세상을 떠난 교부 76명에 대해 말했다. 예를 들어 이레니우스는 AD 150년경에 살았다. 무어맨 목사 역시 AD 400년 이전에 저술활동을 하다가 세상을 떠난 교부 86명을 언급했다. 예를 들어 이그나티우스는 AD 110년에 죽었는데 생전에 그가 인용한 세 가지 성경 구절은 모두 전통 본문 혹은 공인 본문에서 나온 것들이었다.

지금도 웨스트코트/호르트 진영 사람들은 사본은 오래되어야 좋은 것이라고 말한다. 그 이유는 아마도 AD 400년 이전에는 공인 본문이 사용되지 않았다고 그들이 믿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위에 나온 증거들은 이것이 잘못된 생각임을 보여 준다. 전통 본문은 분명히 그 이전에도 사용되었고 비평 본문보다 더 많이 사용되었다. 다시 말해

교부들의 인용 구절의 절반 이상이 웨스트코트/호르트의 본문이 아닌 공인 본문이다. 사실 전통 본문은 과반수 이상의 우위를 보였으며 구체적으로는 1.5 대 1(버건과 밀러) 혹은 2.3대 1(무어맨)로 앞서 있었다. 이것이 더 강력한 증거이다.

물론 호르트는 왜 교부들이 바티칸 사본과 시내 사본보다 공인 본문(수용 본문)을 더 많이 인용했는지 이유를 댈 수 있었다. 그는 AD 250-300년 사이에 그리스어 사본들이 바뀌었다고 주장했던 것처럼 교부들의 책들도 그런 변화를 겪었다는 영똥한 주장을 했다. 하지만 그리스어 신약 성경 개정설처럼 교부 저작 개정설도 전혀 근거가 없는 가설이요 추측에 불과하다. 호르트는 무슨 일에도 대답할 말은 있었지만 그것들은 다 조작되고 잘못되었으며 근거 없는 내용만 담고 있을 뿐이다. 침례교, 장로교, 그리고 남침례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많은 이들이 호르트의 그럴 듯한 논리에 줄줄이 걸려들었다. 그들은 최고의 사기꾼이요 변절자에게 철저히 속은 것이다. 그들은 증거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 그저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근거 없고 독단적인 주장을 여과 없이 받아들였다. 그 결과 이후로 온 교회가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와 같이 킹제임스 성경의 근간이 되는 신약 성경 본문은 여러 세대에 걸쳐 교회들이 수용했으며 많은 증거로 입증된 본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에도 미래에도 이 본문을 확실히 믿을 수 있다.

제 3 장

Chapter 3

킹제임스 성경이 영어로 보존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그것의 우수한 번역자들 때문이다

A.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에 관한 자료들

이제 킹제임스 성경의 우수한 번역자들에 대해 알아보자.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대로 사람마다 어떻게 그 기초[성경] 위에 세울지 주의해야 한다. 「딘 버건이 언제 어떻게 공인 본문과 킹제임스 성경을 개정하고자 했던가?」라는 제목의 논문 후반부에는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의 언어적 자질에 관한 분석이 부분적으로 실려 있다[B.F.T #804]. 이러한 분석은 맥클루어(Alexander McClure)의 「부활한 번역자들」이란 책을 기초로 이루어졌다. 이 책은 전기를 포함하여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의 이야기를 싣고 있다. 이 책은 오랫동안 절판되었다가 BIBLE FOR TODAY가 다시 출간하였다[B.F.T #1419].

페인(Gustavus S. Paine)이 쓰고 베이커 출판사(Baker Book House)가 출간한 「킹제임스 역본 배후에 있는 사람들」도 킹제임스 성경 탄생 과정을 소개한 좋은 책이다 [B.F.T #584]. 이 책은 킹제임스 성경의 배경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는 책으로서 역시 절판과 출판이 반복되었던 책이다. 나는 베이커 출판사에 전화할 때마다 이 책을 다시 출간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리고 현재 이 책은 출판된 상태이다.

B.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의 영적 통찰력

여러 교회를 다니며 ‘킹제임스 성경의 4중 우수성’을 강연하면서 ‘우수한 번역자들’이라는 주제에 이르게 되면 종종 나는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의 영적인 자질과 통찰력에 대한 질문을 받곤 한다. 이에 나는 독자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것은 ‘번역자들이 독자에게’(The Translators To the Reader)라는 글로서 1611년판 킹제임스 성경의 머리말에 있는 내용이다. 이것은 한 사람의 번역자[마일즈 스미스 박사]가 쓴 것이지만 그는 모든 번역자들을 대표하여 이 글을 썼다[B.F.T #1121]. 다음은 우리의 소책자판에 실린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인용한 역자들의 머리말이다.

1. 성경을 읽어야 한다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믿었다.

진리가 없이 어떻게 경건함이 있겠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어떻게 진리(구원하는 진리)가 있겠는가? 그리고 성경기록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겠는가? 성경은 우리가 성경기록을 탐구해야 한다고 명령한다(요5:39; 사8:20). 성경기록을 탐구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칭찬을 받고(행17:11; 8:29-35) 성경기록에 미숙하거나 성경기록을 더디 믿는 사람들은 책망을 받는다(마22:29; 눅24:25). 성경기록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다(딤후3:15). 우리가 무지하다면 성경이 우리를 가르칠 것이고 우리가 그 길에서 벗어나 있다면 성경이 우리를

집으로 인도할 것이며 우리가 비뚤어진 상태에 있다면 성경이 우리를 바로잡을 것이다. 근심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며 무디어진 우리에게 자극을 주며 냉랭해진 우리 마음에 불을 당겨주는 것이 성경기록이다. 톨레, 레게(Tolle, lege), 톨레, 레게! 집어서 읽으라! 집어서 읽으라! 성경을 읽으라. (10쪽)

2. 성경은 무엇이며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여기 성경에 대한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의 통찰력이 그려져 있다.

성경은 무기이다. 단순히 하나의 무기가 아니라 영적 싸움에 필요한 모든 무기이다. 여기에는 방어용 무기도 있고 공격용 무기도 있다. 바로 이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대적과 싸워 이길 수 있다. 성경은 채소가 아니라 나무이며 매달 새로운 열매를 내는 생명나무이다. 그 열매는 음식이 되며 그 옻은 약이 된다. 성경은 그저 담아두기만 하는 만나 향아리나 하나의 기름 단지가 아니며 한두 끼 분의 양식도 아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쏟아져 모든 사람을 배부르게 할 수 있는 양식이요, 기름 단지로 가득한 저장고와 같다. 이것에 의해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고 이것에 의해 우리의 빛이 탕감된다. 성경은 목은 전통에 맞서는 신선한 음식 저장고요, 해로운 이단을 예방하는 약국(성비질이 이렇게 표현함)이며, 번역하는 영들을 다루는 데 유용한 법전이요, 천박한 초보 원리들과는 비할 수 없는 값진 보고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은 영생으로 솟아나는 가장 순수한 샘물이다. 이 열매나 놀라운 말인가! 땅이 아닌 하늘이 근원인 책,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저자인 책, 사도들이나 대언자들의 지혜가 아닌 성령님의 지혜로 기록된 책이다. 그 기록자들은 모태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며 그 본질은 진실과 경건함과 순수하고 올곧음이며 그 모양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증언,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며 그 영향은 지각의 빛, 견고한 확신, 죽은 행실로부터의 회개, 생명의 새로움, 거룩함, 화평, 성령님 안에서의 즐거움이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의 마지막과 보상이 이것이니 곧 성도들과의 교제와 하늘의 본성에 참여함과 썩지 않고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상속이다. 성경을 읽기 좋아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성경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은 더욱 행복하다.

3. 성경은 알맞게 번역되어야 한다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은 성경을 올바르게 번역해야 한다고 보았다.

번역이란 창문을 열어 빛이 들어오게 하는 작업이다. 번역은 껍질을 까서 우리가 열매를 먹도록 해 주며 휘장을 젖혀서 우리가 지성소를 들여다보게 해 준다. 번역은, 야곱이 우물 어귀에서 돌을 굴러내고 물을 길어 라반의 양떼들에게 물을 주었던 것처럼(창 29:10), 우물의 뚜껑을 열어 우리가 물로 나가게 해 준다. 참으로 보통 사람들의 말로 [성경이] 번역 되지 않는다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두레박이나 물 길은 그릇이 없이(요 4:12) 야곱의 우물가에 서 있는 아이들과 같고 이사야서에 언급된 사람, 즉 봉인된 책을 넘겨받아 읽을 것을 요구받는 사람과 같을 것이다. '원하건대 이것을 읽으라, 하면 그가 이르기를, 그것이 봉인되었으므로 내가 읽을 수 없노라, 할 것이요'(사29:11). (12-13쪽)

4. 성경을 읽고 성경기록에 주의하는 일은 시급하다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번역자들이 독자에게’라는 글을 마무리했다.

이제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더 확실히 우리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에게 당신을 맡기는 일만 남았다. 그분은 우리 눈에서 비늘을, 우리 마음에서 베일을 벗기신다. 또 우리가 자신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우리의 지혜를 열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넓히시며 참으로 우리의 성정을 고치신다. 그 결과 우리는 금과 은보다 더 그것[말씀]을 사랑할 수 있으며 참으로 끝까지 그것을 사랑할 수 있다. 당신들은 당신들이 파지 않은 생명수 샘들로 인도되었으니(창16:14; 렘2:13) 블레셋 사람들과 더불어 거기다 흠을 끼었지 말며 사악한 유대인들과 더불어 그것들 앞에 있는 터진 웅덩이들을 선호하지 말라. 다른 사람들이 수고했고 당신들은 그들의 수고의 열매에 참여할 수 있으리라. 오 그토록 위대한 것들을 헛되이 받지 말며, 하나님의 그토록 큰 구원을 경멸하지 말라. 돼지들처럼 그토록 귀한 보물을 발로 짓밟지 말며 개들처럼 거룩한 것들을 물어뜯고 능욕하지 말라. 게르게스 사람들처럼 우리의 구원자께 ‘우리 지역에서 떠나소서.’(마8:34)라고 말하지 말며, 에서처럼 팔죽 한 그릇에 당신들의 장자권을 팔지 말라(히12:16). 빛이 세상에 왔다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지 말며, 음식과 의복이 제공되었다면 헐벗은 채로 굶주린 채 다니지 말라. 살아 계신 하나님의 손 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실로 두려운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분께서 우리 앞에 자신의 말씀을 놓으실 때에 그것을 읽는 것, 그분께서 자신의 손을 뻗으시고 부르실 때에 ‘오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는 당신의 뜻을 행하기 위해 여기 있나이다’라고 대답하는 것, [바로] 그것은 복된 일이며 우리를 결국 영존하는 복으로 인도할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그분을 섬기도록 주님께서 돌보심과 내적 의식으로 우리 안에서 일하실 것을 구한다. 이로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는 그분께 인정을 받을 것이다. 성령님과 더불어 그분께 모든 찬양과 감사가 있기를 원한다. 아멘. (28쪽)

보라, 이를 통해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이 영적인 통찰력과 깊이가 있는 사람들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확실히 그들은 주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주님에 대한 애정이 없는 그런 냉랭한 지식인이 아니었다.

C.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의 그룹 편성과 위치

「킹제임스 역본 배후의 사람들」의 184-185쪽을 보면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의 번역 그룹이 어떤 식으로 편성되었는지 알 수 있다. 번역자들은 총 6개의 조로 편성되었고 웨스트민스터,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이 세 도시에서 회합했다. 번역은 1604년에 시작되어 1611년에 끝났으니 이 일은 총 7년의 작업이었다. 웨스트민스터에는 구약 성경을 맡은 한 조와 신약 성경을 맡은 한 조, 옥스퍼드에도 구약 성경을 맡은 한 조와 신약 성경을 맡은 한 조, 케임브리지에는 구약 성경을 맡은 한 조와 외경을 맡은 한 조가 편성되었다. 최초의 킹제임스 성경에는 외경(12-14권)이 들어 있었다. 하지만 번역자들은 외경을 영감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았다. 외경을 번역한 이유는 외경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의 역사에 대한 참고 자료가 되기 때문이었다. 사실 영국 국교회 신조 39조에는 외경에 대한 분명한 입장이 나와 있다. 영국 국교회는 외경을

하나님의 영감이 있는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레이놀즈 박사(Dr. John Reynolds)는 제임스 왕에게 킹제임스 성경 번역을 청원했던 사람이다. 다음은 레이놀즈의 말이다.

폐하, 부디 이제 성경 번역을 지시하소서. 지금 있는 역본들은 원어를 그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원래의 구약 히브리어 및 신약 그리스어와 일치하는 성경을 원했다. 레이놀즈는 청교도였는데 레이놀즈 말고도 번역 위원회에는 청교도들이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번역자들은 청교도가 아닌 영국 국교회 소속이었다.

6개 그룹에서 작업했던 사람은 모두 57명이었다. 57명 모두가 번역 기간 내내 움직였던 것은 아니고 대개 그룹별로 평균 7명 내지 8명의 번역자들이 작업을 진행했다. 또 번역이 끝나기 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왜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이 우수하다고 말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자.

맥클루어는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의 뛰어난 언어적 자질을 보여 주는 간략한 개요와 함께 번역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했다. 나는 여기서 구약 성경 역자 세 사람과 신약 성경 역자 두 사람의 언어적 자질을 언급하고 다른 번역자들 중 몇 사람의 주요 이력을 다룰 것이다.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 언어적 자질을 비롯하여 그들이 이 일에 얼마나 적격인지 보여 주는 내용 - 알고 싶다면 맥클루어의 책을 읽거나 우리가 출간한 요약본(B.F.T #804)인 「딘 버건이 언제 어떻게 공인 본문과 킹제임스 성경을 개정하고자 했는가?」(40쪽에서 시작)를 참고하기 바란다.

D. 세 명의 우수한 킹제임스 구약 성경 역자들

1. 앤드류스(Lancelot Andrews)의 업적

이제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 구약 성경 역자들을 살펴볼 것이다. 그중에서도 먼저 앤드류스 박사의 업적을 살펴보자. 그는 창세기에서 열왕기하까지의 구약 성경 12개 책(이 일은 1조의 몫이었다)을 번역했던 웨스트민스터 그룹의 의장이었다.

첫째, 그는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대부분의 현대 유럽 언어를 배웠고 특히 동방 언어와 신학에 정통했다. [맥클루어의 책 「부활한 번역자들」에서]

둘째, 앤드류스의 개인적인 경건 노트가 모두 그리스어로 쓰여 있었다. 그의 뛰어난 여가에서도 드러난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매일 경건의 시간조차 갖지 않는다. 경건의 시간을 갖는다 해도 그것을 일일이 노트에 기록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매일 노트를 적는다고 해도 그것을 모두 그리스어로 쓰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참으로 이것은 그의 대단한 언어적 자질이 아닐 수 없다. [맥클루어의 책, 86쪽]

셋째, “그가 모든 언어 특히 동방 언어에 얼마나 정통했는지 만일 그가 바벨탑 사건 때 있었다라면 최고의 통역자가 되었을 것이다.” [맥클루어의 책, 86쪽] 대단한 말이지 않은가?

넷째, 로체스터의 주교인 버크릿지 박사는 그의 장례식 설교에서 고인이 생전에 15개 국어에 능통했다고 했다. [맥클루어의 책, 87쪽] 그는 분명히 훌륭하고 뛰어난



↓

스테이셔너스 홀 위원회

다른 번역자들
(그룹은 모름)
W. 에이어
J. 폰타그
N. 러브
T. 스파크

열두 명
(각 그룹에서 두 명씩)
M. 스미스
J. 보이스
A. 다우네스 등

출간 위원회

스미스(Miles Smith)
빌슨(Thomas Bilson)

왕실 인쇄소
박커(Robert Barker)

<킹제임스 성경 번역 위원회>

번역자였다. 현대 역본(ASV, NASB, NIV, NEV)의 번역자들 중 15개 국어에 능통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 나는 묻고 싶다.

2. 베드웰(William Bedwell)의 인목

출중한 학자 베드웰도 1조에, 웨스트민스터 그룹에 속해 있었다. 그에 관한 몇 가지 사항을 살펴보자.

첫째, 베드웰은 ‘뛰어난 동방학자’로 세간에 알려져 있었다.

둘째, 아랍 학문에 출중했기 때문에 그의 소문을 들은 많은 학자들이 그에게 도움을 청하러 왔다. 맥클루어는 ‘그가 유럽에서 아랍어와 아랍 문학 연구를 활성화하고 그 일에 새 장을 여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한 사람’으로 인정받았다고 한다. [맥클루어의 책, 101쪽]

셋째, 1612년 엔트워프에서 베드웰은 아랍어로 된 요한서신을 라틴 역본과 함께 묶어 4절 판으로 출간했다. 나는 아랍어를 전혀 알지 못한다. 하지만 요한1, 2, 3서를 아랍어와 라틴어로 번역해 낼 정도면 대단히 능력 있는 학자요 건축자, 즉 킹제임스 성경이란 건물의 건축자라 할 수 있다.

넷째, 그는 또한 케임브리지 대학에 많은 아랍어 사본들을 남겼다. 다양한 주석과 인쇄 폰트와 함께 말이다.

다섯째, 여러 해 동안 그는 세 권짜리 아랍어 사전 편찬 작업에 관여했다. [맥클루어의 책, 100-101쪽]

여섯째, 맥클루어는 이렇게 썼다.

몇몇 현대 학자들[맥클루어가 이 책을 쓴 1857년 기준]은 자기들이 1611년 당시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보다 더 우월한 위치에 있다는 환상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동족 언어와 셈족 언어[히브리어, 아라비아어]에 더 많은 공을 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히 그들은 자기들이 아랍어에 강점을 보이고 있다고 말하며 그 아랍어를 통해 본래 히브리어 단어와 구절에 대한 더 많은 조명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분명히 베드웰과 그의 동역자들은 광범위한 종교 비평 영역 중 이 분야를 완전히 소화한 사람들이었다.

일곱째, 맥클루어는 이렇게 썼다.

베드웰은 또한 페르시아어 사전 작업에 착수했는데 이 사전은 옥스퍼드의 보들리 도서관에서 대주교 라우드의 사본들과 함께 지금까지도 보존되어 있다. [맥클루어의 책, 101-102쪽]

아랍어와 페르시아어 그리고 다른 동방 언어에 능통했던 베드웰은 지금의 현대 역본 번역자들보다 월등히 나왔다. 현대의 많은 ‘번역자’들은 어떤 단어 하나를 만나면 보통 각주와 페이지 하단의 목록에 이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분명하지 않다고 말하고는 다른 식으로 번역한다. NASB가 나온 1960년에 작업했던 사람들도, NIV가 나온 1969에 작업했던 사람들도, NKJV가 나온 1979년에 작업했던 사람들도 이 단어의 뜻을 모르기는 매한가지였다는 말이다.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은 이런 동족 언어를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이러한 단어들을 이해했고 그 단어들이 의미하는 바를 대부분 확실히

알고 있었다. 참으로 이상한 것은 그럼에도 사람들은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의 신빙성과 우수성과 지식수준을 의심하고 있다는 점이다. 동족 언어는 말 그대로 히브리어와 관련된 동일한 계열의 언어를 말한다. 동족 언어에는 아랍어, 페르시아어, 시리아어, 아람어, 콥트어 등이 있다. 그것들은 형제자매처럼 서로 관련되어 있다.

성경을 번역할 때 어떤 단어의 뜻이 분명하지 않을 수 있다. 또는 그 단어가 소위 하팍스레고메논(hapaxlegomenon)인 경우가 있다. 여기서 Hapax란 ‘한 번’(once)이란 뜻이고 legomenon이란 ‘언급되었다’ 혹은 ‘기록되었다’는 뜻이다. 즉 이 단어가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단 한 번밖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말이다. 해당 단어가 이처럼 하팍스레고메나(hapaxlegomena, 복수임)인 경우 그 의미를 파악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다. 그러면 번역자들은 다른 여러 문헌을 가지고 그 의미를 이해하려고 한다.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은 동족 언어인 아랍어, 페르시아어, 아람어, 콥트어 등을 알고 있었기에 곧바로 해당 문헌에서 그 의미를 분명히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현대 번역자들은 이런 동족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앤드류스처럼 15개 국어를 알지 못한다.] 그냥 두 손을 들고 의미가 확실치 않다는 말만 되풀이한다.

3. 스미스(Miles Smith)의 수용성

스미스 박사는 3조에, 옥스퍼드 그룹에 속해 있었다. 옥스퍼드 그룹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서 말라기까지 총 17권을 번역했다. 스미스 박사의 배경에 관한 몇 가지 내용을 소개하겠다.

첫째, 스미스 박사는 번역본에 대한 최종 심사원으로 선출된 12명 중 한 사람이었다.

둘째, 스미스 박사는 가장 많은 학식과 달필을 요하는 킹제임스 성경 서문을 기록하는 일에 부름을 받았다.

셋째, 스미스 박사는 자기만의 주해를 만들 정도로 그리스와 라틴의 교부들을 두루 섭렵했다. AD 100-300년 사이에 광범위하게 저술 활동을 한 교부가 100명 정도였고 AD 300-600년에는 200명이 더 있었다. 스미스는 그리스어와 라틴어로 된 교부들의 글을 모두 읽고는 거기다 자기만의 주석을 만들었다.

넷째, 그는 랍비들의 주석과 주해에 정통했다. 랍비 주석이란 히브리어 난외주를 말한다.

다섯째, 그가 갈대아어(히브리어와 관련된 언어)와 시리아어, 아랍어에 얼마나 정통했는지 그것들은 그의 모국어나 다름없었다고 한다.

여섯째, 그는 히브리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했다. 완전히 능통한 수준이었다. 킹제임스 성경 역자로서 그의 뛰어난 자질을 보여 주는 예라고 하겠다. [맥클루어의 책, 141-143쪽]

E. 두 명의 우수한 킹제임스 신약 성경 역자들

이번에는 두 명의 신약 성경 역자들의 우수성을 짚어 보기로 하자.

1. 새빌(Henry Savile)의 활동

새빌 경은 4조에, 옥스퍼드 그룹에 속해 있었다. 이 그룹은 복음서, 사도행전, 계시록을 비롯한 신약 성경의 6개 책을 번역하는 일을 맡았다. 다음은 새빌 경의 배경이다.

첫째, 새빌 경은 일찍이 뛰어난 그리스어와 수학 실력으로 유명해졌다.

둘째, 그는 엘리자베스 여왕의 그리스어와 수학 가정교사였다.

셋째, 그는 타키투스(Cornelius Tacitus)의 역사를 번역했으며 주석을 달아 출간했다. 타키투스는 라틴 역사학자였고 새빌은 그의 작품을 영어로 번역했다. 현대 역본의 번역자들이 과연 이 복잡한 라틴어 문서를 번역할 수 있을까? 미국에서 라틴어가 저학년의 필수 과목이었던 적이 있었다. 그리고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고등학교 졸업 과정에 라틴어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외국어 선택 과목이 없는 학교도 있다. 설사 하나 정도 있다고 해도 대부분 프랑스어나 독일어 혹은 스페인어이다. 나는 대학에서 1년 동안 라틴어 수업을 들었는데 그것은 고등학교 때 이수할 필요가 없는 과목이었다. 고등학교 때는 스페인어를, 대학에서는 프랑스어를 배웠다. 물론 신학교에서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도 공부했다.

넷째, 새빌은 사본들을 기초로 「펠라기우스에 반대한 브래드워드딘」(*Bradwardin against Pelagius*), 「비드 이후의 영국 역사가들」(*Writers of English History Subsequent to Bede*) 그리고 「유클리드의 원소에 대한 강의」(*Prelections on the Elements of Euclid*) 같은 작품들을 출판했다. 기하학에 심취했던 유클리드가 그리스어로 기술한 것을 새빌이 번역했다. 이것 외에도 새빌은 영어와 라틴어로 된 여러 학술 작품을 번역했다. 보통의 역량으로는 이 일을 해낼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스어로 된 작품들 중 몇몇은 매우 난해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우리는 그의 솜씨를 가늠해 볼 수 있다.

다섯째, 그러나 무엇보다 새빌을 유명하게 한 것은 그가 가장 먼저 크리소스톰(가장 유명한 그리스 교부) 전집을 편집했다는 사실이다. 크리소스톰은 당시 자신이 섬기고 있던 사람들에게 수많은 페이지의 편지들을 썼는데 새빌이 처음으로 그의 작품을 집대성했다. 새빌이 편집한 크리소스톰 전집 1,000부가 1613년에 만들어졌다. 이것은 대형 2절지로 된 8개의 책들이다. 2절지는 큰 사전이나 백과사전 정도의 크기를 말한다. 이것은 기념비적인 작품이었다. 현대 역본의 번역자들이 과연 이런 새빌의 탁월한 능력을 따라갈 수 있을까?

여섯째, 새빌 경은 당대 가장 학문적 조예가 깊고 정확하며 비평적인 학자 중 한 사람이었다. 맥클루어의 표현에 따르면 새빌이야말로 최고의 역본을 만드는 작업에 참모로 ‘적합하고 성숙한’ 사람이었다. [맥클루어의 책, 164-169쪽]

2. 보이스(John Bois)의 학문

또 한 사람의 신약 성경 역자인 보이스는 6조에, 케임브리지 그룹에 소속되었는데 6조는 외경 전체를 번역했다.

a. 외경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

외경 - 로마 카톨릭교회가 구약 성경에 첨가한 의심스러운 책들 - 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므로 나는 다시 한 번 영국 국교회의 신조 39조를 빌어 외경이 진정한 성경기록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 즉 외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외경에는 하나님의 영감이 없다. 그러나 1611년판 킹제임스 성경은 외경을 포함하였다. 사실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은 외경을 신구약 성경 사이의 역사적 자료로서 번역했다. 그 이후에 나오는 킹제임스 성경에는 외경이 없다. 나는 위에서 언급된 맥클루어의 「부활한 번역자들」에서 외경에 관해 언급한 내용을 인용하려 한다.

마지막 조인 6조의 번역자들이 케임브리지에 모였다. 6조에 외경 전체의 번역이 맡겨졌다. 당시 외경은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이 읽혀지고 비중이 있던 책들이었다. 물론 정경의 자리에는 있을 수 없는 책이지만 말이다(185쪽).

그리고 다음과 같은 각주 하나가 덧붙여졌다. “외경을 정경의 책 혹은 영감된 성경기록 목록에 넣지 않은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1. 외경 중 어떤 책도 히브리어로 기록되지 않았다. 또한 한 권 외에는 모두 그리스어로 기록되었고 그 한 권은 라틴어로 기록되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구약 성경의 역사가와 시인들은 오로지 히브리어만 사용했다.
2. 기록자 중 누구도 영감을 주장하지 않았다. 즉 아무도 ‘주님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셨다’라든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3. 유대교는 절대 외경을 거룩한 성경기록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즉 그것은 주님께 인정받지 못했다.
4. 그리스도 교회의 첫 4세기 동안 사용된 신성한 책들에 외경이 발붙일 곳은 없었다.
5. 외경은 우화의 느낌을 갖게 하는 과장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정경에 위배될 뿐 아니라 스스로도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령 마카베오서(상하)에서 에피파네스는 여러 장소에서 세 번씩이나 다른 죽음을 맞이한다.
6. 외경은 성경과 다른 교리를 가르친다. 가령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 - 여기서 로마 카톨릭교회의 죽은 자를 위한 기도의 교리가 나온다 - 라든지 사람이 ‘죄 없이 완전하게 되는 것’ 등이 그것이다.
7. 외경은 부도덕한 행실을 부추긴다. 거기엔 거짓말 - 거짓말해도 된다고 말하는 책이 어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는가? - 자살, 암살 그리고 마술, 강신술사, 영매, 마법사(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에서 금하신 것들이다!) 등이 있다.

이런저런 이유로 외경은 동방의 역사와 생활방식, 언어와 가치관을 아는 데 도움을 주는 고대 문헌 정도의 가치만 지니고 있다.

b. 보이스의 배경

첫째, 보이스는 자기 아버지의 세심한 가르침을 받으며 성장했다. 이것은 정말 좋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아버지라 하면 자기 자녀들을 단순히 학교나 주일 학교 선생들에게 떠맡길 것이 아니라 손수 돌보고 가르칠 의무가 있다. 이제 신동 이야기를 해 보자. 보이스는 5세 때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었다. 오늘날 어떤 사람이 이 정도의 배경과 능력을 갖추고 있겠는가? 당시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과 오늘날 학자들 간의 차이는 거인국의 거인과 소인국의 소인만큼이나 큰 것이었다. 나를 화나게 하는 것은 사람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조롱하며 이 귀한 책에 온갖 나쁜 수식어 - 구식이다, 한물갔다, 부적합하다, 열등하다 - 를 갖다 붙이는 것이다. 그들은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이 자기 시대 학자들보다 못하며 현대 학문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이다. 우리가 말로 그들이 가졌던 학문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현대 역본 번역자들

중 다섯 살 때부터 성경을 읽어온 사람이 있는지 물어 보라! 아마도 다섯 살에는 성경은 커녕 읽는 것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질문에 이 단어도 덧붙여 보라. [‘히브리어로!'] 이쯤 되면 그렇게 묻는 당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볼지 모른다. 믿기 어려울지 모르나 맥클루어의 책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다. [맥클루어의 책, 200쪽]

둘째, 여섯 살이 된 보이스는 히브리어를 쓰기 시작했는데 단순히 알아볼 수 있을 정도를 넘어서서 상당히 우아한 필체를 선보였다. 사실 히브리어를 조금 안다는 사람도 글을 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보이스는 여섯 살 때 히브리어를 멋지게 썼다. [맥클루어의 책, 200쪽]

셋째, 그는 곧 그리스어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그는 그리스어로 대학교에 있는 선생들과 선배들에게 편지를 썼다. 여러분이 그리스어를 조금 한다고 하더라도 평소에 편지를 그리스어로 쓰지는 않을 것이다. 신약 성경의 그리스어 혹은 고대 그리스어로 편지를 쓰고 대화를 하는 정도는 되어야 그리스어를 영어로 제대로 번역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처럼 보이스는 히브리어뿐 아니라 그리스어에도 정통한 사람이었다. [맥클루어의 책, 200쪽]

넷째, 그리스어에 관한 한 그 학교 최고의 강사였던 다운 박사의 방에서 보이스는 다운 박사와 함께 그리스어 작품 12개를 언어와 문구 모두에서 가장 어렵다는 산문으로 읽었다. 이 젊은이가 대학교 도서관에서 오전 4시부터 앉아 저녁 8시까지 - 16시간 연속으로 - 쉬지 않고 읽고 공부하는 모습은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었다고 한다. [맥클루어의 책, 201쪽]

고대 그리스어는 그 역사만큼이나 많은 수의 구분을 가지고 있다. 당신이 초기 그리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호머식 그리스어’(Homeric Greek)를 접하게 될 것이다. 나는 미시간 대학교에서 고대 그리스어와 라틴어를 전공하면서 ‘호머식 그리스어’를 공부했다. 우리는 거기서 호머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를 배웠다. ‘호머식 그리스어’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그리스어이며 이해하기도 어렵다. 고대 그리스어는 철자나 언어, 규칙, 문법 면에서 조금씩 다르다. 고대 그리스어는 이오니아(Ionic), 도리아(Doric), 아티카(Attic)의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 그중 아티카 그리스어의 줄기에서 우리가 흔히 코이네라고 부르는 그리스어가 나왔다. 그러나 그전에는 비잔틴 그리스어가 있었다. ‘70인역’ 그리스어는 코이네 그리스어였다. 코이네 그리스어의 존속 기간은 대략 BC 300년부터 AD 300년까지였다. 코이네 그리스어는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일반 그리스어였으며 신약 성경기록에 사용된 그리스어이기도 했다. 그리고 나서 모양도 발음도 조금 다른 현재의 그리스어에 이르게 된 것이다. 보이스는 고대 그리스어를 구사했고 운문과 산문에서 가장 어렵다는 그리스어 작품 12개를 소화했다.

미시간 대학교에서 고대 그리스어 강의를 들을 때가 생각난다. 과학과 수학을 전공하고 있던 나는 의학 박사가 될 요량으로 예비 의학도 전공하고 있었다. 그 시기에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진로가 바뀌게 되었다. 신학교에 가야 했기에 나는 전공을 바꾸었다. 내가 들어가길 원했던 델러스 신학교는 당시 입학 전 8시간의 그리스어 과정 이수를 요구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어와 라틴어를 전공했고 번갈아가며 총 30시간 과정을 이수했다. 사실 난 그 전까지 전문적으로 배운 언어가 하나도 없었다. 스페인어를 조금 알고 있었지만 어렸던 초창기에는 그리스어 때문에 애를 먹었다. 우선 고대 그리스어 기초 과정을 마쳤고 미시간주 앤아버의 미시간 대학교 고대 언어학과장으로 계셨던

블레이크(Warren E. Blake) 박사님 밑에서 고대 그리스어 고급 과정을 배웠다. 블레이크 박사님은 학자였으며 그리스 언어에 매우 뛰어난 분이셨다. 내가 기억하기로 우리는 여러 개의 아티카 그리스어로 쓰인 작품들을 번역해야 했다. 특히 플라톤의 「변명」(Apology)은 소크라테스의 생애를 다룬 책으로 그가 자기와 변론하는 이들을 어떻게 논박했는지 보여 줬는데 그리스어가 상당히 어려웠다. 그래서 먼저 영어 번역을 보고 그리스어 본문을 보았다. 문제는 그 번역이 킹제임스 성경처럼 문자적인 번역이 아니라서 실제 그리스어가 말하는 바를 알아내는 데 힘이 들었다는 점이다.

내가 그리스어와 씨름해 보아도 번역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보시고 교수님은 자주 깊은 한숨을 쉬곤 하셨다. 하지만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보이스는 자기 스승의 눈앞에서 가장 어렵다는 12개의 작품들을 아무런 문제없이 술술 번역했을 것이 아닌가?

다섯째, 보이스의 서고에는 그때까지 만들어진 것 중 가장 완전하고 비싼 그리스어 문학 작품집 중 하나가 있었다. 보이스는 능력만 뛰어난 뿐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방대한 서고를 가지고 있었다. [맥클루어의 책, 203쪽]

여섯째, 그는 그리스어와 히브리어 모두에서 뛰어났다.

일곱째, 런던 스테이셔너 홀(Stationer's Hall)에서 있을 번역본의 최종 교정 작업을 위해 각 조에서 두 명씩 선출되었는데 보이스는 그 열두 명 중 한 사람이었다. 최종 교정 작업은 9개월이 소요되었고 히브리어나 그리스어에 문제가 발견될 때 보이스가 많은 도움을 주었다.

여덟째, 보이스는 성경 번역 위원회의 모든 진행 상황을 기록했다. 일종의 서기였던 것이다. 그가 남긴 기록은 당시 킹제임스 성경 번역 작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는지 알 수 있는 몇 안 되는 증거들 중 하나이다.

아홉째, 임종 시 보이스에게서 그가 살았던 날들 만큼이나 많은 쪽의 원고가 발견되었다. 그의 생애가 83년 11일, 날 수로 30,306일임을 감안한다면 그는 30,000쪽이 넘는 원고를 남겼다는 이야기다. 그는 참으로 다작 작가요 학자였으며, 독자요 일꾼이었다.

열째, 그는 그리스어 성경에 매우 정통하였고 그리스어 성경 안에 있는 어떤 단어든 금방 댈 수 있었다. [맥클루어의 책, 199-208쪽]

이제까지 살펴본 몇 명의 번역자들은 우리가 생각해 낼 수 있는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뛰어난 사람들이다. 이외에 번역자들에 대해 알고 싶은 것이 있다면 앞서 나왔던 참고 문헌을 참고하기 바란다[B.F.T #1419, #584 혹은 #804].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에게 선사해 준 사람들을 전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숙련된 건축자로서 바른 기초 위에 가능한 모든 연장을 가지고 건물을 지었다. 그들은 영어, 그리스어, 히브리어 그리고 관련 동족 언어들을 알고 있었고 자기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그 일을 훌륭히 해내었다.

F. 나머지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의 언어 관련 이력 요약

이제 나머지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 중 몇 사람의 목록과 그들의 언어적 자질을 보여주는 이력을 함께 신고자 한다.

내용은 번역자의 이름, 주요 이력, 그리고 맥클루어의 책 - 「부활한 번역자들」의 해당 참고 페이지 순으로 이루어져 있다.

1. 오버롤(John Overall)

오버롤 박사는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교부들을 인용하는 특유의 안목으로 정평이 나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라틴어를 썼기 때문에 영어로 오래 이야기하는 것이 힘들었다고 한다. 여러 언어에 능통했던 그는 원문 성경의 의미를 파악하는 일에 적임자였다. 오버롤 박사는 구약 성경 담당 웨스트민스터 그룹에 속해 있었다. [맥클루어의 책, 93-99쪽]

2. 사라비아(Hadrian Saravia)

사라비아 박사는 1590년에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베자, 다내우스, 그리고 다른 장로교 사람들을 반박하는 여러 편의 라틴어 논문을 써냈다. 사라비아 박사는 여러 언어를 배웠는데 그중에 히브리어가 두드러졌다. 그는 창세기에서 열왕기까지 12권의 책을 번역한 구약 성경 담당 웨스트민스터 그룹 소속이었다. [맥클루어의 책, 93-99쪽]

3. 타이(Robert Tighe)

타이 박사는 ‘탁월한 원문주의 언어학자’로 알려져 있었다. 그 또한 구약 성경 담당 웨스트민스터 번역 그룹에 속해 있었다. [맥클루어의 책, 98쪽]

4. 킹(Geoffrey King)

그는 케임브리지 대학교 히브리어 강좌 담당 교수였으며 역시 구약 성경 번역을 위한 웨스트민스터 그룹 소속이었다. [맥클루어의 책, 99쪽]

5. 라이브리(Edward Lively)

그는 ‘세계 최고의 언어학자 중 한 사람’이었으며 역시 케임브리지 대학 히브리어 강좌 담당 교수였다. 그는 여러 동방 언어에 뛰어났고 역대기와 5개의 작은 대언서(소선지서)에 대한 라틴어 강해서를 펴내기도 했다. 옥스퍼드의 푸시 박사는 라이브리를 두고 ‘최고의 히브리어 학자인 포코크에 버금간다’라고 했다. 라이브리는 역대기상에서 솔로몬의 아가까지의 구약 성경 10권의 책을 번역한 구약 성경 담당 케임브리지 그룹의 리더였다. [맥클루어의 책 103-104쪽]

6. 리차드슨(John Richardson)

리차드슨도 ‘가장 뛰어난 언어학자’ 중 한 사람이었다. 그는 종종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여러 학자들과 토의를 벌였는데 이런 토의는 당시 관습처럼 모두 라틴어로 진행되었다. 이후 리차드슨은 케임브리지 대학의 부총장이 되었다. 그는 라이브리가 인도한 구약 성경 담당 케임브리지 그룹에 속해 있었다. [맥클루어의 책, 104-107쪽]

7. 쉐더튼(Lawrence Chaderton)

그는 라틴어, 그리스어, 히브리어에 능통했다. 그의 학문이 이 정도였기에 성경 번역에서 중요한 부분을 맡을 수 있는 자질을 인정받았던 것이다. 그는 성숙함을 지닌 훌륭한 학자였다. 쉐더튼은 구약 성경 담당 케임브리지 그룹의 일원이었다. [맥클루어의 책, 107-116쪽]

8. 딜링햄(Francis Dillingham)

그는 자주 ‘그리스어 연극’에 참가했는데 이것은 그리스어로 진행되는 일종의 토론회였다. 또한 그리스어에 대한 재능과 지식이 뛰어나 ‘위대한 그리스어 학자’로 불렸다. 그는 구약 성경 담당 케임브리지 그룹의 일원이었다. [맥클루어의 책, 116-117쪽]

9. 해리슨(Thomas Harrison)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에 대한 탁월한 역량을 갖추었으므로 그는 당시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해당 언어 분야의 교수 임용 시험 위원장을 맡았다. 그는 구약 성경 담당 케임브리지 그룹 소속이었다. [맥클루어의 책, 118쪽]

10. 스파울딩(Robert Spaulding)

스파울딩은 라이브리의 뒤를 이어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히브리어 강좌 담당교수를 지냈다. 그는 구약 성경 담당 케임브리지 그룹의 일원이었다. [맥클루어의 책, 119쪽]

11. 빙(Andrew Bing)

빙은 앞에서 언급한 스파울딩의 뒤를 이어 히브리어 강좌 담당교수직을 맡았으며 역시 구약 성경 담당 케임브리지 그룹 소속이었다. [맥클루어의 책, 119쪽]

12. 하딩(John Harding)

하딩 박사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13년 동안 히브리어 왕실 교수로 지냈다. 그는 이사야서에서 말라기까지 17권의 구약 성경을 번역한 구약 성경 담당 옥스퍼드 그룹의 의장이었다. [맥클루어의 책, 120-121쪽]

13. 홀랜드(Thomas Holland)

홀랜드 박사는 모든 학문 언어에 관한 놀라운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성경에 능하였고 마치 교부처럼 교부들의 글에 능했다. 그는 구약 성경 담당 옥스퍼드 그룹에 있었다. [맥클루어의 책, 134-137쪽]

14. 킬비(Richard Kilby)

히브리 학문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그는 옥스퍼드 대학 문학 부문에서 왕실 교수로 임명되었다. 킬비는 학문과 지혜를 겸비한 인재인데다 뛰어난 히브리어 평론가였으므로 옥스퍼드 대학에서 교수직을 맡게 되었다. 빼어난 그리스어 학자이기도 했던 그는 왕이 제정한 성경의 번역자 중 한 사람으로 발탁되었다. 그는 구약 성경 담당 옥스퍼드 그룹 소속이었다. [맥클루어의 책, 138-141쪽]

15. 브렛(Richard Brett)

그는 라틴어, 그리스어, 히브리어, 갈대아어, 아랍어, 그리고 에티오피아어에 조예가 깊었다. 그는 많은 학문 작품을 출판했고 이것들은 모두 라틴어로 되어 있었다. 브렛은 구약 성경 담당 옥스퍼드 그룹의 일원이었다. [맥클루어의 책, 144쪽]

16. 애봇(George Abbot)

1598년 애봇 박사는 라틴어 작품 하나를 출간했는데 이 작품은 독일어로 재출간되었다. 그는 신약 성경 6권(사복음서, 사도행전, 요한계시록)을 번역한 신약 성경 담당 옥스퍼드 그룹의 일원이었다. [맥클루어의 책, 152-161쪽]

17. 페린(John Peryn)

그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그리스어를 가르치는 왕실 교수였다. 그는 신약 성경 담당 옥스퍼드 그룹의 일원이었다. [맥클루어의 책, 169-170쪽]

18. 하르마(John Harmar)

1585년에 하르마는 그리스어 왕실 교수로 임명되었다. 그는 당시 기라성 같은 학자들 중에서도 단연 돋보였으며 말 그대로 당대의 거성이었다. 그는 여러 서적을 출간했고 그중에는 크리소스톰의 라틴어 번역본이 있었다. 그는 뛰어난 영어 문장가요, 번역 기술의 대가였으며 가장 잘 알려진 라틴어 학자요, 그리스어 학자며 성경학자 중 한 사람이었다. 또한 흠잡을 데 없는 신학자로서 그는 교부들과 스콜라 학자들의 글을 훌륭히 소화했다. 그는 신약 성경 담당 옥스퍼드 그룹의 일원이었다. [맥클루어의 책, 170-172쪽]

19. 스펜서(John Spencer)

스펜서는 겨우 19세의 나이에 옥스퍼드 대학교 산하 코푸스 크리스티 대학의 그리스어 강사로 뽑혔다. 그의 우수한 학식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는 영어 성경 번역 작업에서 중요한 도우미 역할을 했다. 그는 로마서에서 유다서까지 총 21개의 책을 번역한 신약 성경 담당 옥스퍼드 그룹 소속이었다. [맥클루어의 책, 183-184쪽]

20. 데이킨스(William Dakins)

1601년에 데이킨스는 신학 학사가 되었고 다음 해 케임브리지 대학교 산하 트리니티 대학에서 그리스어 강사로 임명되었다. 그는 특히 원문 언어에 탁월한 자질을 보여 번역 작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는 신약 성경 담당 웨스트민스터 그룹의 일원이었다. [맥클루어의 책, 183-184쪽]

21. 듀포트(John Duport)

듀포트 박사는 ‘유명한 그리스어 교수요 신학 교수였다.’ 그는 외경을 맡은 케임브리지 그룹의 의장이었다. [맥클루어의 책, 186-187쪽]

22. 다우네스(Andrew Downes)

40년 동안 다우네스는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그리스어 강좌 담당 교수로 지냈다. 혹자는 이 노교수를 ‘그리스어와 근면함으로 뭉친 사람’이라고 했다. 다우네스는 외경을 맡은 케임브리지 그룹의 멤버였다. [맥클루어의 책, 198-199쪽]

23. 후턴(Leonard Hutton)

뛰어난 그리스어 학자로 알려진 그는 기품 있는 학자였다. 그는 교부들과 스콜라 학자들의 글과 학문 언어에 능숙했는데 이 모두가 당시 매우 인기 있는 학문들이었다. 후턴 박사는 번역자로서 도움을 주었으며 옥스퍼드 그룹에 속하였다. [맥클루어의 책, 210-214쪽]

24. 빌슨(Thomas Bilson)

빌슨 박사에게 대해서는 이런 설명이 있다. ‘그는 신학과 언어 면에서 완성된 수준에 있었고 교부들과 스콜라 학자들에 대해 박식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의 학식을 분별 있게 사용할 줄 알았다. 결국 그는 영적 전쟁에서 일개 병사가 아닌 지휘관 역할을 하게 되었다.’ 빌슨은 번역에 도움만 주고 번역 그룹에는 속하지 않았으며 후에 출간 위원회에서 왕실 인쇄소로 책이 넘어가는 과정을 감독했다. [맥클루어의 책, 214-216쪽]

G.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의 우수성에 대한 맥클루어의 평가

1. 번역자들의 우수함에 대해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에 대한 연구를 마친 맥클루어는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그들을 평가했다.

번역자들의 자질이나 번역이 이루어진 시기를 살펴보면 다시 한 번 나는 참으로 이 일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느낀다. 그때는 영어라는 언어가 완성기에 접어든 시기였고 그리스어와 동방 언어 및 랍비 학문에 대한 유례없이 활발한 연구가 영국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용을 읽어 본 독자들은 이 같은 위대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현존하는 - 맥클루어가 살던 AD 1857년 기준 - 영국과 미국의 모든 대학을 통틀어 보아도 이만한 수의, 이만한 학식을 갖춘, 이만한 경건함을 가진 신학자들을 모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교만한 이 시대에 이러한 거성들과 이름을 나란히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몇이나 될까?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오늘날 어디서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만큼 우리에게 확신과 신뢰를 줄 만한 사람들을 찾아 볼 수 있겠는가? 모든 교단과 기독교 진영 전부를 뒤진다고 할지라도 그만한 번역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맥클루어의 책, 63-64쪽]

나 역시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2.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과 다투었던 사람들의 열등함에 대해

맥클루어는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의 작품을 두고 왈가왈부했던 사람들을 가리켜 재미있게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최고의 역량과 자질을 갖춘 신학자들이 함께 이루어 낸 작품을 어찌 각지에서 몰려든 어설픈 학자들과 몰락한 목사들과 단순한 신도들의 합작품과 비교할 수 있겠는가? 그들은 자기들의 작품이 ‘개량되고’ ‘개선되고’ ‘교정을 거친’ ‘믿을 만한’ 재번역이라고 자랑하고 다니며 ‘미국과 외국 성경 연대라는 것을 만들어 이 건방진 성과물을 출판하고

있다. 이런 천박한 모험가들이 앞서 짚어 본 그런 덕망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과 어찌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겠는가! 신홍 역본주의자들이 아무리 우쭐대고 기세등등하더라도 그들은 이런 고대 학문의 대가들의 꼬리에도 미치지 못한다. 우리의 새파란 친구들이 앤드류스나 레이놀즈, 워드, 보이스가 원문 성경의 의미에 대해 주석들을 비교하고 있는 동안 입을 다물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라! 땀장자들이 손볼 수 있는 쇠붙이가 있고 장인의 손길이 필요한 쇠붙이가 있다. 어떻게 땀장자에게 성소의 금 그릇을 맡기겠는가? 그들이 그것을 아무렇게나 땀질하도록 어찌 내버려 두겠는가? [맥클루어의 책, 233-234쪽]

맥클루어의 이 말은 그가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의 연구에 들인 시간과 노력을 감안할 때 결코 경솔한 말이 아니었다. 그에게는 참으로 이런 결론을 내릴 만한 근거가 있었다.

3.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이 만든 작품의 우수성에 대해

이제 나는 맥클루어의 마지막 논평으로 이 장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킹제임스 성경의 우수성을 언급하면서 맥클루어는 다른 한 사람의 글을 인용했다. 그 사람은 게데 (Alexander Gedde)라는 사람으로 당시 ‘로마 카톨릭교회의 사역자’였다. 그는 킹제임스 성경의 재번역을 시도했던 사람이었다. 내가 그의 신학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킹제임스 성경의 정확성에 관한 그의 글은 건전하기에 여기서 소개하겠다.

제임스 1세의 번역물인 킹제임스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서 최고의 찬사를 받아 왔다. 뛰어난 역본의 탄생 조건이 정확하고 충실하게 본문을 반영하는 것이라면 이 역본이야말로 모든 역본 중에서 최고가 틀림없다. 문장, 단어, 구, 절, 글자, 점 하나하나가 엄밀히 비교 검토되었고 본문과 여백이 모두 정확히 표현되었다. 파가니누스 자신도 이보다 충실할 수는 없다. 백 년 전 사람인 로버트슨도 킹제임스 성경이 단순한 번역본으로서 뿐 아니라 히브리어 사전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맥클루어의 책, 238-239쪽]

이것은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의 산물인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보여주는 말이다. 나도 전심으로 이 말에 동의한다.

제 4 장

Chapter 4

킹제임스 성경이 영어로 보존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그것의 우수한 번역 기법 때문이다

킹제임스 성경이 온전히 영어로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1) 우수한 본문과 (2) 우수한 번역자들 때문이기도 하지만 번역 작업에 적용된 (3) 우수한 번역 기법도 한 가지 원인이다.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은 현대 번역자들이 사용하는 방법을 채택하지 않았다. 번역 기법에 관하여는 크게 (1) 팀 단위 번역의 우수성과 (2) 번역 기법의 우수성의 두 가지를 살펴볼 것이다.

A. 팀 단위 번역 기법의 우수성

킹제임스 성경이 오늘날 시중에서 돌아다니는 현대 역본들(NASB, NIV, NEV, 그리고 기타 현대 역본들)과 다른 식으로 번역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중요하다.

1. 각 번역자는 성경의 책들을 직접 번역해야 했다.

먼저 성경의 책들이 각 번역자에게 할당되었고 각 번역자는 그것들을 직접 번역했다. 오늘날에는 이렇게 하지 않는다. 특정한 책을 번역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다. 그것도 몇 명뿐이고 나머지는 실제 번역 작업에 관한 한 구경꾼으로 남아 있다. 그들이 하는 일이라곤 그저 다른 역본들과 비교해 보거나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다듬는 정도였다. 실제 번역을 하는 사람은 번역 팀 중 소수에 불과하다. 그들은 번역 위원회에서 소위 '인재들'이다.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은 이렇게 번역되지 않았다. 여섯 조에 속해 있는 각 사람(총 57명)은 구약 성경 히브리어와 신약 성경 그리스어에 능통한 사람이어야 했고 자기 조에 맡겨진 책들을 직접 번역해야 했다. 물론 번역 작업이 끝나기 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각 사람이 스스로 번역해야 했다. 스스로 번역한 것처럼 속이는 일도 불가능했는데 이것은 그들이 직접 자신의 손으로 쓴 번역물들을 가지고 와야 했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아래 언급된 그들의 번역 규칙 중 하나였다.

2. 웨스트민스터 그룹

a. 구약 성경 부분

가령 구약 성경을 맡은 웨스트민스터 그룹 1조 - 페인의 「킹제임스 성경 배후의 사람들」 비교 - 는 창세기부터 열왕기까지 구약 성경 12권의 책을 번역해야 했다. 어떤 형태로든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 본 사람이라면 보통 창세기를 넘기기 전에 한 달이 훌쩍 지나가 버린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일에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 히브리어에 아주 익숙하지 않다면 말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창세기뿐 아니라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룯기, 사무엘기상, 사무엘기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 모두를 스스로 번역해야 했다. 자기에게 정해진 시간 동안 이 모두를 번역하는 일은 히브리어에 정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당신은 그것을 흉내 낼 수 없다. 번역자들은 원고를 손으로 써서 제출해야 했고 자신의 번역물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했다. 창세기부터 열왕기하까지의 구약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의장인 앤드류스, 베드웰, 벌리, 클라크, 킹, 레이필드, 오버롤, 사라비아, 타이, 톰슨이다. 이 모든 사람이 직접 번역에 참여했다.

b. 신약 성경 부분

웨스트민스터 그룹 2조는 로마서에서 유다서까지 신약 성경 21권을 맡았다. 그들의 일은 단순히 신약 성경 21권을 그리스어로 읽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것이었다. 즉 그들은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후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요한1, 2, 3서 그리고 유다서를 모두 직접 번역해야 했다. 이 팀의 번역자들은 의장인 발로우를 비롯하여 데이킨스, 펜튼, 허친슨, 라벳, 샌더슨, 스펜서이다. 이들 외에 빌슨은 이 조의 편집장이었다.

3. 옥스퍼드 그룹

a. 구약 성경 부분

구약 성경의 일부분을 맡은 옥스퍼드 그룹은 이사야서에서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 17권을 번역해야 했다. 이 조에는 8명의 번역 위원이 있었고 각 사람은 이 17권 책 전부를 직접 번역해야 했다. 여기에는 의장인 하딩과 브렛, 피틀리, 홀랜드, 킬비, 킹제임스 성경 번역을 제안한 청교도 레이놀즈, 스미스, 쏬이 있었다.

b. 신약 성경 부분

신약 성경의 일부분을 맡은 옥스퍼드 그룹은 신약 성경의 6권의 책, 즉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과 사도행전 그리고 계시록을 번역해야 했다. 번역자들은 의장인 애봇을 비롯하여 애글리온비, 하르머, 후텐, 페린, 라비스, 새빌과 톰슨이었다.

4. 케임브리지 그룹

a. 구약 성경 부분

구약 성경 담당 케임브리지 그룹은 역대기상에서 전도서까지 10권의 책들을 번역해야 했다. 물론 8명 전부가 직접 번역 작업을 했다. 번역자들은 의장인 라이브리를 포함하여 앤드류스, 빙, 쉐더톤, 딜링햄, 해리슨, 리차드슨, 스파울딩 등이었다.

b. 외경 부문

외경을 맡은 케임브리지 그룹은 외경 전체를 (영감된 성경기록이 아니라 역사 자료로 서만) 번역했다. 번역 위원들은 듀포트(의장), 보이스, 브레이쓰웨이트, 다우네스, 래드클리프, 워드(S. Ward)와 워드(R. Ward)였다.

위의 48명의 이름은 대영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여기에 추가될 이름은 (49) 쏬, (50) 에데스, (51) 라이브스, (52) 에이어, (53) 몬타그, (54) 레이크, (55) 러브, (56) 레이브스, 그리고 (57) 스파크이며 이들 역시 킹제임스 성경 작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이었

다. [페인의 책, 185쪽] 이렇게 해서 모두 57명이 번역에 참가하였다.

5.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 원칙 중 일부

앞서 나는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이 성경을 직접 번역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것은 「킹제임스 역본 배후의 사람들」이란 책을 근거로 한 말이다. 이 책의 70-71쪽에는 제임스 왕이 고집했던 15가지 규칙이 실려 있다. 자, 제임스 왕은 이 규칙을 제정한 것 빼고는 번역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당신은 굳이 제임스 왕을 옹호하지 않아도 된다. 그는 '성인' 제임스가 아니었다. 이것에 관하여는 바이눔(E. L. Bynum) 목사가 지은 「성인 제임스가 아니라 왕 제임스이다」라는 좋은 글이 있다[B.F.T #1364]. 나는 바이눔 목사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고 주님 안에서 그를 사랑한다. 많은 사람들이 제임스 왕(킹제임스 성경은 제임스 왕의 이름을 딴 것임)의 잘못이나 약점들을 가지고 비판하길 좋아한다. 사실 그중 상당수가 확인되지 않은 것이다. 어쨌든 제임스 왕은 여러 면에서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킹제임스 성경은 제임스 왕이 번역한 성경이 아니다. 제임스 왕은 번역자 57명 중 한 사람이 아니었다. 다만 그는 번역의 필요를 인정하고 번역을 지시했을 뿐이다.

레이놀즈 박사는 제임스 왕에게 번역 작업을 허락하고 번역할 사람을 모으고 번역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간청했다. 제임스 왕은 이 번역 작업에 관심을 보였다. 그 자신 또한 여러 언어를 알고 있었다. 제임스 왕은 그저 번역이 이루어졌던 시기에 있었던 왕이었을 뿐이다. 그러므로 이것에 관한 논쟁은 무의미하다. 제임스 왕과 킹제임스 성경을 억지로 연관 지으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에게는 번역 작업을 진행할 때 지켜야 할 15가지 규칙이 있었다. 여기서는 그중 다섯 가지를 발췌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a. 규칙 8

번역의 규칙 중 하나는 다음과 같다.

각 조에 있는 각 사람은 같은 내용의 장을 맡아 자신이 직접 번역하고 손을 본다. 해당 작업이 끝나면 모여서 그중에서 어떤 번역을 취할 것인지 논의한다. [페인의 책, 71쪽].

가령 창세기에서 열왕기하까지 말은 1조의 경우 7명의 조원들 각 사람이 직접 모든 책과 장과 절을 번역해야 했다. 이때 본문은 7명에 의해 7번의 검토를 거치게 된다. 이 일이 끝나면 같이 모여 한 번 더 확인한다. 그러므로 총 8번 본문을 보아야 한다.

b. 규칙 9

이런 식으로 어느 한 조가 책 한 권을 끝내면 그들은 그것을 나머지 조들에 보내고 나머지 조들은 이것을 면밀히 검토한다. 이것은 폐하께서 특별히 신경 쓰시는 부분이다. [페인의 책, 71쪽]

위에서 말한 대로 1조가 총 8번의 검토를 끝내면 그 초안을 2, 3, 4, 5, 6조로 보내고 거기서 다섯 번 더 검토를 거치게 된다. 그들은 이렇게 작업을 교환했다. 여기까지 하면 총 13번의 검토가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여섯 조의 각 조에서 2명씩 선출된

총 12명의 사람이 모여 최종 모임을 가진다. 이런 식으로 번역자들은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성경의 모든 책을 14번씩 번역하고 분석하고 교정했다. 이것이 바로 현대 번역자들이 흉내낼 수 없는 팀 단위 작업이다.

c. 규칙 10

검토 과정 중에 미심쩍거나 서로 차이가 나는 부분이 발견되면 해당 위치와 이유 [다른 이유, 잘못된 점] 를 표시해 둔다. 번역자들 간에 일치율을 보기 어려운 이런 차이점들 [각자의 입장이 너무 분명해 조정이 힘든 부분] 은 각 조의 대표들로 구성된 총회로 넘어가며 거기서 해결을 본다. (이런 식으로 모든 번역자들은 번역물에 대한 최종적인 일치를 보아야 했다.) [대괄호 안의 말은 저자의 것임] [페인의 책, 71쪽]

결국 어떤 문제가 생기면 보이스 같은 히브리어 천재가 포함된 최종 모임에서 해결하였다.

d. 규칙 11

특별히 번역 위원회 내에서도 뜻을 분명히 규명하기 어려운 부분을 만날 경우 이것을 나라 안에 있는 학식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어 자문을 구하도록 한다. [페인의 책, 71쪽]

그들은 비단 번역 위원들뿐만 아니라 ‘많은 학식이 있는 다른 사람들’을 활용했다. 이 또한 뛰어난 팀 단위 작업의 일부였다.

e. 규칙 12

각 감독은 해당 교구의 나머지 교역자들에게 편지를 보낸다. 그래서 자신의 번역을 알리고 관내에 해당 언어 [히브리어, 그리스어 및 기타] 에 소질이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 동원하여 그 번역을 검토하게 한다. 그들이 애써 만든 [단순히 훑어보는 정도가 아니라 부지런히 연구한] 검토 결과를 웨스트민스터나 케임브리지 혹은 옥스퍼드 그룹 에 보낸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번역 일을 도왔음을 보여 준다.) [대괄호의 말은 저자의 것임] [페인의 책, 71쪽]

번역자들은 팀을 이루었고 개인적인 작업을 마친 후에는 팀 단위로 일했다. 각 사람은 모두 뛰어난 번역자였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이 일을 해낼 수 있었겠는가? 나도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를 꽤 알고 있으나 이 번역자들 중 하나가 될 정도의 자질은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은 우리가 영어를 아는 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성경의 언어들 잘 알고 있었다. 그들에게 있어 이 일은 간단한 일이었다. 수학자에게는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푸는 기술이 있다. 공학자에게는 다리나 큰 건물을 짓는 기술이 있다. 건축가든 기술자든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번역자들도 자기 분야를 알고 있었고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역량이 있었다. 우리는 번역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들이 바른 방법으로 이 일을 완수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그 방법은 현대 역본의 번역 기법과는 달랐으며 그보다 월등한 것이었다.

6. 팀 단위 작업의 우수성에 대한 요약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이 사용한 팀 단위의 번역 기법은 현대 역본 번역자들이 사용한 방법과 전혀 달랐다. 각 번역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 맡겨진 책(1조의 경우

12권)을 모두 번역해야 했다. 그것도 히브리어로 된 어려운 책들을 말이다. 1조는 창세기에서 열왕기까지, 옥스퍼드 그룹의 구약 성경 팀은 이사야서에서 말라기서까지 번역했다. 개개의 번역자는 손수 히브리어를 영어로, 그것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번역해야 했다.

NASB, NIV, NKJV를 번역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자질이 없었다. 그저 포장만 그럴 듯했을 뿐이다. 물론 현대 역본 번역 위원회에는 학위 있는 사람들과 박식한 ‘학자들’도 있었다. 하지만 그들 대부분은 해당 역본의 구입을 부추기는 홍보 위원에 불과했다. 출판사는 돈을 벌기 위해 이 사람들이 필요했다. 홍보 위원들이 써놓은 추천사에는 대개 “아무개 박사가 극찬한 역본!”이라는 광고 문구가 실려 있다. 역본의 종류와 관계없이 현대 역본 번역 위원들은 번역하는 사람이 아니다. 굳이 모든 번역 위원들이 번역에 가담할 필요는 없다. 그들에게는 번역을 하지 않는 번역 위원이 더 이상 낯선 개념이 아니다. 혹 여러분에게 이것을 반박할 만한 자료나 문서가 있다면 언제든지 환영하겠다. 확신하건대 나의 말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현대 역본 번역 위원들 중 실제로 번역을 한 ‘학자들’은 소수에 불과했다. 반대로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은 각자가 최고의 역량을 갖춘 사람들이었고 자기의 번역을 마친 후에도 같이 모여 최종 번역을 결정하는 작업을 했다.

원래의 본문은 먼저 7번의 번역 작업을 거쳤고 번역자들이 모여서 1번 더 검토했고 다른 조들로 넘어가 5번 더 검토 작업을 거쳤다. 그들은 번역본을 교환했다. 이것은 팀 단위로 이루어진 노력이었다. 따라서 번역 작업은 개인이 7번, 그룹이 1번, 다른 그룹들이 1번씩 총 5번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그룹당 2명씩, 여섯 개 그룹에서 차출된 12명이 최종 교정을 보고 작업을 마무리했다. 따라서 성경의 모든 책은 최소한 14번 이상의 철저한 번역을 거쳤다. 우리가 아는 한 이것은 정말 이례적인 것이며 전무후무한 팀 단위 작업 방법이다. 따라서 그 방법의 우수성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B. 번역 기법의 우수성

1.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은 ‘문자적 일치’ 곧 ‘형식적 일치’ 번역 기법을 채택하였다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 기법이 우수한 까닭은 번역자들이 소위 ‘문자적 일치’(Verbal equivalence) 혹은 ‘형식적 일치’(Formal equivalence)라 불리는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현대 역본들의 이른바 ‘동적 일치’(Dynamic equivalence) 방법을 채택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자신의 ‘말씀들’(단어들)을 가지고 ‘말씀의 그 순전한 뜻을 사모하여 그 뜻으로 자라가길’ 원하신다. 이것은 우리와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의 공통된 믿음이다.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필요하다. 나는 부록 A에 이 ‘하나님의 말씀들’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몇몇 구절들을 실었다. 한번 유심히 읽어 보기 바란다. 성경을 번역할 때도 사람의 말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들’(단어들)이 필요하다. 설교자나 교사가 도움을 줄지는 몰라도 우리가 첫째로 필요로 하는 것은 순전한 말씀의 뜻이다. 우리는 그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자랄 것이다. 베드로는 “은혜 면에서 성장하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면에서 성장하라.”고 말한다(벧후3:18).

영적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때 가능하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알고 붙들고 믿고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고 양식으로 삼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로써 우리는 자라나고 성장하며 증언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다.

이제 킹제임스 역본을 제외한 다른 번역본들(NIV, NASB, NKJV 등)의 문제점 특히 번역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겠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문자적 일치, 형식적 일치 번역 기법을 거부했다. 대신 그들은 번역에 있어 동적 일치 방법을 도용하였다. ‘동적’(Dynamic)이란 단어는 ‘변하다’ ‘움직이다’는 뜻을 내포한다. 현대 역본 번역자들은 일종의 관용적 표현을 사용하여 히브리어를 영어로 번역했다. 관용적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들이 히브리어 혹은 그리스어의 단어들을 영어로 일대일로 대응하는 방식(의미가 잘 통하는 경우에도)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신 그들은 본래 있는 내용에 더하거나 본래 있는 내용을 바꾸거나 빼버리는 방식으로 말을 맞추었다. 그들은 이런 일에 전혀 개의치 않았다. 이것은 다른 말로 ‘의역’(Paraphrase)이라고도 하는데 시중에 나와 있는 ‘리빙 바이블’은 의역에 관한 한 최고봉이라 할 수 있다.

2.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은 동적 일치 번역 방식을 거부하였다

나는 동적 일치 기법이 본질적으로 마귀에 속한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이 채택한 문자적 일치, 형식적 일치 방법은 그리스어나 히브리어 단어를 가능한 한 그대로 살려 영어로 번역하는 것을 말한다. 물론 문법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영어에는 동사가 있고 형용사, 전치사, 분사 등이 있다. 히브리어 문장을 구조와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채 영어로 옮길 수 있다면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은 그렇게 했다. 가령 동사가 있으면 그것을 명사나 다른 품사로 바꾸지 않고 동사로 옮겼다. 영어에는 ‘변형 생성 문법’(Transformational Grammar)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모든 것이 바뀌는 문법을 말한다. 바로 여기에서 소위 동적 일치라 불리는 기법이 나왔다. 동적 일치가 적용되면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번역할 때 원래 단어의 모습을 잃게 된다.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 기법의 우수성은 역자들이 이런 동적 일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들(단어들)을 고스란히 가져오는 문자적 혹은 형식적 일치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a. 동적 일치는 마귀의 것이다

동적 일치라는 주제를 살펴보자. 우리가 동적 일치를 마귀의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기로 그것의 근원이 사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매우 분명한 방법으로 말씀을 보여 주시고 믿게 하신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every word)이 중요하다. “사람은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마4:4) 우리는 그 말씀들, 즉 그 단어들이 중요하다고 믿는다. 그러나 동적 일치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않는다. 나는 다시 한 번 이 책 뒷부분에 있는 부록 A를 참고하라고 말하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보여 주는 구절들을 직접 확인해 보기 바란다.

b. 동적 일치의 연대기

사탄이 시작한 동적 일치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살펴보자. 동적 일치는 에덴동산에서 사탄이 시작한 것이다.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 사탄은 뱀을 통해 이브와 아담을 차례로 넘어뜨리려 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면서 소위 동적 일치 방법을

사용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대중 의역해서 이브와 아담에게 제시한 것이다.

(b.1) 마귀의 삭제 법칙

동적 일치의 첫째 법칙은 삭제 법칙이다. 즉 하나님을 말씀에서 빼는 것이다.

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간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뱀을 통해 사탄은 이브에게 물었다.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을 있는 그대로 본다면 그것은 곧 “너희가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느냐?”라는 뜻이 된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전부가 아니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의 다른 부분을 빼 버렸다. 창세기 2장 16-1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지만

자, 여기까진 좋다. 사탄은 이 부분까지 인용했다. 그러나 이후 17절의 말씀이 이어진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네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서는 16절과 17절을 다 말씀하셨다. 하지만 사탄은 3장 1절에서 말씀을 이런 식으로 인용했다. “자, 너희가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사탄은 무언가를 빼 버렸다. 즉 그는 17절을 삭제하고 말한 것이다. 동적 일치가 마귀적인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삭제하고 없애 버리는 마귀의 방법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부록 B에 지난 1992년까지 612년 동안 존재했던 영어 성경전서들과 신약 성경전서들의 목록을 실었다. 거기에는 영어 성경전서 135권과 영어 신약 성경전서 293권이 올라와 있다. 합치면 총 428권이 된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더 이상의 영어 성경전서 혹은 영어 신약 성경이 필요치 않다는 것이다. 428권이면 차고도 넘치지 않는가? 이 책에서 우리는 현재 근본주의자들과 복음주의자들이 주로 보는 역본들을 중심으로 내용을 진행하되 다른 역본들도 언급할 것이다.

우리는 우선 NASB, NIV, 그리고 NKJV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역본들은 모두 의역본들이다. 나는 여러 가지 실례를 통해 그 실체를 규명해 보이겠다. 우리에게서 NKJV와 원문(히브리어와 그리스어)을 컴퓨터로 비교 분석하여 출력한 자료가 있다. 거기에 보면 편집자들이 의역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고 빼고 변경한 곳만 2,000군데가 넘는다[B.F.T #1442]. NASB도 똑같이 분석해 보았는데 이것에는 4,000군데가 넘었다. NIV는 어떨까? NIV에는 이것들 중 가장 많은 6,653군데의 첨가, 삭제, 변경이 이루어졌다[B.F.T #1749-P]. 이 방법은 사탄 자신이 에덴동산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방법이다. 우리가 이것을 마귀의 것이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나님께서

는 누구도 자신의 말씀을 함부로 바꾸길 원치 않으신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침삭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하나님께서 그런 권한을 주신 적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정확히 따라야 하며 좌로나 우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

(b.2) 마귀의 변개 법칙

둘째 법칙은 변개 법칙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것이다. 삭제도 바꾸는 것이긴 하지만 여기서 변개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삭제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들을 바꾸는 것을 말한다. 창세기 3장 4절에는 이런 변개의 사례가 분명히 나타나 있다. 이 경우 변개는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것을 만들었다. 창세기 3장 4절을 읽어 보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은 이같이 말씀하셨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네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변개된 내용이 보이는가? 본래 하나님의 말씀을 보자. 불순종의 형벌은 죽음 곧 육적 죽음과 영적 죽음이었다. 이 죽음은 불순종의 결과였다. 첫 사람을 죽인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아니었다. 그것은 불순종이었다. 금단의 열매를 따 먹은 것이 바로 불순종이다. 그러나 창세기 3장 4절에서 마귀는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희가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다(창2:17).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한 것이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신 것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다. 그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 이것이 바로 동적 일치이다. 동적 일치는 말씀을 뺄 뿐 아니라 말씀을 말씀이 아닌 것으로 바꾼다. 이것은 마귀의 것이다.

(b.3) 마귀의 첨가 법칙

마지막으로 우리가 동적 일치 방법을 마귀의 것이라고 하는 셋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기 때문이다. 창세기 3장 5절에서 뱀은 이브에게 이렇게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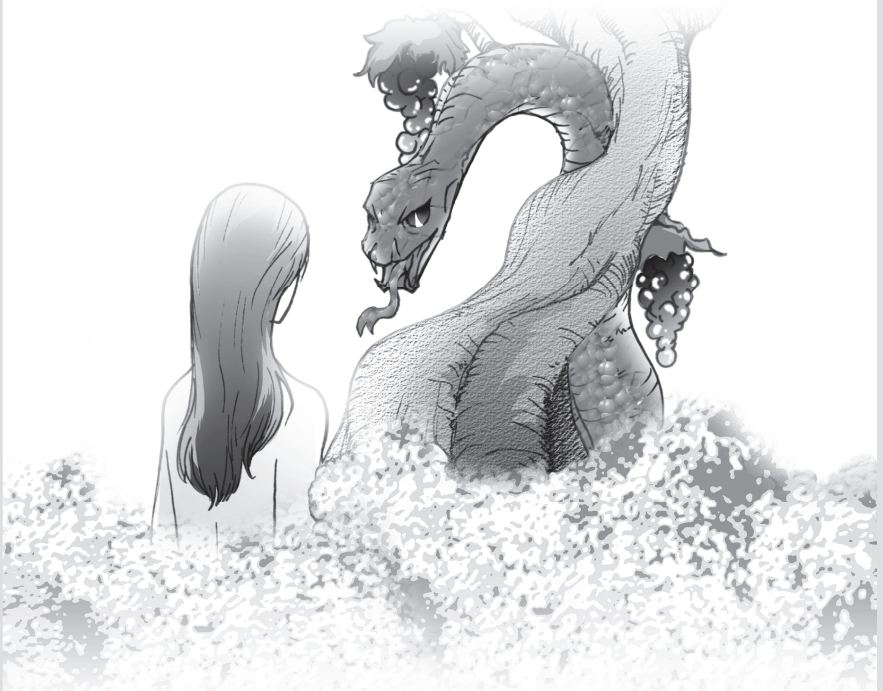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하니라.

자, 이것이 첨가의 예이다. 과연 하나님께서 그들이 눈이 열릴 것에 관해 말씀하신 적이 있는가? 창세기 2장 17절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 하나님은 단지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을 뿐이다. 창세기 3장 2-3절을 보자.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동산 나무들의 열매는 우리가 먹어도 되지만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매 [자, 이젠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그것을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첨가했다.]

의심과 혼동의 근원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창3:1)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셨나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생각하나요?"

위에서 언급된 삭제, 변경, 첨가는 동적 일치 번역 기법의 핵심이다. 그것의 본질은 옮기는 것이 아니라 바꾸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의역에 불과하다.

c. 동적 일치의 역사

동적 일치의 현대사는 니다(Eugene Nida)와 함께 시작되었다. 니다는 위클리프 성경 번역회, 미국 성서 공회, 연합 성서 공회에서 일했던 사람이며 동적 일치 방법을 전 세계적으로 널리 보급한 장본인이다. 니다가 동적 일치라는 독약을 소개한 이후로 이 방법을 채택한 역본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변경된 역본이 되었다. 그는 성경 변경의 전문가이다. 여기서 변경은 동적 일치를 말한다. 나라와 언어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거나 바꾸는 것은 근본적으로 마귀의 일이다.

심지어 성경을 믿는다는 근본주의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번역하지 않고 대신 이 동적 일치를 수용했다. 다음은 니다와 또 동적 일치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책들이다.

- (1) 1947년, 「성경 번역」(*Bible Translation*), 니다 저, 런던의 연합성서공회출간
- (2) 1950년, 니다는 ‘번역 또는 의역’이라는 글을 ‘성경 역자’(The Bible Translator)지에 실음
- (3) 1952년, 「성경 해석의 새로운 방법론」(*A New Methodology in Biblical Exegesis*), 니다 저, 연합성서공회 출간
- (4) 1955년, 「성경 번역 문제」(*Problems in Translating the Scriptures*), 니다 저, 연합성서공회 출간
- (5) 1959년, 「성경 번역의 예를 통해 본 번역의 원칙」(*Principles of Translating As Exemplified by Bible Translating*), 니다 저, 연합성서공회 출간
- (6) 1960년, 「메시지와 미션」(*Message and Mission*), 니다 저, Harper Brothers 출간
- (7) 1961년, 「번역자들을 위한 새로운 도움」(*New Help for Translators*), 니다 저, 연합성서공회 출간. 이 책은 도움은커녕 훼방과 치욕을 가져오는 책이다.
- (8) 1964년, 「번역을 위한 과학」(*Toward a Science for Translating*), 니다 저, 네덜란드에 있는 E. J. Brill사 출간
- (9) 1966년, 「성경 번역자들의 수용 언어 본문 사용」(*The Bible Translator's Use of Receptor Language Texts*), 니다 저, 연합성서공회 출간
- (10) 1969년, 「번역의 이론과 실행」(*Theory and Practice of Translation*), 니다 저, 네덜란드에서 출간
- (11) 1966년, 「현대인을 위한 복음」(*Good News for Modern Man*) 출판 (또는 ‘Today's English Version - 의역 성서 중 하나’) 이것은 동적 일치 번역 기법을 적용한 대표적 변경 역본 중 하나이다. 예를 들어 「현대인을 위한 복음」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피’ - 그리스어로는 ‘haima’ - 를 전체 103번 중 36번 빼 버렸는데 그중 16번은 그리스도의 피를 가리킨다. 그들은 동적 일치를 통해 그리스도의 ‘피’를 빼고 대신 ‘죽음’ 혹은 ‘희생’ 등의 단어를 넣었다. 그러나 그리스어 ‘haima’는 분명히 ‘피’를 뜻한다. 다른 해석의 여지는 없다. 베드로전서 1장 18-19절을 보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Today's English Version」은 이것을 그저 ‘값비싼 희생’(Costly sacrifice)이라고 말한다. 그리고는 ‘피’를 빼고 ‘희생’이란 단어를 넣었다. 오늘날 유명한 모 성경 해설가[존 맥아더]도 같은 것을 주장한다. 즉 피는 단지 죽음을 뜻하는 것이므로 그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그리스도의 피가 본질적인 것은 아니라고 한다. 이 말은 곧 우리가 구원받고 깨끗하게 된 것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리스도의 피와 존 맥아더의 이단 교리에 관한 조금 더 자세한 정보는 B.F.T Brochure #5에 나와 있으며 현재 여기의 리스트에는 150개가 넘는 책자들이 있다.]

- (12) 1975년, 나이로비에 있는 WCC(세계 교회 협의회) 역시 동적 일치 방법을 채택했다. WCC는 배도한 단체로 공산주의자들과 현대주의자들과 이단들이 득실대는 곳이다. 지금도 그들은 아프리카와 다른 지역에서 살인, 약탈, 고문을 자행하는 테러리스트들을 돕고 있다. 이런 WCC가 동적 일치를 번역의 방법으로 받아들였다. 이로써 WCC는 사탄의 계보를 이었다. 또한 니다와 연합성서공회 그리고 미국성서공회의 계보를 이었다.
- (13) 1978년, 신국제역(NIT)이 출시되었는데 이것 역시 동일한 방법을 사용했다. 그들이 자랑스럽게 내놓은 이 역본은 마귀의 동적 일치 방법이 낳은 또 하나의 산물이었다.
- (14) 1983년, 세계 복음주의 침례교 연합(ABWE)이 「말씀으로」(*By the Word*)를 출판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선교사들 중 몇몇은 이 위원회 소속일 것이다. 출간 당시 ABWE 본부는 뉴저지주, 체리힐 근처에 위치해 우리와 가까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일 년 내에 펜실베이니아로 옮겨 갈 예정이라고 한다. 「말씀으로」는 실버네일(Lynn Silvernale)이 쓴 책이며 다른 말로 「성경 번역의 우선순위와 방법」이라 불리기도 했다. 이 책에서 그녀는 니다를 수없이 언급했다. 그런데 니다는 성경의 무오성을 믿지 않는 배도자이다. 그녀는 이러한 글을 남겼다.

나는 번역에 관한 것이라면 뭐든 읽기 시작했다. 거기서 나는 번역 양식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저자마다 나름대로의 분류 방법이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비크맨(John Beekman)의 분류가 가장 설득력 있게 다가왔다. 그는 번역 특히 성경 번역에 있어 두 가지 기본적인 접근 방법을 제시했다. 하나는 문자적 접근이고 다른 하나는 관용적 접근이었다. 이것은 다시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양식으로 세분된다: 엄격한 문자적 번역, 한정적 문자적 번역, 관용적 번역, 그리고 자유 번역. [실버네일의 책, 13쪽]

실버네일의 문제는 번역 기법론에 관한 책들을 잘못 선택한 데 있다. 비크맨과 칼로우(John Callow)는 「하나님의 말씀 번역」(*Translating the Word of God*)이란 책을 쓴 사람들이다. 이들은 전 세계에 동적 일치 번역 기법을 알리는 데 선구자적 역할을 했다. 오늘날 근본주의 진영의 성경을 믿는 선교 단체들은 자신들의 선교 지역에 보급할

성경을 번역할 때 이 마귀적인 동적 일치 방법을 사용한다. 참으로 슬픈 일이다. 실버네일과 ABWE는 공히 관용적 번역 기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하는 동적 일치 방법을 선호하며 사용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 어떤 문제의식도 느끼지 못한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다. 실버네일은 이 일을 33쪽에 언급해 놓았다.

번역 일을 시작한 지 [그녀는 방글라데시에 있으면서 벵골 성경을 번역했다.] 몇 해가 지날 무렵이었다. 당시 우리 안에는 상당한 거리낌이 있었다. 성경의 여러 부분을 조정하면서도 [그녀가 말하고 있는 '조정'은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빼고 더하고 바꾸는 일을 말한다.] 마음 한편으로는 끊임없는 의문이 들었기 때문이다. '본문을 너무 자유롭게 번역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들이 벌이고 있는 일로 인해 양심이 움직인 것이다.] 내 동료는 특별히 요한계시록 22장 18-19절의 경고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다. [실버네일의 책, 33-34쪽]

성경에는 동적 일치 접근법에 대한 저주가 직접적으로 나와 있다. 이어서 실버네일은 말했다.

그때 우리는 벵골 성경의 충실한 번역을 위해서는 그것에 맞는 조정 [즉, 첨가, 삭제, 변경] 양식을 선택한 뒤 일관성 있게 적용해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종괄호의 말은 저자의 것임] [실버네일의 책, 34쪽]

이처럼 늘 내용을 조정하는데 어찌 충실한 번역이 되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빼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한다면 충실한 번역이 나올 수 없다.

결국 우리는 그러한 조정 양식들을 담은 31개의 원칙을 목록으로 만들었다. 이 원칙들은 우리 지역 협회 전체의 인가를 받았고 이로써 공중 앞에 널리 선보일 수 있게 되었다. [실버네일의 책]

그래서 그들은 방글라데시 현장의 모든 ABWE 선교사들로부터 이 모든 조정 사항들을 인정받았고 이로써 그들은 자기들의 양심의 고소에서 벗어났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번역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게 된 것이다. 자, 수십억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빼고 바꿀 것에 동의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여전히 죄(罪)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다루지 않는다. 이것은 분명한 잘못이다. 그녀는 죄(罪)에 대한 동의를 구하려고 그토록 애썼던 것이다.

d. 동적 일치의 역사 요약

에덴동산에서 사탄이 시작했고 니다(Eugene Nida)가 계승했던 이 동적 일치 '바이러스'는 급기야 1983년 급물살을 타게 된다. 배도한 WCC 내에서 얼마간 활동하던 이 바이러스가 소위 [거룩함의] 분리를 외치는 근본주의 진영에도 침투한 것이다. 불과 몇 달 전 우리는 'Bible International'에서 나온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그들이 동적 일치를 받아들일기로 했다는 것이다. 'Bible International'은 오하이오주 소재 근본주의 선교 기관 중 하나인 침례교 중부 선교회(Baptist Mid-Missions)의 지부이다. 나는 여러 해 동안 그곳의 전직 회장 중 한 사람을 알고 있었다. 사실 그는 오하이오주 베레아에서 있었던 나의 목사 임직식 때 심의 위원회의 일원이었다. 우리는

BIBLE FOR TODAY의 뉴스 보고서에서 ‘Bible International’에서 사용하는 동적 일치 문제를 담은 두 편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변경에 대한 여러 통의 질의서가 이 사람들에게 전달되었다. 침례교 중부 선교회는 내게 이 두 가지 보고서를 주문해 왔다. 나는 내 뉴스 보고서에 그것들을 올려놓고 사람들이 읽어 보도록 했다. 결국 침례교 중부 선교회가 사람을 보내어 이것을 수령해 갔다. 나는 부디 그들이 내용을 읽고 동적 일치로 인해 생긴 잘못들을 수정하기를 바란다.

현재 기독교 진영은 동적 일치가 만연한 상태이다. 이미 그것은 두 곳의 침례교 근본주의 선교회에 침투해 들어갔다. 동적 일치는 더 이상 배도한 진영(신복음주의, 현대주의 등)의 전유물이 아니다. 근본주의, 분리주의 진영도 예외가 아니며 오히려 이곳에서 더 위험하고 마귀적이며 치명적이다. 다를 것이 없다. 진실은 진실이고 오류는 오류다. 마땅히 더 잘 알고 있어야 할 사람들이 마귀의 방법으로 소위 ‘번역’이라는 일을 하고 있으니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뿐이다.

(d.1) 동적 일치대로 한다면 어떤 본문을 쓰는 마찬가지로이다

그러면 동적 일치와 본문의 관계를 알아보자. 앞서 밝혔듯이 킹제임스 성경은 가장 정확하고 바른 구약 성경 히브리어 본문과 신약 성경 그리스어 본문을 사용한다. 가장 좋은 본문이라도 원문의 단어나 형식이 고스란히 영어로 옮겨질 때 의미가 있다. 즉 문자적 일치, 형식적 일치의 형태로 번역될 때 좋은 본문이 살아나는 것이다.

하지만 동적 일치 방법을 사용해서 번역하면 어떻게 될까? 일단 동적 일치에서는 본문상의 단어나 본문 간의 차이는 중요하지 않다. 언제든지 원할 때 바꿀 수 있다. 언제 어디서든 입맛에 맞게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으며 바꿀 수도 있다. 이렇다면 본문의 종류가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본문이 정확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번역자가 누구면 어떠하겠으며 그의 자질을 따질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더하고 빼고 바꾸는 데 무슨 학위나 교육이 필요하겠는가? 사탄이 그렇게 했으니 누구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동적 일치 방법으로 번역하는데 누가 올바른 본문에 신경 쓰겠으며 올바른 번역자를 구하겠는가? 그저 마음대로 바꾸는 일만 남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현대 역본들의 현실이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현실이다. 그들에게는 마소라 본문이 필요하지 않다. 그렇다고 시리아 역본이나 ‘70인역’, 라틴 별게이트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 그저 가정과 추측만 있으면 된다. 본문은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입맛에 맞는 대로 사용하면 된다.

자, 보다시피 동적 일치 문제는 우리가 앞서 논의했던 본문 문제보다 더 심각하다.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표준으로 삼는 이유는 킹제임스 성경이 우수하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그것이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본문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일은 역자들이 동적 일치 방법을 거부했기에 가능했다.

(d.2) 여러 역본에 대한 4년간의 검증

나는 근본주의 진영에서 사용되는 여러 역본들을 4년 이상 검토하고 비교해 보았다. 연구의 목적은 이 역본들이 킹제임스 성경 및 히브리어, 그리스어 본문과 얼마나 다른가 알아보기 위함이었다.

(d.2-1) 1611년판 KJV 분석

첫 해는 1611년에 출간된 킹제임스 성경 - 넬슨 출판사가 재출간한 초판 킹제임스 성경 - 을 가지고 현재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킹제임스 역본과 비교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 결과 25쪽 분량의 보고서가 완성되었다[B.F.T #1294]. 이 보고서에는 초판과 현재 판 사이에는 종종 철자나 구두법의 차이가 있지만 바뀐 곳은 오직 421군데뿐이며 그것도 모두 소리(귀로 듣는 차이)와 관련된 차이뿐임이 명시되어 있다. 바뀐 곳은 모두가 사소한 내용들이다. 원한다면 이 내용을 요약한 소책자를 구할 수 있다[B.F.T #1495].

(d.2-2) NKJV 분석

다음은 NKJV와 KJV를 카세트로 들으며 비교해 보았다. 테이프에 녹음된 성경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상당히 유용한 자료이다[B.F.T #777/1-43]. 일단 차이점이 발견되면 해당 히브리어나 그리스어 본문을 찾아보고 어느 번역이 더 본문에 가까운지 확인해 보았다. 물론 킹제임스 성경이 원문에 가장 충실했다. 그래서 나는 전보다 더 킹제임스 성경을 신뢰하게 되었다. 이 연구에 대한 보고서는 95페이지(큰 페이지)의 컴퓨터 출력물로 남아 있다[B.F.T #1442]. 이 보고서에는 2,000군데가 넘는 동적 일치 사례들(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이루어진 첨가, 삭제, 변경)이 올라와 있다. 이 보고서의 요약판 역시 소책자 형태로 나와 있다[B.F.T #1465]. 또한 히브리어, 그리스어 본문의 변경에 관한 설명을 곁들인 카세트 녹음본(2시간짜리 9개)도 있다[B.F.T #1367/1-9].

(d.2-3) NASB 분석

이듬해 나는 NASB를 킹제임스 성경과 비교한 다음 KJV의 근간인 히브리어, 그리스어 본문과도 비교해 보았다. NASB도 앞서 NKJV에 대해 한 것처럼 그렇게 진행했다. 이번에도 히브리어, 그리스어 본문에 가장 충실한 번역은 킹제임스 성경이었다. 차이가 나는 부분을 확인한 결과 본문과 동떨어진 쪽은 NASB였다. 연구 결과는 187쪽짜리 컴퓨터 출력물로 남아 있다[B.F.T #1494-P]. 이 보고서에는 4,000군데가 넘는 동적 일치 사례들(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이루어진 첨가, 삭제, 변경)이 명시되어 있다. 이것의 요약판 역시 소책자로 구할 수 있으며[B.F.T #1518] 히브리어, 그리스어 본문의 변경에 관한 설명을 곁들인 카세트 녹음본(2시간짜리 11개)도 있다[B.F.T #1494/1-11].

(d.2-4) NIV 분석

이후 2년 8개월 동안 같은 식으로 NIV를 분석했다. 킹제임스 성경과 비교 후 차이점을 히브리어, 그리스어 본문과 대조해 보았다. 이 보고서 역시 컴퓨터 출력물로 남아 있다[B.F.T #1749-P]. NIV는 온통 의역과 동적 일치 방법으로 가득했고 그 분량은 일일이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였다. 다 찾아보자면 몇 년은 더 걸렸을 것이다. 보고서에는 6,653군데가 넘는 동적 일치 사례들(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이루어진 첨가, 삭제, 변경)이 소개되어 있다. 차이점을 히브리어, 그리스어 본문과 비교했을 때에도 역시 킹제임스 성경이 항상 정확했다. 히브리어, 그리스어 본문의 변경에 관한 설명을 곁들인 카세트 녹음본(2시간짜리 16개)이 있는데 여기에는 4,600개의 사례가 수록되어 있다[B.F.T #1749/1-16]. 이것의 제목은 'NIV의 결함들'이다[B.F.T #2054].

(d.3) 일반 사람들은 새 역본들의 위험성을 실감하지 못한다

성경 역본들을 원문과 직접 비교해 보지 못한 일반 사람들은 어느 역본이 바른지 알지 못한다. 그저 차이가 있다는 것만 알 뿐이다. NIV가 말하는 게 다르고, KJV가 말하는 게 다르다. 히브리어도 모르고 그리스어도 모르는데(대부분 그렇다.) 아는 언어, 즉 영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지 않았는가? 킹제임스 성경을 표준으로 삼으라. 그리스어, 히브리어 원문이 이 역본에 고스란히 번역되어 있다. 킹제임스 성경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사전을 찾아보라. 아니면 영국의 ‘트리니타리언 성경공회’가 간행한 소책자를 참고해도 좋다[B.F.T #1060]. 이 소책자에는 일반 사람들에게 생소한 618개의 단어가 간략한 의미와 함께 수록되어 있다. 물론 좋은 사전 한 권을 가지고도 이 단어들의 뜻을 충분히 알 수 있다. 가령 ‘Habergon’은 방패 혹은 사슬 갑옷을 뜻하며 ‘Ouches’는 주머니 또는 행낭을 의미한다. 중요한 것은 그런 영어 단어들이 정확한 히브리어, 그리스어 번역이라는 점이다. 초반부에 언급한 대로 우리는 1611년 이후로 의미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는 단어들의 정의를 담은 킹제임스 성경을 준비해 왔다. 그리고 BIBLE FOR TODAY는 이 프로젝트를 완성했다. 제목은 「The Defined King James Bible」이다. 이것은 12포인트의 큰 활자로 인쇄되었다. 싱가포르의 토우(S. H. Tow) 박사는 이 성경 4,000권을 구입해서 세계 여러 곳에 배포했다. 원하는 사람은 전화로 주문 가능하다.

(d.4) 앞으로 연합성서공회는 오로지 동적 일치 기반의 의역 성경만을 출간할 것이다

연합성서공회(United Bibel Society, UBS)는 더 이상 성경전서(창세기-계시록)를 출간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의역본 및 관용 번역본만을 출간할 것이며 그것도 성경전서가 아닌 쪽 성경만을 내놓을 것이다. 1962년 연합성서공회는 성경 선집(쪽 성경) 또는 소책자 3.5권당 성경 한 권을 출판했고, 1969년에는 18.5권당 성경 한 권을, 1974년에는 쪽 성경 33권당 한 권의 성경전서를 출간했다. 선집이나 쪽 성경에 비해 성경전서 발행 횟수가 급격히 줄어든 것이다. 성경전서를 출판하는 경우는 성경 출판 자금이 어디서 들어왔을 때뿐이다. 연합성서공회는 늘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 그나마 있는 자금은 성경 선집을 출판할 때 쓰인다. 이 내용은 BIBLE FOR TODAY에서 출간된 「성경의 미래」(*The Future of the Bible*)에서 확인할 수 있다[B.F.T #1246]. 성경의 미래는 어떤가? 연합성서공회가 연루되어 있는 한 성경의 미래는 없다. 이것이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더 붙들어야 하는 이유이며 킹제임스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이다.

(d.5) ‘동적 일치’에 대한 간략한 정의

동적 일치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정리해 보자. 동적 일치의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이 ‘동적’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1b. Of or pertaining to dynamics; active; opposed to static; Pertaining to change or process(1b. 역학적인; 동적인; 정적의 반대; 변화하는) [웹스터 사전, Webster's New Collegiate Dictionary, 1949년, 257쪽]

다시 말해 ‘동적’이란 말은 ‘움직이는’을 뜻한다. 동적 일치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길 원하는 사람들이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도 이와

같은 이론에 바탕을 둔다. 즉 운동(movement), 변화(change), 역동(dynamics)이 그것이다. 다시 말해 이것은 바꾸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기 원치 않는다. 있는 그대로 간직하기 원한다. 나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Thus saith the Lord)라고 말하고 싶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말씀을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거기에 붙어 있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변화를 가하거나 다른 것으로 바뀌어서는 안 된다. 나는 부록 A에 다시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인간의 사상이나 관념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성경 구절을 제시하였다.

‘동적’(dynamic)이라는 단어에서 ‘역학’(dynamics)이라는 용어가 나왔다. ‘역학’의 정의를 웹스터 사전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That branch of mechanics treating of MOTION of bodies(kinematics) and the action of forces in producing or CHANGING their motion(kinetics). 2. The MOVING MORAL, as well as physical, forces, or any kind, of the laws relating to them

1. 물체의 움직임이나 그 움직임을 일어나게 하거나 바꾸게 하는 힘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 2. 움직이는 어떤 것 - 물리적인 힘, 윤리, 법

모든 동적인 과정은 변하는 과정이고 진화하는 과정이며 사탄이 에덴동산에서 만들어 낸 과정이다. 힘이든 물이든 무엇이든 그것은 움직이는 것이다 - 강물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하염없는 은혜, 흐르는 강물같이 넘치네!”라고 찬송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말로 옮기면서 ‘흐른다’, ‘움직인다’, ‘유동적이다’라는 식의 개념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고정된 어떤 것이어야만 하며 이로써 우리는 그 위에 확고히 설 수 있다. 우리 하나님은 ‘바위’(a Rock) 곧 거대한 바위산과 같으시다. 산은 움직이지도 흔들리지도 요동하지도 않는다. 우리 주님은 우리 삶의 기초가 되신다.

아무도 이미 놓인 기초 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시니라(고전3:11).

이제 관련 단어인 ‘일치’ 혹은 ‘동등함’(equivalence)에 대해 웹스터 사전을 살펴보자.

State of being equivalent, equality of worth, meaning, or force

가치나 의미나 힘에 있어 같은 혹은 동등한 상태

여기서 ‘equivalent’(같은, 동등한, 일치하는)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obs. Equal in force or authority 2. Alike in significance 3. Equal in value, esp. for exchange 4. Virtually or in effect identical; tantamount; as, his remark was equivalent to an insult

1. 사어(死語). 힘이나 권위에 있어 같은 2. 의미나 비중이 같은 3. 가치 특히 교환 가치가 같은 4. 내용상으로 혹은 결과적으로 같은

어떤 면에서 ‘equivalent’는 좋은 용어이다. 하지만 위의 정의 중 ‘내용상으로 혹은 결과적으로 같은’이란 부분은 어떤 범위를 한정짓기 어려운 의미이다. 이런 의미라면

나는 ‘동등’(equivalent)이란 개념을 선호할 수 없다. 나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원한다. 왜 동등한 것 혹은 일치하는 것이 필요한가? 독자는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에서 이제는 영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지 않는가? 나도 그렇다. 나는 단지 어떤 동등한 것, 일치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나는 진짜를 원한다. 킹제임스 성경이 우리에게 바로 그 진짜를 보여 준다. 그것은 바른 본문, 우수한 번역자, 우수한 팀 작업, 우수한 번역 기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단어들의 정의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idiom’(숙어, 관용어법) 혹은 ‘idiomatic’(관용적인, 관용어법을 사용한)이란 용어이다. 이 용어들은 번역이나 역본에 대해 말할 때 동적 일치와 유사한 의미의 단어로 쓰인다. ‘관용적인 번역’(idiomatic translation)에서 ‘관용어’(idiom)란 이런 뜻을 지닌 다(웹스터 사전).

1. The language peculiar to a people(a tongue), or to a district, community, or class(a dialect) 2. The Structural form peculiar to any language 3. An expression in the usage of a language, that is peculiar to itself either in grammatical construction or in having a meaning which cannot be derived as a whole from the conjoined meanings of its elements(as, the more the merrier)

1. 특정 민족 혹은 지역이나 단체 및 계급 고유의 언어 2. 특정 언어 고유의 구조
3. 일반적인 문법 구성이나 각 단어의 단순한 결합에서 나올 수 없는 뜻을 가진 독특한 언어 표현, 가령 다다익선 같은 표현

여기서 우리의 초점은 바로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 그리스어에 있는 고유한 표현 곧 관용어이다. 원어를 알고 이해하기 쉽게 번역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말씀의 정확도에 훼손을 가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바꾸어 버린 이 ‘관용어’들은 결코 번역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킹제임스 성경은 이런 관용적이고 동적인 일치가 아닌 ‘문자적, 형식적 일치’를 기반으로 번역되어 우리 손에 있다. 그 차이는 하늘과 땅이다.

(d. 6) ‘번역’(translation)의 간략한 정의

그러면 ‘번역’이란 무엇인가? 이 단어는 라틴어 ‘trans’와 ‘latus’에서 왔다. ‘Trans’는 ‘across’(가로질러, 넘어서)라는 의미이고 ‘Latus’는 ‘tal’ 혹은 ‘tla’(‘tlatus’)를 줄인 과거 완료형 어근으로 ‘to lift or carry’(올리다 혹은 운반하다)라는 뜻이다. 따라서 ‘번역’의 문자적인 의미는 ‘to lift or carry across’(올리다 혹은 너머로 운반하다)이다. 언어의 번역과 연관 지어 본다면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옮기다’(transfer) 혹은 ‘넘기다’(carry over) - 있는 그대로 봤을 때 - 라는 뜻이 된다. 이것을 볼 때 성경 번역이라는 것은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에서 단어들을 집어 올려서 영어 혹은 다른 언어로 가져간 다음 해당 언어로 고스란히, 즉 어떤 부분을 빼거나 더하거나 바꾸는 일없이 내려놓는 작업이다. 바로 이것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적용된 방식이다. 킹제임스 성경은 히브리어, 그리스어의 단어들을 취해서 영어로 가져간 다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매우 조심스럽고 정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내려놓았다.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한 방식을 성경 본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먼저 히브리어이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자.

“In the beginning”(baroshith) “created”(bara) “God”(Elohim) “the heaven”(eth hashamaim) “and the earth”(wa eth haerets). 다음은 그리스어 번역의 예이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자. “In the beginning”(enarchE) “was the Word”(En ho logos) “and the Word”(kai ho logos) “was with God”(En pros ton Theon). 자, 보라. 히브리어나 그리스어가 영어로 그대로 옮겨져 있지 않는가? 킹제임스 성경만큼 우수한 번역은 없다. 다른 역본들은 자기들이 좋을 때 의역을 쓰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동적 일치를 사용한다.

(d.7) ‘의역’(Paraphrase)의 간략한 정의

‘의역’이란 무엇인가? 위에서 ‘번역’이란 ‘trans’와 ‘latus’가 합쳐진 단어로 ‘한 언어를 들어 올려 다른 언어로 넘기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 의역은 무엇인가? ‘의역’이란 단어의 어원은 그리스어 ‘paraphrasis’인데 이것은 ‘para’(along side or near: -을 따라서, -가까이)와 ‘phrazein’에서 나온 ‘phrasis’(to speak: -말하다)가 합쳐진 것이다. 웹스터 사전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To say the same thing in other words, ... a restatement of a text, passage or work, giving the meaning in another form; ... To express, interpret or translate with latitude: to give the meaning of (a passage) in other language 말을 달리하여 같은 내용을 표현하다. ... 본문이나 구문, 작품 등의 의미를 다른 형태로 말하는 것, 다시 말해 고쳐 말하는 것; ... 여유롭게 표현하거나 해석하거나 번역하다; 다른 언어로 구절의 의미를 전달하다.

나는 ‘여유롭게 번역되거나’, ‘다른 말들’로 번역된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러나 다른 역본들은 그렇게 한다. NSAV는 4,000군데 이상, NIV는 6,653군데 이상, 심지어 NKJV조차도 2,000군데 이상 이런 식의 의역(意譯)을 하였다. 사실 의역은 번역이라기보다는 해석에 가깝다.

(d.8) 여러 역본들에 나타난 의역의 실례

자세한 내용은 해당 연구에 대한 출력물을 참고하기 바란다 - NKJV[B.F.T #1442], NASB[B.F.T #1494-P], NIV[B.F.T #1749-P]. 특히 NIV가 심각한데 오늘날 성경을 믿는다는 기독교인들이 NIV를 쓴다는 것은 참으로 의아한 일이다. NIV는 분명히 의역투성이다.

의역에는 한 언어의 단어를 다른 언어로 옮기거나 번역하는 수고가 필요치 않다. 그냥 ‘고쳐 말하거나 해석하거나 여유롭게 번역’하면 된다. 이렇기 때문에 정말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가감 없이 옮겼는지 그 충실함의 여부는 보장할 수 없다. 의역은 단어든, 문구든, 개념이든, 사상이든, 의미든 그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은 채 더하고 빼고 바꿀 수 있다. 이것이 의역의 본질이다. 또한 동적 일치의 본질이기도 하다. 의역은 주석이요 해석이지 번역이 아니다.

(d.9) ‘번역’의 상세한 정의

정말 번역이 무엇인지 보여 주는 정의가 있다. 사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진짜 번역이

무엇인지 보여 준다.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에서 문학 석사와 철학 박사 학위를 받은 스틸(Francis Steele) 박사 - 내가 학생으로 1945-48년 미시간 대학교에 다닐 때 이분이 우리 그룹에서 강연한 적이 있다 - 는 1947-53년에 그 학교에서 아시리아 학과(아시리아 언어) 조교수로 지내며 학생들을 가르쳤다. 언어학자로서 그는 하나님 말씀의 무오성을 믿었다. 스틸 박사는 「번역인가 의역인가」(*Translation or Paraphrase*)라는 소책자를 써 낸 적이 있다[B.F.T #207]. 물론 이 책도 2,300개가 넘는 B.F.T 도서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매년 100개가 넘는 새로운 도서와 자료들을 들여놓고 있다. 특히 킹제임스 성경의 우수성과 성경의 무오성, 성경 보존 및 기타 관련 주제에 관한 타이틀은 900개가 넘는다. 이 자료들은 이 책 후반부에 소개되어 있다. 스틸 박사는 번역에 대한 훌륭한 정의를 내렸고 나는 그것을 총 12가지 요소로 나누어 보았다.

이제 나는 바빌론과 수메르 문서를 번역한 경험에 비추어 번역의 정의를 재조명하고자 한다. 그때 나는 아시리아어 분야에서 내로라하는 미국 학자들 중 한 사람에게서 값진 훈련을 받았다. 그리고 거기서 참된 번역에 필요한 몇 가지 절대적인 원칙들을 배우게 되었다. 그것들은 지금도 내게 변함없는 원칙이다.

번역이란 바로 이것이다. 번역에서는 [1] 최대한 많은 원문의 내용이 [2] 가능한 한 적은 단어로 [3] 하지만 원문의 분위기와 강조점을 유지한 채 표현되어야 한다. [4] 번역자는 힘써 가장 근접한 단어와 [5] 개념과 [6] 역량을 찾아내야 하며 양심에 따라 본문에 필요하지 않은 [7] 단어나 사상을 더해서는 안 된다. [동적 일치]를 사용하는 자들은 이렇게 한다. 그들은 본문과 상관없는 단어나 사상을 추가한다. [8] 번역자는 뜻을 넓히거나 [9] 설명해서는 안 되며 오로지 [10] 번역함으로써 [11] 원문의 영광 힘을 보존해야 한다. [12] 필요하다면 현대 구어체를 포기하고서라도 그렇게 해야 하며 이로써 [13] 명확한 번역이 나올 수 있다. [「번역인가 의역인가」, Bible Memory Association 출간, 1-2쪽]

물론 [14] 기존의 바른 번역 성경에 있는 단어나 구절들을 조금 더 손봐서 얻는 이로움도 있다. 하지만 [15] 그런 작업은 주석이지 [16] 번역이 아니다. [17] 번역은 하나님의 말씀들의 원문을 최대한 살리는 것이다. [18]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지지 [19] 하나님의 말씀들에 대한 박사들의 해석이나 견해가 아니다. [20] 이 둘은 하늘과 땅 차이이다. 이런 차이를 무시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땅을 침범하는 자가 될 것이다. [중괄호 안의 내용은 저자의 말과 숫자임] [앞의 책, 7-8쪽]

위와 같은 정의에 어울리는 정확하고 우수한 번역이 바로 킹제임스 성경이다.

(d.10) '동적 일치'에 대한 7가지 표현

동적 일치를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나는 이것을 묘사하는 7가지 단어(모두 'd'로 시작)를 나열해 보았다. 물론 여기서는 7가지 핵심적인 표현으로 줄이긴 했지만 나의 생각 전부를 알고 싶은 독자들을 위해 한번 써 보겠다. 내 생각으로 동적 일치란 다음과 같다.

diabolical(마귀적인), defiant(교만한), disobedient(불순종하는), defective(불완전한), destructive(파괴적인), disruptive(붕괴시키는), deforming(훼손하는), disturb-

ing(교란시키는), defamatory(명예를 손상시키는), dwarfing(위축시키는), deceptive(속이는), dangerous(위험한), deadly(치명적인), damaging(해로운), damnable(가증한), deadening(무디게 하는), debilitating(약하게 하는), defacing(더럽히는), defrauding(속여 빼앗는), degenerating(변질된), degrading(비열한), defying of man(사람을 신격화하는), deleting(말살하는), delinquent(태만한), demolishing(파괴적인), demoting(강등시키는), depraved(타락한), depreciating(경시하는), depriving(빼앗는), deserting(이탈한), despicable(비열한), despoiling(약탈하는), double-minded(두 마음의), destitute(궁핍한), determined(의도된), detestable(몹살스러운), deviant(벗어난), devoid(결여된), diluting(물론), diminishing(축소시키는), disabling(무기력하게 만드는), disadvantageous(불리한), disagreeable(불쾌한), disappointing(실망스러운), disapproved(인정받지 못한), disarming(무장해제시키는), disastrous(불행한), disbelieving(믿음이 없는), discarding(버림받은), discomfiting(좌절시키는), discordant(조화되지 않는), discouraging(낙담시키는), discrediting(의심하게 하는), disdainful(경멸적인), disfiguring(보기 흉한), disgusting(역겨운), dishonest(정직하지 못한), dishonorable(수치스러운), disintegrating(분열시키는), disjointed(탈구된), dislocating(어긋난), dismantling(제거하는), disowning(포기하는), disparaging(망신스러운), displacing(바꿔놓는), disposing(처분하는), disregarding(소홀히 하는), disrespectful(존경할 가치가 없는), distasteful(맛없는), distorted(왜곡된), distracting(분열시키는), distressing(비참한), divisive(분화를 일으키는), and, in short a death-blow to the Words of God in the Bible(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치명타가 되는 것)

위의 77가지를 모두 설명했으면 좋겠지만 여기서는 밑줄을 그은 7개만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

(d.10-1) 동적 일치는 '마귀적이다'(diabolical)

첫째, 형용사는 마귀의 것을 뜻하는 diabolical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고 변개하는 것보다 더 사탄적인 것이 어디 있겠는가? 나를 화나게 하는 것이 이 부분이다. 그들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지고 서투른 장난을 하고 있다. 이 땅에서 그분의 말씀들을 바꿀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보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들을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에덴동산의 아담과 이브가 당했던 것처럼 큰 곤경에 빠지게 될 것이다. “우리 방식대로 받아들이겠어!”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받아들여 간직하고 그것들을 행함으로 살아가야 한다.

(d.10-2) 동적 일치는 '속임수이다'(deceptive)

둘째, 동적 일치 방법은 속이는 것이다. 그것이 속임수인 이유는 말 그대로 그것이 사람들을 속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새로운 역본 하나를 집어 들고 이렇게 말한다.

멋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킹제임스 성경과는 다를 겁니다. 우리의 NASB, NKJV, NIV 및 기타 최신 번역본들이 잘못되었을까요? 아닙니다. 낡은 킹제임스 성경이 틀렸습니다.

이 모두가 당시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의 무지와 잘못된 지식으로 말미암은 것이지요.

사람들은 새 것이니까 더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당연히 중고차보단 새 차가 낫다는 식이다(늘 그런 것은 아닐지라도 대체로). 새 집, 새 모자, 새 옷, 새 교회 건물 등등 뭐든지 현 것보단 새 것이 좋다. 많은 경우에 있어 이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새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 많은 새로운 사상들이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미국의 무장 해제나 군비 감축을 촉구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저버리는 것이다. 미국이 무장 해제를 하면 '강한 자'(strong man)가 힘을 잃게 되고 결국 마귀가 와서 세계라는 '집'(houses)을 점거하게 될 것이다. 윗사람들이 볼 때 이것은 미친 짓이다. 적어도 내 생각에는 말이다. 이같이 새로운 번역은 속임수이다. 사람들은 속고 있다. “지금 갖고 있는 성경이 최신형입니까?” 그러나 새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

(d.10-3) 동적 일치는 '의도적이다'(determined)

셋째 항목은 동적 일치의 고의성이다. 출판업자들은 의도적으로 동적 일치를 지원하고 있다. 미국 뉴욕의 광고업 중심가인 매디슨가의 광고 방법을 비롯하여 가능한 모든 광고 수단을 동원해서 말이다. 물론 그들은 돈 때문에 이 일을 한다. 사실 성경 장사는 꽤 괜찮은 돈벌이이다. 이와 관련된 최신 통계나 수치를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성경 판매는 수백만 달러짜리 장사이다. 킹제임스 성경 한 품목만으로 어떻게 제대로 장사를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들은 신상품이 필요했던 것이다.

자동차 세일즈맨도 작년도 모델만 가지고는 판매가 어렵다. 장사를 하려면 최신 모델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올해 출시된 모델이 있는데 누가 1990년도 모델을 찾겠는가? 그래서 그들은 몇 가지 개편 작업을 거쳐 킹제임스 성경을 밀어내고 새 역본들을 전면으로 내세웠다. 새 역본들의 판매고를 킹제임스 성경보다 높이기 위해서였다. 작년 같은 경우 연령과 계층별로 다양한 종류의 특별판들을 제작함으로써 이 일을 달성했다는 것이 출판업자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꾸준히 자기 자리를 지켜오며 판매고에서도 수위(首位)를 달렸던 성경은 다름 아닌 1611년도 모델 킹제임스 성경이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나는 독자들이 부록 B에 있는 연대기별 성경 목록을 읽어 볼 것을 권한다. 1380년부터 1991년까지 612년 동안 출판된 135개의 성경전서와 293개의 신약 성경전서의 목록이 시대 순으로 실려 있다. 성경전서나 신약 성경전서의 출간 주기는 평균 1.4년이였다. 그런데 1900년대에는 그 주기가 0.51년으로 짧아졌다. 거의 6개월에 한 권씩 새로운 성경이 나온 셈이다. 새로운 성경을 자주 낸다는 것은 그만큼 거기서 많은 돈을 벌어들인다는 말이다. 잇속을 차리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나는 지금 사업 자체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마음대로 번개해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상품화하고 있으며 사람들에게 거짓 성경을 주어 거짓 소망을 품게 하고 있다. 이것은 속임수이며 마귀적이고 의도적인 범죄이다.

(d.10-4) 동적 일치는 '정직하지 못하다'(dishonest)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여 사람들에게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정직하지 못한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네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출20:16).

(d.10-5) 동적 일치에서는 ‘사람이 신이 된다’(defying of man)

동적 일치가 사람을 신격화한다? 무슨 말인가? 이것은 동적 일치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바꿀 권한을 사람에게 준다는 이야기다. 그것도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비교할 때 털끝만도 못한 사람의 머리로 말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마음에 두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이다”(시8:4-5; 히2:6-8에도 인용됨). 동적 일치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리에 둔다. 오죽하면 “우리 나름의 성경을 쓰고 우리 나름의 사상을 만든다.”는 말이 있겠는가.

(d.10-6) 동적 일치는 ‘불순종을 말한다’(disobedient)

하나님께서서는 분명히 자신의 말씀에 더하거나 거기서 빼거나 그것을 바꾸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있는 그대로 두라고 명령하셨다. 그러나 동적 일치는 이 말씀을 거역했다.

(d.10-7) 동적 일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disapproved)

사람을 하나님 자리에 두는 이 마귀적이고 불순종과 속임수로 가득한 행위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보자.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다른 역본들에는 이 같은 진리의 말씀이 다 들어 있지 않다. 이 모든 진리의 말씀들을 담고 있는 책은 킹제임스 성경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리의 말씀들을 바르게 나누길 원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들과 사람의 말들이 뒤엉켜 있다면 어떻게 제대로 바르게 나눌 수 있겠는가?

e. 동적 일치를 반대하는 성경 구절들

(1)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 말 것을 명하는 구절들

(a) 신명기 4장 2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에 더하거나 거기에서 빼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라.

그러나 동적 일치는 더한다. 분명한 불순종이다.

(b) 신명기 12장 32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을 지켜 행하고 너는 거기에 더하거나 그것에서 빼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는 것을 금하나 동적 일치는 그것을 허락하고 있다. 여기에 충돌이 있고 불순종이 있다. 이것은 마귀가 벌인 일이다.

(c) 잠언 30장 6절: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말라. 그분께서 너를 책망하실 것이므로 내가 거짓말쟁이로 드러날까 염려하노라.

(d) 요한계시록 22장 18절: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 말 것을 말하는 하늘의 경고이다. 그러나 새 역본들과 동적 일치 방법은 계속해서 이런 경고를 무시하고 있다.

(2)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거나 ‘감하지’ 말 것을 명하는 구절들

(a) 신명기 4장 2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에 더하거나 거기에서 빼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라.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감하지 말라’고 하시나 새 역본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

(b) 신명기 12장 32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을 지켜 행하고 너는 거기에 더하거나 그것에서 빼지 말지니라.

이곳도 삭제를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사탄은 이미 오래전 에덴동산에서 더하고 빼는 일을 저질렀다.

(c) 예레미야서 26장 2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주의 집 뜰에 서서 주의 집에서 경배하려고 오는 유다의 모든 도시들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말하라고 한 모든 말들을 말하되 한 마디도 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대언자 예레미야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어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다.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그 모든 것을 선포하고 그 모든 것을 말하라’고 명령하셨다. 한 자라도 줄이거나 빼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나 동적 일치는 늘 이 원칙을 어겼다.

(3)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지’ 말 것을 명하는 구절들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가운데로 곧바로 가라는 의미이다. 발을 갈 때 고풍을 반듯이 내라는 것이다.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비뚤어지면 문제가 생기게 마련이다. 잔디를 깎거나 눈을 치울 때에도 이리저리 가는 것보다 곧바로 가는 것이 좋다.

(a) 신명기 5장 32-33절: ³² 그러므로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지켜 행하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며 ³³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길로 걸을지니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또 너희 일이 잘될 것이며 너희가 소유할 땅에서 너희 날들을 길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의 길을 가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가게 되면 길이 아닌 곳을 가게 되기 때문이다. 양쪽에 지뢰가 있고 가운데로 폭발물이 없는 길이 나 있다면 당연히 그 길을 가야 할 것이다. 나는 해군 군목으로 5년간 현역 복무를 했고 그중 2년은 해병대에 있었다. 전시에 는 지뢰로 인한 사상자가 발생하곤 한다. 가끔 (예를 들어 베트남전 같은 데서) 폭발병이 지뢰밭을 통과하면서 거기에 표시를 해 두는데 우리는

이 표시로 지뢰가 없는 안전한 길을 알 수 있다. 그 길만 따라가면 아무도 지뢰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게 된다. 그런데 부대원 중 한 사람이 “이 표시는 못 믿겠어.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갈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말아야.”라고 하며 어긋난 길로 간다면 그는 틀림없이 폭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따라가길 바라시며 새 역본들처럼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가지 않길 원하신다.

(b) 신명기 17장 18-20절: ¹⁸ 그가 자기 왕국의 왕좌에 앉거든 그는 자기를 위해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 있는 그것에서 이 율법 사본을 책에 기록한 뒤 ¹⁹ 그것을 자기 곁에 두고 평생토록 그 안의 것을 읽어 주 자기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들과 이 법규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행할 것이니라. ²⁰ 그러면 그의 마음이 자기 형제들 위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가 명령에서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로써 그와 그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한가운데서 자기 왕권을 유지하며 자기 날들을 길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왕들이 행로를 그대로 따라 걷길 원하셨다. 만일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아니 오늘날 모든 기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대로 기록하고 그대로 읽고 그대로 따랐다면 멋진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정말 놀라운 역사가 있었을 것이다.

(c) 신명기 28장 13-14절: ¹³ 또 주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내가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내가 이날 네게 명령하는 주 네 하나님의 명령들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그것들을 지키고 행하면 *그리하시리라*. ¹⁴ 너는 내가 이날 네게 명령하는 말들 중 어떤 것에서든지 떠나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 그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d) 여호수아기 1장 7-8절: ⁷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심히 용감하게 행하여 내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모든 율법에 따라 지켜 행하며 그것을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성공하리라. ⁸ 너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가 네 길을 순탄하게 할 것이며 그러면 네가 크게 성공하리라.

(e) 열왕기하 22장 2절: 그가 주께서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하여 자기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걷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 구절은 당시 여덟 살에 불과했던 요시아 왕에 대해 말하고 있다. 한 아이가 어른들을 인도할 때가 있다. 한 아이가 새로운 역본들의 편집자나 번역자들보다 지혜로울 때가 있다. 이런 사람들은 사리 분별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다. 요시아는 사리 분별을 하기에는 너무 어려웠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에 서 있기 위해서는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길에 바르게 서 있어야 한다.

(4) ‘사상이나 관념 혹은 신조’보다 하나님의 ‘말씀들’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구절들 우리 머리와 마음에 그리고 성경에 새겨야 할 것은 동적 일치 지지자들이 내세우는

사상이나 개념 혹은 신조가 아니라 말씀들(단어들)이다. 동적 일치론을 주장하는 자들은 이 말씀들(단어들)은 무시하고 그저 개념만을 영어로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말씀들은 얼마든지 더할 수도 뺄 수도 바꿀 수도 있다.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은 말씀(단어) 하나하나가 중요하다고 믿었고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단어들을 최대한 살려 정확하게 영어 단어들로 옮겨 놓았다. 이것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우리의 확신이다. 아래의 목록들은 발췌한 것이므로 전부를 보려면 책 후반부의 부록 A를 참고하기 바란다.

(a) 이사야서 55장 10-11절: ¹⁰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 거기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땅이 열매를 맺으며 싹을 내게 하여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 빵을 주게 하는 것같이 ¹¹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도 그러하여 그것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며 내가 기뻐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그 말을 보내어 이루게 하려는 일에 성공하리니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말이 아닌 자신의 말씀들이 복을 받을 것임을 말씀하신다. 그런데 본문에서 그분의 ‘말씀들’이란 단어를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 단어가 그들이 삭제해 버린 단어들 중 하나라면 어떻게 될까? 그들은 결코 복을 받지 못할 것이다. 반대로 더하면 어떨까? 그러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들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만이 ‘그분에게로 헛되이 돌아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만이 ‘그분이 기뻐하는 바를 이루고... 그 말씀들을 보내어 이루게 하려는 일에서 성공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중요한 포인트이다.

(b) 예레미야서 15장 16절: 내가 주의 말씀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먹으며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사오니, 오 주 군대들의 하나님이며, 나는 주의 이름으로 불리나이다.

이 구절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들에 관한 내용이다. 하나님의 말씀들은 기쁨을 준다. 내가 킹제임스 성경에서 그 말씀들을 발견했을 때의 기쁨도 이런 것이었다.

(c) 예레미야서 23장 36절: 다시는 주의 엄중한 부담을 언급하지 말라. 너희가 살아 계신 하나님 곧 군대들의 주 우리 하나님의 말씀들을 왜곡하였으므로 각 사람의 말이 그에게 엄중한 부담이 되리라.

이들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변경했다.

(d) 아모스서 8장 11-12절: ¹¹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오리니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라. 그것은 빵으로 인한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며 주의 말씀들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갈이니라. ¹² 그들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떠돌아다니며 주의 말씀을 구하려고 이리저리 달음질하여도 그것을 찾지 못하리니

만약 당신이 킹제임스 성경을 저버린다면 당신에게 남은 것은 다른 역본들, 즉 변경된 역본들뿐이다. 그렇다면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찾으려고 하는가? 우리가 어렸을

때 했던 ‘숨바꼭질’이라는 놀이가 있다. 만일 우리가 이 새 역본들을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들을 찾기 위해 이 ‘숨바꼭질’을 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희귀해져서 땅에 가뭄이 들었다. 빵도 물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들이 없는 가뭄 말이다(암8:11).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신의 말씀들이 중요하다고 하신다. 이 때문에 우리에게 킹제임스 성경같이 그 말씀들이 보존된 성경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e) 욥기 19장 22-24절: ²²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핍박하며 내 살에 만족하지 아니하느냐? ²³ 이제 내 말들이 기록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들이 한 권의 책으로 인쇄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²⁴ 그것들이 철필과 납으로 바위에 영원토록 새겨진다면 좋으리도다!

욥이 바라는 바가 이것이다. 어떤 개념이나 사상이 아닌 자기의 말들이 기록되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그분의 말씀들이 있다.

(f) 시편 12편 6-7절: ⁶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흠 도가니에서 정제하여 일곱 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⁷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여기서 말하는 순수함은 주님의 말씀들을 두고 한 것이지 그분의 사상이나 개념을 두고 한 것이 아니다. 보존의 대상은 그분의 말씀들이고 그 말씀들이 바로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있다.

(g) 시편 119편 89절: (라메드)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정착되었으며

(h) 신명기 8장 3절: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주리게 하시고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든 말씀이(단어가) 하나님께 중요하다.

(i) 마태복음 4장 4절: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것은 시험을 받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하신 말씀이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들 중 어느 것 하나 버릴 수 없다. 모든 말씀이 중요하다.

(j) 마가복음 8장 38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러워하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 속에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하시니라.

(k) 누가복음 9장 26절: 누구든지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러워하면 사람의 아들이 자기 영광과 자기 아버지 영광과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 속에서 올 때에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l) 마태복음 24장 35절: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

라.

마가복음 13장 31절과 누가복음 21장 33절은 모두 같은 내용이다.

(m) 갈라디아서 3장 16절: 한편 그 약속들은 *주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셨는데 그분께서 여럿을 가리키듯, 씨들에게, 라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를 가리키듯, 네 씨에게, 라 하시나니 이 씨는 그리스도시니라.

명사의 단복수조차도 예언의 말씀에 있어서는 중요하다!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알고 있다. 여기에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위한 매우 분명한 말씀들이 있다. 동적 일치 방법으로 다시 번역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다.

For God,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사랑의 소유자]
so loved, 이처럼 사랑하사 [최고로]
the world, 세상을 [가장 큰 무리의 사람들]
that He gave, 주셨으니 [최고의 선물]
His only begotten Son, 자신의 독생자를 [하늘의 가장 큰 보화]
that whosoever, 누구든지 [가장 큰 무리의 사람들]
believeth in Him, 그를 믿는 자는 [가장 단순함]
should not perish, 멸망하지 아니하고 [가장 큰 위험]
but, 오히려 [가장 큰 차이]
have, 갖는다 [가장 큰 확신]
everlasting life, 영존하는 생명을 [최고의 재산]

무엇이 여기 있는 킹제임스 성경의 단어들보다 더 분명할 수 있겠는가? 이것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이다. 그리스어에서 영어로 고스란히 옮겨진 말씀들이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를 다른 언어로 옮김에 있어 단수와 복수까지도 정확히 반영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다. 이로써 우리는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 이처럼 바울도 ‘문자적’이고 ‘형식적’인 일치 방법을 고집하고 있다. 이것 외에 우리에게 다른 방법이 용납되는가? 아니다!

NKJV, NASB, NIV, 리빙 바이블, TEV(Today's English Version), 현대인을 위한 복음(Good News for Modern Man) - 부록 B에 기타 현대 역본들의 목록이 수록되어 있음 - 등은 단복수를 제대로 구별하여 번역하지 않았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는 단어의 형태까지도 신경을 써야 한다.

한편 그 약속들은 *주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셨는데 그분께서 여럿을 가리키듯, 씨들에게, 라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를 가리키듯, 네 씨에게, 라 하시나

니 이 씨는 그리스도시니라.

성경의 예언을 접할 때 우리는 보통 그 성취 여부를 신약 성경에서 확인한다. 하지만 현대 역본들을 가지고는 그것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종종 오역으로 인해 구약 성경의 예언과 신약 성경의 성취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용이 아예 바뀐 경우도 있다.

f. 「성경의 미래」에 있는 동적 일치를 반대하는 몇 가지 인용문

동적 일치라는 주제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겠다. 마귀의 창작품인 동적 일치가 얼마나 치명적이고 속이는 것이며 또 얼마나 의도적으로 보급되고 있는지 알아보자. 다음의 몇 가지 예들을 주목해 보자.

(f.1) BIBLE FOR TODAY에서 구할 수 있는 책

네덜란드의 밴브루겐(Jakob Van Bruggen)은 「성경의 미래」(*The Future of the Bible*)라는 책을 저술했다. 넬슨 출판사가 이 책을 출간하기는 했지만 판매가 부진하다는 이유로 재판하지 않고 있다[B.F.T #1256]. 이 책의 앞표지에는 성경 한 권과 해가 그려져 있다. 유감스럽게도 그 해는 뜨는 해가 아닌 지는 해이다. 네덜란드 사람인 밴브루겐은 이 그림을 통해 성경의 암울한 미래(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를 보여 주고 있다. 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렇게 오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재림의 징조는 더해 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7년 환난기 전에 성도의 휴거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f.2)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으로 알고 있는 그 성경의 미래는 불확실하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성경의 미래가 불확실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특별 기금이 조성되지 않는 한 앞으로 성경전서(창세기-계시록)가 다른 말로 새로 번역되어 출간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저 특정 계층(남성, 여성, 청년들, 의사들 등)을 위한 쪽 성경만이 출간될 것이다.

둘째는 번역을 하더라도 오로지 관용적 번역 혹은 동적 일치를 사용한 번역만을 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미래가 암울한 둘째 이유이다. 그들은 동적 일치 방법으로 단어들을 바꿀 것이며 결코 히브리어, 그리스어 원문의 단어들을 영어나 다른 나라 말의 단어들로 충실하게 번역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사고 속에는 자기들이 마음대로 말씀을 더하고 뺄 수 있다는 신념이 있다. 조금 있다가 그 예를 몇 가지 들어 보겠다. 물론 그렇게 해도 정확한 히브리어나 그리스어 본문의 단어들 자체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다만 그들은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에 손을 댈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킹제임스 성경은 문자적, 형식적 일치를 통해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단어들을 그대로 충실하게 영어로 옮겨 놓은 성경이다.

(f.3) 성경 번역은 킹제임스 성경처럼 본문과 형태 면에서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서 나는 밴브루겐의 책 「성경의 미래」의 내용을 한 번 더 인용하겠다.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의 말씀들을 확고한 기록의 형식으로 계시하셨다. 따라서 번역자는

반드시 이 형식을 존중하여 번역해야 한다(96쪽).

이것은 흥미 있는 발언이다. 번역계의 새 얼굴인 동적 일치는 히브리어나 그리스어를 영어로 번역할 때 형식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 그 방법은 형식을 바꾼다. ‘형식’이란 말의 뜻을 생각해 보자. 단수도 하나의 형식이다. 복수도 형식이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의 ‘씨’(Seed)와 ‘씨들’(Seeds)의 차이가 여기에 있다. 바울의 논지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다.

한편 그 약속들은 주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셨는데 그분께서 여럿을 가리키듯, 씨들에게, 라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를 가리키듯, 네 씨에게, 라 하시나 니 이 씨는 그리스도시니라.

여기서 형식은 매우 중요하다. 비단 이것뿐 아니라 단어의 형식은 늘 중요하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은 명사(사람, 장소, 사물의 이름)면 명사로 번역했지 그것을 대명사나 동사(행위나 상태)로 바꾸지 않았다.

하지만 새 역본의 편집자들은 동적 일치 방법을 기반으로 종종 동사를 대명사로 혹은 명사로 바꾸어 번역했다. 이것이 소위 ‘변형 문법’(Transformational Grammar)이라는 것이다. 변형 문법에서는 단어의 문법적 형태를 다른 형태로 바꿀 수 있다. 계속해서 뱀브루겐의 말을 들어 보자.

물론 이런 법칙을 무시하고 읽기 쉽게 번역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다. ‘순종이 희생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께서 빼지 말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라. 하나님께서 더하지 말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라. 하나님께서 바꾸지 말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라. 이것이 순종이다.] 성경 번역에 있어 순종이란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그대로를 신중하게 전달하는 것이다.

간단한 말이지만 이것이 성경 번역의 진수이다. 킹제임스 성경은 이 권고를 따랐지만 NASB, NKJV, NIV, TLV, NEB 등의 새 역본들은 모두 이것을 무시했다. 새 역본들 모두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뱀브루겐이 말했던 이 방법에서 벗어나 있다.

신뢰할 수 있는 번역이 되려면 본문과 그 형식 면에서 충실하고 명확하며 완성도가 높아야 한다. 또한 영적으로나 권위 면에서 교회가 사용하기에 적합해야 한다.

현재 이런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뿐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다른 역본들은 신뢰할 수 없고 신뢰해서도 안 된다.

g. 「하나님의 말씀 번역」에서 인용한 동적 일치의 여러 오류

이 책은 성경 번역 분야에 관한 한 ‘바이블’로 통하며 현대의 많은 성경 역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책이다. 현재는 절판된 상태이지만 아직 구할 수는 있다. 위클리프 성경 번역회를 비롯하여 성경을 번역한다는 많은 사람들이 비크맨과 켈로우가 쓴 이 책 「하나님의 말씀 번역」(*Translating the Word of God*)이란 책에 의존하고 있다. 이 책 3장에는 동적 일치 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다. ‘암시적인 정보와 명시적인 정보’라는 제목으로 말이다. 암시적이란 내포된 어떤 것을 뜻하고 명시적이란 명백히 언급된 것을 뜻한다. 그러면 이제 암시와 명시라는 주제로 넘어가자.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은 동적

일치를 피했다. 그들은 문자적 혹은 형식적 일치에 동의했으며 이것을 따랐다.

(g.1) '암시적'인 내용을 가지고 동적 일치가 범한 오류

(a)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우리가 믿거든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우리는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번개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암시의 논리를 엿볼 수 있다. 새 역본 편집자들의 번역 기법은 마귀에게서 나온 것이다. 나는 지금 그들의 구원 여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들의 방법이 마귀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방법으로 그들은 사탄의 사업, 마귀의 사업을 돕고 있다. 그들이 아무리 근본주의자라는 간판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말이다. 누가 이 방법을 쓰더라도 마귀의 이 방법은 옳지 않다. 이것이 나의 강한 신념이며 지금이라도 나는 당장 그들에게 달려가 말할 수 있다. 암시라는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빼고 바꿀 권리가 그들에게는 없다. 자, 이제 이 의역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 보라. 그들은 비록 본문에는 없지만 이 구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암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어떤 단어들을 첨가했는지 보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그분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에
even so them also which sleep in Jesus will God bring with him when
he descends from heaven.

밑줄 친 부분이 문맥상 내포된 내용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인가?

새 역본들의 대부분은 킹제임스 성경처럼 이탤릭체를 쓰지 않는다. 알다시피 이탤릭체는 히브리어나 그리스어 원문에는 없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역자들이 첨가한 단어들을 나타낼 때 쓰인다. 그런데 새 역본들에는 이런 목적의 이탤릭체가 없다. NASB를 제외하곤 다 그렇다. 위의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암시라는 논리로 혹은 동적 일치라는 논리로 다섯 개의 영어 단어가 버젓이 첨가되었다. 이 같은 억지가 어디 있겠는가? 참된 번역자들은 결코 성경을 지어내거나 해석하지 않는다. 그런데 새 역본 편집자들은 그 같은 일을 자행하고 있다.

암시적 동적 일치의 둘째 예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볼 수 있다.

(b) 디모데후서 1장 7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기 때문이라.

이것이 킹제임스 성경의 내용이다. 그리스어도 같은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들은 문맥 운운하며 암시라는 카드를 꺼내었고 여지없이 자기들 생각에 내포되었다고 보이는 단어들을 끼워 넣는다. 내가 보기에 이것은 번역이 아닌 변개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기 때문이라.

For God hath not given us the spirit of fear; But he has given us the
spirit of power and of love, and of a sound mind'

의미는 맞지 않느냐고 물을지 모른다. 주석도 설교도 다 이 뜻이라고 말하니 말이다. 하지만 뜻만 맞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단어들을 더하는 것은 분명히 마귀적인 발상이다. 하나님의 말씀들에 더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누가복음 4장 29-30절도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 자, 현대 역본 번역자들이 성경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 보라. 그들은 “번역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연합성서공회 혹은 미국성서공회)이 번역한 성경은 하나도 믿을 수 없게 되었다. 수없이 첨가되고 바뀐 성경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잘못된 본문, 의심스러운 번역자, 잘못된 번역 기법(동적 일치 방법, 의역 방법, 에덴동산에서 사탄이 썼던 방법),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c) 누가복음 4장 29-30절: [그들이] 일어나 그분을 도시 밖으로 밀어낸 뒤 자기들의 도시가 세워진 산의 낭떠러지까지 그분을 끌고 가서 그분을 거꾸로 떨어뜨리려 하였으나 그분께서는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 자기 길로 가시니라.

이것이 정확한 그리스어 본문의 내용이다. 좋은 번역이요, 명확한 번역이다. 이제, 이 구절에 무엇이 숨어 있다는 것인지 그들의 주장을 들어 보자.

거꾸로 떨어뜨리려 하였으나 그들이 그분을 떨어뜨릴 수 없었으므로 그분께서는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 자기 길로 가시니라.

that they might cast him down headlong But They could not cast him down and He passing through the midst of them went his way.’

그들은 밑줄 친 부분이 문맥상 내포된 내용이며 번역 때에 허용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정확하고 믿을 만한 번역에는 이런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물론 의역이나 관용적 번역이라면 가능할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번역’(translation)이란 단어는 ‘trans’(가로질러, 넘어서)와 ‘latus’(올리다, 운반하다)로 이루어졌다. 이것은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있는 그대로를 가감 없이 정확하게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 더 자세한 것은 비크맨과 캘로우가 쓴 책 「하나님의 말씀 번역」을 참고하기 바란다.

(g.2) ‘명시적’ 내용을 가지고 동적 일치 기법이 범한 오류

이번에는 명시적인 것, 즉 다른 말로 명확한 사실에 관한 것이다. 동적 일치 추종자들이 자기들의 번역에서 이 명시적인 내용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자. 앞에 나온 대로 암시적 방법은 인접한 문맥 혹은 전체적인 문맥상 암시되어 있을 만한 - 번역자의 판단으로 - 내용을 임의로 첨가하는 것이다. 그런데 명시적 방법은 이보다 더 심하다. 명시적 방법을 통해 번역자는 사실상 하나님이 된다. 그는 하나님께서 명백히 그리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들, 즉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에 있는 단어 하나하나를 그대로 두거나 지울 수 있는 선택권을 갖는다. 원한다면 어떤 단어든 굳이 번역하거나 옮기지 않을 수 있다. 이제 다시 한 번 위클리프 성경 번역회, 미국 성서 공회, 연합 성서 공회에서 니다(Eugene Nida)와 그의 추종자들이 꾸며 낸 마귀적인 음모가 드러난다. 이들의 소행을 보라. 이들은 자신들을 하나님 혹은 성령님과 같은 수준으로 올려놓았다.

암시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무언가를 더하든, 명시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을 빼든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성모독이다.

(a) 누가복음 1장 18절: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이것을 내가 무엇으로 알리
까? 나는 노인(old man)이요 내 아내도 매우 연로하니이다(well stricken in
years), 하니

이 구절을 그들이 어떻게 설명하는지 들어 보자.

나이를 나타내는 두 개의 표현, 즉 'well stricken in years'와 'old'가 나란히 있으므로
둘 중 하나는 빼도 된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번역 원칙에 위배된다. 그리스어에서 이
두 가지 표현이 분명히 나타나 있는데도 말이다. 사실 킹제임스 성경은 이것을 충실히
반영했지만 새 역본 역자들은 'old'나 'well stricken in years' 중 하나는 없앨 수
있다고 말한다. 결국 같은 의미의 표현인데 굳이 두 번 쓸 필요가 있겠느냐는 논리다.
이 논리대로라면 성령님께서 불필요한 말씀을 하셨다는 말이 된다. 그분은 장황하고
반복적이며 필요 없는 말씀을 하신 셈이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권리를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가? 어떻게 일개 번역자가
“이건 번역할 필요가 없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성경은 그저 또 하나의 책이 아니다.
그들은 지금 무슨 만화책이나 소설책을 번역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책에서는
자기가 빼고 싶은 것은 빼면 그만이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책이다. 하나님의 책에
그런 것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마귀적이며 치명적이다.
누가 이런 짓을 하고 있는가? 현대주의자들? 배도자들? 불신자들? 혹은 마귀의 자녀들?
하지만 이들뿐이 아니다. 소위 근본주의자들, 분리주의자들, 복음주의자들, 성경 신자들,
구원받았다는 사람들도 같은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더 심각하다. 아담과 이브는 죄짓기
전에 순결한 존재였다. 그러나 사탄이 하라는 대로 하면서 그들은 마귀의 방법을 따르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분의 분명한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있다. 여기에는 아담이든 이브든, 성경을 믿는 근본주의자들, 무신론자들,
배도자들 차이가 없다.

그들은 마귀의 방법으로 마귀의 일을 하게 되고 결국 그를 돕게 된다.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들도 사탄을 위해 일할 수 있다. 내 말을 이해하겠는가? 나는 지금 그들이 마귀
들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들이 사탄의 목적과 목표에 부합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주 예수님께서도 베드로를
돌아보시며 말씀하셨다.

Get thee behind me, Satan:(마16:23)

예수님께서서는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르셨다. 왜 그런가? 이것은 베드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반박하고 그분의 말씀을 바꾸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분명히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세상의 죄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릴 것을 말씀하셨다.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나실 것을 말씀하셨다. 이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했다.

그때에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꾸짖기 시작하여 이르되, 주여, 그 일이 주께 생길 수 없나이다. 이 일이 주께 생기지 아니하리이다, 하였으나(마16:22)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를 돌아보시며 말씀하셨다.

그분께서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니라. 네가 하나님에게서 난 것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것들을 좋아하느니라, 하시니라(마16:23).

이곳 미국에서 새 역본을 번역하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대부분이 믿는다는 사람들이다. 외국에서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 번역자들 대부분이 자기 눈에 경건한 방법 - 하지만 사실상 마귀의 방법 - 으로 성경을 번역을 하고 있다!

명시적인 진리의 왜곡을 보여 주는 또 하나의 예가 누가복음 8장 35-38절에 있다. 물론 킹제임스 성경은 이 구절을 그리스어 본문에서 정확히 번역했다. 여기서도 동적 일치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제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중 몇몇은 생략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때에 그들이 이루어진 일을 보려고 나가 예수님께 와서 몸속에서 마귀들이 나간 그 사람이 옷을 입고 바른 정신으로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는 두려워하더라. 그것을 본 자들도 마귀들이 들렸던 자가 어떤 방법으로 고침을 받았는지 그들에게 말하니 이에 가다라 사람들의 지역 주변의 온 무리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으므로 그분께 간청하여 자기들에게서 떠나실 것을 구하더라. 그분께서 배에 들어가 다시 돌아가시는데 이때에 몸속에서 마귀들이 나간 그 사람이 자기가 그분과 함께 있을 것을 그분께 간청하였으나...(눅8:35-38)

그들의 주장은 이것이다. 그 남자가 마귀들에 들렸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구절이 세 번 나온다. 위에서 밑줄 친 것처럼 처음은 35절, 둘째는 36절 그리고 셋째는 38절에 나온다. 그리스어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세 번의 표현이 나온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신 내용이다. 그러나 동적 일치 추종자들은 이 셋 중 둘은 생략해도 된다고 말한다. 하나만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전 세계 번역자들에게 그들이 제시한 내용이다. 이번에도 이유는 굳더더기와 반복이다. 다시 말해 성령님께서 쓸데없이 이런 표현을 세 번이나 넣었다는 것이다. 아니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불필요하게 같은 표현을 세 번씩이나 그리스어에 넣으셨을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런 반복을 쓰셨다. 예수님께서 친히 마귀를 쫓아내신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사람이 바로 마귀 들린 이 사람이라는 점을 성령님께서 강조하신 것이다. '반복은 배움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마귀의 이 하수인들은 사람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 곧 성령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을 내팽개칠 수 있다고 가르친다.

숨어 있는 뜻을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는 것은 불순종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다른 한편으로 명시적 논리는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에 분명히 존재하는 말씀인데도 굳더더기 혹은 반복적인 것이라고 판단하면 뺄 수 있다는 논리이다. 더 많은 예를 보려면 비크맨과 캘로우의 「하나님의 말씀 번역」 3장을 읽어 보기 바란다.

h. 동적 일치를 사용한 새 역본들과 번역 오류에 관한 몇 가지 사례

(h.1) 여러 역본들의 컴퓨터 분석 내용

먼저 ASV와 NIV 그리고 NKJV를 살펴보자. 우리는 이 역본들이 킹제임스 성경에 비해 질이 훨씬 떨어진다고 믿는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다.

(h.1-1) 뉴킹제임스성경(NKJV)

앞서도 말했듯이 NKJV를 컴퓨터로 분석한 결과 NKJV에는 킹제임스 성경 - 곧 히브리어 구약 성경과 그리스어 신약 성경 - 과 상이한 부분이 무려 2,000군데(추가와 삭제, 변경)나 발견되었다[B.F.T #1442]. 이것은 총 95쪽짜리 자료이며 이 연구의 머리말을 요약해서 나온 소책자도 있다[B.F.T #1465]. 나는 개인적으로 NKJV가 오늘날 나와 있는 새 번역본들 중 가장 위험하다고 본다. 일단 NKJV는 다른 새 번역본들처럼 노골적인 동적 일치를 표방하지 않는다. 이것은 마치 들어가지 않고 발만 문에 들여놓은 상태와 같고 낙타가 텐트에 코만 들이민 상태와 같다. 하지만 이 낙타는 결국 주인을 밀어내고 주인의 자리를 차지한 뒤 동적 일치 쪽으로 몰고 갈 것이다. 일단 뉴킹제임스성경(NKJV)은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타이틀로 사람들의 경계심을 늦춘다. 사람들은 NKJV가 킹제임스 성경과 비슷한 성경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킹제임스 성경에 몇 가지 새로운 방법을 적용하고 또 고어를 현대어로 바꾸는 등의 작업을 했을 뿐이라고 믿는다.

결국 사람들은 이같이 결론 내린다. “음, 그냥 새로 나온 킹제임스 성경이네요. 별 문제 없겠는걸요.” 여기에 큼직한 속임수가 있다. 위의 소책자[B.F.T #1465]에서 우리는 단어를 첨가한 13개의 예와 명사를 대명사로 바꾼 25군데의 예 그리고 가정법을 빠뜨린 예 등을 제시하였다. 독자들은 그 책자에서 이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NKJV의 본질이 마귀적이라는 것은 무엇보다 편집자들이 각주에 다양한 그리스어 본문 독본을 수록해 놓은 데 있다. 편집자들은 책 사방에 여러 그리스어 본문 독본들을 인쇄해 놓았지만 그 어떤 것도 자기들의 입장으로 삼지 않는다. 이로써 독자들은 혼란에 빠진다. NKJV 편집자들은 정말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결국 모든 혼란은 독자들의 몫이 된다. 그들은 입으로 NKJV가 공인 본문을 기초로 번역되었다고 하지만 NKJV는 정확성에 있어 결코 킹제임스 성경과 견줄 수 없다.

NKJV의 역자들은 각각의 페이지 하단에 자기들이 쓴 본문을 소위 ‘다수 본문’(M)¹⁸⁾과 비교하여 어디가 다른지 표시해 놓았다. 또한 자기들의 본문이 네슬레와 연합 성서 공회의 본문 곧 네슬레/알란드 26판 또는 배도한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그리스어 본문¹⁹⁾과 달라도 해당 독본을 각주에 집어넣는다. 결국 독자들은 성경을 잘 읽어 나가다가 갑자기 어디가 추가되어야 되고 어디가 빠져야 하고 어디가 바뀌어야 하는지 잔뜩 설명해 놓은 각주를 만나게 될 것이다. 신약 성경 그리스어 본문의 경우 사실상 페이지마다 이런 혼란스러운 각주가 들어 있다. 물론 그들은 어느 입장도 취하지 않는다. 최소한

18) 이것은 ‘홉지스와 파르스테드의 다수 본문’(Hodges and Farstad's Majority text)을 뜻하는데 사실 다수 본문이라는 이름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19) 이것은 공인 본문(수용 본문)과 비교할 때 5,600군데의 차이, 10,000개가량의 그리스어 단어의 차이를 보이는 본문이다.

NASB나 NIV는 자기들이 공인 본문을 쓰지 않고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본문을 썼다고 명시했다. 그리고 각주의 수도 NKJV 보다 적다. 반면에 NKJV는 바뀐 부분을 모두 각주로 달아 놓았다. 결국 NKJV는 새 신자든 어린 신자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본문 비평가가 되도록 만들어 버렸다. 그들은 어느 것이 바른 그리스어 본문인지는 스스로 알아서 정하라고 말한다.

NKJV 후반부 1,235쪽에서 편집자들은 바로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데 내용은 이러하다.

우리 편집자들은 각주를 통해 독자들이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할 수 있다고 믿는다. 또한 평범한 수준의 독자라도 본문에서 자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느끼는 부분을 지울 수 있다(제거, 혹은 삭제). 이렇게 하는 것이 집필자들이 이미 삭제해 버린 단어나 구를 다시 삽입하는 일보다 더 쉬울 것이다.

이 말은 본문의 어떤 부분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 대한 편집자 자신의 견해나 추측이 배제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선택은 독자의 자유이다. NKJV는 마치 각주라는 그릇에 다양한 본문이라는 요리를 담아 내놓는 ‘모듬 요리’ 코너와 같다. 어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중에서 진짜 성경을 골라 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가혹한 일이다. 차이가 나는 부분을 만날 때면 항상 이런 질문이 뒤따를 것이다. 어느 쪽이 맞을까? 이쪽일까, 저쪽일까? 독자가 무슨 선택을 하든 마음의 의문과 의심은 가시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의도한 바이다!

(h.1-2) NASB

NASB를 히브리어, 그리스어 본문과 비교한 내용을 담은 출력물이 있다[B.F.T #1494-P]. 이것은 총 187쪽이고 4,000개 이상의 동적 일치 사례가 이 안에 기재되어 있다. 또한 「NASB의 결함들」이라는 제목의 소책자도 있다[B.F.T #1518]. 이것은 앞서 말한 책의 길잡이가 된다.

(h.1-3) NIV

이것은 NASB를 비교/분석한 것처럼 NIV를 비교/분석해 놓은 책이다[B.F.T #1749-P]. 이것은 284쪽이나 되는 큰 분량이고 여기에는 6,653개가 넘는 동적 일치 사례가 소개되어 있다. 이 책의 길잡이가 될 만한 「NIV의 결함들」이라는 소책자도 있다[B.F.T #2054]. NIV의 번역이 결함투성이라는 것은 굳이 다시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럼에도 마땅히 킹제임스 성경을 써야 할 많은 근본주의자들이 NIV를 쓰고 있다. NIV를 후원하는 사람들은 NIV로 킹제임스 성경을 대신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거기에 수백만 달러를 쏟아붓고 있다. NASB도 이제 옛날 성경이 되고 있다. 하기가 1960년에 처음 나왔으니 이제 서른두 살이 된 셈이다.²⁰⁾ NIV는 자기만의 성구사전과 히브리어 대역 성경 그리고 주석을 갖추고 있다. 가령 델러스 신학교에는 NIV를 기초로 한 주석서가 있다. 게다가 쉐퍼 박사의 8권짜리 조직 신학을 2권으로 줄인 요약판도 내놓았는데 이 역시 NIV를 사용하였다. 이것은 하나의 철세 현상, 즉 인기나 대세에 편승하여 이리저리 붙어 다니는 세태를 반영한 현상이다.

20) 웨이트 박사의 이 책은 1992년경에 출간됨

(h.2) 여러 역본들에서 발견되는 잘못된 구절들

여기서는 특히 NIV를 중심으로 확인해 보겠다. 가령 우리는 대명사를 알고 있다. 나, 그, 그녀, 우리, 당신, 그들과 같은 이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여 쓰이는 품사이다. 물론 여기서 명사는 사람이나 장소, 사물을 가리키는 이름이다. 히브리어, 그리스어, 영어는 모두 공통적으로 대명사를 쓴다. 어떤 이유에서 번역자가 대명사 하나를 명사로 바꾸었다고 하자. 우리는 그것을 해석이라고 하지 번역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그가 아무리 믿을 만한 번역자라고 할지라도 말이다. 명사를 대명사로 바꿀 때에도 마찬가지로이다. 해석이라면 맞겠지만 번역이라면 틀린 것이다. 그것은 하나의 주석에 불과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 모른다. “대명사를 명사로 바꾸든 말든 알 게 뭐야?” 아니 그렇지 않다. 내가 지금 말한 것은 아주 간단한 예이다. 이제껏 나는 가정법을 직설법으로 바꾸는 것을 두고 여러 질문을 받았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가정법이 뭔지조차 몰랐다. 자, NKJV나 NIV, NASB는 이것을 사소한 변화로 치부할지 모른다. 하지만 이 역본들은 가정법을 제거했다. 직설법만 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을 기억하는가?

가장 적은 것에 신실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신실하고 가장 적은 것에 불의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불의하니라.

자, 이제 구체적인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h.2-1) 누가복음 22장 61절과 다른 구절들

킹제임스 성경(물론 그리스어 신약 성경도 그렇다)은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하였다. “수탉이 울기 전에”(before the cock crow). 이것은 가정법의 표현이다. 그리스어를 비롯하여 스페인어, 프랑스어, 영어 성경이 모두 가정법으로 기록하고 있다. “Before the cock crow.” 그런데 NIV에는 이것이 ‘before the rooster crows’로 되어 있다. ‘Crow’가 가정법을 나타내는데 반해 ‘Crows’는 직설법을 나타낸다. 가령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except a corn of wheat fall into the ground)라고 했을 때 ‘fall’은 이 문구가 가정법 문구임을 보여 준다. NIV는 이것을 ‘falls’로 번역했다. 이럴 때 앞부분에 ‘if’가 있다고 생각하면 더 이해가 잘 될 것이다. 사도행전 4장 35절에 있는 ‘if it be of men’도 가정법 문구이다. NIV는 이것을 ‘if it is of men’으로 바꿨다. ‘Except God be with him’도 ‘unless God is with him’으로 바꿨다. ‘Be’는 가정법을 나타내며 이것은 영어의 한 부분이다. 그러나 NIV, NASB, NKJV는 하나같이 이것을 구식 표현이라며 빼 버렸다. 가정법은 킹제임스 성경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다. 가정법은 표준 영어이다.

(h.2-2) 마가복음 6장 54절과 다른 구절들

이번에는 대명사를 명사로 혹은 명사를 대명사로 바꾼 예를 확인해 보도록 하자. 마가복음 6장 54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다. “배에서 내리니 즉시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고”(They knew him). ‘They’는 대명사이며 그리스어 원문도 대명사로 되어 있다. 그러나 NKJV는 이것을 “백성이 그분을 알고”(the people recognized him)이라고 고쳤다. ‘recognize’야 ‘knew’와 비슷한 말이라서 그렇다고 하지만 ‘They’를

‘People’로 바꾼 것은 어찌 된 일인가? 사무엘기상 15장 27절도 같은 경우이다. ‘He’가 ‘Saul’로 바뀌었다. 히브리어도 분명히 ‘He’를 말한다. 그러나 그들은 ‘Saul’로 바꾸었다.

(h.2-3) 레위기 8장 15절

이것은 명사를 대명사로 바꾼 경우이다. 레위기 8장 15절은 “모세가 그 피를 취해”(MOSES took the blood) - 킹제임스 성경 및 히브리어 성경 - 로 되어 있다. 그러나 NKJV는 동적 일치를 적용하여 이것을 “그가 피를 취해”(He took the blood)로 변경했다. 이것은 여러 차례 반복되어 이루어진 일이다.

(h.2-4) 사도행전 25장 3절과 다른 구절들

사도행전 25장 3절에서 NASB는 대명사 ‘Him’을 ‘Paul’로 고쳤다. 요한복음 10장 38절에서는 ‘Him’을 ‘The Father’로 바꾸었다. 그리스어는 분명히 ‘Him’이다. 에스겔서 11장 7절의 ‘It’은 ‘The City’로 바뀌었다. 스가랴서 14장 10절의 ‘It’은 ‘Jerusalem’으로 바뀌었다.

(h.2-5) 민수기 5장 18절과 다른 구절들

민수기 5장 18절의 명사 ‘The Priest’가 대명사 ‘He’로 바뀌었다. 하나님은 분명히 히브리어 ‘cohen’을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제사장을 뜻하는 ‘cohen’을 ‘He’로 바꾸어 번역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친 것이다. 창세기 30장 1절의 ‘Rachel’은 ‘She’가 되었고 역대기하13장 7절의 ‘Rehoboam’도 ‘He’로 바뀌었다.

(h.2-6) 욥기 3장 11절과 다른 구절들

또한 현대 역본들에는 노골적인 의역이 허다하다. 나는 책 뒷부분에서 이것을 다루었다. 가령 욥기 3장 11절의 ‘Womb’(태)은 NKJV에서 ‘At birth’(탄생)가 되었다. 의역이다. 마가복음 7장 3절에서는 영어로 ‘Of’ 혹은 ‘Often’(종종)이라는 뜻의 그리스어 단어가 있는데 NKJV는 이것을 ‘In a special way’(특별한 방식으로)로 의역해 놓았다. ‘특별한 방식으로’는 빈도를 나타내는 ‘종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누가 NKJV를 정확하고 충실하고 축자적으로 번역된 성경이라고 했던가? 결코 아니다. 몇 부분만 봐도 알 수 있다. NKJV는 ‘Pastors’(목사들)를 ‘Ruler’(치리자)로 ‘Palace’(궁전 혹은 저택)를 ‘Temple’(성전)로 바꾸어 놓았다.

(h.2-7) 창세기 35장 9절

NIV도 명사를 대명사로 바꾼 건 마찬가지다. NIV는 창세기 35장 9절의 ‘He came out’(히브리어 및 킹제임스 성경)을 ‘JACOB returned’로 고쳤다. 또한 같은 구절에서 ‘to JACOB’을 ‘God appeared to him’으로 바꾸었다. 왜 그들은 성령님께서 기록하신 그대로 놔두지 않는 걸까?

NIV에는 이러한 사례가 6,653군데 이상이나 있다. NIV에는 ‘성소’(Holy Place)와 ‘지성소’(Holy of Holies)를 구분하는 ‘vail’ 혹은 ‘veil’(휘장)이 없다. 무슨 말인가 하면 NIV에는 이 ‘vail’이 그저 ‘커튼’(curtain)으로 번역되어 있다. 본래 ‘커튼’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는 따로 있다. 적어도 세 개 이상 말이다. 하지만 ‘vail’은 특별한

히브리 단어이다.

이와 관련하여 NIV는 이외에도 교리적으로 중요한 단어들을 여럿이나 빼먹었다. 여러분은 NIV에 ‘공휼의 자리’(mercy seat)라는 단어가 없다는 사실을 아는가? NIV에 ‘화해 헌물’(propitiation)이란 단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가? 이것 말고도 KJV에는 있지만 NIV에는 없는 중요한 단어들이 있다. 다음의 표를 보자.

<NIV에서 삭제된 중요 단어들>

KJV에 있는 단어	KJV에 수록된 횟수	NIV에 수록된 횟수
advocate - 변호자(신약 성경)	1	0
chaste/chasten - 징계하다	3	0
concupiscence - 강한 욕망	3	0
sodomite - 남색하는 자	3	0
carnal/carnally - 육적인	14	0
impute - 전가하다, 여기다	13	0
fornicator - 음행하는 자	40	0
abide/abideth/abiding - 거하다	114	0

또한 위와 같이 제거되지는 않았더라도 교리적으로 희석되어 표현된 단어들이 33개나 된다. 자세한 것은 B.F.T #1923을 참고하기 바란다.

(h.3) 몇몇 신학적 변개 사례

이제 NASB와 NIV에 나타난 몇몇 신학적 변개 사실을 확인해 보도록 하자. 물론 나는 다음에 나오는 5장에서 이 내용을 자세히 다루었다.

(h.3-1) 디모데전서 3장 16절

디모데전서 3장 16절의 경우는 번역 기법에 의한 변개라기보다는 본문과 관련된 변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킹제임스 성경(그리스어 본문)의 본문은 아래와 같다.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다 인정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믿는 분이 되시고 들려서 영광으로 들어가셨느니라.

And without controversy great is the mystery of godliness: God was manifest in the flesh, justified in the Spirit, seen of angels, preached unto the Gentiles, believed on in the world, received up into glory.

NIV는 이 구절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보자.

… 신비는 논쟁의 여지가 없이 위대하다. 그는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Beyond question the mystery of godliness is great. He appeared in a body,...

자, ‘하나님’(God)은 어디로 사라져 버렸는가? 도대체 여기 나오는 ‘그’(He)는 누구인가? 누구를 말하는가? NIV는 그리스어 단어 ‘theos’(God, 하나님)를 ‘hos’, 즉 관계 대명사로, ‘He who’ 또는 ‘The one who’의 뜻을 가진 단어로 바꾸어 버렸다. 성육신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표현이 바로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는 것이다(God was manifest in the flesh). ‘그가 몸 안에 나타났다’는 표현은 성육신에 관해 아무것도 말해 주지 않는다. 우리 모두가 몸(육체)안에 나타난 존재가 아닌가? 그렇다. 우리는 모두 몸을 입고 있다. 그렇다고 우리가 몸으로 나타난, 몸으로 드러난 ‘하나님’은 아니다. 이것은 NIV에서 볼 수 있는 신학적 오류 중 하나이다.

NASB는 어떤가? NASB에서도 마찬가지로 본문이 바뀌었고 치명적인 신학적 변경이 이루어졌다.

Great is the mystery of godliness: He who was revealed in the flesh,...
(NASB)

이번에도 ‘God’(하나님)은 없다. NASB, NIV는 모두 여기서 ‘하나님’이란 단어를 없애 버렸다.

(h.3-2) 마가복음 16장 15절

이것은 예수님의 유명한 지상 명령이 나오는 구절이다. NASB에서 마가복음 16장 15절은 괄호로 표시된 부분 안에 들어 있다. 괄호로 묶여 있는 부분에 대해선 아래와 같은 설명이 덧붙여져 있다.

가장 오래된 사본 중 일부에는 9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이 빠져 있음

그들은 지상 명령인 마가복음 16장 15절의 존재를 의심하고 있으며 그래서 이것을 제거하려 하고 있다. 이것은 분명한 교리적 탈선이요 변경이다.

NIV의 형편은 어떻게? 마찬가지로이다. 역시 처음 8개 구절이 검은 선으로 따로 구별되어 있다. 중간에 마가복음 16장 15절이 들어 있다. NIV 번역자들에게 따르면 마가복음은 16장 8절로 끝난다. 9절부터 20절 내용을 인쇄해 놓긴 했지만 아래와 같은 각주를 달아 놓았다.

가장 믿을 만한 두 개의 초기 사본에는 마가복음 16장 9-20절이 없음

다시 말해 그들의 소위 ‘가장 믿을 만한’ 사본에 따르면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즉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는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h.3-3) 누가복음 2장 33절

누가복음 2장 33절의 예를 살펴보자.

요셉과 아이의 어머니는 그가 아이에 관하여 말한 그 일들로 인해 놀라더라.

그러나 NASB는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and his father and mother…)으로 되어 있다. 즉 NASB에는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로 나타나 있다. NASB는 예수님의 처녀 탄생을 부인하고 있다.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분의 아버지는 성령님이셨다. NIV도 마찬가지이다. 그리스어 본문에는 분명히 ‘Joseph’이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Joseph’이 맞다.

(h.3-4) 누가복음 24장 51절

이것은 예수님의 승천을 다룬 구절이다.

그들을 축복하실 때에 그분께서 그들을 떠나서 위로 들려 하늘로 들어가시니라.

자, NASB를 살펴보자. 거기에는 “하늘로 들어가시니라.”가 삭제되어 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어떤가? 보다시피 NASB에는 ‘Carried up into heaven’이란 구절이 빠져 있다. NASB에 따르면 예수님은 승천하지 않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셨다. 물론 승천을 말해 주는 다른 구절이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것만큼은 아니다.

앞의 컴퓨터 분석 결과로도 알 수 있듯이 NASB, NKJV, NIV는 동적 일치에 의한, 번역 자체에 의한, 의역에 의한 변개로 가득하다. 결국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우리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원문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 성경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그것은 현재뿐 아니라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교회가 휴거받을 때까지 지속될 것이다. 성경을 읽으라! 공부하라! 암송하라! 이해하라! 믿으라! 실천하라!

신자들에게는 항상 최종 권위의 본문이 있다!



이런 본문은 비잔틴 본문 혹은
공인 본문이라 한다.

제 5 장

Chapter 5

킹제임스 성경이 영어로 보존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그것의 우수한 신학 때문이다

A. 본 장의 배경

1. 처음에는 신학 부분이 없었다

지난 10년간 나는 ‘킹제임스 성경의 우수성 - 영어로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연했고 그 내용은 크게 세 부분, 즉 (1) 본문, (2) 번역자, 그리고 (3) 번역 기법으로 나뉘었다. 그런데 1990년 4월과 5월에 가졌던 집회를 통해 나는 킹제임스 성경의 넷째 우수성을 발견했다. 그것은 ‘신학적 우수성’이다. 킹제임스 성경의 신학이 우수하다는 사실과 함께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나머지 역본들에 신학적인 문제가 있다는 사실도 발견하였다. 킹제임스 성경이 신학적으로 다른 모든 역본들보다 뛰어나다면 자연 다른 모든 역본들은 킹제임스 성경보다 신학적으로 뒤떨어질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알아낸 사실이다.

2. 성경 역본들이 어떻게 신학의 변화를 초래하는가?

성경 역본들이 신학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은 대개 두 가지가 있다. (1) 의역과 (2) 잘못된 그리스어 본문이다. 보통 이 두 가지 이유로 교리가 바뀐다. 나는 특별히 후자에 관한 내용을 이 장에서 다루고자 한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나는 여러 기독교 저술가들이 역본과 교리의 상관관계를 잘못 말하고 있음을 보여 줄 것이다. 그들은 한결같이 웨스트코트/호르트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이나 이것을 기반으로 한 성경 역본들이 교리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a. 샤프 박사는 역본이 교리에 미치는 영향을 잘못 말한다

샤프(Philip Schaff) 박사는 그리스어 본문에 대한 ‘상이한 독본들’(variant readings)이 있음을 두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의미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400군데에 불과하다. 그중에서도 실제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구절은 50개이다. 그렇다고 이 50개로 인해 우리의 믿는 바가 바뀌거나 의무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외에도 많은 명확한 구절이 있고 또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이 있기 때문이다. [1979년 3월, 복음 전도자 섬너(R. L. Summer)의 「성경 번역들」(*Bible Translations*) 8쪽에 인용된 「그리스어 신약 성경과 영어 역본 입문」의 내용]

계속해서 보여 주겠지만 이것은 절대 사실이 아니며 분명히 잘못된 말이다. 이런 상이한 독본들의 상당수가 ‘우리의 믿음’에 영향을 미친다. 그것이 여타 명백한 구절에 의해 보충되든, 보충되지 아니하든 말이다. 샤프는 교리와 실행 면에서 배교자였다.²¹⁾

그럼에도 그는 1901년도에 출간된 ASV의 의장을 맡았다.

b. 피어슨 박사는 역본이 교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잘못 말한다

피어슨(Arthur T. Pierson) 박사는 이 주제를 두고 무엇이라 말하는지 들어 보자.

주목할 만한 것은 이 모든 표준 번역들이 매우 충실하다는 것이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눈여겨볼 것은 여러 까다로운 구절들에다 논란이 될 만한 의심스러운 번역들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중 어떤 것[논란이 되고 있는 번역 내용]도 하나님 말씀의 핵심적인 교리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의 「성경 알기」(*Knowing the Scripture*) 중 ‘성경 역본들과 번역들’이란 장에서. 섬너의 책 21쪽에 인용됨]

이 말 역시 완전히 엉터리이다. ‘논란이 될 만한 의심스러운 번역들’은 분명히 많은 ‘핵심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에 영향을 준다. 피어슨 박사는 스코필드 관주 성경의 편집자 중 한 사람이었다.

c. 탈봇 박사 역시 현대 역본들이 교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잘못 말한다

탈봇(Louis T. Talbot) 박사는 이 주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여전히 킹제임스 성경을 고수하고 있고 성경 연구에 필요한 주석의 하나로 개역본 [즉, 1881년의 영어 개역본(ERV) 또는 1901년의 ASV를 가리킨다] 을 사용한다. 덧붙여 최근 역본이라 해도 근본적인 교리는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려두고 싶다. [섬너의 책 20쪽에 인용됨]

절대 그렇지 않다. 1881년도의 영어 개역본(ERV)이든, 1901년도의 ASV든 킹제임스 성경을 개정한 ‘개역본’(Revised version)에서는 많은 ‘근본적인 교리들이 바뀌었다.’

d. 라이스 박사는 역본이 교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잘못 말한다

라이스(John R. Rice) 박사는 무어라 이야기했는가?

번역본들 간의 차이는 극히 미미하며 사소한 것들이다. 결국 우리는 현대 번역본들에서도 교리 하나, 사건 하나, 명령 하나, 권면 하나 빠진 것이 없다고 확신할 수 있다. [섬너의 책 18쪽에 인용됨]

절대 그렇지 않다. ‘번역본들 간의 차이’는 결코 ‘미미’하지 않으며 ‘사소한’ 것도 아니다. 역본들 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 다르다. 많은 ‘교리들’과 많은 ‘사건들’, 많은 ‘명령들과 권면들’이 여러 ‘번역본들’에는 빠져 있다.

e. 섬너(Robert L. Sumner) 박사는 역본이 교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잘못 말한다

21) 필립 샤프(Philip Schaff, 1819-1893)는 스위스에서 태어나 독일에서 교육받은 개신교 신학자이며 교회 역사가이며 성인 생활 중 대부분을 미국에서 생활하고 교육하는 데 보냈다. 그는 전 세계 종교 통합에 전력을 기울인 사람이다. 그는 개신교주의의 주관적인 면과 로마 카톨릭교회의 객관적인 면이 재결합함으로써 관대한 에큐메니즘(종교 일치)으로 로마 카톨릭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위키백과>)

정직한 기독교 학자들의 충실한 본문 비평을 따라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분명히 확인하게 되었다. 즉 히브리어, 아람어 그리고 그리스어 - 특히 신약 성경 그리스어 - 의 상당 부분이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이며 일부 여전히 확실치 않은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것들이 교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섬너의 책 4쪽에 인용됨]

앞으로 설명하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여전히 불확실한 그리스어 신약 성경의 부분들’은 비록 그것이 소수라고 해도 너무나도 분명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많은 ‘교리들’에 영향을 주고 있다.

f. 토마스(Robert L. Thomas) 박사는 역본이 교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잘못 말한다
번역이 다르다고 해서 주된 교리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1990년 1/2월, Masterpiece Magazine, 17쪽]

앞으로 설명하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그리스어 본문의 번역이 달라지면 그에 따라 많은 주요 교리들이 달라진다. 토마스 박사는 존 맥아더 목사가 이끄는 ‘마스터스 신학교의 신약 성경 강좌 교수’이다.

g. 밀러 박사는 역본이 교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잘못 말한다

다음은 밀러(S. Miller) 박사의 말이다.

사본들 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철자가 다른 경우에서부터 문자나 단어, 절들의 위치가 바뀐 경우, 그리고 단어나 문장의 순서가 다르거나 중복된 경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하지만 이로 인해 교리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심지어 이 차이점들이 번역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반 성경 입문」에서]

이후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원어 본문들 간의 ‘차이들’로 인해 많은 ‘교리들이 영향을 받는다.’

h. 건드리 박사는 역본이 교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잘못 말한다

다음은 건드리(Stanley Gundry) 박사의 말이다.

눈에 띄는 문제들이 조금 남아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들이 교리나 우리가 받은 거룩한 명령들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킹제임스 성경의 그 구절들은 어떻게 되었는가?’(What Happened To Those King James Verses?), Moody Monthly, 1990, 46쪽]

앞으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원어 본문들 가운데 ‘몇몇 눈에 띄는 문제들’이 남아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 교리와 우리가 받은 거룩한 명령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i. 피커링(Ernest D. Pickering) 박사는 역본이 교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잘못 말한다

본문 번역들 간의 결정적인 차이점들은 상대적으로 적으며 따라서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영향을 받는 일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성경 번역본들에 관한 질의와 응답](*Questions and Answers About Bible Translations*), 3쪽]

앞으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본문 번역들 간의 중요한 차이점들은 결코 상대적으로 적지 않다. 역본들 간에는 많은 차이점들이 있으며 그중 상당 부분이 주요 '기독교의 핵심 교리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모든 말들의 요지는 이렇다. 위에서 인용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리스어와 히브리어 본문이 다르고 또 그로부터 여러 다른 영어 번역본/의역본들이 나왔지만 교리나 신학은 그대로 변치 않고 남아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3. '교리와 상관있는 구절들'에 대한 무어맨 목사의 뛰어난 작품

우리의 유능한 동료 무어맨 목사는 「초기 사본과 권위역 - 자세히 보기」라는 훌륭한 작품을 썼다. 이 책 역시 BIBLE FOR TODAY에서 구할 수 있다[B.F.T #1825]. 여기서 무어맨 박사는 그리스어 사본 독본들, 즉 킹제임스 성경의 기초가 되는 공인 본문과 개정 그리스어 본문(웨스트코트와 호르트, 네슬레 알란드 26판 및 기타) 간의 차이점들로 인해 영향을 받은 356개의 교리적 구절들을 자세히 다루어 놓았다. 두 본문 사이에는 차이가 나는 곳만 5,604군데가 넘으며 이것은 그리스 단어 9,970개에 해당한다.

무어맨 목사는 또 다른 책인 「현대 역본들의 빠진 부분들 - 과연 이야기가 다 들어 있는가?」에서 공인 본문과 개정 본문(비평 본문)의 신약 성경 그리스어 본문의 각 장에 있는 모든 단어를 실제로 세어 보았다. 그 결과 공인 본문에는 총 140,521개의 단어가 들어 있었는데 그중 총 2,886개의 단어가 웨스트코트와 호르트, 그리고 네슬레/알란드의 개정 본문에서 빠져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 2,886개의 단어를 모두 합하면 영어 성경 베드로전후서와 맞먹는 분량이 된다! [B.F.T #1726 참조] 많은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에서 제거되었으므로 교리와 신학은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은 역본과 교리의 상관관계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4. 158개의 선별된 교리 구절 목록과 주석

1990년 4월 17일에서 5월 22일까지 미시간주에서 수차례 모임을 갖는 동안 나는 무어맨 목사의 356개 교리 구절을 검토해 보았고 그중 158개 구절을 선별하였다. 1990년 5월 18일, 미시간주에 있는 해리슨 제일 침례교회에서 나는 '바티칸 사본과 시내 사본을 반대하는 내적 외적 증거들'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강연 내용은 카세트테이프 3개 분량으로 녹음되어 있다. '내적 증거들'을 다루면서 나는 마침 그곳을 방문한 네 명의 목사들에게 해당 구절들을 찾아보도록 했다. 그 자리에는 (1) 스투어드(Bob Steward) 목사, (2) 바넷(Robert Barnett) 목사, (3) 밴클릭(William VanKleeck) 목사, 그리고 (4) 매칼리스터(William McCallister) 목사가 있었다. 네 사람은 각기 다른 종류의 신약 성경 역본들을 가지고 있었다. 신국제역(*NIV*), 신미국표준역(*NASB*), 각주가 달린 뉴킹제임스역(*NKJV-FM*), 그리고 신바클리 역본(*NB*). 특히 이 네 개의 역본은 킹제임스 성경을 버린 근본주의자들과 신복음주의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역본이다. 물론 동일한(혹은 그 이상의) 신학적 오류들이 RSV, NRSV, LB, NEV, TEV, ASV 등 다른 영어 역본들에도 발견된다. 이제껏 출간된 영어 성경과 신약 성경전서를 총망라한

목록이 본서 후반부 부록 B에 나와 있다.

바티칸 사본이나 시내 사본에서 혹은 다른 사본(가령 베자의 D 사본)에서 차이가 나는 구절이 발견되면 나는 네 명의 목사 각 사람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본이 이 거짓 독본들과 일치하는지 물어 보았다. 이것을 기반으로 다음에 나오는 자료들이 마련되었다. 본래 158개의 교리적 구절들은 ‘번역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오류들’이란 글에서 다룬 내용이다[B.F.T #1845].

B. 현대 역본들에서 발견되는 신학적 오류

앞으로 나올 자료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먼저 조금 알아 둘 것이 있다. 먼저 해당 신학과 관련 성구가 차례로 제시될 것이다.

성경 구절 내에는 이탤릭체로 된 단어들이 있는데 이것은 해당 그리스어 사본들(가령 ‘B’(바티칸 사본) 혹은/그리고 ‘Aleph’(시내 사본) 또는 기타 사본들)에서 아예 빠지거나 변경된 부분을 가리킨다. 가령 ‘B’나 ‘알레프’(혹은 다른 그리스어 사본)가 이탤릭체 단어들을 제거하거나 변경했다면 앞에 ‘.’ 표시를 두고 뒤에 사본 이름을 명시할 것이다. 즉 ‘-B/Aleph’ 이런 식으로 표기되는데 이 경우 ‘B’와 ‘Aleph’ 두 사본이 공범이라는 뜻이다.²²⁾

위의 그리스어 본문 정보 표기에 이어 ‘영어 역본들’에 대한 정보를 표시했다. 해당 그리스어 사본에 기초한 영어 역본의 수(-1, -2, -3, -4)와 역본의 약자(-NIV, -NASB, -NKJV-FN, -NB)를 차례로 표기하였다. 여기서 NIV는 신국제역을, NASB는 신미국표 준역을, NKJV-FN은 뉴킹제임스역 각주를, NB는 신바클리역을 나타낸다. 또한 본문에 있지만 괄호 처리를 해서 각주에 ‘이 구절이 오래된 사본에는 없음’ 혹은 ‘더 좋은 사본에는 없음’ 등으로 표시된 부분은 [NIV]처럼 중괄호로 표시했다.²³⁾

마지막으로 해당 그리스어 사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이 범하고 있는 신학적 오류가 어떤 것인지 설명하였다. 본 장의 취지는 단순히 ‘B’와 ‘Aleph’ 계열의 사본들을 공격하고 그리스어 공인 본문을 방어하는 것이 아니다. 이 본문 논쟁은 버건(Dean John William Burgon), 스크리브너(Dr. Frederick Scrivener), 놀란(Pastor Frederick Nolan), 말란(Pastor S. C. Malan), 삼손(Pastor G. W. Samson), 호스키어(Pastor H. C. Hoskier)의 책들에서 다루어졌고 최근에는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무어맨 목사의 책도 이런 것들을 다루었다. 이 모든 책들은 BIBLE FOR TODAY에서 출판되거나 재발간되었다. 이들의 책들은 본문 문제를 보다 심층적으로 파헤치고자 하는 이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본서 뒷부분 부록의 BIBLE FOR TODAY 목록 참조].

22) 바티칸 사본(B)과 시내 사본(알레프)은 현대 역본들의 근간이 되는 소수 사본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들이다. 소수 사본이라는 말이 의미하듯이 이런 사본들은 전체 사본들 중 채 1%가 되지 않는 사본들을 말하며 천주교 사본, 서방 본문 사본 등으로 불린다. 앞으로 신학적/교리적 변화를 살펴보면 서 알게 되겠지만 현대 역본들의 교리적 부패의 근원은 올바르게 알지 못한 사본들 특히 바티칸 사본과 시내 사본에 있다.

23) 본 장에서는 웨이트 박사의 허락을 받아 한글개역성경(개역), 개역개정판(개정), 표준새번역(표준), 공동번역(공동)의 네 가지 역본도 같이 비교했다.

1. 신론

a. 삼위일체를 부인함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땅에 증언하는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요일5:7-8).

그리스어 본문: -B/Aleph

영어 역본: (-4) -NIV, -NASB, -NKJV-FN, -NB

한글 역본: (-4) -개역, -개정, -표준, -공동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에는 밑줄 친 부분이 빠져 있다. 요한일서 5장 7-8절은 성경에서 삼위일체를 가장 확실히 보여 주는 구절이다. 이것은 분명히 교리와 신학이 연관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은 신학적으로 결함이 있으며 반대로 공인 본문과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신학적으로 우수하다.

2. 교회론

a. 그리스도께서 니콜라당을 미워하신 것을 부인함

이와 같이 네게도 니콜라당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란(계2:15).

그리스어 본문: -Aleph(B 사본에는 계시록이 아예 없다.)

영어 역본: (-4) -NIV, -NASB, -NKJV-FN, -NB

한글 역본: (-4) -개역, -개정, -표준, -공동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에는 밑줄 친 부분이 빠져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니콜라당의 행위를 ‘미워하신다’는 사실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니콜라당’(Nicolaitans)은 ‘일반 사람들을 지배하는 자들’로서 로마 카톨릭교회와 같은 국가 교회의 형태를 고수하고 있으며 성직자들에게만 결정권을 주고 일반 회중들에게는 거의 아무런 권한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것은 분명히 교리와 신학이 연관된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은 신학적으로 결함이 있으며 반대로 공인 본문과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신학적으로 우수하다.

3. 천사론

a. 천사들이 그리스도를 강건하게 했음을 부인함

하늘로부터 한 천사가 그분께 나타나 그분을 강건하게 하더라(눅22:43).

그리스어 본문: -B/Aleph

영어 역본: (-1) -NKJV-FN

한글 역본: (-2) -[표준], -공동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에는 밑줄 친 부분이 빠져 있다. 아예

이 구절 전체가 제거되었다. 이 말씀은 하늘의 천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도와 그분을 강건하게 했음을 보여 준다. 이것은 분명히 교리와 신학이 연관된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은 신학적으로 결함이 있으며 반대로 공인 본문과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신학적으로 우수하다.

4. 사탄론

a. 그리스도께서 사탄에게 명령하셨음을 부인함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너는 주 네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지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눅 4:8).

그리스어 본문: -B/Aleph

영어 역본: (-4) -NIV, -NASB, -NKJV-FN, -NB

한글 역본: (-4) -개역, -개정, -표준, -공동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에는 밑줄 친 부분이 빠져 있다. 이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에게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을 이행하게 하는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명료하게 보여 준다. 이것은 분명히 교리와 신학이 연관된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은 신학적으로 결함이 있으며 반대로 공인 본문과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신학적으로 우수하다.

5. 성경론

a. 12구절을 부인함

(a.1) 마가복음 16장 9-20절 부인

9 한편 예수님께서 주의 첫날 일찍 일어나신 뒤 전에 친히 꿈속에서 일곱 마귀를 내쫓아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맨 처음 나타나시니 10 그녀가 가서 그분과 함께하던 사람들이 애곡하며 슬피 울고 있을 때에 그들에게 고하였는데 11 그들은 그분께서 살아 계신다는 것과 그녀에게 자신을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더라. 12 그 뒤에 그들 중의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그분께서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13 이에 그들이 가서 남은 자들에게 그것을 고하였으나 그 사람들도 그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라. 14 그 뒤 열한 제자가 음식 앞에 앉아 있을 때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것과 마음이 강박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그분께서 일어나신 뒤에 그분을 본 자들의 말을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15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으로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16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17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고 새 언어들로 말하며 18 뱀들을 집어 올리고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들에게 안수하면 사람들이 나으리라, 하시더라. 19 참으로 그때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들려서 하늘로 들어가시고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시니

라. 20 그들이 나가 모든 곳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증해 주시니라. 아멘.

그리스어 본문: -B/Aleph

영어 역본: (-3) -[NIV], -[NASB], -NKJV-FN

한글 역본: (-3) -[개역], -[개정], -[표준]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에는 밑줄 친 부분이 빠져 있다. NIV와 NASB는 이 구절들을 따로 괄호나 밑줄로 구별해 놓고 거기에 신빙성을 의심하는 주석을 달아 놓았다. 이것은 즉 이 열두 구절이 진짜라고 믿을 수 없다는 말이다. 여기에는 분명히 많은 교리적인 가르침이 언급되어 있다. 이것은 분명히 교리와 신학이 연관된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은 신학적으로 결함이 있으며 반대로 공인 본문과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신학적으로 우수하다.

(a.2) 요한복음 7장 53절-8장 11절 부인

53 모든 사람이 자기 집으로 가니라. 1 예수님께서 올리브 산으로 가셨다가 2 아침 일찍 다시 상전으로 들어오시니 온 백성이 그분께 오므로 그분께서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라. 3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자를 그분께 데리고 와서 그녀를 한가운데 세우고 4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나이다. 5 한편 모세는 율법에서 이러한 자를 돌로 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는데 선생님은 무어라고 말씀하시겠나니까? 하니라. 6 그들이 그분을 시험하며 이렇게 말한 것은 그분을 고소할 구실을 얻으려 함이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의 말을 듣지 못하신 듯 몸을 구부리시고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쓰시니 7 이에 그들이 계속해서 그분께 물으므로 그분께서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녀에게 돌을 던지라, 하시고는 8 다시 몸을 구부리시고 땅바닥에 쓰시니라. 9 그들이 그것을 듣고 양심에 가책을 받아 나이가 가장 많은 자들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사람까지 하나씩 하나씩 빠져나 가매 예수님만 홀로 남았고 그 여자는 한가운데 서 있더라. 10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그 여자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자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11 그녀가 이르되, 주여, 아무도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시니라.

그리스어 본문: -B/Aleph

영어 역본: (-3) -[NIV], -[NASB], -NKJV-FN

한글 역본: (-4) -[개역], -[개정], -[표준], -[공동]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에는 밑줄 친 부분이 빠져 있다. NIV와 NASB는 괄호로 묶거나 밑줄을 치는 등 해서 이 구절들을 따로 분리해 놓았다. 거기다 노골적으로 이 구절들은 믿을 수 없다는 주석을 달아 놓았다. 여기에는 분명히 많은 교리적인 가르침이 언급되어 있다. 이것은 분명히 교리와 신학이 연관된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은 신학적으로 결함이 있으며

반대로 공인 본문과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신학적으로 우수하다.

b. 다니엘의 역사적 확실성과 대언자로서의 역할을 부인함

그러나 주께서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황폐하게 하는 가장한 것이 서서는 안 될 곳에 서 있는 것을 너희가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막13:14).

그리스어 본문: -B/Aleph

영어 역본: (-4) -NIV, -NASB, -NKJV-FN, -NB

한글 역본: (-4) -개역, -개정, -표준, -공동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에는 밑줄 친 부분이 빠져 있다. 이 부분을 뺀다는 것은 다니엘이 다니엘서의 저자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다. 또한 다니엘이 '대언자'라는 것도 부인하는 것인데 이것은 결국 다니엘이 미리 일어날 일을 기록했다기보다는 이미 일어난 일을 기록했을 뿐이라는 현대주의자/자유주의자/배도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일이다. 이것은 분명히 교리와 신학이 연관된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은 신학적으로 결함이 있으며 반대로 공인 본문과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신학적으로 우수하다.

c. 베드로후서의 저자가 베드로인 것과 그의 사도권을 부인함

전에 거룩한 대언자들이 전한 말씀들과 주 곧 구원자의 사도들인 우리에게서 받은 명령을 너희가 깊이 생각하게 하려 함이라(벧후3:2).

그리스어 본문: -B/Aleph

영어 역본: (-4) -NIV, -NASB, -NKJV-FN, -NB

한글 역본: (-4) -개역, -개정, -표준, -공동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에는 밑줄 친 부분이 빠져 있다. 단어 'us' 대신에 'their'가 들어 있다(그리스어 및 영어). 이것은 (1) 베드로후서의 저자가 베드로임을 부인하거나 의심하는 것이며 심지어 (2) 베드로가 '사도'였다는 사실조차도 부인하거나 의심하는 것이다. 이것을 기록한 사람이 베드로가 맞고(우리는 분명히 그렇다고 믿는다.), 베드로가 사도였음이 분명하다면(우리는 이 사실도 믿는다.) 그는 분명히 '사도들인 우리'(us the apostles)라고 기록했을 것이다. 물론 그렇지 않다면 'B'와 'Aleph' 사본에 나와 있는 대로 '사도들인 그들'(Their apostles)이라고 기록했을 것이다. 한글 역본들도 모두 '너희의 사도들'로 되어 있다. 이것은 분명히 교리와 신학이 연관된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은 신학적으로 결함이 있으며 반대로 공인 본문과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신학적으로 우수하다.

d. 성경 말씀들의 가치를 부인함

(d.1) 성경의 '모든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부인함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눅4:4).

그리스어 본문: -B/Aleph

영어 역본: (-3) -NIV, -NASB, -NKJV-FN

한글 역본: (-4) -개역, -개정, -표준, -공동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에는 밑줄 친 부분이 빠져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귀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Every word of God)을 강조하며 높이셨다. 이 부분이 없다면 구절 전체의 가르침이 변하게 된다. 이것은 분명히 교리와 신학이 연관된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은 신학적으로 결함이 있으며 반대로 공인 본문과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신학적으로 우수하다.

(d.2)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는 것을 부인함

아버지의(thy)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요17:17).

그리스어 본문: -B

영어 역본: (-3) -NIV, -NASB, -NB

한글 역본: (-4) -개역, -개정, -표준, -공동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에는 밑줄 친 부분이 빠져 있다. 주님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시길’ 기도하셨다. 무엇으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시는가? 그것은 단순히 그냥 ‘진리’가 아니라 ‘아버지의 진리’이다. 하나님의 진리이다. 이것은 분명히 교리와 신학이 연관된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은 신학적으로 결함이 있으며 반대로 공인 본문과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신학적으로 우수하다.

e. 대언의 성취를 부인함

(e.1) 마태복음 27장 34절이 시편 69편 21절 대언의 성취임을 부인함

[그들이] 쓸개를 섞은 식초를 그분께 주어 마시게 하였는데 그분께서 그것을 맛보시고 마시려 하지 아니하시더라(마27:34).

그리스어 본문: -B/Aleph

영어 역본: (-4) -NIV, -NASB, -NKJV-FN(+본문), -NB

한글 역본: (-4) -개역, -개정, -표준, -공동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에는 밑줄 친 부분이 빠져 있다. 시편 69편 21절은 주님께서 ‘포도주’(wine)가 아닌 ‘식초’(vinegar)를 맛보실 것을 예언했다. 따라서 ‘식초’가 빠진다면 성경의 예언은 정확하지 않게 된다. 특히 NKJV는 각주와 함께 본문에 ‘포도주’(wine)라는 단어를 첨가했는데 이것은 공인 본문에 없는 단어이다. 이것은 분명히 교리와 신학이 연관된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은 신학적으로 결함이 있으며 반대로 공인 본문과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신학적으로 우수하다. 시편 69편 21절은 분명히 말한다.

그들이 또한 쓸개즙을 나의 먹을 것으로 주며 내가 목마를 때에 내게 식초를

주어 마시게 하였나이다.

많은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스트롱 성구사전에서 이 ‘식초’(vinegar)와 ‘포도주’(wine)에 해당되는 그리스어와 히브리어를 찾아보겠다. ‘식초’(vinegar)에 해당되는 그리스어는 다음과 같다.

3690. oxos{oz-os}; from 3691; vinegar, i.e. sour wine: -vinegar.[Strong's Hebrew word for 'vinegar' is:] 2558. chomets {kho'-mets}; from 2556; vinegar: -vinegar.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포도주’(wine)에 대한 언급은 없다. 그런데도 위에 언급된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역본들은 ‘식초’(vinegar)를 ‘포도주’(wine)로 바꾸어 시편 69편 21절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가려 버렸다. ‘포도주’(wine)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를 스트롱 사전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3196. yayin {yah'-yin}; from an unused root meaning to effervesce; wine(as fermented); by implication, intoxication: -banqueting, wine, wine[-bibber].

히브리어든 그리스어든 이 단어는 ‘식초’(vinegar)라는 단어와 전혀 다르다. 여기 또 하나의 히브리어 단어가 있다.

8492. tiyrowsh {tee-roshe'}; or tiyrosh {tee-roshe'}; from 3423 in the sense of expulsion; must or fresh grape-juice (as just squeezed out); by implication (rarely) fermented wine: -(new, sweet) wine.

(e.2) 마태복음 27장 35절이 시편 22편 18절 대언의 성취임을 부인함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분의 옷들을 제비 뽑아 나누니 이것은 주께서 대언자를 통해, 그들이 자기들끼리 내 옷들을 나누며 내 겹옷을 놓고 제비를 뽑았나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더라(마27:35).

그리스어 본문: -B/Aleph

영어 역본: (-3) -NIV, -NASB, -NB

한글 역본: (-4) -개역, -개정, -표준, -공동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에는 밑줄 친 부분이 빠져 있다. 시편 22편 18절은 그리스도의 옷이 나눌 것을 예언한다. 따라서 이 부분이 빠지면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지 않은 셈이 된다. 이것은 분명히 교리와 신학이 연관된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은 신학적으로 결함이 있으며 반대로 공인 본문과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신학적으로 우수하다. 시편 22편 18절은 분명히 말한다.

그들이 자기들끼리 내 옷들을 나누며 내 겹옷을 놓고 제비를 뽑나이다.

(e.3) 마가복음 1장 2절이 말라기서 3장 1절 대언의 성취임을 부인함

대언자들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얼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예비하리라(막1:2).

그리스어 본문: -B/Aleph

영어 역본: (-4) -NIV, -NASB, -NKJV-FN, -NB

한글 역본: (-4) -개역, -개정, -표준, -공동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에는 밑줄 친 부분이 빠져 있다. ‘대언자들의 글에’(In the prophets)를 B/Aleph 사본 소수 본문과 현대 영어 및 한글 역본들은 ‘대언자 이사야의 글에’(In the prophet Isaiah)라고 해 놓았다. 물론 마가복음 1장 3절은 이사야서 40장 3절을 가리키지만 2절은 이사야서가 아닌 말라기서 3장 1절 말씀이다. 가짜 본문들은 이런 식으로 말씀을 변개하여 성경을 오류와 거짓의 책으로 만들어 버린다. 이것은 분명히 교리와 신학이 연관된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은 신학적으로 결함이 있으며 반대로 공인 본문과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신학적으로 우수하다. 말라기서 3장 1절은 분명히 말한다.

군대들의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주가 갑자기 자신의 성전에 오리니 곧 너희가 기뻐하는 언약의 사자라. 보라, 그가 오리라.

(e.4) 마가복음 15장 28절이 이사야서 53장 12절 대언의 성취임을 부인함

이로써, 그는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도다, 하고 말하는 성경기록이 성취되었더라(막15:28).

그리스어 본문: -B/Aleph

영어 역본: (-3) -NIV, -[NASB], -NKJV-FN

한글 역본: (-4) -개역, -개정, -표준, -공동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에는 밑줄 친 부분이 빠져 있다. 이 구절 전체가 빠지게 됨으로써 이사야서 53장 12절 예언의 성취를 신약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은 분명히 교리와 신학이 연관된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은 신학적으로 결함이 있으며 반대로 공인 본문과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신학적으로 우수하다. 이사야서 53장 12절은 분명히 말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위대한 자들과 나눌 몫을 나누어 줄 것이며 그가 강한 자들과 노략물을 나누리니 이는 그가 죽기까지 자기 혼을 쏟아부었기 때문이니라. 그는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였으며 범법자들을 위해 중보하였느니라.

6. 종말론

a.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함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오는 그날도 그 시각도 알지 못하느니라(마25:13).

그리스어 본문: -B/Aleph

영어 본문: (-3) -NIV, -NASB, -NKJV-FN

한글 역본: (-4) -개역, -개정, -표준, -공동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에는 밑줄 친 부분이 빠져 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키는 명백한 부분이 사라진 것이다. 이것은 심각한 누락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이것은 분명히 교리와 신학이 연관된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은 신학적으로 결함이 있으며 반대로 공인 본문과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신학적으로 우수하다.

b. 몸의 부활을 부인함

그 일곱 사람이 그녀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그러므로 부활 때 곧 그들이 일어날 때에는 그녀가 그들 중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하매(막12:23)

그리스어 본문: -B/Aleph

영어 역본: (-1) -NIV(NASB는 최근에 이 부분을 바꿈)

한글 역본: (-0)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역본에는 밑줄 친 부분이 빠져 있다. 부활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 보여 주는 부분이 빠진 것이다. 즉 부활이란 사람이 말 그대로 몸을 입고 일어나는 것이다. 스트롱 사전은 ‘일어나다’(rise)에 해당되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한다.

450. anistemi{an-is´-tay-mee}; from 303 and 2476; to stand up (literal or figurative, transitive or intransitive): -arise, lift up, raise up (again), rise (again), stand up(-right).

이는 분명히 교리와 신학이 연관된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역본은 신학적으로 결함이 있으며 반대로 공인 본문과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신학적으로 우수하다.

c. 장차 있을 심판을 부인함

(c.1) 미래의 심판에 정도가 있음을 부인함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희가 거기서 떠날 때에 너희 발밑의 먼지를 떨어 버려 그들을 대적할 증거로 삼으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 도시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매(막6:11)

그리스어 본문: -B/Aleph

영어 역본: (-3) -NIV, -NASB, -NKJV-FN

한글 역본: (-4) -개역, -개정, -표준, -공동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에는 밑줄 친 부분이 빠져 있다. 이 부분은 불신자들이 살아 있을 때 얼마나 많은 빛을 받았느냐에 따라 지옥 형벌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가르칠 때 건전한 성경 교사들이 늘 인용하는 말씀이다. 이것은 분명히 교리와 신학이 연관된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

은 신학적으로 결합이 있으며 반대로 공인 본문과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신학적으로 우수하다.

(c.2) 미래에 심판을 받을 자를 부인함

이것들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닥치느니라(골3:6).

그리스어 본문: -B

영어 역본: (-2) -NIV, -NASB

한글 역본: (-2) -개역, -개정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에는 밑줄 친 부분이 빠져 있다. 누락된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대상이 누구인가 명확히 보여 준다. 또한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불순종의 자녀들’에게만 심판이 임한다. 이것은 분명히 교리와 신학이 연관된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은 신학적으로 결합이 있으며 반대로 공인 본문과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신학적으로 우수하다.

(c.3) 땅이 타서 없어질 것을 부인함

그러나 주의 날이 밤의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벧후3:10).

그리스어 본문: -B/Aleph

영어 역본: (-2) -NIV, -NKJV-FN

한글 역본: (-4) -개역, -개정, -표준, -공동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에는 밑줄 친 부분이 바뀌어 있다. ‘불태워지다’ 대신에 ‘벌거벗은 상태가 되다’(laid bare)라고 되어 있다. ‘불태워지다’와 ‘벌거벗은 상태가 되다’는 분명히 다르다. ‘불태워지다’(burned up)에 해당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2618. katakaio {kat-ak-ah´-ee-o}; from 2596 and 2545; to burn down(to the ground), i.e. consume wholly: -burn(up, utterly).

반면에 ‘벌거벗은 상태가 되다’(laid bare)에 해당되는 단어는 전혀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분명히 교리와 신학이 연관된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은 신학적으로 결합이 있으며 반대로 공인 본문과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신학적으로 우수하다.

(c.4) 그리스도께서 재판장이 되실 것을 부인함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롬14:10).

그리스어 본문: -B/Aleph

영어 역본: (-4), -NIV, -NASB, -NKJV-FN, -NB

한글 역본: (-4) -개역, -개정, -표준, -공동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에는 밑줄 친 부분이 바뀌어 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대신에 ‘하나님의 심판석’ 혹은 ‘하나님의 심판’이란 표현이 사용되었다. 문맥상 이것은 ‘구원받은 형제들’과 관련된 구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심판’은 ‘크고 흰 왕좌’ 심판을 가리키며 그 심판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받을 심판이다. 이것은 분명히 교리와 신학이 연관된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은 신학적으로 결함이 있으며 반대로 공인 본문과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신학적으로 우수하다.

d. 지옥을 부인함

(d.1) 실제로 지옥에서 멸망하는 것을 부인함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요3:15).

그리스어 본문: B/Aleph

영어 역본: (-3), -NIV, -NASB, -NKJV-FN

한글 역본: (-4) -개역, -개정, -표준, -공동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에는 밑줄 친 부분이 빠져 있다. ‘멸망하지 않으리라’(should not perish)가 빠짐으로써 지옥의 실체를 나타내는 부분이 제거되어 버렸다. 이것은 분명히 교리와 신학이 연관된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은 신학적으로 결함이 있으며 반대로 공인 본문과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신학적으로 우수하다.

(d.2) 문자적인 지옥 불이 있음을 부인함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막9:44).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막9:46).

그리스어 본문: -B/Aleph

영어 역본: (-3) -NIV, -NKJV-FN, -[NASB]

한글 역본: (-4) -개역, -개정, -표준, -공동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에는 밑줄 친 부분이 빠져 있다. 그것도 예시된 두 구절이 통째로 말이다. 두 구절 모두 지옥이 문자 그대로 꺼지지 않는 불의 장소임을 확실하게 보여 준다. 이것은 분명히 교리와 신학이 연관된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은 신학적으로 결함이 있으며 반대로 공인 본문과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신학적으로 우수하다.

(d.3) 지옥의 영원성을 부인함

(a) 마가복음 3장 29절: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성모독 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며 영원한 정죄의 위협에 처해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리스어 본문: -B/Aleph

영어 역본: (-3) -NIV, -NASB, -NB
한글 역본: (-4) -개역, -개정, -표준, -공동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에는 밑줄 친 부분이 바뀌어 있다. '정죄'(damnation) 대신에 '죄'(sin)라고 해 놓았다. 두 용어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스트롱은 '정죄'(damnation)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2920. krisis {kree' -sis}; decision(subjectively or objectively, for or against); by extension, a tribunal; by implication, justice(especially, divine law): - accusation, condemnation, damnation, judgment.

즉 여기에 쓰인 정죄라는 단어는 '심판을 받아 영원한 저주를 받는 것'을 뜻한다. 이 구절뿐 아니라 여러 다른 구절들에서 지옥 형벌은 '영원하다'는 성격을 지닌다. 이것은 분명히 교리와 신학이 연관된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은 신학적으로 결함이 있으며 반대로 공인 본문과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신학적으로 우수하다.

(b) 베드로후서 2장 17절: 이들은 물 없는 샘이요 폭풍에 밀려다니는 구름이라. 그들을 위해 어둠의 안개가 영원토록 예비되어 있나니

그리스어 본문: -B/Aleph
영어 역본: (-4) -NIV, -NASB, -NKJV-FN, -NB
한글 역본: (-4) -개역, -개정, -표준, -공동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에는 밑줄 친 부분이 빠져 있다. 그들이 제거해 버린 '영원토록'(for ever)이라는 단어는 지옥에서의 심판이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구절이다. 이것은 분명히 교리와 신학이 연관된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은 신학적으로 결함이 있으며 반대로 공인 본문과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신학적으로 우수하다.

e. 문자적인 하늘을 부인함

이와 관련하여 간단히 살펴볼 구절은 다섯 가지이다.

(e.1) 누가복음 11장 2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말하기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왕국이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그렇게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스어 본문: -B/Aleph
영어 역본: (-4) -NIV, -NASB, -NKJV-FN, -NB
한글 역본: (-4) -개역, -개정, -표준, -공동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에는 밑줄 친 부분이 빠져 있다. 'heaven'이라는 단어가 이 구절에서 두 번 빠져 있다. 이것은 분명히 위의 본문과 역본들에서

신학적인 번개가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것은 분명히 교리와 신학이 연관된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은 신학적으로 결함이 있으며 반대로 공인 본문과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신학적으로 우수하다.

(e.2) 누가복음 22장 43-44절

하늘로부터 한 천사가 그분께 나타나 그분을 강건하게 하더라. 그분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분의 땀이 큰 핏방울같이 되어 땅바다에 떨어지더라.

그리스어 본문: -B/Aleph
영어 역본: (-2) -[NIV], -[NKJV-FN]
한글 역본: (-2) -[표준], -공동

위의 그리스어 본문에는 밑줄 친 부분이 빠져 있으며 두 개의 영어 역본에는 각주에서만 언급되어 있다. 물론 영어 역본 두 개는 아직 이 두 구절을 제거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다음 판에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위의 두 그리스어 본문은 두 구절 전체를 없앴으로써 하늘과 천사들에 대한 믿음을 약화하였다(여기에 언급된 다른 믿음의 내용과 아울러). 이것은 분명히 교리와 신학이 연관된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은 신학적으로 결함이 있으며 반대로 공인 본문과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신학적으로 우수하다.

(e.3) 히브리서 10장 34절

이는 너희에게 하늘에 더 좋고 영구한 실체가 있는 줄 너희 자신이 알므로 결박 중에 있는 나를 너희가 불쌍히 여겼고 너희 재산을 노략당하는 것도 기쁘게 여겼기 때문이다.

그리스어 본문: -Aleph(B는 아예 이 구절이 없다.)
영어 역본: (-4) -NIV, -NASB, -NKJV-FN, -NB
한글 역본: (-4) -개역, -개정, -표준, -공동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에는 밑줄 친 부분이 빠져 있다. '하늘에'(in heaven)가 빠짐으로써 하늘의 실체가 가려져 버렸다. 이것은 분명히 교리와 신학이 연관된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은 신학적으로 결함이 있으며 반대로 공인 본문과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신학적으로 우수하다.

(e.4) 요한일서 5장 7-8절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땅에 증언하는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그리스어 본문: -B/Aleph
영어 역본: (-4) -NIV, -NASB, -NKJV-FN, -NB
한글 역본: (-4) -개역, -개정, -표준, -공동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에는 밑줄 친 부분이 빠져 있다. 이 부분은 두 구절을 통틀어 24개의 영어 단어로 이루어져 있다. 새 역본들에는 다시금 ‘하늘에’(in heaven)라는 단어가 빠져 있으므로 이것들은 이 장소를 부인하고 있다. 이것은 분명히 교리와 신학이 연관된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은 신학적으로 결함이 있으며 반대로 공인 본문과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신학적으로 우수하다.

(e.5) 계시록 16장 17절

일곱째 천사가 자기 병을 공중에 쏟아부으매 큰 음성이 하늘의 성전에서 왕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다 이루어졌도다, 하더라.

그리스어 본문: -Aleph(B사본에는 계시록이 아예 없다.)

영어 역본: (-3) -NIV, -NASB, -NB

한글 역본: (-4) -개역, -개정, -표준, -공동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에는 밑줄 친 부분이 빠져 있다. 이 ‘하늘의’(of heaven)라는 부분이 빠지면 ‘성전’의 위치가 없어지게 된다. 이것은 분명히 교리와 신학이 연관된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은 신학적으로 결함이 있으며 반대로 공인 본문과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신학적으로 우수하다.

7. 구원론

a. 구원이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한정된다는 것을 부인함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시의 빛 가운데서 다니겠고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곳으로 들어가리라(계21:24).

그리스어 본문: -Aleph(B사본에는 계시록이 아예 없다.)

영어 역본: (-4) -NIV, -NASB, -NKJV-FN, -NB

한글 역본: (-4) -개역, -개정, -표준, -공동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에는 밑줄 친 부분이 빠져 있다. ‘구원받은 자들의’(of them which are saved)를 제거함으로써 ‘구원받은’ 사람들만 빛 가운데 걷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그렇게 될 것처럼 말하고 있다. 이것은 분명히 교리와 신학이 연관된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은 신학적으로 결함이 있으며 반대로 공인 본문과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신학적으로 우수하다.

b. 구원이 ‘성장’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부인함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벧전2:2).

그리스어 본문: -B/Aleph

영어 역본: (-4) -NIV, -NASB, -NKJV-FN, -NB

한글 역본: (-4) -개역, -개정, -표준, -공동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에는 밑줄 친 부분이 바뀌어 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grow thereby)라는 표현이 '구원으로 자라게'(grow into salvation)로 둔갑했다. 이것은 성장을 통한 구원이라는 잘못된 가르침을 야기하므로 분명히 교리와 신학이 연관된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은 신학적으로 결함이 있으며 반대로 공인 본문과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신학적으로 우수하다.

c.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들을 고백해야 하는 것을 부인함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사람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효능이 있느니라(약5:16).

그리스어 본문: -B/Aleph

영어 역본: (-4) -NIV, -NASB, -NKJV-FN, -NB

한글 역본: (-4) -개역, -개정, -표준, -공동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에는 밑줄 친 부분이 바뀌어 있다. '잘못들'(faults)이 '죄들'(sins)로 바뀌었다. '죄들'의 고백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반면 '잘못'의 고백은 적절한 때에 사람들끼리 서로에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분명히 교리와 신학이 연관된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은 신학적으로 결함이 있으며 반대로 공인 본문과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신학적으로 우수하다.

d. 영생에 대한 성경적 의미를 부인함

또 그들이 다가올 때를 대비하여 자기를 위해 좋은 기초를 쌓게 할지니 이것은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붙들게 하려 함이라(딤후6:19).

그리스어 본문: -Aleph(B는 이 구절이 없다.)

영어 역본: (-4) -NIV, -NASB, -NKJV-FN, -NB

한글 역본: (-4) -개역, -개정, -표준, -공동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에는 밑줄 친 부분이 바뀌어 있다. '영원한 생명'(eternal life)이 영어 역본에서는 '현생'(life that is)으로, 한글 역본에서는 '참된 생명'으로 바뀌었다. 결국 '영생'의 실체가 모호하게 된다. 이것은 분명히 교리와 신학이 연관된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은 신학적으로 결함이 있으며 반대로 공인 본문과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신학적으로 우수하다.

e. 하나님과의 즉각적인 화평을 부인함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롬5:1).

그리스어 본문: -B/Aleph
영어 역본: (-2) -NKJV-FN, -NB
한글 역본: (-2) -개역, -개정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에는 밑줄 친 부분이 달리 표현되어 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다’(we have peace with God)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let us have peace with God)로 되어 있다. 본래 구절은 구원받은 사람이 현재 하나님과 화평한 상태에 있음을 증언한다. 하지만 현대 역본들에서는 단어가 바뀌면서 하나님과 화평하라고 권고하는 구절이 되어 버렸다. 이것은 분명히 교리와 신학이 연관된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은 신학적으로 결함이 있으며 반대로 공인 본문과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신학적으로 우수하다.

f. 갈보리에서 일어난 어둠의 기적을 부인함

해가 어두워졌으며 성전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더라(눅23:45).

그리스어 본문: -B/Aleph
영어 역본: (-4) -NIV, -NASB, -NKJV-FN, -NB
한글 역본: (-4) -개역, -개정, -표준, -공동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에는 밑줄 친 부분이 달리 표현되어 있다. ‘어두워졌다’(was darkened) 대신에 ‘가려졌다’(was eclipsed) 혹은 한글 역본의 경우 ‘빛을 잃었다’로 되어 있다. 공인 본문(수용 본문)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기적이 ‘어둠’ 속에서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개역성경은 ‘어두워지고’가 빠졌다. 그러나 다른 독본들은 당시 ‘일식’ 현상이 있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것은 시기적으로 불가능하며 과학적인 근거도 없다. 이것은 분명히 교리와 신학이 연관된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은 신학적으로 결함이 있으며 반대로 공인 본문과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신학적으로 우수하다.

g. 그리스도의 대속의 속죄를 부인함

(g.1) 고린도전서 5장 7절

그러므로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그러면 너희가 누룩 없는 자들이듯이 너희가 새 덩어리가 되리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그리스어 본문: -B/Aleph
영어 역본: (-4) -NIV, -NASB, -NKJV-FN, -NB
한글 역본: (-4) -개역, -개정, -표준, -공동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에는 밑줄 친 부분이 빠져 있다. 그리스도의 대속을 보여 주는 ‘우리를 위해’(for us)를 빼버렸다. 이것은 분명히 교리와 신학이 연관된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은 신학적으로

결함이 있으며 반대로 공인 본문과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신학적으로 우수하다.

(g.2) 베드로전서 4장 1절

그러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으니 그와 같이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이는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한 자가 이미 죄를 그쳤기 때문이니

그리스어 본문: -B

영어 역본: (-4) -NIV, -NASB, -NKJV-FN, -NB

한글 역본: (-4) -개역, -개정, -표준, -공동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에는 밑줄 친 부분이 빠져 있다. 앞서 나온 예처럼 그리스도의 대속을 뜻하는 ‘우리를 위해’(for us)가 빠져 있다. 이것은 분명히 교리와 신학이 연관된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은 신학적으로 결함이 있으며 반대로 공인 본문과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신학적으로 우수하다.

h. 거룩하게 드러진 피에 의한 대속을 부인함

(h.1) 사도행전 20장 28절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 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들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그리스어 본문: -여러 사본들(B/Aleph는 TR을 따름)

영어 역본: (-1) -NKJV-FN

한글 역본: (-4) -개역, -개정, -표준, -공동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에는 밑줄 친 부분이 달리 표현되어 있다. ‘하나님의 교회’가 ‘주(主)의 교회’로 되어 있다. 대부분의 한글 역본은 각주에서 ‘하나님’ 대신 ‘주’라고 표시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의 피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것’임을 말해 준다. 이것은 분명히 교리와 신학이 연관된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은 신학적으로 결함이 있으며 반대로 공인 본문과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신학적으로 우수하다.

(h.2) 골로새서 1장 14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그리스어 본문: -B/Aleph

영어 역본: (-3) -NIV, -NASB, -NKJV-FN

한글 역본: (-4) -개역, -개정, -표준, -공동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에는 밑줄 친 부분이 빠져 있다. ‘그분의 피를 통해’(through His Blood)가 빠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속의 근거가 사라지게

되었고 이로써 수 세기 동안 그분의 죄를 부인해 왔던 여러 자유주의자/현대주의자/배도자들은 (그리고 심지어 일부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까지) 큰 지원군을 얻게 되었다. 이것은 분명히 교리와 신학이 연관된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은 신학적으로 결함이 있으며 반대로 공인 본문과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신학적으로 우수하다.

(h.3) 요한일서 1장 7절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리스어 본문: -B/Aleph

영어 역본: (-3) -NIV, -NASB, -NB

한글 역본: (-4) -개역, -개정, -표준, -공동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에는 밑줄 친 부분이 빠져 있다. 크리스천 사이언스나 자유주의자들은 인간 ‘예수’와 거룩한 ‘그리스도’를 분리해서 본다. 신약 시대 초반부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맥락에서 깨끗하게 하는 ‘피’는 하나님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단지 인간의 죄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 피는 단순히 ‘예수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이다. 이것은 분명히 교리와 신학이 연관된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은 신학적으로 결함이 있으며 반대로 공인 본문과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신학적으로 우수하다.

i. 구원과 대속이 그리스도안에만 있음을 부인함

(i.1) 마가복음 9장 42절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면 연자방아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그에게 더 나으니라.

그리스어 본문: -Aleph

영어 역본: (-1) -NASB

한글 역본: (-0)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역본에는 밑줄 친 부분이 빠져 있다. 그냥 ‘믿는’(believe)으로는 충분치 않다. ‘나를 믿는’(believe in me)이 되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신다! 이것은 분명히 교리와 신학이 연관된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역본은 신학적으로 결함이 있으며 반대로 공인 본문과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신학적으로 우수하다.

(i.2)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그리스어 본문: -B/Aleph

영어 역본: (-3) -NIV, -NASB, -NKJV-FN

한글 역본: (-4) -개역, -개정, -표준, -공동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에는 밑줄 친 부분이 빠져 있다. 이것은 위의 현대 역본들에 있는 가장 확실한 오류 중 하나이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원이 '나를 믿음으로'(believing on Me) 되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believing)도 된다면 이것은 분명히 '다른 복음'이다! 만약 당신이 NIV나 NASB에 있는 동일한 구절에 근거하여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 한다면 결국 그는 아무거나 '믿고'도 '영존하는 생명'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뭘 믿든지 상관이 없다. 산타클로스, 부활절 토끼, 이빨 요정, 빨간 코의 루돌프, 심지어 거짓된 세상 종교라도 믿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이것은 심각한 신학적 변개가 아닐 수 없다! 이것은 분명히 교리와 신학이 연관된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은 신학적으로 결함이 있으며 반대로 공인 본문과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신학적으로 우수하다.

(i.3) 로마서 1장 16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그리스어 본문: -B/Aleph

영어 역본: (-4) -NIV, -NASB, -NKJV-FN, -NB

한글 역본: (-4) -개역, -개정, -표준, -공동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에는 밑줄 친 부분이 빠져 있다.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복음'이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 예나 지금이나 많은 거짓 '복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명확히 기록한 것은 아닐까? 이것은 분명히 교리와 신학이 연관된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은 신학적으로 결함이 있으며 반대로 공인 본문과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신학적으로 우수하다.

(i.4) 갈라디아서 3장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그 언약을 사백삼십 년 뒤에 생긴 율법이 취소할 수 없으며 이로써 그 약속을 무효로 만들 수 없느니라.

그리스어 본문: -B/Aleph

영어 역본: (-4) -NIV, -NASB, -NKJV-FN, -NB

한글 역본: (-4) -개역, -개정, -표준, -공동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에는 밑줄 친 부분이 빠져 있다. '그리스도 안에'(in Christ)라는 단어는 그리스도만이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이것이 빠짐으로써 그리스도의 지위가 격하되었다. 이것은

분명히 교리와 신학이 연관된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은 신학적으로 결함이 있으며 반대로 공인 본문과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신학적으로 우수하다.

(i.5) 갈라디아서 4장 7절

그러므로 네가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그리스어 본문: -B/Aleph

영어 역본: (-4) -NIV, -NASB, -NKJV-FN, -NB

한글 역본: (-4) -개역, -개정, -표준, -공동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에는 밑줄 친 부분이 빠져 있다. 오로지 ‘그리스도를 통해서’(through Christ)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은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이것은 분명히 교리와 신학이 연관된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은 신학적으로 결함이 있으며 반대로 공인 본문과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신학적으로 우수하다.

(i.6) 갈라디아서 6장 15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고 새로운 창조물만 있느니라.

그리스어 본문: -B

영어 역본: (-3) -NIV, -NASB, -NB

한글 역본: (-4) -개역, -개정, -표준, -공동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에는 밑줄 친 부분이 빠져 있다.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in Christ Jesus) 있다. 이것 역시 빠져서는 안 된다. 이것은 분명히 교리와 신학이 연관된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은 신학적으로 결함이 있으며 반대로 공인 본문과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신학적으로 우수하다.

(i.7) 히브리서 1장 3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느니라.

그리스어 본문: -B/Aleph

영어 역본: (-4) -NIV, -NASB, -NKJV-FN, -NB

한글 역본: (-4) -개역, -개정, -표준, -공동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에는 밑줄 친 부분이 빠져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by Himself) 우리의 죄들을 정결케 하셨다. 이 일에 있어 우리가

그분을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없다. 이것은 분명히 교리와 신학이 연관된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은 신학적으로 결함이 있으며 반대로 공인 본문과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신학적으로 우수하다.

(i.8)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분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을 향해 죽은 우리가 의를 향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그리스어 본문: -B/Aleph

영어 역본: (-0)

한글 역본: (-0)

위의 그리스어 본문들에는 밑줄 친 부분이 빠져 있다. 비록 현대 역본들이 아직 이 누락을 반영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들의 그리스어 본문은 밑줄 친 부분을 빼고 ‘채찍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by stripes ye were healed)만 기록하였다. 이것은 때 맞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로 들린다. 구원은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신 구원자 예수님을 단순히 믿고 의지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바티칸 사본(B)과 시나이 사본(알레프)이 모두 같은 입장이므로 앞으로 나올 영어 역본들에도 이 내용이 반영될 소지가 높다. 이것은 분명히 교리와 신학이 연관된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위의 그리스어 본문은 신학적으로 결함이 있으며 반대로 공인 본문과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신학적으로 우수하다.

8. 그리스도론

a. 그리스도의 편재함을 부인함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요3:13).

그리스어 본문: -B/Aleph

영어 역본: (-3) -NIV, -NASB, -NKJV-FN

한글 역본: (-4) -개역, -개정, -표준, -공동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에는 밑줄 친 부분이 빠져 있다. ‘하늘에 있는’(Which is in heaven)이 빠짐으로 그리스도의 편재성이 가려졌다. 이것은 분명히 교리와 신학이 연관된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은 신학적으로 결함이 있으며 반대로 공인 본문과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신학적으로 우수하다.

b. 그리스도의 만찬에 관한 부분을 부인함

(b.1) 그리스도의 몸이 ‘찢긴 것’을 부인함

[그분께서]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고전11:24)

그리스어 본문: -B/Aleph

영어 역본: (-3) -NIV, -NASB, -NKJV-FN

한글 역본: (-4) -개역, -개정, -표준, -공동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에는 밑줄 친 부분이 빠져 있다. 여기서 ‘찢긴’(broken)은 뼈가 부서진 것을 뜻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대인의 말씀에 위배된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살이 가시와 못과 창에 의해 찢기셨음을 보여 준다. 또한 ‘받아서 먹으라’(Take, eat)가 제거된 것은 천주교의 미사 집전 시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허락하지 않는 로마 카톨릭의 관행의 빌미가 될 소지가 있다. 이것은 분명히 교리와 신학이 연관된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은 신학적으로 결함이 있으며 반대로 공인 본문과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신학적으로 우수하다.

(b.2) ‘합당하지 않게’라는 단어의 바른 의미를 부인함

이는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며 자기가 받을 정죄를 먹고 마시기 때문이라(고전11:29).

그리스어 본문: -B/Aleph

영어 역본: (-3) -NIV, -NASB, -NKJV-FN

한글 역본: (-4) -개역, -개정, -표준, -공동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에는 밑줄 친 부분이 빠져 있다. ‘합당하지 않게’(unworthily)라는 단어가 빠짐으로 말이 되지 않는 구절이 되고 말았다. 즉 주님의 만찬 상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은 자동적으로 ‘자기를 위하여 정죄를 먹고 마시게’ 된다. 하지만 바른 성경은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만 그렇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분명히 교리와 신학이 연관된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은 신학적으로 결함이 있으며 반대로 공인 본문과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신학적으로 우수하다.

c.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음을 부인함

(c.1) 디모데전서 3장 16절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다 인정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믿는 분이 되시고 들려서 영광으로 들어가셨느니라.

그리스어 본문: -Aleph(B 사본에는 디모데전서가 아예 없다.)

영어 역본: (-4) -NIV, -NASB, -NKJV-FN, -NB

한글 역본: (-4) -개역, -개정, -표준, -공동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에는 밑줄 친 부분이 달리 표현되어 있다. 그것들은 ‘하나님’(God)을 ‘그’(He)로 바꿈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바로 그분 이심을 가장 확실히 보여 주는 성경 표현을 제거해 버렸다. 킹제임스 성경에서 ‘하나님’의

로 표현된 그리스어 ‘theos’는 모든 면에서 합당하며 현대 역본들에서 ‘그’로 표현된 그리스어 관계대명사 ‘hos’와는 완전히 다르다. 이것은 분명히 교리와 신학이 연관된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은 신학적으로 결함이 있으며 반대로 공인 본문과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신학적으로 우수하다.

(c.2) 요한일서 4장 3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은 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그 영이니라. 그것에 관하여는 그것이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는데 그것이 지금도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그리스어 본문: -B(Aleph는 이 구절이 없다.)

영어 역본: (-2) -NASB, -NKJV-FN

한글 역본: (-4) -개역, -개정, -표준, -공동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에는 밑줄 친 부분이 빠져 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심’을 제거했다는 것은 그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것이다. 이것은 분명히 교리와 신학이 연관된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은 신학적으로 결함이 있으며 반대로 공인 본문과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신학적으로 우수하다.

d. 그리스도의 정확성과 사실성을 부인함

너희는 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충만히 차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명절을 지키러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하시니라(요7:8).

그리스어 본문: -Aleph

영어 역본: (-2) -NASB, -NKJV-FN

한글 역본: (-2) -표준, -공동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에는 밑줄 친 부분이 빠져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말씀 이후에 분명히 그 ‘명절’에 올라가셨다. 그런데 다른 역본들은 ‘아직’을 제거하여 ‘나는 이 명절에 올라가지 아니하노라’는 말씀으로 바꿈으로써 그리스도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버렸다. ‘아직’(yet)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정확히 사실임을 보여 주는 데 반드시 필요한 단어이다. 이것은 분명히 교리와 신학이 연관된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은 신학적으로 결함이 있으며 반대로 공인 본문과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신학적으로 우수하다.

e. 그리스도의 무죄함을 부인함

또 모세의 율법에 따라 그녀를 정결하게 하는 날들이 차서 그들이 아이를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니(눅2:22)

그리스어 본문: -B/Aleph

영어 역본: (-3) -NIV, -NASB, -NB

한글 역본: (-4) -개역, -개정, -표준, -공동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역본들에는 밑줄 친 부분이 바뀌어 있다. ‘그녀’(her)가 ‘그들’(their)로 바뀜으로써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결하게 함’을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되어 버렸다. 즉 죄인이 되어 버린 것이다.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한글 역본들에서는 ‘그녀를’이 빠져 있다. 이런 변개 구절들 중 하나가 1991년 내가 시무하던 교회의 크리스마스 프로그램에 사용되었다. 변개된 구절은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것은 또한 미가서 5장 2절에 나타나 있는 주 예수님의 지위를 격하하는 것이다. 독자 여러분의 교회에서 치리지는 크리스마스나 부활절 프로그램을 한번 미리 살펴보기를 바란다. 만일 거기서 사용하는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이 아니라면 심각한 교리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것은 분명히 교리와 신학이 연관된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은 신학적으로 결함이 있으며 반대로 공인 본문과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신학적으로 우수하다.

f.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의 중요성을 부인함

누구든지 범법하며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ی 없고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아버지와 아들이 둘 다 있느니라(요이9).

그리스어 본문: -B/Aleph

영어 역본: (-1) -NIV

한글 역본: (-3) -개역, -개정, -표준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에는 밑줄 친 부분이 빠져 있다. 이로써 사람이 단순히 일반적인 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of Christ) 교리에 거해야 한다는 가르침이 사라져 버렸다. 그리스도가 있고 없고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물론 바로 앞에 ‘그리스도의 교리’가 나오긴 하지만 이것이 변명이 될 수는 없다. 두 군데 모두 ‘그리스도의’(of Christ)가 들어 있어야 한다. 이것은 분명히 교리와 신학이 연관된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은 신학적으로 결함이 있으며 반대로 공인 본문과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신학적으로 우수하다.

g.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승천하셨음을 부인함

그들을 축복하실 때에 그분께서 그들을 떠나서 위로 들려 하늘로 들어가시니라 (눅24:51).

그리스어 본문: -Aleph

영어 역본: (-1) -NASB

한글 역본: (-3) -개역, -개정, -표준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에는 밑줄 친 부분이 빠져 있다. ‘위로 들려 하늘로 들어가셨다.’(carried up into heaven)가 제거됨으로써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진리가 없어져 버렸다. 지금은 한 역본에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앞으로 더 어떻게 될 지 누가 알겠는가? 이것은 분명히 교리와 신학이 연관된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은 신학적으로 결함이 있으며 반대로 공인 본문과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신학적으로 우수하다.

h.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대적들을 용서하셨음을 부인함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분의 옷을 나누며 제비를 뽑으매(눅23:34)

그리스어 본문: -B/Aleph
영어 역본: (-1) -NKJV-FN
한글 역본: (-1) -표준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에는 밑줄 친 부분이 빠져 있다. NKJV와 NIV 그리고 개역 개정판의 각주에는 밑줄 친 문장 전체를 의심하게 하는 내용이 있다. 바티칸 사본(B)과 시나이 사본(알레프)이 이 문장을 송두리째 없애 버렸는데 이 본문들에 기초하여 향후에 나올 번역본들은 어떠하겠는가? 이것은 분명히 교리와 신학이 연관된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은 신학적으로 결함이 있으며 반대로 공인 본문과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신학적으로 우수하다.

i. 그리스도의 사역을 부인함

(i.1) 마태복음 18장 11절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왔느니라.

그리스어 본문: -B/Aleph
영어 역본: (-3) -NIV, -[NASB], -NKJV-FN
한글 역본: (-4) -개역, -개정, -표준, -공동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에는 밑줄 친 부분이 빠져 있다. NIV는 절 전체를 제거했고 NASB는 괄호로 묶어 이 부분을 신뢰할 수 없음을 보였다. 이 절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잘 보여 주는 구절 중 하나이다. 이것은 분명히 교리와 신학이 연관된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은 신학적으로 결함이 있으며 반대로 공인 본문과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신학적으로 우수하다.

(i.2) 누가복음 9장 56절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려 오지 아니하고 구원하러 왔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다른 마을로 가더라.

그리스어 본문: -B/Aleph
영어 역본: (-3) -NIV, -NASB, -NKJV-FN
한글 역본: (-4) -개역, -개정, -표준, -공동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에는 밑줄 친 부분이 빠져 있다. 보다시피 앞 문장 전체가 빠져 있다. 이 말씀도 우리 구원자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의 사명이 어떤 것이었나를 온전히 보여 주는 말씀이다. 이것은 분명히 교리와 신학이 연관된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은 신학적으로 결함이

있으며 반대로 공인 본문과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신학적으로 우수하다.

j. 그리스도의 처녀탄생을 부인함

(j.1) 마태복음 1장 25절

[그가] 그녀가 그녀의 맏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녀를 알지 아니하다가 낳으매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리스어 본문: -B/Aleph

영어 역본: (-3) -NIV, -NASB, -NKJV-FN

한글 역본: (-4) -개역, -개정, -표준, -공동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에는 밑줄 친 부분이 빠져 있다. ‘처음 태어난’(firstborn)이란 이 단어가 빠지게 되면 다음의 두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

(1) ‘처음 태어난’ 아들, 즉 ‘맏아들’이 그냥 ‘아들’이 되면 마리아가 그 전에 자녀들이 있었다는 가정을 낳게 한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탄생은 처녀 탄생이 될 수 없다.

(2) ‘처음 태어난’(firstborn) 아들이 그냥 ‘아들’이 되면 그 후에 마리아에게 자녀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가려진다. 반대로 ‘처음 태어난 아들’, 즉 ‘맏아들’이라고 하면 그 이후에도 아들들(혹은 자녀들이 있었다는 의미가 되고 이로써 마리아가 평생 동정녀로 지냈다는 로마 카톨릭주의의 거짓 가르침이 드러나게 된다. 이것은 분명히 교리와 신학이 연관된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은 신학적으로 결함이 있으며 반대로 공인 본문과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신학적으로 우수하다.

(j.2) 누가복음 2장 33절

요셉과 아이의 어머니는 그가 아이에 관하여 말한 그 일들로 인해 놀라더라.

그리스어 본문: -B/Aleph

영어 역본: (-4) -NIV, -NASB, -NKJV-FN, -NB

한글 역본: (-4) -개역, -개정, -표준, -공동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에는 밑줄 친 부분이 다르게 되어 있다. ‘요셉’ 대신에 ‘그 아이의 아버지’로 되어 있다. 즉 그들은 요셉을 그리스도의 진짜 아버지로 만들고 이로써 그분의 처녀 탄생을 부인한다. 이것은 분명히 교리와 신학이 연관된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은 신학적으로 결함이 있으며 반대로 공인 본문과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신학적으로 우수하다.

k.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부활하셨음을 부인함

(k.1) 누가복음 24장 6절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일어나셨느니라. 그분께서 아직 갈릴리에 계시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그리스어 본문: -D

영어 역본: (-1) -NASB-FN

한글 역본: (-0)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역본에는 밑줄 친 부분이 빠져 있다. NASB는 여기에도 그 정확성을 의심하는 주석을 붙여 놓았다. 누락된 이탤릭 문장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을 확실히 보여 준다. 이것은 분명히 교리와 신학이 연관된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역본은 신학적으로 결함이 있으며 반대로 공인 본문과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신학적으로 우수하다.

(k.2) 누가복음 24장 12절

그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돌무덤으로 달려가 몸을 구부리고 보았는데 아마포만 따로 놓여 있으므로 그가 일어난 그 일로 인해 속으로 놀라며 떠나니라.

그리스어 본문: -D

영어 역본: (-1) -[NASB-FN]

한글 역본: (-0)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역본에는 밑줄 친 부분이 빠져 있다. NASB는 여기에도 괄호를 쳐 놓고 주석에 이 절 전체가 의심스럽다고 해 놓았다. 이 절 역시 기적적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을 보여 주는 명확한 구절이다. 이것은 분명히 교리와 신학이 연관된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역본은 신학적으로 결함이 있으며 반대로 공인 본문과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신학적으로 우수하다.

(k.3) 누가복음 24장 40절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자기 손과 발을 보이셨으므로

그리스어 본문: -D

영어 역본: (-2) -NASB-FN, -NKJV-FN

한글 역본: (-0)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역본들에는 밑줄 친 부분이 빠져 있다. NASB의 경우 절 전체가 본문에서 누락되었으며 각주에서는 이 구절이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구절로 소개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을 보여 주는 증거가 또 하나 사라진 것이다. 이것은 분명히 교리와 신학이 연관된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역본들은 신학적으로 결함이 있으며 반대로 공인 본문과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신학적으로 우수하다.

(k.4) 사도행전 2장 30절

그러므로 그는 대언자라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에게 서약으로 맹세하사 육체에 따라 자기 허리의 열매에서 그리스도를 일으켜 자기 왕좌에 앉히실 것을 알았고

그리스어 본문: -B/Aleph

영어 역본: (-3) -NIV, -NASB, -NKJV-FN

한글 역본: (-4) -개역, -개정, -표준, -공동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에는 밑줄 친 부분이 빠져 있다. ‘according to the flesh, he would raise up Christ’를 빼다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을 부인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분명히 교리와 신학이 연관된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은 신학적으로 결함이 있으며 반대로 공인 본문과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신학적으로 우수하다.

(k.5) 고린도전서 15장 54절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졌도다, 하고 기록된 말씀이 성취되리라.

그리스어 본문: -Aleph
 영어 역본: (-0)
 한글 역본: (-0)

위의 그리스어 본문에는 밑줄 친 부분이 빠져 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을 것이다’(this corruptible shall have put on incorruption)는 육체의 부활을 말한다. 비록 현대 영어 역본들에 아직 이 부분이 남아있지만 이미 시내 사본(알레프)은 이것을 교리적으로 변개한 상태이다. 이것은 분명히 교리와 신학이 연관된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위의 그리스어 본문은 신학적으로 결함이 있으며 반대로 공인 본문과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신학적으로 우수하다.

I.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의 영원성(과거 또는 미래)을 부인함

(I.1) 요한복음 1장 18절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그리스어 본문: -B/Aleph
 영어 역본: (-3) -NIV, -NASB, -NKJV-FN
 한글 역본: (-4) -개역, -개정, -표준, -공동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에는 밑줄 친 부분이 다르게 되어 있다. 독생자, 즉 ‘유일하게 낳은 아들’에서 ‘아들’(Son)이 ‘하나님’(God)으로 바뀌었다. 이것은 순전히 이단적인 가르침이다! 우리에게 ‘유일하게 나신 하나님’(Only Begotten God)이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단지 하나님에게서 나온 여러 ‘신들’ 중 하나로 보는 영지주의자들의 거짓 가르침을 발견할 수 있다.²⁴⁾ 우리에게 있는 분은 ‘유일하게 나신 아들’(Only Begotten Son)이어야 한다. 이것이 교리적으로 바른 가르침이다. 이것은 분명히 교리와 신학이 연관된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은 신학적으로 결함이 있으며 반대로 공인 본문과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신학적으로 우수하다.

24) 이것은 정확히 현시대 여호와의 증인들의 가르침이다. 그들은 예수님이 출생하신 신이고 미가엘 천사장이라고 말한다.

(1.2) 요한복음 5장 30절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내가 내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하므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리스어 본문: -B/Aleph

영어 역본: (-3) -NIV, -NASB, -NB

한글 역본: (-4) -개역, -개정, -표준, -공동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에는 밑줄 친 부분이 다르게 되어 있다. ‘아버지’(Father)가 빠지고 그 자리에 ‘그분’(him)이 들어 있다. 주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 ‘아버지’(Father)께서 자신을 보내셨음을 아셨다. 불분명한 ‘그분’(him)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그분을 보내셨다. 이것은 분명히 교리와 신학이 연관된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은 신학적으로 결함이 있으며 반대로 공인 본문과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신학적으로 우수하다.

(1.3) 계시록 1장 8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올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그리스어 본문: -Aleph(B에는 계시록이 아예 없다.)

영어 역본: (-4) -NIV, -NASB, -NKJV-FN, -NB

한글 역본: (-4) -개역, -개정, -표준, -공동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에는 밑줄 친 부분이 빠져 있다. 그들은 ‘시작과 끝마침’(the Beginning and the Ending)이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칭호를 제거함으로써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의 영원성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분명히 교리와 신학이 연관된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은 신학적으로 결함이 있으며 반대로 공인 본문과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신학적으로 우수하다.

(1.4) 계시록 1장 11절

이르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네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곧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라, 하시더라.

그리스어 본문: -Aleph(B에는 계시록이 아예 없다.)

영어 역본: (-4) -NIV, -NASB, -NKJV-FN, -NB

한글 역본: (-4) -개역, -개정, -표준, -공동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에는 밑줄 친 부분이 빠져 있다. 그들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I am Alpha and Omega, the First and the Last)이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칭호를 제거하여 그분의 과거와 미래의 영원성을 덮어 버렸다. 이것은 분명히 교리와 신학이 연관된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은 신학적으로 결함이 있으며 반대로 공인 본문과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신학적으로 우수하다.

(1.5) 계시록 5장 14절

이에 네 짐승이 이르기를, 아멘, 하고 스물네 장로가 엎드려 영원무궁토록 살아 계시는 그분께 경배하더라.

그리스어 본문: -Aleph(B에는 계시록이 아예 없다.)

영어 역본: (-4) -NIV, -NASB, -NKJV-FN, -NB

한글 역본: (-4) -개역, -개정, -표준, -공동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에는 밑줄 친 부분이 빠져 있다. 그들은 ‘영원무궁토록 살아 계시는 그분’(Him that liveth for ever and ever)을 제거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영원한 미래를 부인하고 있다. 이것은 분명히 교리와 신학이 연관된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은 신학적으로 결함이 있으며 반대로 공인 본문과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신학적으로 우수하다.

(1.6) 계시록 11장 17절

[장로들이] 이르되, 오 주 하나님 전능자여,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주께 우리가 감사를 드림은 주께서 친히 주의 큰 권능을 취하시고 통치해 오셨기 때문이니이다.

그리스어 본문: -Aleph(B에는 계시록이 아예 없다.)

영어 역본: (-4) -NIV, -NASB, -NKJV-FN, -NB

한글 역본: (-4) -개역, -개정, -표준, -공동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에는 밑줄 친 부분이 빠져 있다. ‘앞으로 오실’(and art to come)이란 구문이 빠짐으로써 그리스도의 영원한 미래가 가려졌다. 이것은 분명히 교리와 신학이 연관된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은 신학적으로 결함이 있으며 반대로 공인 본문과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신학적으로 우수하다.

(1.7) 계시록 16장 5절

내가 들으니 물들의 천사가 이르되, 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주여, 주께서 이렇게 심판하셨으니 주께서는 의로우시니이다.

그리스어 본문: -Aleph(B에는 계시록이 아예 없다.)

영어 역본: (-3) -NIV, -NASB, -NB

한글 역본: (-4) -개역, -개정, -표준, -공동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에는 밑줄 친 부분이 빠져 있다. 여기서도 ‘앞으로도 계실’(and shalt be)이 빠짐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영원히 계신다는 진리가 불분명하게 되었다. 이것은 분명히 교리와 신학이 연관된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은 신학적으로 결함이 있으며 반대로 공인 본문과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신학적으로 우수하다.

m. 그리스도의 신적인 권능과 편재성을 부인함

(m.1) 일반적인 그리스도의 권능을 부인함

(a) 마태복음 21장 44절: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지겠고 누구에 게든지 그 돌이 떨어지면 그것이 그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리라, 하시니라.

그리스어 본문: -D

영어 역본: (-1) [NIV-FN]

한글 역본: (-2) -표준, -공동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에는 밑줄 친 부분이 빠져 있다. NIV의 경우 본문에는 남아 있지만 주석에는 이것이 믿을 수 없는 구절로 표시되어 있다.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명백히 보여 주는 증거 구절임에도 말이다. 이것은 분명히 교리와 신학이 연관된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은 신학적으로 결함이 있으며 반대로 공인 본문과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신학적으로 우수하다.

(b) 요한복음 8장 59절: 그때에 그들이 돌을 들어 그분께 던지려 하였으나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을 숨기시고 성전에서 나가시되 그들의 한가운데를 통과하사 그렇게 지나가시니라.

그리스어 본문: -B/Aleph

영어 역본: (-4) -NIV, -NASB, -NKJV-FN, -NB

한글 역본: (-4) -개역, -개정, -표준, -공동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에는 밑줄 친 부분이 빠져 있다. ‘going through the midst of them, and so passed by.’는 그분을 죽이려는 군중 사이를 그냥 통과해 지나가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잘 나와 있는 부분이다. 이 부분이 빠지면 이 기적도 없던 일이 된다. 이것은 분명히 교리와 신학이 연관된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은 신학적으로 결함이 있으며 반대로 공인 본문과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신학적으로 우수하다.

(c) 빌립보서 4장 13절: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어 본문: -B/Aleph

영어 역본: (-4) -NIV, -NASB, -NKJV-FN, -NB

한글 역본: (-4) -개역, -개정, -표준, -공동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에는 밑줄 친 부분이 빠져 있다. ‘그리스도’(Christ)를 빼고 그 자리에 ‘그’(him who)를 집어넣음으로써 누가 혹은 무엇이 ‘나를 강하게’(strengtheneth me) 하는지 알 수 없게 해 놓았다. 그 주체가 ‘그리스도’인

가? 아니면 힘인가? 진화론인가? 무신론인가? 인본주의인가? 현대주의인가? 이런 것들도 가능한가? 이것은 분명히 교리와 신학이 연관된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은 신학적으로 결함이 있으며 반대로 공인 본문과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신학적으로 우수하다.

(m.2) 죽은 자들을 일으키는 그리스도의 권능을 부인함

주 예수님을 일으키신 분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도 일으키사 너희와 함께 드러내 보이실 줄 우리가 아노라(고후4:14).

그리스어 본문: -B/Aleph

영어 역본: (-4) -NIV, -NASB, -NKJV-FN, -NB

한글 역본: (-4) -개역, -개정, -표준, -공동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에는 밑줄 친 부분이 다르게 되어 있다. ‘을 통해’(by)가 ‘과 함께’(with)로 둔갑했다. ‘주 예수님을 통해’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는 분임을 보여 주며 이것은 단순히 그분과 함께 일어난다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이것은 분명히 교리와 신학이 연관된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은 신학적으로 결함이 있으며 반대로 공인 본문과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신학적으로 우수하다.

(m.3)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스도의 권능을 부인함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추어져 온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려 하심이라(엡3:9).

그리스어 본문: -B/Aleph

영어 역본: (-4) -NIV, -NASB, -NKJV-FN, -NB

한글 역본: (-4) -개역, -개정, -표준, -공동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에는 밑줄 친 부분이 빠져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by Jesus Christ)가 빠짐으로 그분께서 ‘만물’(all things)의 창조자이심이 가려졌다. 이것은 분명히 교리와 신학이 연관된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은 신학적으로 결함이 있으며 반대로 공인 본문과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신학적으로 우수하다.

n.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함

(n.1) ‘주’라는 단어를 제거함으로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함

(a) 마태복음 13장 51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매

그리스어 본문: -B/Aleph

영어 역본: (-4) -NIV, -NASB, -NKJV-FN, -NB

한글 역본: (-4) -개역, -개정, -표준, -공동

(b) 마가복음 9장 24절: 즉시 그 아이의 아버지가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지 아니함을 주께서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리스어 본문: -B/Aleph

영어 역본: (-3) -NIV, -NASB, -NB

한글 역본: (-4) -개역, -개정, -표준, -공동

(c) 누가복음 9장 57절: 그들이 길을 갈 때에 어떤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주를 따르리이다, 하니

그리스어 본문: -B/Aleph

영어 역본: (-3) -NIV, -NASB, -NB

한글 역본: (-4) -개역, -개정, -표준, -공동

(d) 누가복음 22장 31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채질하려고 너희를 갖기 원하였으나

그리스어 본문: -B/Aleph

영어 역본: (-4) -NIV, -NASB, -NKJV-FN, -NB

한글 역본: (-4) -개역, -개정, -표준, -공동

(e) 누가복음 23장 42절: [강도가]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매

그리스어 본문: -B/Aleph

영어 역본: (-4) -NIV, -NASB, -NKJV-FN, -NB

한글 역본: (-4) -개역, -개정, -표준, -공동

(f)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를 향해서는 참으로 죽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살아 있는 것으로 여길지어다.

그리스어 본문: -B

영어 역본: (-3) -NIV, -NASB, -NB

한글 역본: (-4) -개역, -개정, -표준, -공동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에는 밑줄 친 부분이 빠져 있거나 다른 호칭으로 대체되어 있다. ‘주’(Lord)라는 단어는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것은 그분의 신성을 나타내는 호칭이다. 이것이 제거됨으로써 그분의 신성을 의심하고, 공격하고, 부인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이것은 분명히 교리와 신학이 연관된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은 신학적으로 결함이 있으며 반대로 공인 본문과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신학적으로 우수하다.

(g) 고린도전서 15장 47절: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시니라.

그리스어 본문: -B/Aleph

영어 역본: (-4) -NIV, -NASB, -NKJV-FN, -NB

한글 역본: (-4) -개역, -개정, -표준, -공동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에는 밑줄 친 부분이 빠져 있다. ‘주’(Lord)라는 단어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것은 그분의 신성을 나타내는 호칭이다. 이것이 제거됨으로써 그분의 신성을 의심하고 공격하고 부인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더군다나 그들은 ‘주’(Lord) 대신 ‘사람’(man)이라는 단어를 넣어 그리스도를 그저 ‘하늘로부터 온 사람’(man from heaven)으로 격하하였다. 이것은 분명히 교리와 신학이 연관된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은 신학적으로 결함이 있으며 반대로 공인 본문과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신학적으로 우수하다.

(h) 고린도후서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어 본문: -B/Aleph

영어 역본: (-3) -NIV, -NASB, -NB

한글 역본: (-4) -개역, -개정, -표준, -공동

(i) 갈라디아서 6장 17절: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주 예수님의 자국들을 지니고 있느니라.*

그리스어 본문: -B(Aleph에는 이 구절이 없다.)

영어 역본: (-3) -NIV, -NASB, -NB

한글 역본: (-4) -개역, -개정, -표준, -공동

(j) 디모데전서 1장 1절: *우리 구원자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그리스어 본문: -D(B에는 이 구절이 없다.)

영어 역본: (-3) -NIV, -NASB, -NB

한글 역본: (-4) -개역, -개정, -표준, -공동

(k) 디모데전서 5장 21절: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선택받은 천사들 앞에서 네게 명하노니 너는 어떤 것도 편파적으로 행하지 말고 편견 없이 이것들을 준수하라.*

그리스어 본문: -Aleph(B에는 이 구절이 없다.)

영어 역본: (-3) -NIV, -NASB, -NB

한글 역본: (-4) -개역, -개정, -표준, -공동

(l) 디모데후서 4장 1절: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또 친히 나타나실 때에 자신의 왕국에서 살아 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네게 명하노니*

그리스어 본문: -Aleph(B에는 이 구절이 없다.)

영어 역본: (-3) -NIV, -NASB, -NB

한글 역본: (-4) -개역, -개정, -표준, -공동

(m) 디도서 1장 4절: 바울은 공통의 믿음을 따라 나의 아들이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공훈과 화평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어 본문: -Aleph(B에는 이 구절이 없다.)

영어 역본: (-4) -NIV, -NASB, -NKJV-FN, -NB

한글 역본: (-4) -개역, -개정, -표준, -공동

(n) 요이3: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공훈과 화평이 진리와 사랑 안에서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어 본문: -B

영어 역본: (-3) -NIV, -NASB, -NB

한글 역본: (-4) -개역, -개정, -표준, -공동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에는 밑줄 친 부분이 빠져 있다. '주'(Lord)라는 단어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것은 그분의 신성을 나타내는 호칭이다. 이것이 제거됨으로써 그분의 신성을 의심하고 공격하고 부인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이것은 분명히 교리와 신학이 연관된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은 신학적으로 결함이 있으며 반대로 공인 본문과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신학적으로 우수하다.

(n.2) 그리스도께서 경배 받은 사실을 제거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함

(a) 누가복음 24장 52절: 그들이 그분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리스어 본문: -D

영어 역본: (-1) -NASB

한글 역본: (-3) -[개역], -[개정], -[표준]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역본에는 밑줄 친 부분이 빠져 있다. 현대 역본들에는 그들이 '그분께 경배했다'(worshiped Him)가 제거됨으로써 주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임이 가려졌다. 이것은 분명히 교리와 신학이 연관된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역본은 신학적으로 결함이 있으며 반대로 공인 본문과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신학적으로 우수하다.

(b) 요한복음 9장 38절: 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그분께 경배하니라.

그리스어 본문: -Aleph

영어 역본: (-0)

한글 역본: (-0)

위의 그리스어 본문에는 밑줄 친 부분이 빠져 있다. 시내 사본(알레프)은 ‘그가 그분께 경배하였다’(he worshiped Him)를 포함한 구절 전체를 없애 버렸다. 비록 지금은 영어 역본들이 이것을 따르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 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분명히 교리와 신학이 연관된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위의 그리스어 본문은 신학적으로 결함이 있으며 반대로 공인 본문과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신학적으로 우수하다.

(n.3)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제거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함

(a)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리스어 본문: -Aleph

영어 역본: (-1) -[NASB-FN]

한글 역본: (-0)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역본에는 밑줄 친 부분이 빠져 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보여 주는 ‘하나님의 아들’(the Son of God)이 제거되었다. 이것은 분명히 교리와 신학이 연관된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역본은 신학적으로 결함이 있으며 반대로 공인 본문과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신학적으로 우수하다.

(b) 요한복음 6장 69절: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하나이다, 하매

그리스어 본문: -B/Aleph

영어 역본: (-4) -NIV, -NASB, -NKJV-FN, -NB

한글 역본: (-4) -개역, -개정, -표준, -공동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에는 밑줄 친 부분이 바뀌어 있다. ‘그리스도,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대신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the holy one of God)라고 되어 있다. 이것은 훨씬 더 약하고 불분명한 표현이다. 이것은 분명히 교리와 신학이 연관된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은 신학적으로 결함이 있으며 반대로 공인 본문과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신학적으로 우수하다.

(c) 요한복음 9장 35절: 그들이 그를 내쫓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를 만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하시니

그리스어 본문: -B/Aleph

영어 역본: (-4) -NIV, -NASB, -NKJV-FN, -NB

한글 역본: (-4) -개역, -개정, -표준, -공동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에는 밑줄 친 부분이 바뀌어 있다. ‘하나님’(God)이란 단어가 ‘사람’(man)으로 되어 버렸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성에 의문을 던진다. 이것은 분명히 교리와 신학이 연관된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은 신학적으로 결함이 있으며 반대로 공인 본문과 킹제임스

흡정역 성경은 신학적으로 우수하다.

(d) 사도행전 8장 37절: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매 내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고는

그리스어 본문: -B/Aleph

영어 역본: (-3) -NIV, -NASB, -NKJV-FN

한글 역본: (-4) -개역, -개정, -표준, -공동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에는 밑줄 친 부분이 빠져 있다. 절 전체가 없어졌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아들'(the Son of God)을 비롯한 여러 중요한 진리가 들어 있다. 이것은 분명히 교리와 신학이 연관된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은 신학적으로 결함이 있으며 반대로 공인 본문과 킹제임스 흡정역 성경은 신학적으로 우수하다.

(n.4) '내 아버지'를 '아버지'로 바꿈으로써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함

(a) 요한복음 8장 28절: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아들을 들어 올린 뒤에야 내가 그인 것을 알며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다만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이것들을 말하는 것도 알리라.

그리스어 본문: -B/Aleph

영어 역본: (-3) -NIV, -NASB, -NB

한글 역본: (-4) -개역, -개정, -표준, -공동

(b) 요한복음 8장 38절: 나는 내가 내 아버지와 함께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가 너희 아버와 함께 본 것을 행하느니라, 하시니

그리스어 본문: -B

영어 역본: (-2) -NIV, -NB

한글 역본: (-0)

(c) 요한복음 10장 32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내 아버지로부터 나온 많은 선한 일들을 너희에게 보였는데 그 일들 중 어떤 일 때문에 너희가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하시매

그리스어 본문: -B/Aleph

영어 역본: (-3) -NIV, -NASB, -NB

한글 역본: (-4) -개역, -개정, -표준, -공동

(d) 요한복음 14장 2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 즉,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나니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고 말하였으므로 기뻐하였으리라. 이는 내 아버지께서 나보다 크시기 때문이니라.

그리스어 본문: -B/Aleph
영어 역본: (-3) -NIV, -NASB, -NB
한글 역본: (-3) -개역, -개정, -공동

(e) 요한복음 16장 10절: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요

그리스어 본문: -B/Aleph
영어 역본: (-3) -NIV, -NASB, -NB
한글 역본: (-4) -개역, -개정, -표준, -공동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에는 밑줄 친 부분이 바뀌어 있다. ‘내 아버지’(My Father)라는 표현에서 ‘내’(My)라는 단어가 ‘정관사’(the)로 변했다. ‘내’(My)라는 단어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에 있는가를 보여 준다. 그런데 그들은 이것을 강탈해 버렸다. 이것은 분명히 교리와 신학이 연관된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은 신학적으로 결함이 있으며 반대로 공인 본문과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신학적으로 우수하다.

(n.5) ‘아버지’와 연관된 곳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뺀으로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함

(a) 에베소서 3장 14절: 이런 까닭으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리스어 본문: -B/Aleph
영어 역본: (-4) -NIV, -NASB, -NKJV-FN, -NB
한글 역본: (-4) -개역, -개정, -표준, -공동

(b) 골로새서 1장 2절: ...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화평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어 본문: -B
영어 역본: (-3) -NIV, -NASB, -NKJV-FN
한글 역본: (-4) -개역, -개정, -표준, -공동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에는 밑줄 친 부분이 빠져 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and our Lord Jesus Christ)가 빠지면서 주 예수님과 그분의 ‘아버지’를 이어 주는 끈이 사라져 버렸다. 이것은 분명히 교리와 신학이 연관된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은 신학적으로 결함이 있으며 반대로 공인 본문과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신학적으로 우수하다.

(n.6) ‘주 예수님’ 혹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주’를 뺀으로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함

(a) 사도행전 9장 29절: [그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며 그리스말 하는 사람들과 논쟁하였으나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하매

그리스어 본문: -B/Aleph
영어 역본: (-3) -NIV, -NASB, -NB

한글 역본: (-2) -표준, -공동

(b) 고린도전서 5장 5절: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도록 판단하였으니 이것은 영이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어 본문: -B

영어 역본: (-3) -NIV, -NASB, -NKJV-FN

한글 역본: (-2) -표준, -공동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에는 밑줄 친 부분이 빠져 있다. ‘주 예수님’에서 ‘예수’가 빠짐으로써 예수님께서 주님이라는 그분의 신성에 관한 진리가 제거되었다. 이것은 분명히 교리와 신학이 연관된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은 신학적으로 결함이 있으며 반대로 공인 본문과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신학적으로 우수하다.

(c)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어떤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는 주께서 오심으로써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리스어 본문: -B/Aleph

영어 역본: (-3) -NIV, -NASB, -NB

한글 역본: (-4) -개역, -개정, -표준, -공동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에는 밑줄 친 부분이 빠져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짐으로써 예수님께서 주님이라는 그분의 신성에 관한 진리가 제거되었다. 이것은 분명히 교리와 신학이 연관된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은 신학적으로 결함이 있으며 반대로 공인 본문과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신학적으로 우수하다.

(n. 7) ‘예수님’에서 ‘아들’ 또는 ‘하나님의 아들’을 뺌으로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함

(a) 사도행전 3장 26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일으키시고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그분을 먼저 너희에게 보내사 너희 각 사람이 자기 불법들을 버리고 돌아서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스어 본문: -B/Aleph

영어 역본: (-3) -NIV, -NASB, -NB

한글 역본: (-4) -개역, -개정, -표준, -공동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에는 밑줄 친 부분이 빠져 있다.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빠지면서 ‘예수님’과 ‘아들’이 각각의 개체가 되었다. 여러 역본들은 ‘아들 예수님’에서 ‘아들’을 ‘중’으로 바꾸어 그분을 격하시켰다. 이것은 분명히 교리와 신학이 연관된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은 신학적으로 결함이 있으며 반대로 공인 본문과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신학적으로 우수하다.

(b) 마태복음 8장 29절: 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되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에 오셨나이까? 하더라.

그리스어 본문: -B/Aleph

영어 역본: (-3) -NIV, -NASB, -NB

한글 역본: (-4) -개역, -개정, -표준, -공동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에는 밑줄 친 부분이 빠져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아닌가? 그런데 ‘예수님’이란 단어가 빠져 있다. 우리는 여기서 그분의 신성을 제거하려는 의도를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분명히 교리와 신학이 연관된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은 신학적으로 결함이 있으며 반대로 공인 본문과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신학적으로 우수하다.

(n.8) ‘그리스도’에서 ‘예수’를 뺀으로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함

초대 교회 시대에도 이단들이 많았다. ‘B’(바티칸) 사본과 ‘Aleph’(시내) 사본이 나온 이집트 땅에서 더욱 이단 교리들이 많았는데 그중 하나가 ‘양자론’(Adoptionism)이다. 이 이단은 인간 ‘예수’와 하나님 ‘예수’는 별개라고 가르쳤다. 이 이단의 가르침은 수 세기에 걸쳐 이어졌고 오늘날에는 소위 ‘크리스천 사이언스’를 비롯한 자유주의/현대주의/배교자들 사이에 퍼져 있다. 다음에 나오는 구절들은 모두 이와 관련된 구절들이며 변경과 삭제가 이루어진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이 해당 구절 하단에 제시되어 있다.

제시된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에는 밑줄 친 부분이 빠져 있다. 그 내용은 분명히 교리와 신학이 연관된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위의 그리스어 본문과 영어 및 한글 역본들은 신학적으로 결함이 있으며 반대로 공인 본문과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신학적으로 우수하다.

(a) 로마서 15장 8절: 이제 내가 말하노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되신 것은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들을 확증하려 하심이요

그리스어 본문: -B/Aleph

영어 역본: (-3) -NIV, -NASB, -NB

한글 역본: (-4) -개역, -개정, -표준, -공동

(b) 고린도전서 9장 1절: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자유로운 자가 아니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보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아니냐?

그리스어 본문: -B/Aleph

영어 역본: (-3) -NIV, -NASB, -NB

한글 역본: (-4) -개역, -개정, -표준, -공동

(c)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리스어 본문: -B/Aleph

영어 역본: (-3) -NIV, -NASB, -NB
한글 역본: (-4) -개역, -개정, -표준, -공동

(d) 골로새서 1장 28절: 우리가 그분을 선포하며 각 사람에게 경고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나니 이것은 우리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드리려 함이니라.

그리스어 본문: -B/Aleph
영어 역본: (-3) -NIV, -NASB, -NB
한글 역본: (-4) -개역, -개정, -표준, -공동

(e)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리스어 본문: -B/Aleph
영어 역본: (-3) -NIV, -NASB, -NB
한글 역본: (-4) -개역, -개정, -표준, -공동

(f) 베드로전서 5장 10절: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부르사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분께서 너희가 잠시 고난받은 뒤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우시며 강하게 하시고 정착시키시리니

그리스어 본문: -B/Aleph
영어 역본: (-3) -NIV, -NASB, -NB
한글 역본: (-4) -개역, -개정, -표준, -공동

(g) 베드로전서 5장 14절: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너희 모두에게 화평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리스어 본문: -B
영어 역본: (-3) -NIV, -NASB, -NB
한글 역본: (-4) -개역, -개정, -표준, -공동

(h) 계시록 1장 9절: 나 요한은 또한 너희 형제요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으로 인해 밧모라 하는 섬에 있었노라.

그리스어 본문: -Aleph(B에는 계시록이 아예 없다.)
영어 역본: (-4) -NIV, -NASB, -NKJV-FN, -NB
한글 역본: (-4) -개역, -개정, -표준, -공동

(i)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진노하여 그녀의 씨 중에서 남은 자들 곧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진 자들과 전쟁을 하려고 가니라.

그리스어 본문: -Aleph(B에는 계시록이 아예 없다.)

영어 역본: (-4) -NIV, -NASB, -NKJV-FN, -NB

한글 역본: (-4) -개역, -개정, -표준, -공동

(n.9) '하나님의 아들'과 '구원자'에서 '그리스도'를 뺀으로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함

(a) 누가복음 4장 41절: 마귀들도 많은 사람에게서 나가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들을 꾸짖으사 그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그분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더라.

그리스어 본문: -B/Aleph

영어 역본: (-4) -NIV, -NASB, -NKJV-FN, -NB

한글 역본: (-4) -개역, -개정, -표준, -공동

(b) 요한복음 4장 42절: [그들이] 그 여자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 때문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직접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알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리스어 본문: -B/Aleph

영어 역본: (-4) -NIV, -NASB, -NKJV-FN, -NB

한글 역본: (-4) -개역, -개정, -표준, -공동

(n.10)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를 뺀으로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함

(a) 사도행전 15장 11절: 오직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노라, 하니라.

그리스어 본문: -B/Aleph

영어 역본: (-4) -NIV, -NASB, -NKJV-FN, -NB

한글 역본: (-4) -개역, -개정, -표준, -공동

(b) 사도행전 16장 31절: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네가 구원을 받고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며

그리스어 본문: -B/Aleph

영어 역본: (-3) -NIV, -NASB, -NB

한글 역본: (-4) -개역, -개정, -표준, -공동

(c) 사도행전 20장 21절: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노라.

그리스어 본문: -B

영어 역본: (-2) -NIV, -NB

한글 역본: (-2) -표준, -공동

(d) 고린도전서 5장 4절: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함께 같이 모일 때에 내 영도 함께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어 본문: -B/Aleph
영어 역본: (-3) -NIV, -NASB, -NB
한글 역본: (-4) -개역, -개정, -표준, -공동

(e) 고린도전서 16장 2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어 본문: -B/Aleph
영어 역본: (-3) -NIV, -NASB, -NB
한글 역본: (-2) -표준, -공동

(f) 고린도후서 11장 31절: 영원무궁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내가 거짓말하지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그리스어 본문: -B/Aleph
영어 역본: (-3) -NIV, -NASB, -NB
한글 역본: (-4) -개역, -개정, -표준, -공동

(g)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 이제 하나님 그분 곧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사 너희에게 다다르게 하시기를 원하며

그리스어 본문: -B/Aleph
영어 역본: (-3) -NIV, -NASB, -NB
한글 역본: (-4) -개역, -개정, -표준, -공동

(h)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너희 마음을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굳건히 세우시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어 본문: -B/Aleph
영어 역본: (-3) -NIV, -NASB, -NB
한글 역본: (-4) -개역, -개정, -표준, -공동

(i)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에 *이루어질 것이며*

그리스어 본문: -B
영어 역본: (-3) -NIV, -NASB, -NB
한글 역본: (-4) -개역, -개정, -표준, -공동

(j) 데살로니가후서 1장 12절: 이것은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가 그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어 본문: -B/Aleph

영어 역본: (-3) -NIV, -NASB, -NB

한글 역본: (-4) -개역, -개정, -표준, -공동

(k) 계시록 22장 21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리스어 본문: -Aleph(B에는 계시록이 아예 없다.)

영어 역본: (-2) -NIV, -NASB

한글 역본: (-4) -개역, -개정, -표준, -공동

교리와 관련된 성경 구절은 이 정도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다. 더 많은 내용이 있지만 이 정도면 신약 성경 그리스어 본문이 달라져도 교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반박할 충분한 증거가 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믿음을 심고 있는 것은 바로 킹제임스 성경이 오늘날 우리를 위한 성경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심



기록한 사람들이 기록함

원래의 기록
(자필 원본)

히브리어/그리스어 전통 본문
모든 사본 중 가장 신실한 것들

번역본들

프로테스탄트
종교 개혁 성경

킹제임스 성경의 선구자들

1611년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בְּרֵאשִׁית בְּרָא אֱלֹהִים אֶת
הַשָּׁמַיִם וְאֶת הָאָרֶץ: וְהָאָרֶץ
קִיְחָה תִהְיֶה נְבוּהָ וְחֹשֶׁךְ עַל
תְּהוֹם וְרוּחַ אֱלֹהִים בְּנֹחַפָּת

히브리어 구약 성경

BIBΛOΣ γενέσεως
'Ιησοῦ χριστοῦ, υἱοῦ
Δαβίδ, υἱοῦ Ἀβραάμ.
'Αβραάμ ἐγέννησεν

그리스어 신약 성경



번역자들
오직 경건하고
신실한 사람들

번역기술
단어 대 단어의
'축자 번역'
'동적 일치 배제'

종교 개혁의 정신과
함께 중요 교리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완전히
보존됨

위클리프 성경	1382
틴대일 성경	1525
커버데일 성경	1535
매튜 성경	1537
그레이트 성경	1539
제네바 성경	1560

부록 A

하나님의 말씀들(단어들)의 중요성

현대 역본들에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 신학적 오류들의 주된 원인 중 하나는 그것들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바로 그 ‘말씀들’, 즉 단어들(Words)을 소홀히 여긴 데 있다! 만일 현대 역본들과 변개된 역본들이 킹제임스 성경의 근간이 되는 그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의 ‘말씀들’(Words)을 그대로 살렸다면 그리고 이 말씀들을 의역하지 않고 킹제임스 성경처럼 정말 정확하게 번역했다면 사실상 이런 신학적 오류와 관련된 논란은 거의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구체적으로 ‘말씀들’(Words)에 대한 전쟁이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킹제임스 성경에서처럼 다음의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 (1) 우선 재료가 되는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의 정확한 ‘말씀들’(Words, 단어들)이 있어야 한다.
- (2) 이런 정확한 ‘말씀들’을 그대로 살려 영어로 옮길 수 있는 제대로 된 번역 기술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동적 일치나 의역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말씀이든, 대언자들의 말이든, 일반 사람의 말이든 이 ‘말씀들’(Words, 말들, 단어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 주는 신구약 성경 구절들이 이 부록 끝에 제시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보존하려 하시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생각’이나 ‘관념’이 아닌 자신의 ‘말씀들’(Words)이다. 그러나 현대 역본들은 그 ‘말씀들’을 더하고 빼고 바꿈으로써 ‘말씀들’을 변개하였다. 그 변개의 소산이 바로 영어 개역(*ERV*, 1881), 미국표준역(*ASV*, 1901), 신미국표준역(*NASB*, 1960), 신국제역(*NIV*, 1969), 그리고 뉴킹제임스역(*NKJV*, 1979) 등이며 부록 B에 나와 있는 다른 여러 역본들이다. 이것은 분명히 온당치 않은 일이다.

신약 성경 공인 본문(수용 본문)에 있는 그리스어 단어는 총 140,521개이다. 공인 본문과 웨스트코트/호르트의 개정 본문 사이에는 5,604군데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그리스어 단어로 환산하면 9,970개에 이른다. 이것은 신약 성경을 이루는 전체 그리스어 단어의 7%에 해당되며 페이지당 15.4개의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 준다. 단어와 연관된 페이지 수를 모두 합하면 그리스어 신약 성경 전체의 45.9%에 달한다. 자, 어떤가? 이 전쟁은 단어 전쟁이다. 무어맨 박사는 ‘B/Aleph’(바티칸/시내 사본) 기반의 네슬레/알란드 판 개정 비평 본문이 공인 본문에서 제거한 총 2,886개의 단어를 표로 만들었다. 현대 역본들은 이 거짓 그리스어 본문을 채택하였다. 2,886개의 단어가 빠져 있는 채로 말이다. 이로 인해 결국 현대 역본들의 신학적 오류는 필연적 결과가 되고 말았다.

아래에서 소개될 성경 구절에는 각주가 달리지 않았다. 구절 자체가 증거가 될 것이다. 그중 몇 구절만 확인해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들’, 즉 ‘단어들’(Words)이 얼마나 중요한 지 알게 될 것이다. 이 구절들은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의 문자적이고 형식적인 일치

방법을 반길 것이고 반대로 현대 역본들에 적용된 동적 일치 방법을 호되게 꾸짖을 것이다.

'말씀들'과 관련된 여러 구절들

- 모세가 자기를 보내신 **주의 모든 말씀들**과 그분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표적들을 아론에게 고하니라(출4:28).
-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 말들이 이러하니라, 하시니라(출19:6).
-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이 모든 말씀들**을 그들의 얼굴 앞에 내놓으니(출19:7)
-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들로** 말씀하여 이르시니라(출20:1).
- 모세가 와서 **주의 모든 말씀들과** 모든 판단의 규범들을 백성에게 고하며 온 백성이 한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이르신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행하리이다, 하더라(출24:3).
- 모세가 **주의 모든 말씀들을** 기록한 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밑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대로 열두 기둥을 세우며(출24:4)
- 모세가 그 피를 취해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주께서 이 모든 말씀들에** 관하여 너희와 맺은 언약의 피를 보라, 하였더라(출24:8).
-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처음 것들과 같은 두 돌판을 깎으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들에 있던 말들을 내가 이 판들 위에 쓰리니(출34:1)
-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이 뜻하는 대로 너와 또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느니라, 하시니라(출34:27).
-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을 함께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니라. **주께서** 명령하시 너희가 행하게 하신 **말씀들이** 이러하니라(출35:1).
- 모세가 나가 **주의 말씀들을** 백성에게 고하고 백성의 장로 칠십 명을 모아 성막 주위에 세우매(민11:24)
- 모세가 요르단 이쪽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 있는, 홍해 맞은편 평야에서 온 이스라엘에게 한 **말들이** 이러하니라(신1:1).
- 특히 네가 호렙에서 **주 네 하나님 앞에** 섰던 날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해 백성을 함께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들을** 듣게 하여 그들이 땅 위에 사는 모든 날 동안 나 두려워하기를 배우게 하고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셨으므로(신4:10)
- 그분께서 네게 교훈을 주시려고 하늘로부터 나오는 자신의 음성을 내가 듣게 하셨으며 땅에서는 자신의 큰 불을 네게 보여 주셨으므로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분의 **말씀들을** 들었느니라(신4:36).
- **주께서** 이 **말씀들을** 그 산에서 불과 구름과 짙은 어둠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의 온 집회 군중에게 말씀하신 뒤에 더 이상 추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들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넘겨주셨느니라(신5:22).
- 내가 이날 네게 명령하는 이 **말들을** 네 마음속에 두고(신6:6)
- **주께서** 내게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신 두 돌판을 넘겨주셨는데 그것들 위에는 집회 날에 **주께서** 그 산에서 불 가운데서 너희와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에** 따라 **글어**

기록되었느니라(신9:10).

● 내가 깨뜨린 처음 판들에 있던 말들을 내가 그 판들에 쓰리니 너는 그것들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에(신10:2)

●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들을 너희 마음과 너희 혼에 두고 그것들을 너희 손에 매어 표적으로 삼으며 너희 눈 사이에 붙여 이마의 표로 삼고(신11:18)

●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들을 지키고 들으라. 이로써 내가 **주** 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옳은 것을 행하면 너와 네 뒤를 이을 네 자손들이 영원토록 복을 받으리라(신12:28).

● 그것을 자기 곁에 두고 평생토록 그 안의 것을 잊어 **주** 자기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들과 이 법규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행할 것이니라(신17:19).

● 내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그들을 위해 일으키고 내 말들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그가 그들에게 말하리라(신 18:18).

●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할 내 말들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아니하는 자가 누구든지 내가 그 일에 대해 그에게 책임을 물으리라(신18:19).

● 또 건너간 뒤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그것들 위에 기록할지니라. 그리하여야 **주** 네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네게 약속하신 대로 **주** 네 하나님께서 네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네가 들어가리라(신27:3).

●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그 돌들 위에 매우 분명하게 기록할지니라, 하니라(신 27:8).

●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행하기 위해 그것들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온 백성은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하니라(신27:26).

● 너는 내가 이날 네게 명령하는 말들 중 어떤 것에서든지 떠나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 그들을 섬기지 말지니라(신28:14).

●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된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이로써 **주** 네 하나님이라 하는 이 영광스럽고 두려우신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신28:58)

● **주**께서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맺으신 언약 외에 그분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모압 땅에서 그들과 맺으신 언약의 말씀들이 이러하니라(신29:1).

● 그러므로 이 언약의 말씀들을 지키고 그것들을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너희가 성공하리라(신29:9).

● 은밀한 일들은 **주** 우리 하나님께 속하되 계시된 그 일들은 영원토록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속하니 이것은 우리가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29:29).

● 백성들 곧 남자들과 여자들과 아이들과 네 성문들 안에 있는 네 나그네를 함께 모아 그들이 듣고 배우고 **주**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지켜 행하게 할지니(신31:12)

●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들을 책에 기록하기를 마쳐 마침내 그것들이 완성된 뒤에(신 31:24)

●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날 너희 가운데서 증언하는 모든 말들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들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지켜 행하게 하라(신32:46).

●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주** 너희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으라, 하고(수3:9)

● 그 뒤에 그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율법의 모든 말씀들 곧 복과 저주의 말씀들을 낭독하였는데(수8:34)

● 사무엘이 또한 사울에게 이르되, **주**께서 나를 보내사 왕에게 기름을 부어 자신의 백성 곧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셨으니 그러므로 이제 왕은 **주의** 말씀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삼상15:1).

●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해 지금 발견된 이 책의 말씀들에 관하여 **주**께 여쭙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들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를 향해 타오른 **주의**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왕하22:13).

● 왕이 **주의** 집으로 올라가매 유다의 모든 사람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거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대언자들과 온 백성이 작은 자든 큰 자든 다 왕과 함께하였으므로 그가 **주의** 집에서 발견된 언약 책의 모든 말씀들을 그들의 귀에 낭독하였으며(왕하23:2)

● 또 왕이 기둥 옆에 서서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를 따라 걸으며 그분의 명령들과 증언들과 법규들을 지키고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들을 이행하기로 **주** 앞에서 언약을 맺으며 온 백성이 그 언약을 고수하였더라(왕하23:3).

●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올라가지 말고 너희 형제들과 싸우지도 말며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은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느니라, 하라, 하시니 이에 그들이 **주의** 말씀들에 순종하고 여로보암을 대적하러 가던 일을 멈추고 돌아왔더라(대하 11:4).

● 가서 나와 또 이스라엘과 유다에 남아 있는 자들을 위해 지금 발견된 책의 말씀들에 관하여 **주**께 여쭙라. 우리 조상들이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에게 쏟아진 **주의**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대하 34:21).

● 왕이 **주의** 집으로 올라가매 유다의 모든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백성이 큰 자든 작은 자든 함께하였으므로 그가 **주의** 집에서 발견된 언약 책의 모든 말씀들을 그들의 귀에 낭독하였으며(대하34:30)

● 또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를 따라 걸으며 그분의 명령들과 증언들과 법규들을 지키고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들을 이행하기로 **주** 앞에서 언약을 맺은 뒤(대하34:31)

● 한편 아다스다 왕이 제사장 겸 서기관 곧 **주의** 명령들의 말씀들과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그분의 법규들을 맡은 서기관 에스라에게 준 편지의 사본은 이러하니라. 이르되(스7:11)

● 그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들로 말미암아 떤 모든 자가 사로잡혀 갔던 자들의 범법으로 인해 내게 모였고 나는 저녁 희생물을 드릴 때까지 심히 놀란 채 앉아 있었노라(스9:4).

● 온 백성이 율법의 말씀들을 듣고 울므로 디르사다인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서기관인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온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날은 **주** 너희 하나님께 거룩한 날이니 애곡하지 말며 슬피 울지 말라, 하고(느8:9)

● 둘째 날에 온 백성의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들을 이해하기 위해 서기관 에스라에게 함께 모여(느8:13)

● 이제 내 말들이 기록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들이 한 권의 책으로 인쇄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욥19:23)

● 원하건대 그분의 입에서 법을 받고 그분의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쌓아 두라(욥 22:22).

● 내가 그분 입술의 명령에서 떠나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그분 입의 말씀들을 더 귀히 여겼도다(욥23:12).

●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흠 도가니에서 정제하여 일곱 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시12:6).

●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거역하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계획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라(시107:11).

● (헤트) 오 주여, 주께서는 나의 뭉이오니 내가 주의 말씀들을 지키리라 말하였나이다(시119:57).

●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참으로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시 119:103)

●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빛을 주며 단순한 자들에게 깨달음을 주나이다(시 119:130).

● 내 원수들이 주의 말씀들을 잊었으므로 내 열심이 나를 소멸시켰나이다(시 119:139).

● 내가 내 말들을 내 입에 두며 내 손 그늘 속에 너를 덮었나니 이것은 내가 하늘들을 심고 땅의 기초들을 놓으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려 함이었노라(사 51:16).

● 그때에 주께서 자신의 손을 내미사 내 입에 대시며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들을 네 입에 두었노라(렘1:9).

● 오 땅아, 들으라. 보라, 이 백성이 내 말들과 내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것을 거부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해악 곧 그들의 생각의 열매를 가져오리라(렘 6:19).

● 그러므로 네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들을 할지라도 그들이 네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할 것이요, 네가 또한 그들을 부를지라도 그들이 네게 응답하지 아니하리라(렘7:27).

●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 언약의 말들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터인데(렘11:3)

● 그때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모든 말들을 유다의 도시들과 예루살렘 거리들에서 선포하며 말하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라(렘11:6).

●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며 저마다 자기의 악한 마음이 상상하는 대로 걸었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였으나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말을 그들에게 가져오리라, 하라, 하시니라(렘11:8).

● 이 악한 백성이 내 말들 듣기를 거부하고 자기들 마음의 상상 속에서 걸으며 다른 신들을 따라 걷고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경배하니 그들이 전혀 쓸모없는 이 띠와 똑같이 되리라(렘13:10).

● 내가 주의 말씀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먹으며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사오니, 오 주 군대들의 하나님이며, 나는 주의 이름으로 불리나이다(렘 15:16).

● 네가 이 백성에게 이 모든 말들을 알려 줄 때에 그들이 네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주께서 우리를 대적하시려고 이 모든 큰 해악을 선포하셨느냐? 우리의 불법이 무엇이나?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여 저지른 우리의 죄가 무엇이나? 하거든(렘16:10)

● 동문 어귀 곁에 있는 힌놈의 아들 골짜기로 나가서 내가 네게 이를 말들을 거기서 선포하여(렘19:2)

● 그러나 그들이 내 계획 가운데 서서 내 백성에게 내 말들을 듣게 하였더라면 저들의 악한 길과 악한 행위들에서 저들을 돌아서게 하였으리라(렘23:22).

● 그러므로, 보라, 각각 자기 이웃에게서 내 말들을 도둑질하는 대언자들을 내가 대적하노라. 주가 말하노라(렘23:30).

● 다시는 주의 엄중한 부담을 언급하지 말라. 너희가 살아 계신 하나님 곧 군대들의 주 우리 하나님의 말씀들을 왜곡하였으므로 각 사람의 말이 그에게 엄중한 부담이 되리라(렘23:36).

●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주의 집 뜰에 서서 주의 집에서 경배하려고 오는 유다의 모든 도시들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말하라고 한 모든 말들을 말하되 한 마디도 감하지 말라(렘26:2).

● 너희는 분명히 알라. 만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너희가 무죄한 피를 너희와 이 도시와 그곳의 거주민들에게 확실히 가져오리라. 진실로 주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사 이 모든 말들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렘26:15).

● 주가 말하노라. 그 까닭은 내가 그들에게 보내되 일찍 일어나 보낸 나의 종 대언자들이 전한 내 말들에 그들이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너희가 들으려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주가 말하노라(렘29:19).

●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너는 내가 네게 이른 모든 말들을 책에 기록하라(렘30:2).

● 또 자기들이 송아지를 돌로 쪼갬 뒤 그것의 조각들 사이로 지나갈 때에 자기들이 내 앞에서 맺은 언약의 말들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내 언약을 범한 자들(렘34:18)

● 군대들의 주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교훈을 받지 아니하려느냐, 내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려느냐? 주가 말하노라(렘35:13).

●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한 날부터 곧 요시야 시대부터 이 날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민족들을 대적하여 내가 네게 이른 모든 말들을 그 안에 기록하라(렘36:2).

●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아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주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그분의 모든 말씀들을 그의 입에서 받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렘36:4).

● 그러므로 너는 가서 내가 내 입에서 받아 기록한 두루마리에 있는 주의 말씀들을 금식하는 날에 주의 집에서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의 도시들에서 나오는 온 유다의 귀에도 그것들을 낭독하라(렘36:6).

●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대언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모든 것대로 행하여

주의 집에서 그 책에 있는 주의 말씀들을 낭독하니라(렘36:8).

● 사반의 손자요, 그마라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서 나온 주의 모든 말씀들을 듣고(렘36:11)

● 그때에 바룩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 모든 말들을 자기 입으로 소리 내어 말하였으므로 내가 잉크로 이 책에 그것들을 기록하였노라, 하니(렘36:18)

● 그때에 즉 왕이 그 두루마리 곧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에서 받아 기록한 말씀들을 태운 뒤에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렘36:27)

●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유다 왕 여호야김이 태운 첫 두루마리에 있던 이전의 모든 말들을 그 안에 기록하고(렘36:28)

● 이것은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사년에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에서 이 말씀들을 받아 책에 기록한 뒤에 대언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한 말이다. 그가 이르되(렘45:1)

● 그들은 심히 반역하는 자들이므로 그들이 들으려 하든지 들으려 하지 아니하든지 너는 내 말들을 그들에게 말할지니라(겔2:7).

● 또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아, 너는 가되 이스라엘 집에게 가서 내 말들로 그들에게 말하라(겔3:4).

● 또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아, 내가 네게 이를 나의 모든 말들을 네 마음속에 받고 네 귀로 들으라(겔3:10).

● 주 하나님께서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오리니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라. 그것은 빵으로 인한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며 주의 말씀들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갈이니라(암8:11).

● 예루살렘과 그곳의 사방 도시들에 사람들이 거주하며 번영 속에 지낼 때에, 남쪽과 평야에 사람들이 거주할 때에 주가 이전의 대언자들을 통해 외친 그 말들을 너희가 들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슌7:7).

● 참으로 그들이 자기 마음을 금강석같이 만들어 율법과 또 군대들의 주가 이전의 대언자들을 통해 자신의 영으로 보낸 말들을 듣지 아니하려 하였으므로 큰 진노가 군대들의 주로부터 나왔느니라(슌7:12).

●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마24:35).

●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러워하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 속에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를 부끄러워 하리라, 하시니라(막8:38).

●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막13:31).

● 누구든지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러워하면 사람의 아들이 자기 영광과 자기 아버지의 영광과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 속에서 올 때에 그를 부끄러워하리라(눅9:26).

●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눅21:33).

●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들 곧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하는 말들이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 너희에게 한 말들이니라, 하시고(눅24:44)

●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씀하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이라(요3:34).

●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 그것들은 영이요 생명이니라(요6:63).

● 그때에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되,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요6:68)

●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것들을 듣지 아니함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요8:47).

●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를 심판하는 자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요12:48).

●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곧 그분께서 그 일들을 하시느니라(요14:10).

●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들을 지키리니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의 거처가 그와 함께 있게 하리라(요14:23).

●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요15:7).

●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고 그들은 그것들을 받았으며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왔음을 확실히 알았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음을 믿었나이다(요 17:8).

● 대언자들의 말씀들이 이것과 일치하는도다. 이것은 기록된 바(행15:15)

●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살전4:18).

● 내가 형제들에게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면 내가 도달한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가 되리라(딤후4:6).

●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식으로 가르치며 온전한 말씀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과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에 동의하지 아니하면(딤후6:3)

●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내가 내게 들은 건전한 말씀들의 틀을 굳게 붙들고(딤후1:13)

● 전에 거룩한 대언자들이 전한 말씀들과 주 곧 구원자의 사도들이 우리에게서 받은 명령을 너희가 깊이 생각하게 하려 함이라(벧후3:2).

●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전에 한 말들을 기억하라(유17).

●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계1:3).

●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계22:18)

●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계22:19).

부록 B

1380년부터 1991년까지 612년 동안 출간된 영어 성경전서와 신약 성경전서의 연대기별 목록

A. 수많은 성경전서와 신약 성경전서

수백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성경전서와 신약 성경전서가 만들어졌는지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본다면 킹제임스 성경의 4중 우수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1388년부터 1991년까지(604년) 총 135권의 영어 성경전서가 간행되었다. 성경전서와 아울러 1380년부터 1991년까지의 612년 동안에는 총 293권의 영어 신약 성경전서가 출간되었다.

B. 참고 문헌

본 연대기별 목록은 1991년도에 나온 다음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영어 성경 번역본 편람 - 신구약 성경, 외경의 책들, 분책들을 포함한 역본들과 판본들의 종류별 참고 문헌 목록」(*Catalogue of English Bible Translations - A Classified Bibliography of Versions and Editions Including Books, Parts, and Old and New Testament Apocrypha and Apocryphal Books* by William J. Chamberlin)

이 책은 뉴욕시와 코네티컷주 웨스트포트에 위치한 그린우드 출판사가 간행하였다. 나는 독자가 출판사에 연락해서 이 값진 작품을 구해 직접 한번 읽어 볼 것을 강력히 권하는 바이다. 이 책에는 단순한 목록뿐 아니라 해당 영어 성경과 신약 성경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곁들여져 있다. 1-52쪽에는 성경전서가, 527-593쪽에는 신약 성경전서가 나와 있다. 우리는 이 책을 이 분야에서 으뜸으로 친다. 관련 내용을 총망라한 책으로 이만한 책을 나는 본 적이 없다.

C. 제시 방법

제시 방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될 것이다. (1) 영어 성경전서의 연대기별 목록 (2) 영어 신약 성경전서의 연대기별 목록 (3) 성경전서와 신약 성경전서의 출간 빈도 분석 (4) 새 성경전서 혹은 새 신약 성경전서 출판의 필요성에 대한 결론.

1. 영어 성경전서의 연대기별 목록(604년, 1388-1991)

목록은 되도록 간략하게 만들었다. 해당년도, 저자 혹은 편집자는 확인된 경우만 표시되며 타이틀도 줄여서 표시될 것이다.

1. UNDATED, Timothy Priestly, The New Evangelical Family Bible Paraphrased.
2. 1388, John Wycliffe, The Holy Bible.
3. 1388, John Purvey, The Holy Bible.
4. 1390, Nicholas de Hereford, The Holy Bible.

5. 1535, Myles Coverdale, Biblia.
6. 1537, Thomas Matthews, The Byble.
7. 1537, James Nycolson, Biblia, The Bible.
8. 1539, The Great Bible (Cranmer's Bible), The Byble In Englyshe.
9. 1539, Richard Taverner, The Most Sacred Bible.
10. 1549, Anonymous, The Byble.
11. 1549, Anonymous, The Byble (a second Bible by the same name and date).
12. 1553, Richard Jugge, The Whole Bible.
13. 1560, Geneva Version, The Bible And Holy Scriptures.
14. 1568, Bishops' Bible, The Holie Bible.
15. 1599, Geneva-Tomson-Junius Bible, The Bible.
16. 1609, Douay-Rheims Version, The New And Old Testaments.
17. 1611, Authorised Version, The Holy Bible.

Special Editions of The Authorised Version came out as follows: 1613, 1616, 1617, 1618, 1629, 1630, 1633, 1634, 1637, 1638, 1640, 1642, 1653, 1659, 1675, 1679, 1833, 1896, 1904.

Curious Editions of The Authorised Version came out as follows:

- (1) 1611, Great "He" Bible, (Ruth 3:15, "and he went into the city.")
- (2) 1611, Great "She" Bible, (Ruth 3:15, "and she went into the city.")
- (3) 1611, "Judas" Bible, (Mat. 26:36, "Judas" for "Jesus")
- (4) 1631, "Wicked" Bible, (Ex. 20:14, omits the "not")
- (5) 1638, "Forgotten Sins" Bible, (Luke 7:47).
- (6) 1641, "More Sea" Bible, (Rev. 21:1, "There was more sea.")
- (7) 1653, "Unrighteous" or Field's Bible, (1 Cor. 6:9, "unrighteous shall inherit.")
- (8) 1702, "Printers" Bible, (Ps. 119:161, "Printers have persecuted.")
- (9) 1711, "Profit" Bible, (Isa. 57:12, "shall profit" instead of "shall not profit")
- (10) 1716, "Sin On" Bible, (John 5:14, "sin on more" for "sin no more")
- (11) 1717, "Vinegar" Bible, (Luke 20, "parable of the Vinegar" instead of "Vineyard")
- (12) 1746, "Sting" Bible, (Mark 7:37, "sting of his tongue" not "string")
- (13) 1792, "Denial" Bible, (Lk. 22:34, Philip denies Jesus instead of Peter.)
- (14) 1801, "Murderers" Bible, (Jude 1:16, "murderers" used instead of "murmurers")
- (15) 1802, "Discharge" Bible, (1 Tim. 5:21, "I discharge" instead of "I charge")
- (16) 1804, "Lions" Bible, (1 Kings 7:19, "out of thy lions" instead of "loins")
- (17) 1805, "To-Remain" Bible, (Gal. 4:29, "to remain" inserted instead of a comma.)

- (18) 1806, "Standing Fishes" Bible, (Ezek. 47:10, "the fishes shall stand" instead of "fishers")
 - (19) 1807, "Ears to ear" Bible, (Mat. 13:43, "ears to ear" instead of "to hear")
 - (20) 1810, "Wife-Hater" Bible, (Lk. 14:26, "hate not...and his own wife" instead of "life")
 - (21) 1823, "Camels" Bible, (Gen. 24:61, "Rebekah arose, and her camels" instead of "damsels")
 - (22) 1829, "Large Family" Bible, (Isa. 66:9, "not cease to bring to birth" instead of "not cause to bring forth")
 - (23) undated, "Fool" Bible, (Psalm 14:1, "The fool hath said in his heart there is a God" instead of "there is no God.")
18. 1629, Anonymous, The Holy Bible.
 19. 1638, Anonymous, The Holy Bible.
 20. 1657, Theodore Haak, The Dutch Annotations Upon The Whole Bible.
 21. 1709, Edward Wells, An Help For The More Easy And Clear Understanding of The Bible.
 22. 1715, Anonymous, Bible With Annotations.
 23. 1718, Edward Wells, The Common Translation Corrected.
 24. 1724, B. Harris, The Holy Bible...Done Into Verse.
 25. 1749, Richard Challoner, The Holy Bible.
 26. 1762, Anonymous, The Holy Bible.
 27. 1764, Anthony Purver, A New And Literal Translation.
 28. 1766, Anonymous, The Universal Bible.
 29. 1769, Benjamin Blayney, The Holy Bible.
 30. 1773, Henry Southwell, The Universal Family Bible.
 31. 1778, John Fellows, The Bible In Verse.
 32. 1785, Clement Cruttwell, Editor, The Holy Bible.
 33. 1786, Anonymous, The Holy Bible.
 34. 1791, H. Fitzpatrick, Douay-Rhemish Bible...Newly Revised.
 35. 1791, Rev. Bernard MacMahon, The Holy Bible.
 36. 1794, Joseph Butler, The Christian's New...Universal Family Bible.
 37. 1799, Anonymous, A Revised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of The Sacred Scriptures.
 38. 1800, John Kendall, The Holy Scriptures.
 39. 1802, John Reeves, The Holy Bible.
 40. 1808, Charles Thomson, The Holy Bible.
 41. 1811, George Leo Haydock, The Holy Bible.
 42. 1811, Thomas Haydock, The Holy Bible.
 43. 1817, Benjamin Boothroyd, A New Family Bible.

44. 1818, John Bellamy, The Holy Bible.
45. 1822, Rev. Dr. Hamil, The Holy Bible.
46. 1825, Israel Alger, The Pronouncing Bible.
47. 1825, Daniel Murray, The Holy Bible.
48. 1833, Noah Webster, The Holy Bible.
49. 1834, George Townsend, The Holy Bible.
50. 1838, Dr. Denvir, The Holy Bible.
51. 1841, J. T. Conquest, The Holy Bible.
52. 1842, Anonymous, The Holy Bible.
53. 1844, Rev. T. J. Hussey, The Holy Bible.
54. 1847, Charles Roger, A Collation of the Sacred Scriptures.
55. 1848, American Bible Society, The Holy Bible.
56. 1848, James Nourse, The Holy Bible.
57. 1849, Francis Patrick Kenrick, The Holy Bible.
58. 1850, Alexander John Ellis, The Holy Bible.
59. 1850, Josiah Forshall and Sir Fredrick Madden, editors, The Holy Bible.
60. 1852, J. R. Bayley, Editor, The Holy Bible.
61. 1860, Leicester Ambrose Sawyer, The Holy Bible.
62. 1863, Robert Young, The Holy Bible.
63. 1864, Lange's Commentaries, The Scriptures.
64. 1867, Joseph Smith, Jr., Holy Scriptures.
65. 1869, Otis Clapp, The Word of the Lord.
66. 1870, Anonymous, The Holy Bible.
67. 1870, Thomas Newberry, The Englishman's Bible.
68. 1871, Frederick Charles Cook, The Speaker's Commentary.
69. 1876, T. K. Cheyne and others, The Holy Bible.
70. 1876, Julia Evelina Smith, The Holy Bible.
71. 1877, Revised English Bible, Revised English Bible.
72. 1881, English Revised Version, The Holy Bible.
73. 1881, Samuel Sharpe, The Holy Bible.
74. 1884, F. Oakeley and T. G. Law, The Holy Bible.
75. 1885, William Alexander, The Holy Bible.
76. 1890, Isaac Pitman, The Holy Bible.
77. 1895, International Critical Commentary, International Critical Commentary.
78. 1895, Richard Green Moulton, The Modern Reader's Bible.
79. 1897, Joseph Bryant Rotherham, The Emphasised Bible.
80. 1898, American Revised Version, The Holy Bible.
81. 1899, Frank Schell Ballantine, The Modern American Bible.
82. 1899, Murphy Bible, Holy Bible.
83. 1901, American Standard Version, The Holy Bible.

84. 1901, Ferrar Fenton, The Bible In Modern English.
85. 1902, Frank Schell Ballentine, The American Bible.
86. 1903, Anonymous, The Holy Bible.
87. 1903, F. H. Scrivener, The English Bible.
88. 1904, Isaac Pitman, The Holy Bible.
89. 1911, Anonymous, The 1911 Tercentenary Commemoration Bible.
90. 1913, American Baptist Publication Society, The Holy Bible.
91. 1913, Westminster Version, The Westminster Version of The Bible.
92. 1926, Master Library, The Master Library By Walter Scott.
93. 1926, James Moffatt, The Holy Bible.
94. 1929, Charles Maclean, A Homiletical And Exegetical Version of The Bible.
95. 1931, Edgar J. Goodspeed and J. M. Powis Smith, The Bible, An American Translation.
96. 1933, Charles K. Ogden, The Bible In Basic English.
97. 1935, James Moffatt, A New Translation of The Bible.
98. 1939, John Nelson Darby, The Holy Scriptures.
99. 1948, Anonymous, The Holy Bible.
100. 1949, Anonymous, The Bible In Basic English.
101. 1950, Watchtower Bible & Tract Society, The New World Translation of The Holy Scriptures.
102. 1952, Revised Standard Version, The Holy Bible.
103. 1956, Anonymous, The Holy Bible.
104. 1957, George M. Lamsa, The Holy Bible From Ancient Eastern Manuscripts.
105. 1959, Berkeley Version, The Holy Bible, The Berkeley Version In Modern English.
106. 1960, New American Standard Bible, The New American Standard Bible.
107. 1961, New English Bible, The New English Bible.
108. 1962, Anonymous, Modern King James Version.
109. 1962, Kenneth N. Taylor, The Living Bible Paraphrased.
110. 1963, A. B. Traina, The Holy Name Bible.
111. 1964, Anchor Bible, Anchor Bible.
112. 1965, Amplified Bible, Amplified Bible.
113. 1966, Jerusalem Bible, The Jerusalem Bible.
114. 1967, New Scofield Reference Bible, The New Scofield Reference Bible.
115. 1969, Anonymous, The Bible Reader, and Interfaith Interpretation.
116. 1969, New International Version, New International Version.
117. 1970, Anonymous, The Restoration of Original Sacred Name Bible.
118. 1970, New American Bible, The New American Bible.
119. 1971, Anonymous, King James II Version of The Bible.
120. 1972, Steven T. Byington, The Bible In Living English.

121. 1973, Common Bible, The Holy Bible: Revised Standard Version.
122. 1976, Anonymous, Holy Bible, Today's English Version.
123. 1976, William F. Beck, The Holy Bible In The Language of Today, An American Translation.
124. 1976, Jay Green, General Editor And Translator, The Interlinear Hebrew/Greek English Bible.
125. 1977, Anonymous, The Psalms, A New Translation for Worship.
126. 1979, New King James Bible, The New King James Bible.
127. 1981, Anonymous, The Sacred Scriptures, Bethel Edition.
128. 1982, Word Biblical Commentary, Word Biblical Commentary.
129. 1983, Open Bible, Holy Bible.
130. 1987, Anonymous, The Holy Bible: English Version For The Deaf.
131. 1988, Anonymous, Christian Community Bible Translation.
132. 1989, Revised English Bible, The Revised English Bible With The Apocrypha.
133. 1990, Anonymous, The Holy Bible, Simplified Living Bible.
134. 1990, New Revised Standard Version, Holy Bible.
135. 1991, Anonymous, The Bible For Today's Family (N.T.—O.T. due in 1996).

캠벌린의 목록 52-70쪽에는 여기 나온 135개의 '성경전서' 외에도 99개의 '요약판 성경'이 수록되어 있다.

2. 영어 신약 성경전서의 연대기별 목록(612년, 1380-1991)

목록은 되도록 간략하게 만들었다. 해당 년도, 저자 혹은 편집자는 확인된 경우만 표시되며 타이틀도 줄여서 표시될 것이다.

1. UNDATED, Anonymous, Classic Interlinear Translations, The Greek English New Testament.
2. UNDATED, Philip W. Comfort and Robert K. Brown, The New Greek-English Interlinear New Testament.
3. UNDATED, Cook, New Testament, Plain Translation By A Student.
4. UNDATED, Robert Gordon, New Testament.
5. UNDATED, Samuel P. Linn, editor, The New Testament.
6. UNDATED, Luther A. Weigle, editor, The New Testament Octapla.
7. 1380, John Wycliffe, The New Testament.
8. 1525, William Tyndale, The New Testament. At Worms.
9. 1525, William Tyndale, The New Testament. At Cologne.
10. 1534, George Joye, The New Testament.
11. 1534, William Tyndale, The Newe Testament. At Antwerp.
12. 1535, George Joye, The New Testament In Tyndale's Version.
13. 1535, William Tyndale, The Newe Testament Yet Once Agayne. Corrected By Willyam Tindale.

14. 1538, Myles Coverdale, The New Testament.
15. 1538, Myles Coverdale, The New Testament Both In Latine And Englyshe.
16. 1538, Johan Hollybushe, The Newe Testament Both In Latine And Englyshe.
17. 1538, Thomas Matthew, The Newe Testament.
18. 1539, Richard Taverner, The Newe Testament in Englyshe.
19. 1540, R. Grafton and E. Whitchurch, New Testament.
20. 1548, William Tyndale, The Newe Testament.
21. 1549, Anonymous, The First Tome Or Volume of The Paraphrase of Erasmus vpon the Newe Testamente.
22. 1549, Myles Coverdale, The Newe Testament.
23. 1552, Richard Jugge, The Newe Testament.
24. 1557, William Whittingham, The Nevve Testament.
25. 1576, Laurence Tomson, The New Testament.
26. 1589, William Fulke, The Text of the New Testament.
27. 1599, Anonymous, New Testament, English and 11 Other Languages.
28. 1602, Geneva-Tomson-Junius New Testament, The New Testament.
29. 1653, Henry Hammond, A Paraphrase, and Annotations Upon All the Books of the New Testament.
30. 1685, Richard Baxter, A Paraphrase on the New Testament.
31. 1701, William Lloyd, The Holy Bible.
32. 1703, Daniel Whitby, Paraphrase And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33. 1719, Cornelius Nary, The New Testament.
34. 1729, Anonymous, The New Testament In Greek and English.
35. 1730, Anonymous, Annotations On The New Testament.
36. 1730, William Webster, The New Testament.
37. 1731, John Lewis, The New Testament.
38. 1736, John Lindsey, A Critical And Practic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39. 1738, Anonymous, The New Testament.
40. 1739, Philip Doddridge, The New Testament With Paraphrase And Notes.
41. 1739, John Guyse, An Exposition of The New Testament, In The Form of A Paraphrase.
42. 1745, William Whiston, Mr. Whiston's Primitive New Testament.
43. 1755, John Wesley, Explanatory Notes On The New Testament By John Wesley.
44. 1764, Richard Wynne, The New Testament.
45. 1765, Anonymous, A New Translation of The New Testament.
46. 1765, Samuel Clarke and Thomas Pyle, New Testament.
47. 1768, Edward Harwood, A Liberal Translation of the New Testament; Being An Attempt To Translate The Sacred Writings With The Same

Freedom, Spirit, and Elegance, With Which Other English Translations
From The Greek Classics Have Lately Been Executed.

48. 1770, John Worsley, The New Testament.
49. 1774, James Ashton, The New Testament.
50. 1783, John Barclay, The Experience And Example of The Lord Jesus Christ.
51. 1783, Carpenter, New Testament.
52. 1783, Rev. Bernard MacMahon, The New Testament.
53. 1790, William Gilpin, An Exposition of The New Testament.
54. 1791, Gilbert Wakefield, A Translation of The New Testament.
55. 1792, Anonymous, The New Testament.
56. 1795, Thomas Haweis, A Translation of The New Testament.
57. 1796, William Newcome, The New Covenant.
58. 1796, Nathaniel Scarlett, A Translation of The New Testament.
59. 1807, S. Palmer, The New Testament.
60. 1808, Anonymous, The New Testament.
61. 1810, Henry Harvey Baber, New Testament.
62. 1812, Anonymous, A Modern, Correct, and Close Translation of The New Testament.
63. 1812, Anonymous, The New Testament.
64. 1813, Rev. John McDonald, The New Testament.
65. 1815, Anonymous, The New Testament.
66. 1816, William Thompson, The New Testament.
67. 1818, Rev. M. Horrabin, The New Testament.
68. 1822, Israel Alger, The New Testament.
69. 1823, Abner Kneeland, The New Testament.
70. 1824, Anonymous, The New Testament.
71. 1824, Elizabeth Jones, The New Testament; Syriac, Arabic and English Interlineary.
72. 1825, George Townsend, The New Testament, Arranged In Chronological & Historical Order.
73. 1826, Alexander Campbell, The Sacred Writings of The Apostles And Evangelists.
74. 1827, J. A. Cummings, New Testament.
75. 1827, James Nourse, The New Testament.
76. 1828, Anonymous, The New Testament.
77. 1828, Alexander Greaves, Gospel of God's Anointed.
78. 1831, John Bird Summer, A Practical Exposition of the New Testament.
79. 1833, Rodolphus Dickinson, A New And Corrected Version of the New Testament.
80. 1833, William Lyon MacKenzie, The Productions of the Evangelists and

Apostles.

81. 1834, Anonymous, The New Testament.
82. 1835, J. M. Caldecott, The Holy Writings of the First Christians.
83. 1836, Granville Penn, The Book of the New Covenant.
84. 1837, Edward Cardwell, The New Testament In Greek And English.
85. 1837, J. P. Dabney, The New Testament.
86. 1838, George Croft Cell, Explanatory Notes On The New Testament.
87. 1840, Anonymous, The New Testament.
88. 1840, Samuel Sharpe, The New Testament.
89. 1841, English Hexapla, English Hexapla.
90. 1842, Herman Heinfetter, The New Testament.
91. 1843, Sir John Clarke, The New Testament.
92. 1843, J. W. Etheridge, The New Testament.
93. 1845, George Campbell and J. MacKnight, The New Testament.
94. 1847, Anonymous, The Holy Bible.
95. 1848, A. Komstok, The New Testament.
96. 1848, Jonathan Morgan, The New Testament.
97. 1849, Anonymous, The Good News of Our Lord Jesus Christ.
98. 1850, Anonymous, The New Testament.
99. 1850, Spencer H. Cone and William R. Wyckoff, editors, The Commonly Received Version of the New Testament...With Several Hundred Emendations.
100. 1850, James McMahan, The New Testament.
101. 1851, Clement Moody, The New Testament Expounded.
102. 1851, James Murdock, The New Testament.
103. 1852, John Taylor, The Emphatic New Testament.
104. 1855, Anonymous, The New Testament.
105. 1857, Jotham Albrecht Bengel, English Translation of The New Testament.
106. 1857, J. A. Giles, The New Testament.
107. 1858, Leicester Ambrose Sawyer, The New Testament.
108. 1861, Anonymous, The New Testament.
109. 1861, William Kelly, New Testament.
110. 1862, American Bible Union, The New Testament.
111. 1862, Rev. B. Highton, A Revised Translation of the New Testament.
112. 1863, Henry Alford, The New Testament For English Readers.
113. 1864, Henry Tompkins Anderson, The New Testament.
114. 1864, Anonymous, The New Testament...In Phonetic Spelling.
115. 1864, Benjamin Wilson, The Emphatic Diaglott.
116. 1865, Thomas Sheldon Green, The Twofold New Testament.
117. 1868, Joseph Bryant Rotherham, The New Testament.

118. 1869, Rev. Robert Ainslie, The New Testament.
119. 1869, Henry Alford, The New Testament.
120. 1869, George R. Noyes, The New Testament.
121. 1870, Anonymous, A Critical English New Testament.
122. 1870, John Bowes, The New Testament.
123. 1871, Edward Arber, editor, William Tyndale, New Testament.
124. 1871, John Nelson Darby, The New Testament.
125. 1875, Samuel Davidson, The New Testament.
126. 1877, Anonymous, The Englishman's Greek New Testament.
127. 1877, W. L. Blackley and James Hawes, editors, The Critical English Testament.
128. 1877, John August Richter, The New Testament.
129. 1881, American Revised Version, The New Testament.
130. 1881, R. L. Clarke and others, editors, The Variorum Edition of the New Testament.
131. 1881, English Revised Version, The New Testament.
132. 1881, Isaac H. Hall, The Revised New Testament.
133. 1881, Constantine Tischendorf, The Sinai And Comparative New Testament.
134. 1881, Samuel Williams, The New Testament.
135. 1882, Daniel Curry, The New Testament.
136. 1883, John Wesley Hanson, The New Covenant.
137. 1883, Cortes Jackson, The New Testament.
138. 1885, American Baptist Publication Society, The New Testament.
139. 1885, W. D. Dillard, The New Testament.
140. 1886, Isaac Pitman, The New Testament.
141. 1891, Leicester Ambrose Sawyer, The New Testament.
142. 1892, Anonymous, The New Testament.
143. 1895, Ferrar Fenton, The New Testament.
144. 1896, W. Stevens, The New Testament, Authorised Version, Written In Orthic Shorthand.
145. 1896, H. Vaughan, The New Testament.
146. 1897, George Ricker Berry, The Interlinear Literal Translation of the Greek New Testament.
147. 1897, Horace E. Morrow, The New Testament Emphasized.
148. 1898, Anonymous, The Twentieth Century New Testament.
149. 1898, G. W. Horner, The Coptic Version of the New Testament.
150. 1901, American Standard Version, The New Covenant.
151. 1901, James Moffatt, The Historical New Testament.
152. 1901, Murdoch Nisbet, The New Testament In Scots.
153. 1901, William Wye Smith, The New Testament In Braid Scots.

154. 1902, Anonymous, The "Revised English" New Testament.
155. 1902, James Cooper and A. J. MacLean, The Testament of our Lord.
156. 1902, W. B. Godbey, Translation of the New Testament.
157. 1903, Richard Francis Weymouth, The Modern Speech New Testament.
158. 1904, Samuel Lloyd and George Washington Moon, editors, The Authorize
d...In "Revised English."
159. 1904, Adolphus S. Worrell, The New Testament.
160. 1906, Anonymous, The New Testament.
161. 1906, Thomas M. Lindsey, The New Testament.
162. 1907, Robert Young, The Book of the New Covenant.
163. 1909, Anonymous, The Bible In Modern English.
164. 1909, Anonymous, Evolutionary Edition of the New Testament, Translated
By An Evolutionist.
165. 1909, Ernest Hampdon-Cook, New Testament.
166. 1909, S. Townsend Weaver, The University New Testament.
167. 1911, G. W. Horner, The Coptic Version of the New Testament.
168. 1913, Sir Edward George Clarke, The New Testament.
169. 1913, W. L. Courtney, The Literary Man's New Testament.
170. 1913, James Moffatt, The New Testament.
171. 1914, Edward Ernest Cunnington, The New Covenant.
172. 1914, Ivan Panin, The New Testament From The Greek Text As Established
By Bible Numerics.
173. 1915, Leighton Pullan, Oxford Church Bible Commentary.
174. 1915, S. Townsend Weaver, The Greatest Book Ever Written.
175. 1917, Johannes Rudolph Lauritzen, The New Testament.
176. 1917, James Moffatt, The New Testament.
177. 1918, Henry Tompkins Anderson, The New Testament.
178. 1921, Anonymous, A Plain Translation of the New Testament.
179. 1922, Frank Schell Ballantine, A Plainer Bible For Plain People In Plain
America.
180. 1923, William G. Ballantine, The Riverside New Testament.
181. 1923, Edgar J. Goodspeed, The New Testament.
182. 1924, H. T. Andrews, The New Testament In Modern Speech.
183. 1924, Anonymous, The New Covenant.
184. 1924, S. W. Green, New Testament.
185. 1924, Helen Barrett Montgomery, Centenary Translation of the New
Testament.
186. 1924, Several Well-Known New Testament Scholars, New Testament.
187. 1925, Arthur E. Overbury, The People's New Covenant.
188. 1926, Concordant Version, Concordant Version.

189. 1927, Isaac Pitman, The New Testament.
190. 1928, A. Hamilton, The Student's Greek Testament.
191. 1929, George N. LeFevre, The Christian's Bible.
192. 1929, William Wallace Martin, The New Testament.
193. 1929, James Alexander Robertson, New Testament.
194. 1929, George W. Wolff, The New Testament In Blank Verse.
195. 1931, R. C. H. Lenski, A New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196. 1932, Frank Schell Ballantine, Our God And Godhealth, Our Healer.
197. 1934, Montague Rhodes James and Delia Lyttelton, The Aldine Bible.
198. 1934, G. Woosung Wade, The Documents of the New Testament.
199. 1935, James A. Carey, New Testament.
200. 1937, Fr. Charles Jerome Callan, editor, The New Testament.
201. 1937, Johannes Greber, The New Testament.
202. 1937, Francis Aloysius Spencer, The New Testament.
203. 1937, Charles B. Williams, The New Testament.
204. 1938, Anonymous, The Book of Books.
205. 1938, Edgar Lewis Clementson, The New Testament.
206. 1938, N. Hardy Willis, editor, The New Testament.
207. 1939, Zed Hopeful Copp, The Book of Life.
208. 1940, George M. Lamsa, The New Testament.
209. 1941, Anonymous, The New Testament In Basic English.
210. 1941, Anonymous, The New Testament.
211. 1943, Ervin Edward Stringfellow, The New Testament.
212. 1944, Anonymous, The Beginnings of The Way.
213. 1944, Anonymous, The New Testament.
214. 1945, Berkeley Version, Berkeley Version of The New Testament.
215. 1946, Revised Standard Version, The New Covenant.
216. 1947, J. P. Arendzen, New Testament.
217. 1947, J. B. Phillips, The New Testament In Modern English.
218. 1947, George Swann, New Testament.
219. 1948, Thomas Francis Ford and Ralph Ewart Ford, The New Testament.
220. 1949, Albert George Alexander, Interpretation of The Entire New Testament.
221. 1950, Anonymous, The New Testament.
222. 1951, Anonymous, The New Testament.
223. 1951, Olaf Morgan Norlie, The New Testament.
224. 1952, Charles Kingsley Williams, The New Testament.
225. 1953, William Barclay, The Daily Study Bible.
226. 1953, George Albert Moore, The New Testament.
227. 1954, Morton C. Bradley, Jr., The New Testament In Cadenced Form.
228. 1954, James A. Kleist and Joseph L. Lilly, The New Testament.

229. 1955, F. G. Parker, The Clarified New Testament.
230. 1955, Hugh J. Schonfield, The Authentic New Testament.
231. 1956, Kenneth S. Wuest, Wuest's Expanded Translation of the Greek New Testament.
232. 1957, Adam and Charles Black, Black's New Testament Commentaries.
233. 1958, Amplified New Testament, Amplified New Testament.
234. 1958, British and Foreign Bible Society, A Diaglot New Testament For Use of Translators.
235. 1958, Harper's New Testament Commentaries, Harper's New Testament Commentaries.
236. 1958, Ashley S. Johnson, The Self-Interpreting New Testament.
237. 1958, Alfred Marshall, The Interlinear Greek-English New Testament.
238. 1958, James L. Tomanek, The New Testament.
239. 1958, Translation For Translators, The New Testament: A Translation For Translators.
240. 1959, John W. Fraser, Calvin's New Testament Commentaries.
241. 1959,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N.T.,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N.T.
242. 1960, Vincent T. Roth, A Critical Emphatic Paraphrase of The New Testament.
243. 1961, John J. Heenan and others, The New Testament.
244. 1961, New English Bible, The New English Bible.
245. 1961, Metropolitan Fan S. Noli, The New Testament.
246. 1961, Olaf Morgan Norlie, Simplified New Testament In Plain English.
247. 1962, Dr. Dymond, New Testament.
248. 1962, Emil G. Kraeling, Clarified New Testament.
249. 1962, Richmond Lattimore, The New Testament.
250. 1963, William F. Beck, The New Testament In the Language of Today.
251. 1963, New American Standard Version, New Testament.
252. 1966, Anonymous, Today's English Version of the New Testament.
253. 1966, Anonymous, The Living Scriptures.
254. 1966, Jerusalem Bible, The New Testament.
255. 1966, C. S. Lovett, The Personal New Testament.
256. 1967, Edward J. Craddock, The Christ Emphasis New Testament.
257. 1967, Don J. Klingensmith, The New Testament.
258. 1967, Kenneth Taylor, The Living New Testament.
259. 1968, Anonymous, The New Testament of Our Master.
260. 1968, William Barclay, The New Testament.
261. 1969, Annie Crassman, Good News For The World.
262. 1969, Gleason H. Ledyard, The New Life New Testament.
263. 1969, Watchtower Bible and Tract Society, The Kingdom Interlinear

Translation of the Greek Scriptures.

264. 1970, Anonymous, King James II Version of the New Testament.
265. 1970, Anonymous, New Testament.
266. 1972, Anonymous, King James Version New Testament—Twentieth Century Edition.
267. 1973, Don J. Klingensmith, Today's English New Testament.
268. 1973, Chester Estes, The Better Version of the New Testament.
269. 1973, New International Version, The New Testament.
270. 1973, Translator's N.T., The Translator's New Testament.
271. 1975, Christianity Today, The Greek-English New Testament.
272. 1976, Randolph O. Yeager, The Renaissance New Testament.
273. 1977, Jay E. Adams, The Christian Counselor's New Testament.
274. 1978, Anonymous, The Simple English Bible.
275. 1978, Anonymous, The New Testament: English Version for the Deaf.
276. 1978, Anonymous, International Children's Version.
277. 1979, John L. Abbott, New Testament: Judgment Hour Version.
278. 1979, Jay E. Adams, The New Testament In Everyday English.
279. 1980, Roy Greenhill, The Distilled Bible.
280. 1981, Anonymous, The Compact Bible.
281. 1981, Anonymous, May Your Name Be Inscribed in the Book of Life.
282. 1983, William Loughton Lorimer, The New Testament In Scots.
283. 1984, Julian G. Anderson, A New Accurate Translation.
284. 1984, New Century Version, The Word.
285. 1985, Hugh J. Schonfield, The Original New Testament.
286. 1985, Lee Witness, John C. Ingalis, and others, The Recovery Version.
287. 1986, Lowell Hagan and Jack Westerhof, Theirs Is The Kingdom New Testament.
288. 1987, Anonymous, The New American Bible.
289. 1988, Phillip B. Giessler, God's Word To The Nations.
290. 1989, Hugo McCord, New Testament.
291. 1989, Heinz W. Cassirer, God's New Covenant.
292. 1989, John Wesley Sawyer, The New Testament.
293. 1989, David H. Stern, Jewish New Testament.

캠벌린의 목록 594-597쪽에는 여기 나온 293개의 '신약 성경전서' 외에도 23개의 '요약판 신약 성경'이 수록되어 있다.

3. 성경전서와 신약 성경전서의 출간 빈도 분석

a. 성경전서의 출간 빈도

성경전서의 연대 목록을 토대로 세기별로 출판된 성경전서의 수를 다음의 표로 요약해

보았다. 이 표에는 새 성경들의 출판 간격도 포함되어 있다. 이 기록은 1388년에서 1991년까지 604년의 기간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우리가 주목할 점은 1952년 개역표준역(RSV)이 출간된 시점부터 1991년까지(40년) 34권의 새로운 성경전서가 나왔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1.1년에 한 번꼴로 성경전서가 새로 나왔다는 뜻이다. 여기서 우리는 20세기 후반세기 동안 성경 출간 빈도가 현저히 늘어났음을 볼 수 있다.

<성경전서 출간 빈도>

연도	새 성경전서	성경 출판 간격(년)
연도 없음	1	—
1300년도	3	33.3
1400년도	0	100
1500년도	11	9
1600년도	5	20
1700년도	17	5.8
1800년도	45	2.2
1900년도	53	1.9
1300-1900년도	135	4.4년

b. 신약 성경전서의 출간 빈도

신약 성경전서의 연대기별 목록을 토대로 세기별로 출판된 신약 성경전서의 수를 아래의 표로 요약해 보았다. 이 표에는 새 신약 성경들의 출판 간격도 포함되어 있다. 이 기록은 1380년에서 1991년까지 612년의 기간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신약전서 출간 빈도>

연도	새 신약전서	성경 출판 간격(년)
연도 없음	6	—
1300년도	1	99
1400년도	0	100
1500년도	20	5
1600년도	3	33.3
1700년도	29	3.4
1800년도	90	1.1
1900년도	144	0.69
1300-1900년도	293	2.1년

1952년의 개역표준역(RSV)이 출간된 시점부터 1991년까지(40년) 70권의 새 신약 성경전서가 나왔다는 사실을 주목해 보자. 이것은 0.57년에 한 번꼴로 신약 성경이 새로 나왔다는 뜻이다. 여기서 우리는 20세기 후반세기 동안 신약 성경 출간 빈도가 현저히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c. 성경전서와 신약 성경전서를 합친 출간 빈도

위의 두 개의 표를 종합해 보았다. 기간은 1380년부터 1991년까지 612년이다.

<성경전서 및 신약전서 출간 빈도>

연도	새 성경/신약전서	성경 출판 간격(년)
연도 없음	7	—
1300년도	4	25
1400년도	0	100
1500년도	31	3.2
1600년도	8	12.5
1700년도	46	2.1
1800년도	135	0.74
1900년도	197	0.51
1300-1900년도	428	1.4년

4. 새 성경전서 혹은 새 신약 성경전서 출판의 필요성에 대한 결론

1380년에서 1991년의 612년 동안 시대별로 얼마나 많은 성경전서와 신약 성경전서가 나왔는지 보았는가? 한마디로 부족함이 없다. 지난 612년 동안 총 135개의 성경전서와 293개의 신약 성경전서가 출간되었다. 즉 총 428개의 책이 성경전서 혹은 신약 성경전서라는 이름을 가지고 출간된 것이다. 이제껏 영어권에는 성경이라는 이름을 가진 문서들이 차고 넘쳤다.

따라서 더 이상 새로운 성경전서나 신약 성경전서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다면 BIBLE FOR TODAY가 준비한 「The Defined King James Bible」 정도가 되겠다. 이 성경은 12포인트의 큰 글씨로 되어 읽기가 편하다. 이 성경의 본문은 킹제임스 성경이고 본문상 어떤 변화도 없이 단어 하나하나를 그대로 담고 있다. 거기에 흔히 쓰이지 않거나, 의미 변화의 여지가 있거나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의 뜻을 간략하지만 정확하게 각주에 수록했다. 1611년 이후로 그 의미가 바뀐 단어들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람들도 있다. 사실 이런 단어들은 성경 전체에서 500-600개에 불과하다. 「The Defined King James Bible」 각주에는 이런 단어들의 의미가 간략히 나와 있다. 따라서 이런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성경전서나 신약 성경전서가 아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어로 된 최고의 번역 성경인 킹제임스 성경이 담고 있는 진리를 이해하고 그 진리로 살며 그 진리를 실천하는 것이다.

부록 C

하나님께서 영어로 온전히 보존해 주신 킹제임스 성경을 변호하는 것과 관련된 질의응답

1. 활자로 만들어지기 전에 사용되었던 그리스어 본문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질문: 베자 본문이 나온 시기가 1598년인데 그 전에는 어떤 본문이 사용되었는가?

답변: 베껴 쓴(필사한) 사본들이 사용되었다. 당시 사본들은 활자로 인쇄되지 않고 손으로 기록되었다. 최초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기록으로부터 시작하여 계속 손에서 손으로 사본들이 필사되어 이어져 왔다. 공인 본문이 최초로 활자화된 것은 1516년의 에라스무스 본문이다. 영국의 ‘트리니테리언 성경공회’에서 나온 그리스어 신약 성경 서문에 이 본문의 역사가 나와 있다. 거기에는 에라스무스가 1516년에 이 본문을 인쇄했다고 나와 있다. 에라스무스는 로마 카톨릭교도였다. 그래서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종종 이같이 말한다. “음, 에라스무스가 카톨릭교도였으므로 그의 본문도 받아들이 수 없어.” 그들은 또 에라스무스가 휴머니스트(인문주의자)였던 점을 문제 삼는다. 물론 그는 휴머니스트였다. 하지만 그는 오늘날처럼 세속적인 휴머니즘을 따르는 그런 휴머니스트가 아니었다. 에라스무스는 성경을 믿었다. 그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었다. 그는 사람들이 당시 널리 퍼져 있던 라틴 별게이트뿐만 아니라 본래 그리스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길 원했다. 당시 에라스무스는 유럽 대륙에서 가장 훌륭한 그리스어 학자였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찾아 스승으로 삼고 싶어 할 정도였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에라스무스 밑에서 그리스어를 배웠다. 에라스무스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그리스어 발음 표기를 만든 사람이기도 하다.

1516년 에라스무스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 초판이 출판되었다. 에라스무스 판에는 여러 종류가 있었다. 마르틴 루터는 독일 성경을 번역할 때 이 에라스무스판 중 하나를 사용했다. 한편 히메네스(Ximenes) 추기경이 편집해서 스페인 아칼란에서 출판된 ‘킴플루텐시안 폴리글롯’이라는 것이 있었다. 이 책이 ‘폴리글롯’, 즉 ‘다국어본’으로 명명된 이유는 말 그대로 그리스어와 함께 다른 여러 나라 언어로 성경이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1514년에 출판되었지만 1522년이 되어서야 보급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사실상 최초로 인쇄된 그리스어 신약 성경은 이 킴플루텐시안 폴리글롯이라고 볼 수 있다. 에라스무스판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은 1516년에 나왔다. 일단 인쇄기가 사용되기 시작하자 인쇄본들은 거의 동일한 상태로 나오게 되었다. 왜냐하면 식자로 판을 찍어 냈기 때문이다. 그 전에는 모두 손으로 베껴 써야 했다.

2. 교회들은 신약 성경전서를 가지고 있었나요?

질문: 초대 교회는 신약 성경 전체를 가지고 있었는가? 아니면 일부분만을 가지고 있었는가? 각 교회는 자기들만의 완성된 사본을 가지고 있었는가?

답변: 초대 교회가 처음부터 신약 성경 전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전체를 갖게 되었다고 본다. 현재 우리 손에 있는 사본들 중에는 부분적

인 것도 있고 조금 더 완성된 형태의 것도 있다. 가령 바티칸 사본(B)과 시내 사본(Aleph) 같은 경우 거의 신약 성경 전체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다만 B 사본, 즉 웨스트코트와 호르트가 그토록 떠받들었던 바티칸 사본은 몇 군데가 빠져 있다. 스크리브너(Frederick H. A. Scrivener) 박사는 자신의 「알기 쉬운 신약 성경 본문 비평학 입문」(*Plain Introduction to New Testament Textual Criticism*) 제4판에서 B사본(바티칸 사본)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신약 성경은 히브리서 9장 14절까지 완성된 상태이다. 히브리서의 나머지 부분(일반 서신서는 사도행전 다음에 있었다, 원서 74쪽 참조)과 계시록은 훗날 기록되었다. [스크리브너의 책, 106쪽] 이 책은 920쪽의 두 권으로 되어 있다[B.F.T #1285].

적은 수였지만 신약 성경의 책들을 거의 갖춘 사본도 있었다. 이것을 볼 때 초대 교회 시대에 신약 성경 전체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모두들 신약 성경전서를 갖고 싶어 했겠지만 가격이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AD 325년 니케아 공회에서는 교회가 따라야 할 성경을 확정하는 일이 있었다. 물론 여기서 위경도 가려 내었다. 확신하건대 그런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완성된 그리스어 신약 성경전서가 있어야 했다. 당시 신약 성경의 모든 책이 들어 있는 필사본을 살 여유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 그들의 손에 있던 것은 쪽 성경, 가령 복음서 하나 정도였다. 어쨌든 필사는 신약 성경전서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3. 현재 웨스트코트/호르트 본문 말고 공인 본문을 사용하는 학교가 있습니까?

질문: 현재 공인 본문을 가르치는 대학이나 신학교가 있는가? 아니면 모두 웨스트코트/호르트의 본문만을 사용하는가?

답변: 공인 본문을 쓰는 학교가 있긴 하다. 플로리다주 잭슨빌의 로버트 그레이 스쿨은 킹제임스 성경과 공인 본문을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하이오주 매실론에서 쿠몬스(Bruce Cummons)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학교가 있는데 그는 공인 본문을 중시한다. 또 다른 학교로는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에 있는 Heritage Baptist University가 있다. 데니스(Russell Dennis) 박사가 여기의 학장으로 있다. 그는 현재 브래닌(Clinton Branine) 박사와 함께 일하고 있다.

이렇게 일관된 입장을 표방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양면성을 지닌 학교들도 있다. 이곳에서는 설교는 오로지 킹제임스 성경으로 하지만 그리스어 성경은 웨스트코트/호르트의 본문으로 가르친다. 밥 존스 대학교가 대표적이다.

공인 본문을 한동안 쓰다가 다시 웨스트코트/호르트 본문으로 돌아간 대학들도 있다. 위스콘신주, 워터타운에 있는 마라나타 침례 대학을 예로 들겠다. 세다홀름(Cedarholm) 박사가 학장으로 있을 때 나는 이 대학에서 서너 번 강연을 한 적이 있다. 그는 공인 본문을 믿는 사람이었다. 하루는 그가 공인 본문의 우수성에 대해 학생들에게 말해 달라고 나를 강연으로 초청했다. 물론 나는 흔쾌히 응했다. 얼마 후 이 대학은 새로운 학장을 맞이하게 되었다. 새 학장은 이전 학장과 정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결국 이 학교는 공인 본문에서 돌아서게 되었다. 그곳의 딘 버건 협회 학생회가 해체된 이유도 회장이 공인 본문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더 이상 학교에서 공인 본문을 쓰지 않는다. 대신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본문을 사용한다. 공인 본문으로 시작한 출발은

놀랍고 신선했지만 몇 년이 지나지 않아 그들은 다시 옛 노선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버지니아주, 버지니아비치에 있는 Tabernacle Baptist Bible College의 부속 신학교도 공인 본문과 킹제임스 성경을 지지하는 입장에 있다. 벨(Rodney Bell) 박사가 거기의 목사로 있고 스트라우스(Thomas Strouse) 박사는 그리스어 교수로 있다. 공인 본문과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또 하나의 학교로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있는 콤포트(Dr. Ronald Comfort) 박사의 학교가 있다. 현재 쿠롤로(James Quorllo) 박사가 여기의 그리스어 학과장으로 재직 중이다.

현재 공공연히 공인 본문을 지지하고 사용하는 학교는 손에 꼽을 정도이다. 나는 신학교와 대학 및 기타 관련 교육 기관에서 이 문제를 담대히 다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목사들이 혼란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혼란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만 알 때는 혼란이 있을 리 없다. 갈등이 없는 이유는 그것이 그들이 아는 전부이기 때문이다. 내가 댈러스 신학교에서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본문을 쓰고 있을 때 나는 그런 갈등과 혼란을 경험하지 못했다. 당시 배우고 있던 것이 내가 아는 전부였기 때문이다. 나는 그리스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열심히 그리스어를 익혔다. 하지만 그러한 증거의 무게를 달아 볼 여력이 없었다. 학교에 다니며 생계를 꾸려 가야 했고 가족을 부양하며 불철주야 공부에 매달렸다. 나중에는 대학원 두 군데를 동시에 다녔다. 담당 교수는 내게 증거의 다른 측면을 보여 주지 않았다. 즉 다른 견해도 있다는 것을 말해 주지 않았던 것이다.

이후 나는 뉴저지주, 케이프메이에 있는 쉘턴 대학에서 화술 및 그리스어 교수로 재직하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샌드라 드보스(Sandra DeVos)라는 여학생이 내게 질문을 하나 던졌다. “교수님, 딘 버건에 대해 들어 보셨나요?” “글쎄, 미안하지만 들어 본 적이 없는데요.” 그녀는 다시 말했다 “아, 제가 요즘 버건의 책 한 권을 읽고 있거든요.” 그 책이 바로 「개정판의 개정」(*Revision Revised*)이었다. 그것은 BIBLE FOR TODAY가 재출간한 591쪽짜리 책이다. 그것은 1881년도의 영어개역성경(English Revised Version)과 그것의 기초가 되는 웨스트코트/호르트의 본문을 주의 깊고 정확하게 비판한 책으로 상당히 훌륭한 연구서이다[B.F.T #611]. 그녀는 말했다. “버건은 킹제임스 성경의 기초가 되는 공인 본문을 가장 좋은 본문으로 믿고 있더라고요.” 나는 대답했다. “흥미 있는 사실이네요.” 그 시점부터 나는 이 문제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사실 그 학생이 내게 말해 주기 전까지 나는 그런 사람이나 혹은 그런 주장이 있었는지 알지 못했다. 당시 나는 장모가 될 분으로부터 「하나님께서서는 한 가지 성경만 쓰셨다」(*God Wrote Only One Bible*)라는 책을 받았지만 읽어 보지는 않은 상태였다. 따라서 좋은 자료들을 사람들에게 보급하고 읽도록 독려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4. 오늘날 어떤 신학교를 선택해야 할까요?

질문: 당신이 지금 다닐 만한 신학교를 선택해야 한다면 어느 곳을 선택하겠는가?

답변: 당신(질문자)이 다니고 있는 교회의 목사는 보스턴 지역에 있는 침례 성경 신학교 출신이다. 이곳은 자매 학교인 성경 침례 대학(미주리주, 스프링필드 소재)과 더불어 공인 본문과 킹제임스 성경을 지지하는 입장에 있다고 들었다. 한때 이 문제에 관한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후로 입장을 확고히 한 상태라고 한다. 그들이 펴낸 학교 안내 책자를 읽다 보면 사실상 킹제임스 성경을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문장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질문에 대한 답으로 돌아가서 내가 추천하는 신학교를 꼽아 보도록 하겠다. 우선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에 있는 Heritage Baptist University를 들 수 있다. 데니스 박사가 학장으로 있는 이곳은 비록 규모는 작지만 다양한 학위를 수여하는 침례 대학이고 무엇보다 킹제임스 성경과 공인 본문을 지지하는 편에 서있다.

필라델피아 성경 대학(Philadelphia College of Bible)은 지금 NIV를 강력하게 밀어 주고 있다. 이 학교는 스코필드 주석과 NIV를 결합(정말 안 어울리는 결합)시킨 장본인이다. 스코필드 박사는 머리말에서 이같이 말했다.

Xi. 충분히 검토해 본 결과 나는 킹제임스 흠정역을 쓰기로 했다. 현재 많은 개역본들이 나왔지만 그 어느 것도 사람들에게 추천할 만한 것은 없다. 지난 27년 동안 대중에게 선보였던 개역본(Revised Version)은 어떤 면에서도 영어권 사람들에게 통용될 만한 성경이 될 것 같지는 않다. [스코필드 주석 성경(1917년판), pp. iii-iv]

스코필드는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번개된 네슬레/알란드 본문에 기초한 미국 표준 역본(ASV, 1901)이나 영어 개역본(ERV, 1881) 혹은 미국개역본(ARV, 1898)을 사용하려 하지 않았다. 부록 B에는 지금까지 공개된 여러 종류의 성경이 소개되어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NIV 본문에 자기 주석을 집어넣고 거기다 내용까지 바꾸었으니 만일 스코필드가 이것을 봤다면 무어라고 했을지 궁금하다. 본문에 변화가 있을 때마다 그들은 이렇게 주석을 달았다. “우리는 시리아 역본(혹은 ‘70인역’ 등)을 따른다.” 이것은 한마디로 수치스러운 일이다. 바로 이 필라델피아 성경 대학 학장이 옥스퍼드 대학의 NIV 출판 개정 위원회에 있었다. 불행한 일이지만 필라델피아 성경 대학은 이 판본을 널리 선전해 왔다.

자, 이제 내가 나온 델러스 신학교에 대해 말해 보겠다. 사실 나는 누구도 이 신학교에는 보내지 않을 것이다. 델러스 신학교는 침례 신학교가 아니다. 또한 침례와 관련한 어떤 교리적인 입장도 취하지 않는다. 물론 지금도 ‘세대주의적’(dispensational) 입장을 취하고 있기는 하지만 설립자나 나의 담당교수인 웨이퍼(Lewis Sperry Chafer) 박사가 가르쳤던 때의 세대주의와는 사뭇 다르다. 델러스 신학교는 급격히 달라지고 있다. 졸업생들은 더 이상 과거처럼 신학교의 교리적 신조를 전부 수용하지 않아도 된다. 그저 필수적인 몇 가지만 받아들이면 그만이다. 이것은 심하게 말하면 신복음주의이다. 델러스 신학교 졸업생들은 곧바로 연합감리교회와 연합장로교회, 미국침례교협의회 등으로 (배도한 그룹을 포함하여 어디든) 들어가 활동한다. 내가 다니던 1948-53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그래서 내가 이곳에는 아무도 보낼 수 없다고 한 것이다. 1992년 9월 월간 무디 잡지(Moody Monthly)에 델러스 신학교에 대한 광고가 이렇게 나왔다.

아십니까? 델러스 신학교 졸업생들은 무려 50개의 다른 교파에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 50개의 교파들을 대략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다.

독립 교회, 자유복음주의,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루터교, 그리고 형제교회 등.

현재 델러스 신학교는 규모가 큰 신학교이다. 그리고 계속 커지고 있다. 심지어 그들은 여자들도 훈련하고 있다. 무엇을 하라고 여자들을 훈련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리고 있다. 언젠가는 델러스 신학교에서 여자 설교자가 배출될지도 모르겠다. 현재 델러스 신학교는 여자 설교자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델러스 신학교를 수료한 여자들이 무엇을 하겠는가? 만일 그들이 여자가 설교할 수 있는 교회에 들어간다면 그들도 설교할 것이다. 델러스 신학교는 여자 설교자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지금 남자 신학생들과 똑같은 내용과 방식으로 여자 신학생들을 훈련하고 있다.

최근에 델러스 신학교에서 교수 한 명이 파면되었고 교사 두 명이 그만 두었다. 이유는 기적과 방언 같은 표적 은사에 관한 이슈 때문이었다. 지면상으로 전화상으로 사건의 내용을 조금 확인해 보았는데 소문과는 달리 그 사람들 모두가 은사 운동에 연루된 것은 아니었다. 델러스 신학교에서 영향력이 있었던 찰스 라이리 박사는 몇 가지 가정/결혼 문제가 불거진 이후 사임했다.

5. 「라이리 스터디 성경」은 어떻습니까?

질문: 라이리 주석 성경에 있는 주석에 대한 당신의 견해를 듣고 싶다.

답변: 라이리 박사는 「오늘날의 세대주의」(*Dispensationalism Today*)를 비롯한 여러 개의 좋은 책들과 자료를 펴 내었다. 특히 「오늘날의 세대주의」는 세대주의에 대한 소개와 아울러 일부 진영에서 표방하는 극단적 세대주의를 반박하고 있다. 이제 라이리의 스터디 성경에 대해 알아보자. 「라이리 스터디 성경」(*Ryrie Study Bible*)에는 NASB판, KJV판, NIV판 이 세 가지가 있다. 하지만 불행히도 라이리는 그중 어떤 역본을 우선시하거나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그저 취향에 따라 선택하면 그만이다. 이것이 내가 첫째로 일러두고 싶은 말이다.

둘째, KJV판 라이리 스터디 성경에서도 상황은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다. 마가복음 16장 9-20절, 즉 ‘마가복음의 마지막 12구절’과 거기에 붙은 각주의 내용을 본 순간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여기서 나는 라이리 스터디 성경이 어떤 책임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물론 이 부분을 제외한다면 별 흠잡을 것이 없는 좋은 주석 성경이 될 것이다. 게다가 저자인 라이리는 훌륭한 성경학자요 학생이다. 그의 배경도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없다. 그는 여러 해 동안 델러스 신학교 대학원 학장으로 있었고 영국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1949년 델러스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또한 라이리는 언변에 능할 뿐 아니라 유익이 될 만한 많은 주석을 써냈다. 하지만 라이리가 본문을 보는 관점과 다루는 방식으로 인해 나는 라이리의 주석 성경을 추천하지 않는다. 마가복음 16장 9-20절에 대해 라이리가 쓴 주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구절들은 가장 믿을 만한 두 개의 신약 성경 사본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즉 이 구절들이 여러 다른 사본들과 역본들에 들어 있다 하더라도 진짜 마가복음의 부분은 아니다. 8절에서 갑자기 끝나는 것이 어색하다 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원본의 맺음말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진실성이 의심스러운 9-20절의 내용을 가지고 어떤 교리를 만든다거나 이것을 기초로 한 경험을 운운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여기서 그는 서론부터 결론까지 모든 것을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버건이 쓴 「마가복음의 마지막 12구절」이란 책에는 이 일에 대한 진실과 증거가 들어 있다. 이 책은 마가복음의 마지막 12구절이 진짜임을 보여 준다[B.F.T #1139]. 자, 분명히 라이리 박사는 버건의 책을 읽어 보지 않아서 이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내가 수년 동안 그랬듯이) 읽어 보았더라도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사실 버전의 책이 출간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위의 라이리 주석에는 몇 가지 심각한 오류가 있다. 만일 그가 “마가복음의 마지막 12구절이 가장 오래된 두 개의 사본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면 정직한 말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다. 이 구절들은 바티칸 사본과 시내 사본에서만 없을 뿐 사실상 다른 모든 마가복음 그리스어 사본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내가 사용하고 있는 「구 스코필드 성경」(*Old Scofield Bible*)의 주석은 전반적으로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본문을 지지한다. 각주와 여백 참조문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맥락에 있는 스코필드 성경이 마가복음 16장 9-20절에 대해선 무어라고 말하는지 확인해 보자. 다음은 스코필드 각주의 내용이다.

9절부터 마지막까지의 구절은 두 개의 가장 오래된 사본, 즉 시내 사본과 바티칸 사본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그 두 개의 사본이 바로 바티칸 사본(B)과 시내 사본(Aleph)이다. 이것은 저자의 견해나 의문을 배제한 바른 언급이다. 이어서 이런 내용이 있다.

다른 사본들에는 이 구절이 부분적으로 빠져 있거나 변형되어 있다. 하지만 2-3세기의 이레니우스와 히포리투스는 이 구절들을 인용했다. [구 스코필드 성경, 1917년판, p. 1,069, 마가복음 16장 9절 하단]

스코필드는 마가복음의 마지막 12구절을 지지하는 증거들을 주석에 포함시켰다. 참고로 이레니우스는 AD 150년경의 사람이고 두 개의 사본, 즉 바티칸 사본과 시내 사본은 AD 350년 혹은 375년경의 것으로 추정된다. 그 시대는 이레니우스 이후 200년이 지난 시점이다. AD 350년까지 존재하지도 않았던 마가복음의 마지막 12구절을 이레니우스는 도대체 어디서 구해 인용했던 말인가? 또 다른 교부들은 어디서 이 구절들을 구했는가? 이것은 바티칸 사본과 시내 사본(B와 Aleph)이 세상에 빛을 보기도 전에 교부들이 마가복음의 마지막 12구절을 인용한 사실을 발견했던 버전의 질문이기도 하다. 교부들은 이 구절들을 왜 인용했겠는가? 간단하다. 원문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 부분만큼은 스코필드 성경의 각주가 정직하게 되어 있다. 물론 이런 토를 달지 않고 스코필드가 이 구절들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더 좋았겠지만 말이다.

스코필드와 달리 라이리는 이 구절들이 ‘가장 믿을 만한 두 개의 사본’에서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NIV판 각주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두 개의 초기 사본에는 마가복음 16장 9-20절이 없다.

이번엔 마가복음 16장 9-20절에 대한 NASB판 각주를 살펴보자.

몇몇 가장 오래된 사본들에는 9절에서 20절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

NASB판 라이리 각주는 NIV판처럼 시내 사본과 바티칸 사본을 ‘가장 믿을 만한’ 사본이라든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본이라고 하지 않았다. 대신 ‘몇몇 가장 오래된 사본’이라고 했는데 틀린 것은 아니지만 애매한 표현이다. 몇몇은 두 개도 가능하고 수십 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치 많은 사본들에서 이 구절이 발견되지 않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 스코필드는 이 두 개의 사본이 ‘가장 오래된’ 사본이라고 했다. 여기에 ‘최고’ 혹은 ‘최악’같은 주관적인 평가는 없다. 그냥 ‘두 개의 가장 오래된 사본’이라고 했을 뿐이다. 스코필드는 마가복음의 열두 구절이 발견되지 않은 사본의 수를 ‘두 개’로 못 박고 시내와 바티칸이라는 사본의 이름까지 거론함으로써 논란의 여지를 없앴다. 이런 면에서 스코필드의 주석이 가장 낮다고 하겠다. 라이리의 각주를 다시 한 번 보자.

두 개의 가장 믿을 만한... 진실성이 의심스러운...

이것은 결국 마가복음의 마지막 열두 구절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거룩한 성경에 남아 있어서는 안 되는 구절이란 말이다.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이 구절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택되지 않는 것이 낮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다. 몇몇 오순절주의자들과 은사주의자들이 이 구절들을 인용하여 ‘뱀 부리기’ 등과 같은 비성경적인 실행들을 옹호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안수, 마귀들을 쫓아냄 등은 정경이 완성된 AD 90년까지 사도들에게 주어진 은사(선물)였다. 사도들에게 이런 은사들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이 후대에 계승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잘못된 은사주의자들의 그릇된 해석과 적용에 있지 구절 자체에 있지 않다. 이제 결론을 말하겠다. 라이리 박사가 많은 부분에서 바른 입장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적어도 성경 본문 문제만큼은 잘못된 것을 가르친다. 이런 이유로 나는 KJV판 「라이리 스터디 성경」을 추천할 수 없다.

6. 뉴스코필드 성경은 어떻습니까?

질문: 뉴스코필드 성경은 어떤가?

답변: 뉴스코필드 성경에 대한 몇 가지 진실을 말해 보겠다. 첫째, 뉴스코필드 성경은 성경에 있는 연대기를 인정하지 않는다. 물론 나는 성경의 연대기가 정확하다고 믿는다. 다른 모든 부분이 정확한 것처럼 말이다. 창세기 5장과 10장에 언급된 족장들의 연수를 더하면 하나의 성경 연대기가 완성 된다. 구 스코필드 성경에 있는 어셔(Usher)의 연대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만들어진 성경 연대기는 BC 4004년에서 시작된다. 이것이 가장 널리 수용되는 성경적 연대기이다.

링컨(Charles Fred Lincoln) 박사의 주석을 토대로 내가 완성한 연구 논문 하나가 있다[B.F.T #9]. 옛 델러스 신학교의 신학생 시절 나는 그에게서 이 내용을 배웠다. 특히 ‘언약과 경륜’(Covenant and Dispensations)이라는 강좌가 있었는데 거기서 링컨 박사는 베로이스(Berois)와 앤스티(Martin Anstey)의 「성경 연대기의 로맨스」(*The Romance of Bible Chronology*)를 인용했다. 그는 창세기 5장과 10장의 마소라 본문은 정확하며 ‘70인역’은 그렇지 않다고 가르쳤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는 창세기 5장과 10장의 계보는 유용하며 연대기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둘째는 ‘70인역’이 아닌 마소라 본문이 정확하다는 것이다. 창세기 5장과 10장의 연수를 ‘70인역’에 있는 내용대로 계산하면 역사는 BC 4004년이 아닌 BC 6004년에 시작된다. ‘70인역’에는 2,000년이 추가되었고 이것은 마소라 본문의 그것과 다르다.

나는 링컨 박사의 주석을 요약해 보았다. 가령 창세기 5장 1-5절을 보자.

이것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하나님

의 모양대로 그를 만드시오… (3절) 아담이 백삼십 년을 살며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4절) 아담이 셋을 낳은 뒤 그의 생애는 팔백 년이었으며 그가 아들딸들을 낳았더라. (5절) 아담이 산 전 생애는 구백삼십 년이었고 그가 죽으니라.

자, 연대기가 목적이 아니라면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겠는가? 구절들을 보라. 연수가 빈틈없이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심지어 마태복음에 있는 계보들과도 다르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세대는 개괄적인 형태이다. 하지만 창세기 5장의 계보에는 실제 연수와 계승 관계가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다.

뉴스코필드 성경의 주석은 연대기에 관한 한 성경이 정확하다고 믿지 않는다. 세속 역사가들은 다윗을 약 'BC 1000년대'(혹은 그들이 정하는 임의의 시대) 사람이라고 추정한다. 뉴스코필드 성경 난외를 보면 그들이 이 시기를 기준으로 자기만의 연대기를 시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세속 역사가들의 말을 따른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같은 구 스코필드 성경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1917년판과 초기 1909년판이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독자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다. 1909년판에는 연대기와 관련한 주석이 없다. 1917년판에는 있고 이후에 나온 뉴스코필드 성경에는 또 없다.

둘째, 뉴스코필드 성경은 세대에 관한 기존 스코필드 주석의 일부를 바꾸었다. 특별히 논란의 여지가 없는 내용인데도 말이다. 당장 여기서 세부 항목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B.F.T 소책자 목록에는 이것에 대한 참고 자료가 있다.

셋째, 뉴스코필드 성경은 겉으로는 킹제임스 성경 본문을 기초로 설명을 달았다고 한다. 하지만 난외를 살펴보면 이 같은 문구를 자주 발견할 수 있다. "KJV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는 이 단어를 이렇게 바꾸었다." 이런 문구를 자주 접하다 보면 뉴스코필드 성경에서 KJV의 역할이 그저 '시술 전'의 모습을 담은 사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난외에는 '시술 후'의 모습만이 부각되어 있다. 한번은 여름에 딘 버건 협회 임원 중 한 분이 뉴스코필드 성경과 그 결점에 관한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그는 뉴스코필드 성경이 바꾼 부분 중 약 50%가 따로 난외에 언급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다. 이 말은 즉 별도의 표시 없이 그들이 본문을 바꾸었다는 이야기이다. 이것은 속임수다. 그들은 자기들의 성경을 킹제임스 성경이라 해 놓고 실제로는 본문의 여러 부분을 바꾸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디를 바꾸었는지 전부 알려 주었다면 괜찮았을 것이다. 최소한 그들의 정직성이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바뀐 부분의 절반만 난외에 표시한 것은 결코 정직한 모습이 아니다.

지금도 여러 사람들이 뉴스코필드 성경에 대한 나의 견해를 물어 오고 있으므로 한 번은 직접 뉴스코필드 성경을 분석해 보고 싶다. 그런 후에야 나는 이렇게 못 박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여기 어디가 바뀌었는지 보여 주는 프린트물이 있으니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어는 이렇고 그리스어는 저렇습니다." 그때까지는 무어라 단정 지어 말하긴 어려울 것 같다. 여전히 의문과 의심이 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말이다. 각주는 본문보다 더 심각해 보인다. 사실 뉴스코필드 성경은 그리스어 본문까지 손을 대었다. 그런데도 겉으로는 같은 그리스어 본문을 쓰고 있다고 말한다.

즉 킹제임스 성경 본문뿐만 아니라 그리스어 본문까지 바꾸었다는 말이다. 가령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을 보자.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왔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공인 본문에는 ‘그리스도의 날’(the day of Christ)이라고 되어 있고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본문에는 ‘주의 날’(the day of the Lord)이라고 되어 있다. 뉴스코필드 성경은 ‘그리스도의 날’을 ‘주의 날’로 바꾸었다. 이런 식으로 바꾸면 더 본문을 이해하기 쉽다는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서 ‘shall not prevent’(앞지르지 못하리라)를 ‘shall not precede’(앞서지 못하리라)로 바꾼 것도 그런 맥락이다. 하지만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의 경우 ‘그리스도의 날’을 ‘주의 날’로 바꾼다고 해서 무엇이 분명해진다 말인가?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과연 얼마나 더 바뀌었는지 누가 알겠는가?

7. 오픈 성경(Open Bible)은 어떤 본문을 씁니까?

질문: 오픈 성경에 쓰인 본문은 무엇인가?

답변: 한때 나는 1611년판 흠정역 킹제임스 성경과 오늘날의 킹제임스 성경을 비교하면서 이 오픈 성경을 보기 시작했다. 종종 철자가 다른 단어를 접하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 제대로 비교를 할 수 없었다. 이것을 위해선 하나의 기준이 필요했다. 가령, ‘vail’이란 철자를 가진 단어는 글자 그대로 ‘vail’이 될 수 있고 ‘veil’이 될 수도 있었다. 그래서 그것이 원래 킹제임스 성경에서 바뀐 것인지 아닌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지금도 나는 오픈 성경이 어떤 본문을 쓰는지 분명히 알지 못한다.

베이커 출판사(Baker Book House)에서 「노아 웹스터 역본」(*Noah Webster's Version*)이라는 이름의 성경 하나가 새로이 출판되었다. 이것도 아직 분석해 보진 못했다. 알려진 대로 웹스터는 웹스터 사전을 집필한 사람이다. 그는 여러 언어에 능통한 뛰어난 인재였는데 그 또한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작업을 했다. 거기서 위에서 예로 든 것처럼 뜻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단어 몇 개를 고쳤다고 한다. 그렇다 해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 보인다. 킹제임스 성경의 토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애매한 몇 가지 부분(철자 따위)만 손보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성경 또한 킹제임스 성경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

얼마 전 나는 NKJV 한 권을 손에 넣게 되었는데 ‘오픈 성경’ 판이라고 했다. 따라서 넬슨 출판사의 ‘오픈 성경’은 그 자체가 어떤 특정 역본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8. 킹제임스 성경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자료가 없을까요?

질문: 킹제임스 성경 공부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한두 가지 추천해 줄 수 있는가?

답변: 우선 스트롱 성구사전이 있다. 이 책에는 성경의 영어 단어와 함께 해당 그리스어 혹은 히브리어가 표시되어 있고 뒷면에는 그리스어와 히브리어가 알파벳순으로 그 의미와 함께 기재되어 있다. 여기에 좋은 성경 사전 한 권 정도가 있으면 된다. 이 정도면 처음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9. 영어로는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질문: 영어로는 성경 말씀들(단어들)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지 않은가?

답변: 영어는 라틴어, 그리스어, 그리고 다른 언어들에서 나온 전문 용어들과 세부적인

단어를 포함하는 광범위하고 확장적인 언어이다. 또 다른 많은 언어들도 표현하기 힘든 것을 표현할 수 있고 형용사, 명사, 동사 등 품사들도 수없이 많다. 내가 보기에 영어는 한 사람의 생각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성경의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를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좋은 언어이다.

10. 히브리어를 영어로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질문: 히브리어를 영어로 정확히 옮기는 것이 어렵지 않은가?

답변: 아니. 어렵지 않다. 다만 NASB나 NIV(이 역본은 갈 때까지 간 '리빙 바이블' 다음으로 큰 범법자가 아닌가 싶다) 같은 역본의 번역자들이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았을 뿐이다. 어려워서 못한 것이 아니라 하기 싫어서 안 한 것이다. 그들은 그저 자기들의 방식대로 일했다.

여기 NIV(1969)의 목표가 무엇인가 보여 주는 글이 있다(NIV 서문 p.7).

우리 번역자들의 첫째 관심사는 줄곧 성경 기자들의 사상을 충실히 반영한 정확한 번역본을 만드는 것이었다(The first concern of the translations has been the accuracy of the translation and its fidelity to the thought of the Biblical writers).

자, 이 말이 뭐가 잘못되었을까? 단지 사상이 우리의 관심사인가? 알다시피 우리는 말씀들(Words, 단어들)에 관심이 있다. 우리는 성경기록의 완전하고도 축어적인 영감을 믿는다. '총체적'(Plenary)이라는 것은 '전부 갖추어진'이란 말이다(즉,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축어적'(Verbal)이란 말은 바로 그 모든 단어들에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다'(God-breathed)는 뜻이다. 사상(Thought)을 충실히 반영하는 데만 초점을 맞춘다면 말씀들, 즉 단어들(Words)에는 신경을 쓰지 않게 된다. 둘 중 하나는 버리게 되는 셈이다.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NIV를 볼 때마다 안타까운 점이 이 부분이다.

나는 매일 아침 5시 45분에 귀로는 킹제임스 성경 테이프를 듣고 눈으로는 NIV를 읽으며 둘을 비교해 보았다. NIV가 어떤 식으로 본문을 훼손하고 왜곡하고 침식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이다. 결국 그 일은 마무리 되었다. 작업의 절반도 채 못했는데 이미 6,653개의 동적 일치 증거가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전체를 모두 합하면 얼마나 많겠는가? NIV 편집자들은 분명히 NIV를 문자적이고 축어적이며 형식적인 일치 방법을 써서 번역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단어들 대신 사상에 초점을 맞추길 원했다. NIV 서문을 계속 읽어 보자.

그들은 히브리어, 아람어, 그리고 그리스어 본문의 중요한 어휘와 문법 사항들을 면밀히 비교 검토했다. 동시에 단어 대 단어(Word for Word), 즉 축어적인 직역의 방식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였다. [단어 그대로 번역하길 원치 않았단 말이다.] '사상이 글로 표현되는 방식은 언어마다 차이가 있다. 따라서 성경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문장 구조의 잦은 수정은 불가피하며 항상 각 단어가 결합하여 이루는 문맥적인 의미를 살리는 것이 필요하다.'[NIV, 1978년판, p. viii]

즉, NIV 번역자들은 필요에 따라 문장 구조를 바꾸었다. 종종 의문문도 평서문이 되고 평서문도 의문문이 되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이 뒤바뀌어 있다. 이것을 보면 NIV의

목표가 정확성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정확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잘못된 방식이라고 본다. 따라서 난이도가 쟁점은 아니다.

히브리어 사본부터 시작해 보자. Bera-shith라는 말이 있다. b는 ‘안에’(in)를 뜻하고 rashith는 ‘머리 혹은 시작’(the head, or beginning)을 뜻한다. 따라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라고 했을 때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은 머리 부분을 그대로 ‘In the beginning’이라고 썼다. 간단하고 명확하며 쉽다. 이어지는 단어들은 ‘bara’ - ‘창조했다’(created), ‘elohim’ - ‘하나님’(God)(히브리어 단어의 순서는 이렇게 조금 다르다), ‘eth’(목적격 혹은 직접 목적어를 나타내는 기호), ‘ha shamaim’ - ‘하늘’(heaven), ‘wa eth’ - ‘그리고’(and) + 목적격 기호, ‘ha erets’ - ‘땅’(earth)이다. 있는 그대로이다. 이리저리 바꿀 필요가 없다.

물론 예를 든 창세기 1장 1절은 NIV를 비롯한 다른 현대 역본들도 같은 식으로 번역해 놓았다. 이외에도 소위 유명한 구절들, 독자들에게 친숙한 구절들은 손대지 않고 놔두었다. 이 구절들마저 바꾸면 성경이 안 팔릴 수 있기 때문이다. 너무 바꾸면 독자들이 거부감을 느낀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 것이다. 시편 23편을 봐도 킹제임스 성경과 거의 비슷하다. 그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 시편 23편, 창세기 1장 1절 등 자주 눈이 가는 말씀들을 알고 있다. NASB도 NIV처럼 창세기 1장 1절이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다고 성경 나머지 부분도 이런 방식으로 번역했다는 말은 아니다. 그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달라질 뿐이다.

11. 영어로 의미가 여러 가지인 히브리어는 어떻게 합니까?

질문: 여러 뜻을 가진 히브리어도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가?

답변: 그리스어든 히브리어든 의미와 뉘앙스가 여러 가지인 단어들이 있다. 그중에서 그 단어에 가장 적합한 의미를 가려내는 것이 번역자의 일(킹제임스 성경 역자들도 그랬듯이)이다. 물론 이것은 그것과 무관한 다른 단어로 바꾸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일이다. 가령 ‘집’(house)이라는 의미의 beth라는 히브리어가 있다. 그래서 Bethel은 ‘하나님의 집’(house of God)을 뜻한다. 또 히브리어에는 성전(temple)에 해당하는 hacol이란 단어가 있다. 즉 hacol은 ‘성전’이고 beth는 ‘집’이다. 그런데 NIV는 자주 ‘집’을 뜻하는 단어를 ‘성전’으로 번역하여 아무개가 ‘성전’을 지었다는 식으로 표현한다. 이건 번역이 아니라 변개이다.

나는 하루에 85개 구절을 분석하며 1년 동안 역본 한 권을 떼었다. 변개된 부분이 발견되면 붉은색으로 표시해 놓고 숫자를 매겼다. 결과 NIV에 가장 많은 표시를 해야 했다. NASB의 경우 1,800개 표시가 마가복음 11장에 와서 이루어졌지만 NIV는 그보다 훨씬 이전인 구약 성경 사무엘하에서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일반 침례교회 총협의회(General Association of Regular Baptist Churches: GARBC)의 일부 근본주의자들은 이 NIV를 다른 어떤 역본보다도 더 많이 밀어 주고 있다. 그리고 피커링(Ernest Pickering) 박사는 이 일의 선두 주자 중 한 사람이다. 그는 오하이오주 톨레도로 가서 몇 년간 임마누엘 침례교회 목사로 있었다. 믿을 만한 정보에 의하면 피커링 박사가 자기 교회 집사들에게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한다. “이제 저는 더 이상 킹제임스 성경으로 설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쓰는 성경은 NIV입니다.” 이에 집사들은 이 말을 무리 없이 받아들였고 NIV 성경 여러 권을 사서 교인들에게 싸게 나누어

주었다. 결국 적지 않은 규모의 GARBC 소속 임마누엘 침례교회는 NIV로 가득하게 되었다. 참고로 나는 오하이오주 사람이다. 오하이오주에서 태어났다. 이런 이유로 오하이오주 톨레도에 있는 교회가 GARBC 소속 교회가 NIV로 채워졌다는 사실은 슬픈 일이다. 가슴이 아프다.

나는 4년 동안 피커링 박사와 같이 델러스 신학교를 다녔다. 내가 들었던 필수 과목 - 히브리어, 그리스어, 신학 그리고 다른 과목들 - 을 그도 들었고 1952년에는 함께 강의를 듣기도 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결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없는 NIV를 추천하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구약 성경을 보면 '나의 살과 뼈'(My own flesh and bones) 같은 표현이 있다. '뼈'(bone)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etsem', '살'이라는 단어는 'basar'이다. 그런데 NIV는 이것을 '살과 피'(flesh and blood)라고 표현했다. '피'(blood)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dam'이지 'etsem'이 아니다. 피는 피이고 뼈는 뼈이며 둘이 혼용될 수 없다. 하지만 NIV 역자들은 개의치 않는다. 사상 혹은 개념만 전달하면 그만이다. 그들의 논리는 이렇다. "멍청한 히브리인들, '살과 뼈'가 뭐야? 조금 제대로 할 수 없나? 이 부분을 자연스럽게 '살과 피' 정도로 표현할 수 없었던 말인가?"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살과 피'로 번역하기로 했다. 이것은 차표를 손수 끊는 것과 같고 자기가 발행한 백지 수표에다 원하는 금액을 써넣는 것과 같다.

NIV를 읽는 교인들은 그것을 킹제임스 성경과 비교하며 이렇게 말한다. "멍청한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 조금 제대로 하지. NIV 번역을 봐. 훨씬 낫잖아?" 얼마 전에 어느 숙녀분이 내게 했던 말이 기억난다. "우리 목사님은 킹제임스 성경을 좋아하지만 가끔 NIV를 인용할 때도 있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알아 둘 사실이 하나 있다. "킹제임스 성경은 이렇지만 NIV는 더 쉽게 번역해 놓았다."라며 누군가 말한다 해도 당신은 NIV가 진짜 더 쉬운 성경인지 아니면 쉬운 이야기책인지 알 수가 없다. 왜냐하면 NIV 역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들'(Words)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NIV가 말하는 내용과 히브리어나 그리스어가 말하는 내용이 종종 다르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그리스어나 히브리어가 말하는 내용을 알고 싶으면 그리스어나 히브리어 성경을 찾아보거나 스트롱 성구사전에서 해당 단어의 번호와 원형을 확인한 후 그것을 그리스어나 히브리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된다. NIV를 비롯한 현대 역본들을 믿을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이 단어 그대로를 번역하지 않고 개념 전달에만 치중했기 때문이다.

12. 킹제임스 성경에는 왜 '포도즙(grape juice)을 나타내는 경우에 보통 '포도주'로 알고 있는 'Wine'이라는 단어를 썼습니까?

질문: 포도즙을 '와인'으로 번역한 이유가 무엇인가? 포도즙에 해당되는 단어가 없어 서인가? 오늘날 많은 이들이 이것을 혼란스러워 한다.

답변: 'wine'은 적합한 영어 단어이다. 'wine'에서 'w'를 'v'로 바꾸면 'vineyard'(포도원)에 있는 'vine'(포도나무)이 된다. 와인은 그냥 포도 열매이다. 히브리어로는 yayin이고 그리스어로는 oinos이다. 둘 다 '포도 열매'(fruit of the vine)란 뜻이다. 이 두 단어를 영어로 해석해야 한다. 성경에 나오는 와인을 주제로 한 책 중에 패튼(William Patton)이 쓴 「성경의 와인」(*Wines in the Bible*)이라는 책이 있다[B.F.T #154]. 이것은 해당 주제에 대한 가장 좋은 책이며 누구에게나 추천할 만한 책이다. 이 책에는 히브리어 사람들이 포도주를 발효시키지 않고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고 나와 있다.

발효된 와인이나 독주(hard liquor)를 가리킬 때 성경은 대개 ‘독한 술’(strong drink)이라는 단어를 썼다. 따라서 문맥이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히브리어 yayin과 그리스어 oinos는 항상 ‘발효되지 않은 포도 열매’를 뜻한다. 좋은 영어 사전 하나를 선택해 ‘와인’의 의미를 찾아보라. ‘와인’이 항상 알코올성 음료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냥 포도 열매를 뜻하기도 한다는 말이다.

영어에는 히브리어에는 없는 여러 훌륭한 단어들이 있다. 가령 「국제 웹스터 사전 3판」만 보아도 수많은 표제어가 수록되어 있다. 히브리어 어휘는 그다지 확장성이 높지 않다. 히브리어 사전을 보아도 영어보다 단어가 많지 않다. 그리스어의 경우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나에게서 리델과 스코트가 지은 그리스어 사전인 「Liddell and Scott's Classical Greek Lexicon」이 있다. 거기 있는 단어의 수는 엄청나며 히브리어보다 더 많다. 히브리어는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며 농경이나 유목 사회에 적합한 언어이다. 반대로 그리스어는 매우 복잡하고 명확하며 분석적이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어로 신약 성경을 기록하셨고 이로써 우리는 명확하고 잘 다듬어진 교리와 신학을 갖게 되었다. 히브리어에는 영어처럼 명확히 구분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렇다고 내가 ‘wine’이란 단어를 꼭 문제 삼으려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그냥 ‘포도 열매’이다. ‘폭스바겐’(Volkswagen)이란 독일어가 있다. 독일어 ‘w’는 ‘v’로 발음된다. 이처럼 ‘wine’도 ‘vine’에서 나왔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술꾼’(a drunkard)이요 ‘포도주를 탐하는 자’(a wine-bibber)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성경의 와인과 발효의 원리」(*Bible Wines and the Laws of Fermentation*)라는 책을 읽어 보면 와인을 발효시키는 방법이 매우 자세히 나와 있다. 거기에는 발효되지 않게 하는 방법도 같이 있다. 거기서 진실을 확인해 보기 바란다.

13. 언제 ‘번역’과 관련한 이런 사역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까?

질문: ‘번역’과 관련된 이런 종류의 사역을 시작해야겠다고 마음먹은 때가 언제인가?

답변: 먼저 말해 둘 것은 번역 관련 사역이 내 사역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은 내 사역의 일부이다. 우리, 즉 BIBLE FOR TODAY는 본문 논쟁, 킹제임스 성경의 우수성, 성경 보존 및 영감 등의 주제와 관련하여 900개 이상의 책자와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매년 추가로 많은 타이틀이 더해지고 있음). 이것은 총 2,300개의 자료 중 약 4분의 1에 해당한다. 이 주제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신념은 확고하다. 나는 1971년 6월 「킹제임스 성경 옹호」라는 책을 펴냈다. 이 책은 해당 주제에 대한 내 연구의 첫째 산물이었다. 그리고 보니 이 일을 시작한 지도 어언 35년이 되었다.

누군가 이 사역을 하는 이유를 묻는다면 나는 “필요해서!”라고 대답하고 싶다. 영어로 쓰인 가장 위대한 성경인 킹제임스 성경을 변호하는 일에 나서고 있는 사람이 극히 적은 현실에서 그냥 그대로 앉아 전투에 패할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닌가? 그간 수많은 잘못이 저질러졌다.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기 전까지 나는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본문으로 교육받았고 다른 측면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BIBLE FOR TODAY라 명명된 사역을 시작한 것은 1965년의 일이다.

나의 배경과 BIBLE FOR TODAY의 배경을 다룬 소책자가 있다[B.F.T #168]. 내가 매사추세츠주, 뉴턴의 믿음 침례교회에서 목사로 섬기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의 사역을 시작하였다. 그때 라디오 방송 하나를 하고 있었는데 그 이름이 BIBLE FOR TODAY였

다. 이 사역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가지고(1965년, 성경은 물론 킹제임스 성경이다) 오늘날의 여러 이슈 - 낙태, 학교에 있는 여러 성경들, 공산주의, 구원 등 - 를 풀어가는 것이었다. B.F.T의 상징을 보면 왼쪽에는 어둠, 오른쪽에는 빛을 바탕으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펼쳐져 있고 그 위에 방패(믿음의 방패), 방패 위에 검(성령님의 검)이 놓여 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빛과 어둠을 나누고 있다. 이것이 초기 사역의 모습이였다. 참고로 BIBLE FOR TODAY News Report는 1971년에 시작되었다.

우리는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1960년 NASB가 나왔을 때 의문은 이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그 성경일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성경일까?” 그래서 우리는 NASB를 검토하고 연구했다. 그리고 NASB는 ‘오늘날의 우리를 위한 성경’, 즉 ‘The Bible for today’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9년 뒤, 1969년에 NIV라는 또 다른 역본이 탄생했다. 이때도 질문은 동일했다. “이 성경이 오늘날의 우리를 위한 성경인가?” 물론 그즈음에 다른 여러 역본들 - 현대인을 위한 복음, ‘리빙 바이블’ 등 - 이 쏟아져 나왔다. 부록 B에 이런 성경 출판의 역사가 자세히 나와 있다. 그러다가 1979년에 NKJV라는 이름을 가진 또 하나의 성경이 나왔다. 과연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를 위한 성경’일까? 이처럼 ‘성경’(Bibles)의 홍수 속에 살면서 증거와 사실을 확인하고 규명하는 일이 필요했다. 그렇게 나는 이 일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어느 성경이 오늘날의 우리를 위한 성경일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성경에 대한 확신을 심어 주는 것이 왜 중요한가?”이다. 대답은 이렇다. 오늘날 교회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교리적 문제가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성경학, 즉 성경과 교리의 연구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성경에 대한 믿음도 좋고 성경의 계시나 권위, 영감, 무오성에 대한 토론도 좋다. 하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는 “그 성경이 어디 있는가?”이다. 그 성경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당신이 말한 것이 죄인의 마음을 파고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발견하게 되리라는 확신을 할 수 있겠는가? 현재 자기 손에 있는 성경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이것 혹은 저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확신할 수 있겠는가?

내가 확신하건대, 20, 21세기 마귀의 가장 강력한 공격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들에 대한 공격이다. 이 공격은 에덴동산에서 마귀가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냐?”라고 물으며 시작되었다. 이것은 마태복음 4장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탄의 시험으로 이어졌다. 이때 사탄은 성경기록을 거짓으로 인용하여 예수님을 시험했으나 주님은 성경기록으로, 즉 “기록된 바...”, “기록된 바...”로 이것을 물리쳤다. 이것은 사탄의 공격 중 가장 강력한 것이었다.

성경 전쟁이 낳은 하나의 부작용일지 몰라도 오늘날 일부 크리스천들과 젊은이들, 믿지 않는 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나는 그 성경이 어떤 것인지 모른다. 따라서 그 어떤 것도 믿을 필요가 없다. 내 주위에 있는 수많은 성경 중 내가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없다면 나는 그 어떤 것도 믿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들에 대한 확신이다. 내가 여러분에게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확신을 주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이다. 현재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내걸고 있는 슬로건은 이것이다.

우리는 성경에 대한 확신 곧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확신을 심고 있다. 이것은 킹제임스 성경이 바로 오늘날 우리를 위한 성경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킹제임스 성경을 쓰레기통에 내던져서는 안 된다. 킹제임스 성경은 잘못되지도,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고도 않았다. 킹제임스 성경 같은 역본은 이제껏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일단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이 당시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사용했던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본문들은 현재 우리 손에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 본문들이 전 세계 어떤 번역자에 의해서든 앞으로 다시 사용될 일은 없을 것이다.

내 말이 조금 막연히 들릴지 모르니 다시 한 번 자세히 말해 보겠다. 현재 킹제임스 성경 번역에 사용되었던 본문을 번역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렇게 믿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성직 계급 체계에 속해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 대학, 신학교, 그리고 성경으로 돈벌이를 하는 출판사들은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대신 배교자들과 현대주의자들, 그리고 로마 카톨릭주의의 추기경들이 후원하는 본문이 그리스어 신약 성경으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과 같은 번역자들을 다시 구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거인들이라면 현대 번역자들은 소인국의 난쟁이에 불과하다. 게다가 그 성경의 번역 기법 곧 문자적, 형식적 방법은 이제 퇴물 취급을 받고 있다. 하지만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은 이 방법으로 성경을 번역했다. 오늘날에는 동적 일치 방법이 일반적인 번역 기법이다. 누누이 말했지만 동적 일치 방법은 단어를 넣고 빼고 바꿔서 만든 의역이다. 자, 어떤가? 킹제임스 성경 같은 성경을 다시 만들 수는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겠는가? 내가 계속해서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확신을 심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이다.

나는 웨스트버지니아주의 세인트 매리에 있는, 1,000와트짜리 출력을 가진 - 그래도 비용이 주당 30분에 13.5달러면 내가 들은 것 중 제일 싸다 - 조그만 방송국인 WWVW에서 라디오 프로그램을 하나 맡고 있다. 굳이 거기서 한 이유는 그곳이 열려 있었기 때문이다. 방송국 담당자에게 편지를 쓰면서 가장 먼저 던진 질문은 “이 방송국에서는 의사의 자유가 보장되니까?”였다. 그는 대답했다. “예, 얼마든지요. 다만 방송국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물론 나는 항상 내가 말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렇게 성경 번역에 대한 이슈를 다루는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다. 현재 30분짜리 주간 프로그램과 5분짜리 일간 프로그램이 편성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들은 15개의 라디오 방송국에서 청취 가능하며 곧 위성을 통해 영국과 유럽, 캐나다 그리고 남미까지 전송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전화로, 글로 많은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 왔다. 두 프로그램의 주제는 모두 ‘전통 성경 본문을 지키는 것’이다.

나는 지금 뜨겁고 민감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내가 웨스트버지니아,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 앨라배마, 노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 켄터키, 사우스캐롤라이나, 와이오밍, 그리고 메릴랜드주에 있는 라디오 청취자들을 위해서만 이 일을 한 것은 아니다. 나는 또한 나 자신을 위해서 이 일을 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일로 인해 나는 일주일에 한 시간은 꼭 방송 테이프 녹음에 매달려야 했다. 그리고 녹음테이프를 우리 BIBLE FOR TODAY 독자들 - 현재 미국과 세계 여러 나라에서 2,300명 정도 되며 우리 메일링 리스트에 등록되어 BIBLE FOR TODAY News Report를 구독하는 사람들 - 에게 배포했다. 그 결과 녹음테이프를 통해 독자들은 나의 방송 강연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라디오 프로그램의 특성상 나는 정해진 시간 동안 성경을 주제로 말할 수 있었다. 그것이 없었더라면 아마도 한 달에 네 시간 동안 자리에 앉아 여기 논의된 내용을 따로 녹음해야 했을 것이다. 물론 나에게서는 그럴 여력이 없다.

여러 번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일 외에도 나에게서는 다른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내 손자들도 원한다면 방송 강연 테이프를 들을 수 있다. 그리고 테이프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전달해 줄 것이다.

14. 킹제임스 성경이 아닌 다른 성경을 통해서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실까요?

질문: 성경을 읽어 본 적도 없고 복음서도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NIV나 ‘리빙 바이블’을 집어 들고 거기에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었다. 이런 경우에도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가?

답변: 그렇다. 성령님은 하나님 말씀의 일부만을 가지고도 일하실 수 있다. 결코 킹제임스 성경만은 못하겠지만 어쨌든 다른 역본들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성령님의 역사는 제한될 것이다. 성령님은 해당 구절에 대한 정확한 번역을 통해서만 자신의 온전한 능력을 보이신다. 이것은 마치 건초 더미 안에 있는 바늘과 같다. ‘리빙 바이블’은 바늘이 아주 많은 건초로 덮여 있다. 여기서 건초 더미란 사람의 말을 가리킨다. 바늘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고 대부분이 건초이다. NIV는 그나마 ‘리빙 바이블’보다는 낫다. 그러나 이것에서도 역시 어느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찾는 것은 마치 건초 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다.

“모든 성경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졌다.”(All scripture is given by inspiration). 원래의 그리스어로 이 구절은 ‘pasa’(all), ‘graphe’(Scripture), ‘theopneustos’(God-breathed)이며 이것의 뜻은 모든 성경기록은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 있고 유익하다는 것이다.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의 숨이 없는 것은 유익하지 않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어 혹은 그리스어로 자신의 말씀에 숨을 불어넣으셨고 이것이 영어로 충실히 번역되어 킹제임스 성경이 탄생하게 되었다. 그러면 다른 역본들은 얼마나 무익할까? 이 질문이 현재 우리에게 있는 문제이다. 어떤 사람이 아주 나쁜 음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묻는다. “이 음식을 가지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어떤 음식을 가지고 생명을 연명하는 것은 가능하다(다수의 우리 젊은이들이 쓰레기 음식을 먹으며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말 그대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최상의 상태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식단에 따라 음식을 섭취해야 될 것이다. 그 결과 아주 건강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나는 보조 식품인 새클리(Shaklee)의 도움을 받았다. 그것이 비싸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보조 식품을 사용해서서 암을 앓던 나를 정상적인 건강 상태로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할 수 있게 하셨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라게 하는 젖이라는 것이다.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벧전2:2).

자, 어느 젖인가? 어느 젖이 순전한가? 부디 최상의 것을 선택하기 바란다.

15. 하나님의 말씀들이 여느 일반 책보다 어려울 필요가 있습니까?

질문: 다른 역본들은 일반 책처럼 읽을 수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은 웬지 하나님 말씀처럼 보인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일반 책보다는 어려워야 하는가?

답변: 어떤 사람들은 읽기 편하다는 이유로 어느 특정 역본을 선호한다. 자, 읽기 편하다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다만 그것이 원래의 그리스어와 히브리어에 있는 것과 일치하느냐가 문제다. 아무리 읽기 편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맞지 않는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일치한다. 그것이 읽기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한번 공부해 보라. 물론 히브리어나 그리스어가 어렵고 심지어 킹제임스 성경의 영어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성경을 번역하는 대신 해석하여 그냥 읽기 좋은 책을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 해석은 많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해석이 아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영어로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다.

16. 성경을 공부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읽기만 할까요?

질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나, 아니면 공부해야 하나?

답변: 디모데전서 4장 15절을 보라.

이것들을 묵상하고 전적으로 그것들에 몰두하여 네가 진보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뱀뱃으로' 묵상할 것을 명하는 구절은 성경 여러 곳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먼저 읽어야 한다. 읽는 것과 공부하는 것이 똑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어쨌든 읽지 않고 공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국 둘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17.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은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지식인들이었습니까?

질문: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은 당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나, 아니면 그저 뛰어난 지식인들이었나?

답변: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에 관한 사항은 본서의 제3장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번역자들이 독자들에게 쓴 글을 보면 이 사람들의 영적 깊이를 가늠할 수 있다. 그들 대부분은 경건한 사람으로서 거룩하고 청렴한 삶을 살았으며 청교도 계열의 국교도이거나 일반 국교도였다. 내 생각으로 번역이 완성될 때까지 생존했던 약 57명의 사람들 중 8-10명 정도는 청교도였다. 그 외 국교도들도 청교도들만큼 성경적이었다고 말할 순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매우 경건한 사람들이었다.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존중했으며 스스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을 번역하고 있다고 믿었다.

「번역자들이 독자에게」라는 소책자가 있다. [B.F.T #1121, 본서의 제3장에 일부가 인용되어 있다.] 이것을 읽어 보면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을 존중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단순히 당대의 지식인이 아니었다. 학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와 아울러 경건과 거룩한 삶과 영적인 열정이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18. 1611년판 킹제임스 성경과 오늘날의 킹제임스 성경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질문: 1611년판 킹제임스 성경과 오늘날의 킹제임스 성경이 어떻게 다른가?

답변: 뉴킹제임스 역본(NKJV) 뒷부분에는 킹제임스 성경의 역사를 다룬 내용이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판본에는 1,229쪽에 그 내용이 있다.

1611년에서 1616년까지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 단어들과 문구들이 바뀌었고 인쇄 오류가 정정되었다. [이것이 최초의 변경이다.] 케임브리지 대학교 출판사에서 출판된 킹제임스 흠정역 초판은 1629년, 본문과 이탤릭체 그리고 난외주에 걸쳐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개정 작업을 거치게 된다. 1611년판 역자들 중 두 사람, 즉 워드(Samuel Ward)와 보이스(Dean Bois)[보이스는 다섯 살 때 히브리어 성경을 읽었던 사람이었다]가 이 개정 작업에 참여하였다. 1638년 케임브리지판에서 킹제임스 성경은 첫째 개정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다 철저하게 교정되었다. 이 작업은 '책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매우 면밀하게 진행되었다. ... [p. 1,230] 1701년, 성경에 나오는 사건의 때를 난외에 수록한 최초의 성경이 3권짜리로 나왔다. ... 1762년 케임브리지의 트리니티 대학 회원이었던 파리(Thomas Paris) 박사가 다시 한 번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대규모의 개정 작업을 단행했고 7년 뒤 블레이니(Benjamin Blayney) 박사의 지휘로 옥스퍼드 개정판이 출시되었다. ... 난외 주의 분량이 무려 65,000개로 늘었는데 이 중 절반은 상호 참조 형식으로 되어 있다.

결국 개정(혹은 교정) 작업은 1769년으로 끝났다. 우리의 궁금증은 그 개정의 정도에 있다. 얼마나 많은 표현이 바뀌었을까? 이 때문에 나는 현재 구 스코필드 킹제임스 성경과 1611년판 킹제임스 성경을 읽고 철자의 변화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내용을 비교하였다. 어떤 사람은 40,000-50,000군데가 바뀌었다고 주장한다. 그들의 말대로라면 오늘날 최초의 킹제임스 성경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내 판단으로도 엄청난 변화이다.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그들은 이것을 구실삼아 '새로운' 킹제임스 성경을 슬그머니 내놓았다. 킹제임스 성경이 얼마나 많은 변화를 거쳤는지 그 역사를 설명하면서 '새로운' 킹제임스 성경은 그 연장선상에 있는 성경, 즉 거기서 한 번 더 바뀐 성경일 뿐이라는 인식을 심는다. 설사 40,000-50,000개의 변화가 있더라도 그것은 대개 철자법의 차이일 뿐 단어의 의미나 발음의 차이가 아니다.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날 때부터 눈먼 사람 이야기를 예로 들어 보자. 1절에 있는 'blind'(눈먼)이라는 단어의 본래 철자(1611년)는 'blinde'이다. 물론 이것을 두고도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blind'와 'blinde'의 차이가 무엇인가? 이것이 흔히 말하는 그 변화라 하더라도 듣는 데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또 2절에 있는 'sin'(죄)은 처음엔 'sinne'이었다. 이것도 바뀐 것이다. 'born'이라는 단어의 철자도 본래는 'borne'이었다. 그러나 둘의 발음은 같다. 그래서 나는 발음이 달라진 변화들만 계산했다. 누구 이야기대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두 30,000개 정도 발견했을까? 아니다. 그러면 20,000개? 아니다. 그러면 1,000개? 아니다. 모두 세어 본 결과 421개였다. 총 791,328개 단어들 중 귀로 들어 차이를 감지할 수 있는 것은 421개에 불과했다. 즉 1,880개 단어 중 한 단어만이 바뀐 셈이다. 귀로 구별할 수 있다고 해서 뭐 대단한 것은 아니고 대부분 철자상의 변화뿐이었다.

그 421개 중 실제적인 변화는 136개뿐이고 나머지 285개는 형태만 바뀌었다. 이 285개 중에서도 214개는 아주 사소한 변화이다. 가령, 'towards'와 'toward', 'burnt'와 'burned', 'amongst'와 'among', 'lift'와 'lifted', 그리고 'you'와 'ye' 같은 것들이다. 이렇게 바뀐 것이 285개 중 214개라는 말이다. 자, 그러면 791,328개의 단어 중 실제적으

로 바뀌었다는 136개의 단어들을 살펴보자.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킹제임스 성경은 원래의 1611년판과 완전히 다르며 둘 사이에는 수많은 차이점이 존재한다고 종종 말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앞서 나온 내용상의 136개 변화와 형태상의 285개의 변화를 제시해 보여 주라. 그래서 그들의 말이 사실이 아님을 알게 하라. 아니면 「1611년판 킹제임스 역본과 1917년판 구 스코필드 성경에 있는 킹제임스 역본 비교」(*The King James Version of 1611 Compared to the King James Version of 1917 Old Scofield Bible*)라는 제목의 책자를 한 권 보내 줘도 좋을 것이다[B.F.T #1294]. 프린트 출력물로 되어 있는 이 자료에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421개의 변화의 실례가 수록되어 있으며 또한 알파벳순으로 분류되어 있다.

19. '숫자'(Numerical) 성경은 어떻습니까?

질문: 한 수학자가 원어로 숫자 값을 나타내는 성경의 문자들을 연구하고 이로써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입증해 보였다. 즉 문자 값들이 더해져서 어느 특정 숫자들에 이르게 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들을 승인하셨음을 증명하였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는 데 동의한다. 비록 하나님께서 여러 세대에 걸쳐 여러 사람들을 사용하셨지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동일한 수학적 원리가 적용된다는 말에도 동의한다. 슬그머니 무언가가 성경에 더해질 수는 없다. 나는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결코 자신의 말씀을 바꾸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입증할 또 하나의 증거로 본다. 문자 그대로 다른 어떤 것도 성경에 더해지면 안 된다.

답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존하신다. 숫자를 더해서 어떻게 되고 하는 것에 대해선 이런저런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은 보존되고 유지된다. 내가 알기로 패닌(Ivan Panin)이란 사람이 신약 성경을 가지고 그런 작업을 했다. 그는 「성경의 수로 입증한 신약 성경 그리스어 본문」(*The New Testament From The Greek Text And Established By Bible Numerics*)이란 책을 펴냈다. 1914년에 나온 이 책은 앞서 언급된 대로 숫자를 더하는 작업을 기초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부록 B의 신약 성경 목록 중 172번에 이 책이 있다. 하지만 이것을 「킹제임스 성경 옹호」에 나오는 162개의 핵심 구절들과 비교해 본 결과 162개 중 138개가 부분적으로 혹은 전체적으로 빠져 있었다. 그것도 신약 성경에서만 말이다. 패닌 신약 성경의 85%는 웨스트코트와 호르트 본문을 따르고 있다. 질문자가 말한 '숫자' 성경이 패닌의 책인지는 모르겠다. 아무튼 나는 이 특별한 신약 성경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

20. 지금 일반판(저렴한) 킹제임스 성경을 구입할 수 있습니까?

질문: 킹제임스 성경을 파는가?

답변: 그렇다. 구입할 수 있다. 영국의 '트리니티리언 성경공회'에서 아주 싸게 나온 소형 일반판 킹제임스 성경도 있고 1611년판 킹제임스 성경도 구할 수 있다. 여러 크기와 바인딩을 갖춘 다른 킹제임스 성경들도 있다.

21. 킹제임스 성경에는 오역이 없습니까?

질문: 킹제임스 성경에는 번역 오류, 즉 오역이 없다고 믿는가?

답변: 그렇다. 나는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 오류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렇다고 내가 특정 성경 역본 (그것이 영어 역본이든 다른 언어 역본이든)을 두고 ‘무오하다’(inerrant)라는 말을 쓰고 싶지는 않다. 왜냐하면 ‘무오하다’(inerrant)는 단어는 ‘하나님의 숨이 있는’(God-breathed)이란 뜻의 그리스어 theopneustos(딤후 3:16)에서 왔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라틴어, 이탈리아어 등에 친히 자신의 숨을 불어넣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영감이 있는 언어는 히브리어/아람어와 그리스어뿐이다. 따라서 오직 히브리어/아람어 그리고 그리스어 성경 말씀만 ‘하나님의 숨이 있다’ 혹은 ‘무오하다’고 할 수 있다. 즉 킹제임스 성경의 근간이 되는 그 히브리어/아람어 본문과 그리스어 본문만이 하나님께서 친히 보존하신 본문이고 그래서 그것만이 ‘무오하다’ 혹은 ‘영감을 받았다’, ‘절대 확실하여 오류를 가질 수 없다’(Infallible)고 정당하게 말할 수 있다. 이것은 나의 개인적인 믿음이고 확신이다. 성경의 ‘무오성’(Inerrancy)은 히브리어/아람어와 그리스어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지고서야 논할 수 있다는 것이 나의 소견이다.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은 히브리어/아람어 혹은 그리스어를 영어로 번역할 때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의 여러 의미 중 가장 적합한 의미를 선택하여 영어로 번역했다. 또 번역되는 영어 단어도 적절히 선택했다. 이 모든 일이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문법 그리고 영어 문법의 규칙에 따라 이루어졌다. 따라서 나는 킹제임스 성경에서 오역을 발견할 수 없다.

22. 로마서 8장 16절에 있는 ‘it’은 오역이 아닙니까?

질문: 로마서 8장 16절에서 성령님을 가리키는 대명사를 NKJV는 ‘그’(he)라고 번역했는데 킹제임스 성경은 ‘그것’(it)이라고 번역했다. 어느 것이 바른 번역인가?

답변: 엄밀하게 말하자면 킹제임스에 있는 ‘itself’가 문자적이고 정확한 번역이다. 성령님은 그리스어로 pneuma인데 이것은 중성 명사이다. 중성 명사는 중성 대명사를 갖게 된다. 로마서 8장 16절도 그런 맥락이다. 거기서 대명사 touto(itself)는 해당 명사의 성과 일치한다. 따라서 ‘성령님 자신’(Spirit itself)은 해당 그리스어를 그대로 표현한 것이다. 이 구절에서 우리에게 풀어 주시고 가르치는 성령님을 ‘그분’(He)으로 불러서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니다. 성령님의 인격(Person)은 분명히 ‘그분’(He)이다. 하지만 성령님을 나타내는 그리스어는 중성의 형태이다. 그러므로 ‘itself’는 오역이 아니라 정확한 번역이다.

23. 사도행전 12장 4절의 ‘이스터’는 오역이 아닙니까?

질문: 사도행전 12장 4절에서 같은 단어를 킹제임스 성경은 ‘이스터’라고 번역했고 NKJV는 ‘유월절’(Passover)이라고 번역했다. 상당히 다른데 어느 것이 맞는가? 이스터는 그 이후에 생긴 이교도 축일로 알고 있다.

답변: 번역된 그리스어 단어는 ‘pascha’로서 ‘유월절’(Passover)이란 뜻이다. 하지만 당시 유월절은 마침 이스터 축제와 같은 시기에 있었다. 틴데일 역본과 다른 여러 역본들이 이것을 ‘이스터’(Easter)라고 번역했고 킹제임스 성경은 그 번역을 따랐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추천하고 싶은 두 가지 자료가 있는데 하나는 블랜튼(Raymond Blanton) 목사의 책(B.F.T #1673)이고 또 하나는 무어맨(Jack Moorman) 목사의 책(B.F.T #1737)이다. 이 유월절은 겉으로는 유월절이었지만 실제로는 당시 있었던 다른 절기를 가리켰다. 그것은 곧 ‘이쉬타르’(Ishtar)라는 이교도들의 명절로서 이 구절에

언급된 축일은 유월절이 아닌 바로 이 ‘Ishtar’였던 것이다. 자, 다음으로 이스터가 새로운 명절인가의 여부를 짚어 보자. 사실 ‘Ishtar’란 이교도들의 명절은 페니키아 사람들과 여러 이교 문화가 있었던 구약 성경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스다롯(Asheroth)이 ‘이스터’라는 용어의 어원으로서 ‘여성 바알’(a feminine Baal)을 뜻한다. 즉 바알은 남성이고 아스다롯은 여성이다. 그래서 ‘이스터’란 번역이 가능하다. 그렇다고 ‘유월절’(passover)이 틀린 번역은 아니다. 당시에 ‘유월절’과 ‘이스터’가 동시에 있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번역이 가능하다. 알다시피 현재 기독교의 부활절(이스터), 즉 달걀 굴리기 등을 하는 부활절은 전적으로 이교도들의 풍습이다. 여기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 부활절(이스터)과 이스라엘의 유월절이 시기적으로 비슷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앞서 소개한 두 권의 자료를 참고하기 바란다. 사도행전 12장 4절의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3절에서 ‘then were the days of unleavened bread’(‘베드로가 잡힌 때, 즉 그때는 무교절 기간이더라’)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레위기 23장 6절에 언급된 대로 ‘무교절’은 첫째 달 ‘십오 일’에 시작된다. 그리고 ‘유월절’은 첫째 달 ‘십사일’이다(레23:5). 자, 사도행전 12장 4절에는 ‘intending after Easter to bring him forth to people’(‘이스터가 지난 뒤에 그를 백성에게 끌어내려 함이더라’)라고 되어 있다. 사도행전 12장 3절에서 이미 무교절 혹은 그 달 15일이 되었는데 어떻게 그 뒤에 유월절(14일)이 올 수 있겠는가? 따라서 그때 유월절은 평상시의 ‘유월절’이 아니고 이교도들의 이스터였던 것이다.

24. 누가복음 1장 18절은 어떻습니까?

질문: 누가복음 1장 18절을 보면 사가랴가 노인이고(old man) 그의 아내가 매우 연로하였다(well stricken in years)고 되어 있다. 당시 풍습에 일부다처제가 있었음을 감안하여 주님께서 엘리사벳(늙고 나이가 든 아내)을 강조하신 것이 아니었을까?

답변: 아니다. 그런 이유와는 상관없다. ‘늙고’,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것은 그저 사가랴의 아내가 어떤 상태였는가를 보여 주기 위한 표현이었을 뿐이다. 사가랴에게는 오직 한 아내만이 있었다. 둘은 모두 늙었으며 엘리사벳은 늙은 나이에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말씀하셨다. 따라서 그 말씀들 중 어떤 것도 빠져서는 안 된다.

25. NKJV의 각주는 어떻습니까?

질문: NKJV의 각주가 혼란스럽다고 하지만 어차피 그리스어 본문에 있는 내용이 아닌가?

답변: 아니다. NKJV 각주는 공인 본문의 그리스어 본문이 아니라 네슬레/연합성서공회의 본문을 쓴다. 이 네슬레/연합성서공회 본문은 자유주의자들과 다수의 근본주의자들이 최고로 치는 그리스어 본문(네슬레/알란드 26판)이다. 네슬레와 연합성서공회는 네슬레/알란드 26판으로 의기투합하였다. 이 본문은 킹제임스 성경의 기초가 되는 공인 본문과 무려 5,600군데(그리스어 단어로는 9,970개)나 다르다. NKJV의 각주가 혼란을 야기한다는 것은 이것이 어린 신자들에게, 그리고 어느 정도 장성한 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심기 때문이다. 가령, 주의 만찬석상에서 목사가 고린도전서 11장 24절을 읽으려 한다고 하자. ‘... this is my body which is broken for you.’

스코필드 성경은 난외주에서 ‘찢긴’(broken)이란 이 단어가 의심스럽다고 말한다. 그래서 이 단어를 빼고 싶어 한다. 이런 경우 나는 스코필드 주석을 반대한다. ‘찢긴’은 분명히 그리스어 본문, 즉 공인 본문에 있는 단어이다. 여기엔 의심의 여지가 없다. NKJV도 마찬가지로 이 단어를 믿지 않는다. 그리고 주석에 이같이 기록되어 있다. ‘네슬레/연합성서공회 본문에는 ‘찢긴’이 빠져 있다.’ 결국 NKJV를 가지고 만찬에 참여했던 새 신자(혹은 구 신자)는 하나님 말씀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될 것이다. 웨스트코트/호르트 계열의 본문을 기초로 한 네슬레/연합성서공회 본문의 각주와 더불어 ‘M’이라는 본문도 있다. 이것은 소위 ‘핫지스와 파르스타드의 다수 본문’(Hodges and Farstad’s Majority text)으로 불리는데 이것 역시 공인 본문을 떠난 작품이다. B.F.T #1617에서 우리는 이른바 ‘다수 본문’의 실체를 160여 쪽에 걸쳐 철저히 파악하고 분석했다. 이것은 무어맨 박사가 쓴 책이다. 또한 「소위 ‘다수 그리스어 본문’이라 하는 것의 결함」이란 제목의 소책자도 있는데 이것은 ‘다수 본문’에 대한 짧은 논박의 글이다[B.F.T #1448]. 셋째 자료는 무어맨 박사의 더 긴 책을 요약한 소책자이다. 제목은 「우리가 ‘다수 본문’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이다[B.F.T #1727].

26. 킹제임스 성경 말고 그렇게 많은 역본들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문: 왜 이렇게 다양한 역본들이 있는가? 그냥 킹제임스 성경만 쓰면 안 되었던가?

답변: 오늘날 성경 번역은 하나의 사업이다. 본래 성경 번역은 지역 교회가 맡아서 해야 한다는 것이 나의 믿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땅히 교회에서 나와야 한다. 킹제임스 성경만이 쓰이던 시기에는 그랬다. 청교도들과 국교도(영국 국교회)들이 함께 킹제임스 성경을 붙들었다. 출판사가 아닌 교회가 주역이었다. NAS나 NKJV 같은 새 역본들을 출판하기로 결정한 것은 다름 아닌 출판사들이다. 성경들을 골라 공회로 넘긴 것도 그들이다. 출판사들은 성경 번역으로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장사를 한 것이다. 1380년부터 1991년까지 지난 612년 동안 영어권에는 135개의 성경전서와 293개의 신약 성경전서(총 428가지)가 출판되었다. 여기에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것에 대한 자세한 이름과 연도는 부록 B에 나와 있다. 빈도로 보자면 성경전서나 신약 성경전서(출판되지 않은 부분 성경이나 역시 출판되지 않은 성경전서나 신약 성경은 제외함)가 1.4년마다 한 권씩 나왔다. 20세기에 들어서서는 평균 0.51년당 한 권 꼴로 빈도가 잦아졌는데 이것은 6개월에 성경이 한 권씩 나온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하지만 이렇게 많은 성경이 나온 이유는 대부분 이것이 돈이 되기 때문이었다(물론 개인이 출판한 경우에는 다른 이유도 있었을 것이다). 돈 이외에 다른 목적은 극히 드물다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지금 이윤 창출 그 자체를 문제 삼으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성경을 출판하는 첫째 목적이 돈이라는 사실이 걸릴 따름이다. 성경전서나 신약 성경을 찍어 공짜로 나누어 주는 성경 출판사가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있다고 해도 아마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일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떤 동기로 그런 성경들을 구입하는가? 누가 물은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내가 대답해 보겠다. 내가 이러한 여러 가지 새 역본들을 구입하는 이유는 그것들을 분석하여 내용을 확인해 보고 어떤 식으로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기 위함이다. 또한 나는 번역자가 누구이며 그들의 자질과 언어적 능력이 어느 정도며 그들의 믿음은 어떠한지도 알아본다.

신미국표준역(NASB)의 출판사는 번역자들의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했다. 내가 직접

그들에게 물어보았지만 그들의 서면 답장은 이것이었다. “미안합니다. 그 정보는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누가 NASB의 역자인지 말하길 꺼려 했다. NASB를 분석하면서 나는 의장이 쓴 편지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그들의 결론은 “모든 영광이 주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였다. [한참 뒤에 그들은 태도를 바꾸어 자기 출판사에 기고한 사람들을 위해 번역자 명단을 공개했다.] 자, 맞는 말이다. 하지만 번역에 나타난 모든 오류와 혼란은 고스란히 번역자들의 책임이다. 주님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래서 나는 이 역본들을 분석하려고 구입하는 것이다.

그 외에 조금 다른 동기로 새 역본들을 구입하는 사람이 있다. 가령 조금 더 잘 읽힌다는 이유로 새 역본을 구입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어쨌든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는 사람이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일 년에 성경 한 권(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정도는 읽어야 한다. 하루에 85절이면 일 년에 성경 한 권을 읽을 수 있다. ‘연간 성경 읽기 표’가 성경 통독에 도움이 될 것이다[B.F.T #179]. 나는 1944년에 구원받은 이후 최소한 일 년에 한 번은 성경을 통독했다. 성경 읽기는 나의 즐거움이다. 물론 그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이었고 다른 번역본들은 그저 비교의 목적으로 볼 뿐이었다.

현재 나는 여러 가지 새 역본들을 섭렵하고 있다. 그렇다고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신실하고 믿을 만한 영어 역본이 있는데 중간에 다른 차로 갈아 탈 일은 없다. 만약 당신이 성경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를 만나면 사전을 찾아보면 된다. 아니면 생소한 단어 또는 오래된 단어를 모아서 설명해 놓은 ‘트리니티어인 성경공회’의 618개 단어 리스트를 참고해도 좋다[B.F.T #1060]. 자, 여기 당신에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하나는 킹제임스 성경을 읽고 가끔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사전을 찾아보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새 역본들을 읽고 번역이 정확한지 확인하기 위해 거기에 있는 단어들을 일일이 원문 히브리어, 그리스어와 비교한 다음 하나님의 말씀에서 첨가되고 삭제되고 바뀐 부분을 가려내어 모조리 바로잡는 것이다. 둘 중 어느 것이 더 쉽다고 생각하는가?

사람들이 어떤 의도로 새 역본들을 구입하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서재에 비치용으로 꽂아 두고 그것들을 볼 때마다 뿌듯함을 느끼기 위한 것일까? 한 사람은 킹제임스 성경을 읽고 다른 사람은 NIV를 읽고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역본을 읽고 있는데 어떻게 교회에서 같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겠는가? 개인이 새 역본들을 사용하는 동기는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하지만 출판사 측의 동기는 분명히 돈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돈이 되지 않으면 더 이상 그러한 역본도 출판되지 않을 것이다. 내 말이 믿기지 않는다면 하나의 사례를 보여 주겠다. 우선 부록 B에 있는 총 428개의 영어 성경전서와 신약 성경전서를 확인해 보라. 그리고 나서 지역에 있는 도서관을 찾아 가라. 참고 도서 코너로 들어가 참고 서적 중 출판 중인 도서 난으로 눈을 돌리라. 그리고 앞서 보았던 428개의 출판물 중 현재에도 여전히 출판되고 있는 책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라. 당신은 그중 현재 출판되는 책은 거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전에 우리 B.F.T 간사가 이것을 확인한 적이 있다).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은 여전히 살아 있으며 이 지구상에서 건재하다! 한 번쯤 멈추어 서서 왜 그런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수백 년 동안 이 독보적인 성경에게 복을 주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시기 때문이다. 밴브루겐(Jakob Van Bruggen)의 「성경의 미래」와 피커링(Wilbur Pickering)의 「신약 성경 본문의 정체성」의 출간이 중단된 것도 돈이 안 되기 때문이다 [이 두 책의 내용에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유익한 내용이 많이 있다].

넬슨 출판사는 이 두 책의 출판을 중단했는데 (전화로 문의했더니 이유를 내게 말해주었다.) 그 이유는 이 책을 구입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다. 아니면 그 출판사는 이 책들이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았는지도 모른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두 권의 책으로 인해 동적 일치 방법으로 번역된 넬슨의 다른 성경들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 책은 팔리지 않았고 그래서 출판이 중단되었다. 한번은 넬슨 출판사에 전화해서 재출판 계획이 없냐고 물었지만 대답은 “없습니다!”였다[결국 BIBLE FOR TODAY가 이 두 권의 책을 다시 출간했다. B.F.T #1256과 B.F.T #556 참조]. 그렇지만 다행히 「킹제임스 성경 배후의 사람들」이란 책은 시중에서 구할 수 있다. 이 책은 베이커 출판사가 출간했다.

27. 맥기 박사의 킹제임스 성경은 어떻습니까?

질문: J. Vernon McGee 박사의 [주석이 담긴] 킹제임스 성경에도 난외에 다른 설명이 덧붙여져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변: 맥기 박사는 내가 학생으로 있던 1948-53년에 델러스 신학교에서 전문 성경 강사로 일하던 사람 중 하나이다. 만약 이것이 킹제임스 성경 본문을 가지고 난외에 단어들의 정의를 곁들여 놓은 것이라면 나는 그 자체를 훌륭한 노력이라고 본다.

킹제임스 성경을 기초로 단어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을 난외에 두는 것은 좋은 일이다. 이로써 일일이 사전 찾아보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직접 이 성경을 보진 못했지만 어쨌든 가치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본문에 대한 도전이나 변개가 아니라면 문제는 없는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우리는 「Defined King James Bible」을 출간하였다. 이 책에서는 킹제임스 성경 본문은 고스란히 두었고 현대로 오면서 의미가 변했을 가능성이 있는 단어들만 추가로 설명해 놓았다. 특히 킹제임스 성경 본문은 Oxford판이 아니라 Cambridge판을 기초로 작업했다. Oxford판에는 원문 히브리어, 그리스어 혹은 1611년판 흠정역 성경과 조금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Defined King James Bible」은 상당히 유용한 자료이니 참조하기 바란다.

28. '역 번역'으로 특정 역본의 정확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을까요?

질문: NASB나 NIV의 영어에서 히브리어나 그리스어로 거꾸로 번역(Reverse Translation)해 결과를 보면 몇 가지 모호한 부분이 분명해 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

답변: 내가 매달리고 있는 일이 이 일이다. 내 경험으로 보면 여러 역본들을 히브리어 및 그리스어와 대조해서 비교 검토해 보면 킹제임스 성경이 늘 우위를 점하게 될 것이다. 킹제임스 성경의 영어를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로 번역해 보라. 가장 근접한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29. 'corn'과 'grain'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질문: NKJV는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grainfields'나 'grain'같은 표현을 썼고 킹제임스 성경은 그 자리에 모두 'corn'을 썼다. 교리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그리스어로는 'grain'이 맞지 않은가?

답변: 여기에 해당되는 그리스어 'porima'는 '파종된 밭, 곡물밭, 옥수수밭'이라는 뜻이다. 나는 NKJV, NASB, NIV가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친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 이 ‘corn’이라는 단어를 싫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corn’ 대신 ‘grain’을 썼다. 나는 농부도 아니고 농업 전문가도 아니지만 어쨌든 논점은 이 알갱이의 종류에 있다. 나는 그것이 충분히 ‘corn’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즉 나는 ‘corn’이 ‘sporima’에 대한 타당한 번역이라고 믿는다[이어지는 ‘corn’과 ‘grain’에 대한 몇 가지 질문들을 통해 이 주제에 대한 조금 더 명확한 답을 얻게 될 것이다.]

30. 바인의 책은 믿을 만합니까?

질문: 바인의 그리스어 번역은 마태복음 12장 1절의 ‘corn’이 ‘an ear of grain’(곡물 이삭)으로 되어야 한다던데 사실인가?

답변: 물론 ‘an ear of grain’으로 번역될 수 있다. 사실 이렇게 설명한 바인의 「바인의 신약 성경 단어 해설 사전」(*Vine's Expository Dictionary of New Testament Words*)은 하나의 성경 공부 도구이지 그리스어 성구 사전(sporima가 쓰인 성경의 모든 용례를 수록한 성구 사전)이나 그리스어 사전(‘sporima’에 대한 모든 의미를 수록한 사전)이 아니다. 바인은 이것을 ‘grain’이라 주장하지만 이것도 ‘sporima’가 가지고 있는 뜻의 일부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리델과 스코트(Liddell and Scott)의 두 권짜리 그리스어 사전을 보면 이 해당 그리스어 단어의 의미가 거의 한 페이지에 걸쳐 설명되어 있다.

[리델과 스코트의 그리스어 사전에서 ‘sporimos’를 찾아보다가 나는 ‘solid corn-fields’(단단한 옥수수밭)와 ‘corn-fields’(옥수수밭, 곡물밭), 그리고 ‘seed-corn’(씨 옥수수, 종자 곡물)이란 뜻을 발견했다.]

‘grain’이든 ‘corn’이든 모두 가능한 번역이다.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은 그리스어, 영어 모두에 있어 바인이나 지금 있는 ‘학자들’보다 뛰어났다. 따라서 킹제임스 성경 번역이 문제 있다는 말을 듣고 이리저리 둘러대거나 기죽을 필요는 없다. 바인의 정의는 최종적인 결론이 아니다. 그래도 영어권 사람들에게 바인의 사전은 쓸모가 있다. 다만 그리스어를 배우는 데는 그다지 유용하지 않다.

31. 어느 그리스어 뜻이 맞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질문: 같은 그리스어 단어를 두고도 어떤 사람은 이 뜻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저 뜻이라고 한다. 누구 말이 맞는가? 그리스어 단어를 공부할 때 바인의 사전은 소용없다. 해당 단어의 올바른 시제(tense)와 법(mood), 격변화(declension) 등을 알기 위해선 그리스어 사전이 필요하다. 바인의 책은 그것이 안 된다. 누가 옳은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답변: 나라도 킹제임스 성경보다는 NKJV의 번역을 선호하는 바인의 책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 리델과 스코트(Liddell and Scott), 혹은 몰튼과 게덴(Moulton and Geden) 혹은 쉐이어(Thayer)의 그리스어 사전이나 조금 더 최근에 나온 아르트와 킵지(Arndt and Gingrich)의 그리스어 사전을 사용할 것이다. 키텔(G. Kittel)이 쓴 「신약 성경 신학 사전」(*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이 있다. 이것은 한 세트가 19권이며 나도 보유하고 있다. 이 책에는 sporima의 어원인 sperma 어근에 대한 설명이 여덟 페이지에 걸쳐 수록되어 있다. 그리스어 단어의 다양한 의미가 이 사전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영어 단어의 다양한 의미를 알고 싶다면 나는 「옥스퍼드 영어 사전」(*Oxford English Dictionary - Unabridged*)을 추천하겠다.

이 사전에는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되었던 1611년 당시 영어의 의미가 잘 나와 있다.

32. 'corn'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이 차이가 있을까요?

질문: 오늘날의 'corn'은 그 당시의 'corn'과 다르다. 오늘날의 'corn'에는 낱알이 더 많이 들어 있다. 그리고 줄곧 곡물 사료로 쓰이고 있다.

답변: 'sporima'에 대한 이 질문의 둘째 답은 영어 사전에 있다. 1611년판 킹제임스 성경을 분석할 때는 1611년대에 사용되었던 의미를 잘 담고 있는 훌륭한 영어 사전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령, 'corn'이란 단어를 찾아보고 싶다면 옥스퍼드 영어 사전(OED)을 참고해 보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미세 활자판(micro print set)인데 돋보기를 써야 글씨가 제대로 보인다.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는 AD 1000년에서 시작하여 AD 1600년과 그 이후에 있었던 영어 단어가 총망라되어 있다. 여기서 1611년 당시 'corn'이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비단 이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이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즉 단어를 분석할 때 그리스어 단어만 보지 말고 해당 영어 단어가 1600년 당시에 가지고 있던 의미도 확인하는 것이다.

33. 왜 킹제임스 성경은 신성을 나타내는 대명사를 대문자로 처리하지 않습니까?

질문: 킹제임스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대명사 'Him'의 'H'를 대문자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수님에 대한 경의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답변: 이것은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이 처음 번역을 시작할 당시 문체와 관련된 관행이 그랬기 때문이다. 당시 신성을 나타내는 단어는 대문자로 하자는 그런 규칙 같은 것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은 아버지 하나님이나 주 예수님, 성령님을 가리키는 대명사를 대개 대문자로 쓴다. 1611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대문자를 쓰지 않았다고 하여 경의가 부족하다든지 혹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었다. 킹제임스 성경에는 신성과 관련된 대명사는 대문자로 하자는 방침이 없었을 뿐이며 이것은 결코 불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다. 오히려 신성 관련 대명사를 대문자로 하자는 규정이 있으면서도 제대로 대문자를 적용하지 않는 다른 현대 역본들이 그분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다.

34. 'thee'와 'thou'는 어떻게 됩니까?

질문: 'thee'와 'thou'는 어떤가?

답변: 이 질문은 또 다른 부분인데 내 기억으로 한두 역본이 신성을 가리킬 때는 'Thee'나 'Thou'를 쓰고 일반 사람에게는 'you'를 쓴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예수님을 가리킬 때 'Thou'나 'Thee'대신 여러 번 'you'를 사용했다. 이것이야말로 주님에 대한 신성모독이요 불경이다. 킹제임스 성경에 사용된 2인칭 대명사는 thee, thy, thyself, ye, you, your 그리고 yourselves로 정확성이 확실하다. 글자 'T'로 시작하는 대명사는 단수이며 'Y'로 시작하는 대명사는 복수이다. 이처럼 영어 독자들은 다른 현대 역본들과는 달리 킹제임스 성경에서 해당 2인칭 대명사가 단수인가 복수인가를 즉시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3장 7절을 보자.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Marvel not that I said unto thee, Ye must be born again.

현대 역본들에는 이 ‘thee’와 ‘ye’가 모두 ‘you’로 되어 있어 인칭대명사의 수나 그것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주님께서는 이 한 문장에서 단수(‘thee’)와 복수(‘ye’)를 연이어 사용하고 계시지만 현대 역본의 ‘you’로는 단수와 복수를 분간할 수 없다. 성경 전체에서 이런 경우는 흔히 있다. 킹제임스 성경으로는 이것을 확실히 알 수 있으며 굳이 답을 찾기 위해 그리스어나 히브리어를 뒤질 필요가 없다!

35. 계시록 22장 19절의 ‘대언’(prophecy)은 무슨 의미입니까?

질문: 계시록 22장 19절이 말하는 ‘이 대언’이란 단순히 계시록을 가리키는가, 아니면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인가?

답변: 일단 이것이 계시록을 가리키는 것은 확실하다. 그리고 계시록이 성경기록 중 마지막으로 기록된 책임을 감안할 때(내가 아는 바로는 그렇다.) 성경의 다른 책들도 여기에 충분히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당신에게 열두 장으로 된 책이 있는데 열두째 장에 “이 장(제12장)에 무엇이든 더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기록했다고 하자. 이것은 비단 제12장뿐 아니라 그 책 전체에 무언가를 더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기도 하다. 즉 마지막 장이 다른 장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계시록으로 성경이 완성된 이후 거기에 무언가를 더하는 것은 비단 계시록의 대언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전체에 더하는 것이 된다.

36. 거짓 역본은 거짓 교리를 낳습니까?

질문: 새 역본들로 인해 사람들이 여러 부분(가령 병 고침, 방언 따위)에서 바른 교리를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답변: 나는 새 역본들이 분명히 거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는다. 그중에서도 특별히 ‘리빙 바이블’은 고린도전서 14장의 타 언어들(tongues)을 여러 가지로 해석함으로써 은사 운동의 발전에 이바지한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리빙 바이블’은 방언에 대해 매우 자유롭고 방언과 은사 운동 전체를 옹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느슨하게 풀어 놓았고 더욱이 여러 사람의 말들을 섞어 놓아 어느 것이 어느 것인지 분간조차 어렵게 만들었다. 다른 역본들도 은사운동을 지원하는지는 모르겠다. 다만 ‘Jesus 76’ 집회에서는(이것은 펜실베이니아주의 소목장에서 있었던 집회로서 나도 참석했었다.) ‘리빙 바이블’이 다른 어떤 역본보다 많이 눈에 띄었다. 집회 진행 중 남자들이들은 윗도리를 벗고 있었고 여자 아이들은 팔과 등이 드러나는 여성용 드레스나 수영복 등을 입은 반나체 차림이었다. 또한 이들이 서로 껴안고 키스하는 모습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 시각 강단에서는 방언하는 사람들과 은사주의자들, 뭉포드(Bob Mumford)와 그의 군중들이 ‘리빙 바이블’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들은 리빙 버전을 최고의 번역으로 지지하고 있었다. 이 ‘리빙 바이블’의 진실을 알리는 책 중 하나가 바로 「의역된 변개본」(*The Paraphrased Perversion*)이란 책이다[B.F.T #127]. 이 책은 현재 ‘리빙 바이블’을 가장 잘 분석하고 있는 책이다.

부록 D

킹제임스 성경 연구와 관련된 251가지 질문

다음은 웨이트 박사가 본서를 교재로 택하여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에게 던진 질문들이다. 그것은 1993년 봄에 있었던 14주 과정 교육이었는데 50분짜리 수업 당 14페이지 분량으로 진행되었다. 교육 장소는 펜실베이니아 주 필라델피아에 있는 Bible Baptist Institute였으며 질문들은 웨이트 여사가 수업 중에 직접 받아 적은 것이다. 전체 과정은 오디오 카세트 7개 혹은 비디오 카세트 3개에 수록되어 있다. [오디오: B.F.T #2286/1-7, 비디오: B.F.T #2286VC1-3]

A. 예비 질문

1. 킹제임스 성경은 몇 가지 면에서 다른 '성경들' 혹은 '역본들'에 비해 뛰어난가?
2. 킹제임스 성경의 '우수성들'을 열거하라.
3. 어떠한 때 우리는 어떤 것을 두고 다른 것에 비해 '우수하다'는 말을 쓰는가?
4. 킹제임스 성경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혹은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를 설명하라.

B. 서문에 관한 질문

5. 킹제임스 성경의 근간이 되는 '그리스어 공인 본문'(TR)과 '웨스트코트와 호르트'(WH)의 그리스어 본문을 비교할 때 첨삭되고 변경된 단어가 몇 개나 되는가?
6. 공인 본문(TR)과 웨스트코트와 호르트(WH) 본문 간의 차이점을 모으면 그리스어 본문으로 몇 페이지가 되는가?

C. 도입부에 관한 질문

7.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온전히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할 때 '온전한'의 의미는 무엇인가?
8. '동적 일치'가 하나님의 말씀에 행한 일 세 가지를 말하라.
9.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 791,328개 영어 단어 중 1611년 이후로 그 의미가 바뀐 단어는 몇 개나 되는가?
10. NKJV에서 발견할 수 있는 동적일치의 사례: _____ 군데 이상
NASB에서 발견할 수 있는 동적일치의 사례: _____ 군데 이상
NIV에서 발견할 수 있는 동적일치의 사례: _____ 군데 이상
11.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 791,328개 영어 단어 중 1611년판과 비교할 때 현대에 와서 발음이 달라진 부분은 몇 군데가 되는가?

D. 1장 - 성경 보존에 관한 질문

12. '성경 보존'을 믿는 믿음의 의미는 무엇인가? 성경적 의미에서 어떤 언어가 성경 보존의 대상이 되는가?

13. '성경 보존'을 믿어야 하는 두 가지 이유를 말하라.
14. 시12:6-7은 어떻게 성경 보존을 약속하는가?
15. 시105:8은 어떻게 성경 보존을 약속하는가?
16. 마4:4의 '기록된 바'(It is written)가 뜻하는 바를 말하라. 이 말이 어떻게 성경 보존과 연결되는가?
17. 마5:17-18에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보존에 대해 얼마나 자세히 약속하셨는가?
18. 마24:35는 어느 정도까지 성경 보존을 약속하는가?
19. 벰전1:23-25는 어떻게 성경 보존을 약속하는가?
20.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가?
21. 롬4:20-21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지킨다는 사실을 어떻게 보여 주는가?
22. 역사적 신앙 고백서란 무엇인가?
23. 역사적 신앙 고백서들에 성경 보존에 대해 언급된 부분이 있는가?
24. 역사적 신앙 고백서들 중 성경 보존에 대한 신앙을 나타내는 데 쓰인 표현들을 말하라.
25. 역사적 신앙 고백서들은 원래의 히브리어, 그리스어 성경의 번역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가?
26.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영어로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말하는 이유를 네 가지로 설명하라.

E. 2장 - 킹제임스 성경의 우수한 구약 본문에 관한 질문

27. 킹제임스 성경의 원어 본문이 현대 역본들의 원어 본문에 비해 뛰어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28. 킹제임스 성경의 뿌리가 되는 구약 원어 본문은 무엇인가?
29. 킹제임스 성경의 구약 원어 본문을 '바로잡는 데' 사용된 NASB의 구약 본문은 무엇인가?
30. 같은 역할을 하는 NIV의 구약 본문을 말하라.
31. 같은 역할을 하는 NKJV의 구약 본문을 말하라.
32. 어떤 성경 구절을 근거로 유대인들이 성경을 모으고 지켰다는 사실을 입증하겠는가?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33. 히브리어 구약 성경기록을 지키기 위해 유대인들이 썼던 방법들을 열거하라.
34. 'Masoretic'(마소라의)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35. 마소라들은 히브리어 성경기록을 어떻게 하였는가?
36. 킹제임스 역본 번역에 쓰인 마소라 히브리어 본문은 어느 것인가?
37. 마소라 본문의 연대는 언제인가?
38. 마소라 본문의 편집자는 누구인가?
39. 마소라 본문을 편집해서 나온 책의 이름이 무엇인가?
40. 1937년 이후로 현대 역본들이 채택하고 있는 히브리어 본문의 이름을 말하라.
41. 현대 역본들이 쓰고 있는 히브리어 성경의 이름은?
42. 상기 히브리어 성경의 편집자는 누구인가?
43. 상기 본문에 이어 나온 사본은 무엇인가?
44. 이 사본이 나온 날짜는?

45.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마소라 사본 전체가 사용된 반면 현대 역본들에는 유독 이 한 가지 히브리어 사본이 사용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46. 키텔이 자신의 「비블리아 헤브라이카」(*Biblia Hebraica, BHK*) 각주에서 고칠 것을 제안한 항목이 대략 몇 가지나 되는가?
47. 오늘날 대부분의 대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히브리어 성경 혹은 본문은 어떤 것인가?
48. 오늘날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최신 히브리어 성경의 이름이 무엇인가?
49. 이 히브리어 성경은 언제 나왔는가?
50. 킹제임스 성경의 기초가 되는 마소라 히브리어 본문을 ‘바로잡는 데’ 쓰인 19가지 잘못된 문서를 말하라. 이 문서들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51. 킹제임스 성경의 기초가 되는 마소라 본문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52. 구약 마소라 히브리어 본문이 ‘예수님께 권위를 인정받은 본문’이란 말은 무슨 뜻인가?
53. 마4:4는 예수님께서 구약 마소라 히브리어 본문의 권위를 인정하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보여 주는가?
54. 같은 맥락에서 마5:17-18은 어떤가?
55. 구약 성경을 인용하실 때 예수님께서서는 흔히 ‘70인역’(Septuagint)이라 불리는 것을 참고하셨는가? 아니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56. 에드워드 힐즈 박사는 그리스도께서 히브리어 구약을 인용하신 것을 두고 무엇이라 말하였는가?
57. 딕 월슨 박사는 오늘날의 히브리어 본문을 어떻게 보는가?
58. 킹제임스 성경의 근간이 되는 전통 마소라 히브리어 구약 성경 본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떤 선택이 남아있는가?
59. 루돌프 키텔은 어떤 신학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가?
60. 존더반 출판사의 행간 히브리어 구약은 일부 구절에 어떤 일을 행하였는가?
61. 다시 묻겠다. 어느 본문이 킹제임스 성경의 구약 기초인가?

F. 2장 - 킹제임스 성경의 우수한 신약 본문에 관한 질문

62. 어떤 이유에서 킹제임스 성경의 신약의 기초인 ‘공인 본문’이 다른 모든 그리스어 본문들보다 뛰어난가? 두 가지를 말하라.
63. ‘공인 본문’(Textus Receptus)의 뜻을 말하라.
64. 오늘날 어떤 그리스어 본문이 그리스어 공인 본문의 최대의 적으로 남아 있는가?
65. 상기 그리스어 본문은 1898년부터 1979년 사이의 81년 동안 몇 번의 개정을 거쳤는가?
66. 이것은 몇 년에 한 번꼴로 개정된 것인가?
67. 이 본문의 편집자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입장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68. 이 잘못된 그리스어 신약 본문을 바탕으로 제작된 현대 신약 성경 역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69. 이 그리스어 본문이 신약 성경 원본의 정확한 말씀들을 담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말하겠는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를 대라.
70. 킹제임스 성경의 기초가 되는 정확한 그리스어 본문을 출판한 곳이 어디인가?
71. 누가 이 그리스어 본문을 모았는가?

72. 그리스어 신약 성경을 번역할 때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은 그리스어 본문으로 누구의 몇 판을 사용하는가?
73. 킹제임스 성경 신약을 번역할 때 이 판에 있는 내용과 달리 번역한 곳은 몇 군데나 되는가?
74. 킹제임스 성경의 기초가 되는 이 본문이 지난 400년 동안 바뀐 적이 있는가?
75. 다시 말한다. 킹제임스 성경의 신약 기초인 '공인 본문'이 다른 모든 그리스어 본문들 보다 뛰어난 이유 두 가지를 말하라.
76. 킹제임스 성경의 근간이 되는 공인 본문을 배척하는 데 앞장 선 두 인물을 말하라.
77. 이들이 개정한 그리스어 신약 본문이 언제 등장하였는가?
78. 그들의 신학적 입장을 평가하라.
79. 그들이 신약 성경 본문을 몇 군데나 변개(침삭)하였는가?
80. 그리스어 단어로는 몇 개인가?
81. 이 단어들을 한 곳에 모은다면 그리스어 신약 성경 중 총 몇 페이지가 변개되는가?
82. 여러 사례들을 통해 이들의 이단성을 폭로하는 책이 있다. 무엇인가?
83.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의 거짓 이론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84. 책 무어맨 목사는 공인 본문과 비교할 때 거짓 본문에서 빠진 그리스어 단어가 몇 개임을 확인했는가?
85. 누락된 그리스어 단어들을 영어 단어로 환산하면 신약 성경의 이 책들과 맞먹는 양이라고 한다. 이 책들은 어떤 책들인가?
86. 흔히들 그리스어 신약 본문에 바뀐 부분들이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 이것이 사실인가? 이유를 말하라.
87. 잘못된 그리스어 본문 한두 군데에서 교리 하나가 빠져도 그것이 다른 곳에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88. 킹제임스 성경은 '영어로 된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NIV, NASB 같은 현대 역본들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라.
89. 웨이트 박사는 자신의 스승으로부터 어떤 것이 참 그리스어 본문이라고 배웠는가?
90. 공인 본문이 교회가 받아들인 본문이라고 할 때 이를 뒷받침하는 37가지 역사적 증거가 따라다닌다. 이 37가지 연결 고리들을 요약해서 설명하라.
91. 킹제임스 성경의 기초가 된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말씀들에 대한 저자의 결론은 무엇인가?
92.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잘못된 그리스어 본문이 처음 대중들 앞에 선을 보인 것은 몇 년도인가?
93. 이 거짓 그리스어 본문을 기초로 만들어진 첫째 영어 신약 성경이 무엇인가?
94. 같은 그리스어 본문을 기초로 해서 최근에 나온 영어 신약 성경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95. 'RIGHT WRITER'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의 가독성이 어떠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가?
96. 아무리 성경이 간단하고 읽기 쉬워도 성경을 이해하는 유일한 길은 따로 있다. 성경은 이를 무어라고 말하는가?

97. 킹제임스 성경과 다른 여러 성경 역본들을 둘러싼 논쟁의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리라고 생각하는가?
98. 오늘날 그리스어 신약의 신뢰성을 가늠할 수 있는 증거에는 세 종류가 있다. 어떤 것들인가?
99. 1967년을 기준으로 우리에게 남아 있는 그리스어 신약 성경 사본이 몇 개나 되는가?
100. 그리스어 사본의 네 가지 종류를 말하라.
101. 현재 우리에게 있는 그리스어 신약 성경 파피루스 사본은 몇 개인가?
102. 전체 파피루스 사본 중 웨스트코트/호르트 계열과 공인 본문 계열의 비율이 각각 얼마인가?
103. 현재 우리에게 있는 그리스어 신약 성경 영철 사본은 몇 개인가?
104. 전체 영철 사본 중 웨스트코트/호르트 계열과 공인 본문 계열의 비율이 각각 얼마인가?
105. 현재 우리에게 있는 그리스어 신약 성경 필기체 사본은 몇 개인가?
106. 전체 필기체 사본 중 웨스트코트/호르트 계열과 공인 본문 계열의 비율이 각각 얼마인가?
107. 현재 우리에게 있는 그리스어 신약 성경 성구집 사본은 몇 개인가?
108. 전체 성구집 사본 중 웨스트코트/호르트 계열과 공인 본문 계열의 비율이 각각 얼마인가?
109. 마가복음의 마지막 12구절(막16:9-20)이 원래부터 있었음을 변호하는 책이 무엇인가?
110. 킹제임스 성경의 기초 그리스어 본문을 지지하는 고대 역본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111. '교부'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
112. 참 그리스어 신약 성경 본문을 확정하는 데 있어 교부들은 어떤 역할을 했나?
113. BIBLE FOR TODAY가 재간행한 딘 버전의 책들을 말하라.
114. 딘 버전은 교부들의 인용문을 몇 개나 기록했는가(색인 수)?
115. 이 색인들은 책으로 몇 권 분량인가?
116. AD 100-600년의 기간에 저술 활동을 한 교부들은 몇 명인가?
117. 딘 버전은 교부들이 킹제임스 성경의 기초인 전통 그리스어 본문을 지지한 것과 관련하여 어떤 사실을 발견했는가?
118. 같은 주제에 관해 책 무어맨은 무엇을 발견했는가?
119. 'B'나 'Aleph'는 어떤 그리스어 신약을 가리키는 문자인가?
120.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는 'B'와 'Aleph'사본을 어떻게 보았는가?
121. 'B'와 'Aleph'에 대해 이 책의 저자는 어떻게 평가했나?
122. 어떤 근거에서 'B'와 'Aleph'가 보존되었다고 주장하는가? 두 가지 이유를 말하라.
123. 'Aleph' 사본의 발견 경로를 말하라.
124. 'Aleph' 사본이 여러 손을 거치면서 최초의 그것과 얼마나 달라졌는가?
125.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는 자기들의 거짓 신약 그리스어 본문을 만들 때 이 'B'와 'Aleph' 사본을 어떻게 이용했는가?
126. 호스키어(Herman C. Hoskier)가 밝힌 'B'와 'Aleph'사본의 진실은 무엇인가?

127. 오늘날 목사들과 교사들은 AD 400년 이전에는 공인 본문이 사용된 전례가 없다고 독단한다. 당신은 이에 어떻게 답하겠는가?
128. 호르트는 몇몇 초기 교부들이 공인 본문의 독본을 성경 구절로 인용한 사실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129. 킹제임스 성경의 근간이 되는 신약 그리스어 본문에 대한 저자의 결론은 무엇인가?

G. 3장 - 킹제임스 성경의 우수한 번역자들에 대한 질문

130.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과 그들의 업적에 대해 다룬 값진 책 두 권의 이름을 대라.
131. 오늘날 많은 이들이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의 구원을 의심하고 있고 성경을 번역할 때에도 그들이 성경 번역에 대한 필요성과 시급성, 가치에 대한 영적인 통찰 없이 그저 일상적인 업무로 일을 진행했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답할 말이 있는가?
132.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은 몇 개 조로 편성되어 진행되었는가?
133. 각 조가 일을 하기 위해 모였던 곳은 어디인가?
134. 초기에는 킹제임스 성경에 외경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번역자들이나 영국 교회가 외경을 정경으로 믿고 있었던 애긴가?
135.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을 최초로 제임스 왕에게 청원한 사람은 누구인가?
136. 번역은 언제 시작됐으며 언제 완성되었나?
137. 그 기간 동안 번역에 참여한 사람은 총 몇 명인가?
138. 앤드류스(Lancelot Andrews) 박사의 우수한 번역 자질에 대해 말하라.
139. 베드웰(William Bedwell) 박사의 우수한 번역 자질에 대해 말하라.
140. 스미스(Miles Smith) 박사의 우수한 번역 자질에 대해 말하라.
141. 새빌(Henry Savile) 경의 우수한 번역 자질에 대해 말하라.
142. 보이스(John Bois)의 우수한 번역 자질에 대해 말하라.
143. 외경이 하나님의 말씀 혹은 정경이 될 수 없는 이유 일곱 가지를 대라.
144. 저자는 미시간 대학에서 어떤 종류의 그리스어를 배웠는가?
145. 이 책은 24명의 나머지 번역자들에 대해 소개한다. 그중 6명만 선택하여 킹제임스 역자로서의 그들의 자격에 대해 말하라.
146.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의 우수성에 대해 맥클루어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가?
147. 맥클루어는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과 비교하면서 다른 역본들의 번역자들의 열등함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148. 킹제임스 성경 번역의 탁월함에 대해 말한 게데스(Alexander Geddes) 박사의 평가를 요약하라.

H. 4장 - 킹제임스 성경의 우수한 번역 기법에 대한 질문

149. '방법'(technique)이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가?
150. 킹제임스 성경에 채택된 두 가지 번역 기법으로 말미암아 킹제임스 성경은 다른 성경에 비해 뛰어나다. 이 두 방법이 무엇인가?
151. 여러 조건들 중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 각 사람에게 요구되었던 조건이 무엇이었나?
152. 웨스트민스터 구약 그룹은 어떤 부분의 번역을 맡았는가?
153. 웨스트민스터 신약 그룹은 어떤 부분의 번역을 맡았는가?

154. 옥스퍼드 구약 그룹은 어떤 부분의 번역을 맡았는가?
155. 옥스퍼드 신약 그룹은 어떤 부분의 번역을 맡았는가?
156. 케임브리지 구약 그룹은 어떤 부분의 번역을 맡았는가?
157. 나머지 케임브리지 그룹은 어떤 부분의 번역을 맡았는가?
158. 킹제임스 역본을 비판하면서 제임스 왕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는가?
159.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의 번역 규칙 #8을 요약 설명하라.
160.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의 번역 규칙 #9을 요약 설명하라.
161.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의 번역 규칙 #10을 요약 설명하라.
162.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의 번역 규칙 #11을 요약 설명하라.
163.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의 번역 규칙 #12을 요약 설명하라.
164.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의 팀 단위 작업은 NASB, NIV, NKJV같은 현대 역본 번역자들의 작업 방식과 비교할 때 어떤 면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가?
165. 킹제임스 성경 번역에는 두 가지 우수한 번역 기법이 적용되었다. 무엇인가?
166. NASB, NIV, NKJV 같은 현대 역본이 채택한 번역 방식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열등하다. 이 방식이 무엇인가?
167. '동적 일치'(dynamic equivalence)가 무엇인가?
168. '문자적 일치'(verbal equivalence)가 무엇인가?
169. '형식적 일치'(formal equivalence)가 무엇인가?
170. 저자가 동적 일치를 마귀적인 것으로 여기는 이유가 무엇인가?
171. 동적 일치 기법은 어디서 시작되었나?
172. 마귀의 삭제 법칙에 대해 설명하라.
173. 1991년까지 지난 612년 동안 간행된 영어 성경전서는 총 몇 권인가?
174. 1991년까지 지난 612년 동안 간행된 영어 신약전서는 총 몇 권인가?
175. 저자가 NKJV에서 발견한 첨가, 삭제, 변경의 예들이 몇 가지나 되는가?
176. NASB에서는 몇 개나 되는가?
177. NIV에서는 몇 개나 되는가?
178. 마귀의 변경 법칙에 대해 설명하라.
179. 마귀의 첨가 법칙에 대해 설명하라.
180. '동적 일치'를 시작한 존재가 누구인가?
181. 동적 일치의 3중 정의를 말하라.
182. 동적 일치의 근대적 '창시자'는 성경 번역을 주제로 한 자신의 글과 책들의 많은 부분을 몇 년 동안 써냈는가?
183. '현대인을 위한 복음'(Good News for Modern Man)으로 알려진 Today's English Version에 나타난 동적 일치의 한 가지 예를 들어보라.
184. 자기들이 인가한 모든 성경에 동적 일치를 허용한 배도 단체가 어디인가?
185. 동적 일치를 자랑스럽게 표방한 현대 역본은 무엇인가?
186. 이 책의 출간은 소위 근본주의 진영에 동적 일치가 도입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 어떤 책인가?
187. 이 책이 다루고 있는 분야를 말하라.
188. 연관된 선교 단체가 어디인가?

189. 의역을 돕고 있었던 현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이 성경 말씀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가?
190. 동적 일치의 원리를 수용한 또 하나의 소위 근본주의 침례교 선교 단체가 있다. 어디인가?
191. 동적 일치를 받아들이게 되면 원어 본문에 기록된 단어 하나하나의 가치는 어떻게 되는가?
192. 오늘날 킹제임스 성경과 1611년판 킹제임스 성경을 비교할 때 소리가 다르게 나는 부분이 몇 군데나 되는가?
193. NKJV의 분석 결과를 말하라.
194. NASB의 분석 결과를 말하라.
195. NIV의 분석 결과를 말하라.
196. 연합성서공회는 앞으로 어떤 종류의 성경만을 만들어 낼 예정인가?
197. '동적 일치'를 간단하게 정의한다면?
198. '동적'(dynamic)이란 단어의 뜻을 말하라.
199. 무엇이 달라졌는데도 여전히 같을 수 있는가?(자신의 견해를 말하라)
200. '일치하는'(equivalent)이란 단어의 뜻을 말하라.
201. '관용적인'(idiomatic)이란 단어의 뜻을 말하라.
202. '관용적'으로 번역된 성경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203. '번역'(translation)을 간단하게 정의한다면?
204. '의역'(paraphrase)을 간단하게 정의한다면?
205. 성경이 세계 여러 나라 말로 보급되기 위해서는 순수 번역을 통해야 하는가? 아니면 관용적 의역을 통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말하라.
206. 저자가 NKJV에서 발견한 의역 혹은 동적 일치(즉, 하나님의 말씀을 대상으로 한 첨삭 및 변경)의 사례들이 몇 개나 되는가? 같은 내용으로 NASB와 NIV에 대해서도 답하라.
207. 스틸(Francis Steele) 박사가 내린 번역의 상세한 정의를 요약하라.
208. 동적 일치를 마귀적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209. 동적 일치를 속임수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210. 동적 일치를 의도적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211. 동적 일치를 정직하지 못한 것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212. 동적 일치가 사람을 신격화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213. 동적 일치를 불순종으로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214. 동적 일치는 하나님께서 인정치 않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215.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는 동적 일치를 두고 다음 성경 말씀들은 무어라 말하는가?
신4:2; 신12:32; 잠30:6; 계22:18
216. 하나님의 말씀을 감하는 동적 일치를 두고 다음 성경 말씀들은 무어라 말하는가?
신4:2; 신12:32; 렘26:2
217.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하는 동적 일치를 두고 다음 성경 말씀들은 무어라 말하는가?
신5:32-33; 신17:18-20; 신28:13-14; 수1:7-8; 왕하22:2
218. '사상이나 관념'보다 하나님의 '말씀들'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13개의 성경 구절이

있다. 여기서 6구절만 발췌하여 그 내용을 설명하라.

219. 동적 일치를 반대하는 이들은 「성경의 미래」라는 책에서 어떤 도움을 얻을 수 있는가?
220. 「성경의 미래」는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으로 알고 있는 그 성경의 미래가 암울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그 두 가지 이유가 무엇인가?
221. 밴브루겐(Van Bruggen)은 자신의 책에서 번역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주신 형식을 존중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썼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하는가?
222. 동적 일치는 말씀의 형식을 어떤 식으로 다루는가?
223. 밴브루겐(Van Bruggen)은 “성경 번역에서 순종이란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그대로를 신중하게 전달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224. 현대 성경 번역자들에게 ‘바이블’로 통하는 책이 있다. 무엇인가?
225. ‘암시적’(implicit)이란 단어의 뜻은 무엇인가?
226. ‘명시적’(explicit)이란 단어의 뜻은 무엇인가?
227. ‘번역자들을 위해 쓰였다’는 이 책은 번역자들이 ‘암시적’인 정보를 다루는 나름대로의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번역의 바른 원칙을 어기고 있다. 다음 구절들에서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라. 살전4:14; 딤후1:7; 눅4:29-30
228. 이 책은 또한 번역자들이 ‘명시적’인 정보를 다루는 나름대로의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번역의 바른 원칙을 어기고 있다. 다음 구절들에서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라. 눅 1:18; 눅8:35-38
229.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NKJV를 쓰는 것은 어떠냐고 묻는다면 그 사람에게 어떤 사실들을 말해 줄 수 있겠는가?
230. NKJV의 신약 성경 각주에는 독자들을 위한 일종의 ‘본문 전시장’이 마련되어 있다고 한다. 저자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인가?
231. NASB의 문제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232. NIV의 문제점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233.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현대 역본들(NKJV, NASB, NIV)이 어떻게 킹제임스 성경과 그것의 근간인 된 히브리어, 그리스어 본문과 다른지 확인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예를 현대 역본 하나를 들어 5가지 정도 제시하라.
234.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 8개 단어가 NIV에는 많아야 2개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 무엇인가?
235. 새로운 역본들에서 어떤 신학적 변경이 일어났는지 다음 구절들에서 확인하고 설명하라. 딤후3:16; 막16:15; 눅2:33; 눅24:51

I. 5장 - 킹제임스 성경의 우수한 신학에 대한 질문

236. 다음 사람들은 여러 그리스어 독본이 있고 여러 성경 역본이 있지만 그 어떤 것도 교리나 신학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들의 그릇된 발언을 소개해 보라: Philip Schaff 박사, Arthur T. Pierson 박사, Louis T. Talbot 박사, John R. Rice 박사, Robert L. Summer 박사, Robert L. Thomas 박사, H. S. Miller 박사, Stanley Gundry 박사, Ernest D. Pickering 박사 등

237. 웨스트코트/호르트 계열의 그리스어 본문과 공인 본문 계열의 그리스어 본문 간의 많은 교리적 차이점을 발견해 낸 현대 저술가는 누구인가?
238. 그가 펴낸 책의 이름이 무엇인가? 그는 상기 두 종류의 본문에서 교리적으로 차이가 나는 성경 구절을 몇 개나 발견했는가?
239. 공인 본문 그리스어 신약과 비교할 때 네슬레/알란드 26판(웨스트코트/호르트 계열 그리스어 본문)에서 빠진 그리스어 단어가 몇 개나 되는가?
240. 위에서 빠진 그리스어 단어들을 한데 모으면 신약 성경에 있는 책 두 권과 맞먹는다 (그리스어 단어 수로 환산할 때)고 한다. 신약의 어느 책들을 말하는가?
241. 여러 현대 역본들의 신학적 오류를 확인하기 위해 저자가 사용한 방법이 무엇인가?
242. 현대 역본들이 삼위일체를 의심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예를 제시하라.
243. 현대 역본들이 그리스도께서 사탄에게 명령한 사실을 의심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예를 제시하라.
244. 신 역본들이 부인하는 신약 성경 구절들 중 그 범위가 가장 큰 부분이 있다. 어느 말씀인가? 이 말씀들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라.
245. 신 역본들은 다니엘의 사역과 예언을 어떻게 의심하고 있는가?
246. 신 역본들은 베드로후서에 있는 베드로의 사도권을 어떤 식으로 다루고 있는가?
247. 신 역본들은 성경 말씀들의 중요성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248. 신 역본들의 의심하고 있는 예언의 성취에는 어떤 것들 있는가?
249. 종말론 혹은 미래의 일에 대한 교리와 관련된 구절 15개 중 7개를 발췌하여 현대 역본들이 이 구절들을 어떻게 약화시키고 부인하였는지 설명하라.
250. 구원론 혹은 구원의 교리와 관련된 구절 19개 중 10개를 골라 현대 역본들이 이 구절들을 어떻게 약화시키고 부인하였는지 설명하라.
251. 그리스도론 혹은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와 관련된 구절 86개 중 20개를 골라 현대 역본들이 이 구절들을 어떻게 약화시키고 부인하였는지 설명하라.

부록 E

용어 설명과 영어 성경 및 사본 약자

A. 용어 설명

성경 이슈를 논하기 전에 먼저 몇 가지 용어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이 책에서 자주 보게 될 용어들 가운데 몇 가지를 선정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이외에 더 필요한 것들은 독자들이 시간을 내서 공부를 조금 하기 바란다.

1. 파피루스(Papyrus): 값싼 종이. 원래 파피루스는 고대의 문방구 또는 사초과(莎草科 Cyperaceae)에 속하는 파피루스(Cyperus papyrus)에서 유래한 식물이며 다음은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서 인용한 것이다.

파피루스 식물은 이집트의 나일 강 삼각주 지역에서 오랫동안 재배했으며 자루 또는 줄기를 쓰기 위해 모았는데, 가운데 수(髓) 부위를 얇고 긴 조각으로 잘라 압착하여 말려서 매끄럽고 얇은 필기 용지를 만든다. 파피루스는 풀처럼 생긴 수생식물로, 목본성의 무딘 3각형 줄기를 가지며 깊이가 90cm 정도인 잔잔하게 흐르는 물에서 키 4.6m까지 자란다. 지금은 종종 따뜻한 지역에서 연못에 관상용으로 심거나 온실에 심고 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파피루스 줄기를 돛, 천, 방석, 밧줄, 종이를 만드는 데 썼다. 파피루스로 만든 종이는 고대 이집트인의 주요한 문방구로서 그리스인이 이를 도입했고 로마 제국에서 널리 사용되었다. 이것은 책(두루마리 형태)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통신문과 법률 공문서로 쓰였다. 플리니우스는 파피루스로 종이를 제조하는 법에 대해 기술했는데 줄기 속의 섬유층을 제거하고 세로로 길쭉한 조각으로 잘라 이들을 나란히 놓은 다음 그 위에 다른 조각들을 직각으로 교차시킨다. 이렇게 2층으로 쌓은 시트를 풀이 죽게 압축시킨다. 말리는 동안 아교 같은 수액(樹液)이 시트를 서로 접착시킨다. 마지막으로 시트를 망치로 두드린 다음 햇볕에 말린다. 이렇게 만들어진 종이는 순백색을 띠는데 잘 만들어진 것은 반점, 얼룩 및 다른 결함 등이 없다. 시트를 풀로 붙여 두루마리로 만드는데 대개 하나의 두루마리에 시트가 20개 이상은 들어가지 않는다. 파피루스는 8, 9세기에 다른 식물섬유로 종이를 제조하게 되기 전까지 이집트의 아랍인들이 재배했고 문방구를 만드는 데 썼다. 3세기경에 이르러 유럽에서는 파피루스가 이미 저렴한 벨럼으로 대체되기 시작했지만 12세기경까지는 책이나 공문서를 만들기 위해 간간히 쓰였다. 이처럼 양피지에 비해 값이 싼 종이조각들은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으며 아마도 신약 성경은 원래 이런 종이 위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학자들이 발견한 이런 종이조각들은 1, 2, 3, 4, 5, 6, 7 등의 번호가 매겨졌으며 그 안에는 신약 성경의 다른 부분들이 적혀 있었다. 이런 파피루스 중 많은 수가 교회 역사의 첫 3세기(주후 100-300년) 동안에 만들어졌다.

2. 벨럼(Vellum): 글이 기록된 고급 가죽(양피지). 벨럼은 주로 양, 염소, 송아지 등 동물의 가죽을 가공 처리하여 만든 서사(書寫)의 재료이며 다음은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서 인용한 것이다.

BC 2세기에 고대 그리스의 도시 페르가뭄(지금의 터키 베르가마, 성경의 버가모)에서 양피지가 발명되었다는 것으로 보아 양피지의 명칭이 이 도시에서 유래한 듯하다. 짐승의 가죽이 필기 재료로 쓰인 것은 그보다 더 오래되었지만, 가죽을 보다 철저하게 세척하고 늘리고 문지르는 새로운 방법이 개발됨에 따라 필사지의 양면 사용이 가능해졌고, 그 결과 두루마리 사본이 철을 한 책자(코덱스)로 대체되기에 이르렀다. 송아지나 새끼 염소의 가죽 또는 사산되었거나 갓 태어난 송아지나 양의 부드러운 가죽으로 만든 양피지는 벨럼이라고 불렸는데, 이 말은 사용 범위가 확대되어 모든 최고급 양피지를 일컫는데 쓰이게 되었다. AD 6세기에 대부분의 초기 사본들에 사용되었던 벨럼은 질이 좋았다. 이후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상당한 양의 불량품이 시장에 나왔으나 서유럽에서 많은 필사본이 만들어졌던 12세기까지는 부드럽고 유연한 벨럼이 유행했다. 초기에 콘스탄티노플에서는 진한 자줏빛 염색을 하고 금으로 글씨를 새긴 호화스러운 형태의 양피지가 만들어졌는데, 성 제롬은 그의 잘 알려진 시구에서 이러한 관행을 쓸모없는 사치라 비난했다. 자줏빛 염색은 그 후에 사라졌지만 금은, 기타 색조로 양피지 사본에 ‘윤을 내는’ 관행은 중세에도 크게 유행했다. 오늘날 양피지와 벨럼이라는 용어는 주로 목재 펄프 및 제지용 냅마로 제조하여 특수한 마감 처리를 한 일종의 고급 종이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벨럼 중 몇몇은 족자처럼 말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두루마리’(scroll)라고 불리며 또 어떤 것은 마치 책처럼 장(page)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코덱스’(codex)라고 불린다.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두 개의 ‘코덱스’는 ‘바티칸 코덱스’(Vaticanus)와 ‘시내 코덱스’(Sinaiticus)이다. 이들은 보통 ‘바티칸 사본’(B) 그리고 ‘시내 사본’ 혹은 ‘알레프’(A)라 불리는데 여기서 ‘알레프’는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글자이다.

3. 자필 원본: 글자나 음표 등을 작가가 직접 손으로 쓴 원고. 다음은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서 인용한 것이다.

영어의 ‘autograph’는 사람이 손으로 쓴 서명을 가리키기도 한다. 골동품으로서 지니는 가치나 부수적인 가치 이외에도 자필 원고는 원고의 초기 초안이거나 또는 수정본일 수 있고 작성 단계상 귀중한 증거나 작품의 마지막 수정판의 귀중한 증거를 제공한다.

본서는 성경을 다루고 있으므로 여기서 말하는 자필 원본은 ‘성령님의 영감을 받아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최초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원본’을 가리키며 이것들은 다 소실되어 현재는 하나도 남아 있지 않다.

4. 사본(Manuscripts): 이것은 성경의 구절이나 일부분을 담고 있는 기록으로 파피루스나 벨럼에 기록된 문서이다. 신약 성경 사본이든 구약 성경 사본이든 성경 전체를 담고 있는 것은 거의 없으며 대부분의 사본들은 그중 일부분만을 담고 있고 심지어 어떤 것들은 단지 몇 구절만 담고 있다.

5. 사본들의 계열(Families of manuscripts): 현재 4종류의 사본 계열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킹제임스 성경(KJV)과 마르틴 루터의 성경 등은 ‘시리아 계열’(Syrian family) 사본에서 번역되었다. 이것은 동로마 제국, 즉 비잔틴 제국의 영토에서 주로 발견되므로 비잔틴 사본이라 불리며 발견된 사본들의 대대수를 차지하므로 다수 사본이

라 불리고 루터와 칼빈 등의 종교 개혁을 일으킨 원동력이 되었으므로 종교 개혁 사본이라 불린다. 한편 신국계역(NIV), 신미국표준역(NASB), 미국표준역(ASV), 개역표준역(RSV), 한글개역성경, 표준새번역, 공동번역 등은 모두 흔히 ‘알렉산드리아 계열’ 혹은 ‘이집트 계열’(Egyptian family) 사본에서 번역되었다. 이 계열에는 코텍스 형태의 시내(알레프) 사본과 바티칸(B) 사본이 있으며 이것들을 근거로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비평 그리스어 본문과 후에 네슬레/알란드판이라 불리는 그리스어 본문이 나왔다. 또 다른 계열로는 ‘구 라틴어 사본들’을 포함하는 ‘서방 계열’(Western family)과 ‘가이사라 계열’(Caesarian family) 등이 있다. 그런데 사실 마지막 계열은 킹제임스 성경을 지지해주는 사본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서 킹제임스 성경의 사본적 권위를 부여하지 않으려는 취지로 만들어진 인위적인 계열이다.

6. 본문(Texts): 이것들은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자료, 즉 사본, 복사본 등을 모아 재구성한 ‘그리스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을 의미한다. ‘Text’라는 단어는 어떤 종류의 문서든지 그 문서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을 지칭하며 ‘그리스어 본문’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그리스어로 편집한 신약 성경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그리스어 본문’을 만든 유명한 사람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에라스무스, 스테파누스, 엘제비어, 베자, 밀, 펠, 알톤, 트레겔레스, 티센도르프, 그리스바크, 알포드, 메츠거, 알란드, 네슬레, 웨스트코트와 호르트 등.

신약 성경 본문 중에서 시리아/비잔틴 ‘다수 사본’에서 나온 본문은 보통 ‘수용 본문’ 혹은 ‘공인 본문’(Textus Receptus, *TR*)이라 불린다. ‘공인 본문’은 어떤 공적인 단체가 그 성경을 인정했다는 의미의 ‘공인 본문’(公認本文)이 아니고 많은 이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했다는 의미의 ‘공인 본문’(共認本文)이다. 따라서 이 같은 ‘공인 본문’을 ‘표준 원문’(標準原文)이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그것을 ‘표준’으로 만들거나 선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알란드, 네슬레 등이 천주교의 이집트 ‘소수 사본’에서 만든 그리스어 신약 성경 본문이 있는데 이것은 ‘비평 본문’(Critical text) 혹은 ‘수정 본문’(Revised text)이라 불린다. 바로 이런 본문으로부터 부패한 현대 역본들이 번역되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성경 문제는 궁극적으로 시리아/비잔틴/안디옥 본문과 이집트/알렉산드리아 본문 간의 대립이며 또 종교 개혁을 일으킨 프로테스탄트 본문과 카톨릭 본문 간의 대립이다. 영어 성경 중 유일하게 킹제임스 성경만이 시리아/비잔틴/안디옥 본문을 충실히 따르고 있으며, NIV, NASB, RSV, 여호와의 증인들의 신세계역, 한글개역성경, 표준새번역, 공동번역 등은 모두 이집트/알렉산드리아 본문에서 나왔으므로 문체와 표현은 다소 다를지 몰라도 부패된 점에서는 궁극적으로 같다 할 수 있다.

7. 역본(Versions): 이것은 누군가가 ‘그리스어 본문’으로부터 자신의 언어로 번역한 성경을 의미한다. 서기 325년 니케아 종교 회의가 열리기 전에 이미 시리아어와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들이 있었다. 성경은 아주 오래전에 고딕, 페르시아, 콥트(이디오피아)어 등으로도 번역되었다. ‘번역’은 사실 ‘성경기록’을 ‘ 옮겨 놓는 것’(Translation)이며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역본’(Version)이란 말은 원래의 언어로 기록된 성경을 ‘다시 내는 것’을 의미한다. 개역표준역(RSV)과 미국표준역(ASV) 등은 킹제임스 성경을 개정한 영어 역본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왜냐하면 ASV와 RSV는 킹제임스

성경의 기초가 된 ‘다수 사본’이 아닌 다른 종류의 ‘소수 사본’으로부터 번역되었기 때문이다.

8. 킹제임스 성경: 1611년 잉글랜드 왕 제임스 1세의 후원으로 출판된 영역 성경으로 제임스 왕의 이름을 따라 킹제임스 성경이라고도 하고 모든 사람이 권위를 부여했다고 해서 권위역 성경(Authorized Version)이라고도 하며 국내에서는 중국 말의 영향으로 ‘왕이 친히 제정한 성경’이라는 의미의 흠정역 성경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다음은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서 인용한 것이다.

제임스가 승인한 학자 54명 가운데 47명이 7년 동안 3곳에서 6개 집단으로 나누어 과거의 영역 성서들과 원래의 언어로 된 본문들을 사용해 작업했다. 그 결과 등장한 영역 성경은 영어 문체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고, 300년 이상 표준 영어 성경으로 널리 받아들여졌다.

킹제임스 성경은 지금까지 가장 많이 인쇄된 성경으로 영미 문학의 백미로 손꼽힌다. 또한 KJV는 사본 상의 권위와 문체의 수려함 등에서 다른 모든 역본을 압도하고 있으며 특히 외적으로 드러난 우수성 몇 가지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 (a) 부흥과 영혼 구원: 전도사들과 선교사들이 킹제임스 성경으로 선교하고 전도함으로써 구원받게 된 영혼들과 선교 사역의 양은 그 외 다른 어떤 성경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보다 훨씬 많다.
- (b) 물질적 번영: 영국, 독일, 미국의 역사는 ‘종교 개혁 본문’을 귀중히 여겼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물질적 복의 역사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버리게 될 때 재난이 닥쳤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 (c)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거부한 사람들의 열매: 만일 여러분이 이성적이라면 로마 카톨릭교회의 지배 아래 있는 중남미 국가들과 남유럽, 필리핀 등을 보라. 이들 모두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부채를 짊어진 국가들이 아닌가? 브라질,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는 미국보다 훨씬 더 지하자원이 많고 땅도 비옥하지만 알렉산드리아의 이교 철학 사상과 바르지 못한 성경으로 인한 부패된 신학이 그 나라들을 지배하므로 번영을 이룰 수가 없었던 것이다.

또한 새로운 역본들의 근거가 된 ‘소수 사본’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영혼 구원을 해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었다. 그들 중 대부분은 - 네슬레, 알란트, 메츠거, 웨스트코트, 호르트, 라이트푸트, 엘리콧 등 - 참으로 거듭났다는 증거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들은 또한 이미 1611년부터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 바른 것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유아 세례’ 등을 통해 사람이 거듭난다는 로마 카톨릭 사상을 그대로 믿고 있었다. 로마 카톨릭교회의 열매들은 이미 교회 역사가들에 의해 잘 알려져 있으며 카톨릭교회는 지금까지 킹제임스 성경의 근간이 된 ‘공인 본문’을 ‘올바른 본문’으로 받아들인 적이 없다. 그들은 부패된 계통의 제롬의 라틴 벌게이트와 ‘이집트 계열’의 사본들만을 중요시하고 있다.

9. 개정(revision): 성경 본문을 바꾸는 것

10. 교정, 정정(correction): 철자나 맞춤법이 틀린 것을 바로잡는 일로서 ‘개정’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B. 영어 성경 및 사본 약자

킹제임스 성경(King James Version, *KJV* 혹은 Authorized Version, *AV*)

뉴킹제임스 성경(New King James Version, *NKJV*)

신국제역(New International Version, *NIV*)

미국표준역(American Standard Version, *ASV*)

신미국표준역(New American Standard Bible, *NASB*)

영국개역(English Revised Version, *ERV*)

리빙 바이블(Living Bible, *LB*)

개역표준역(Revised Standard Version, *RSV*)

신개역표준역(New Revised Standard Version, *NRSV*)

신영국성경(New English Bible, *NEB*)

바티칸 사본(Codex Vaticanus, B)

시내 사본(Codex Sinaiticus, Aleph, 알레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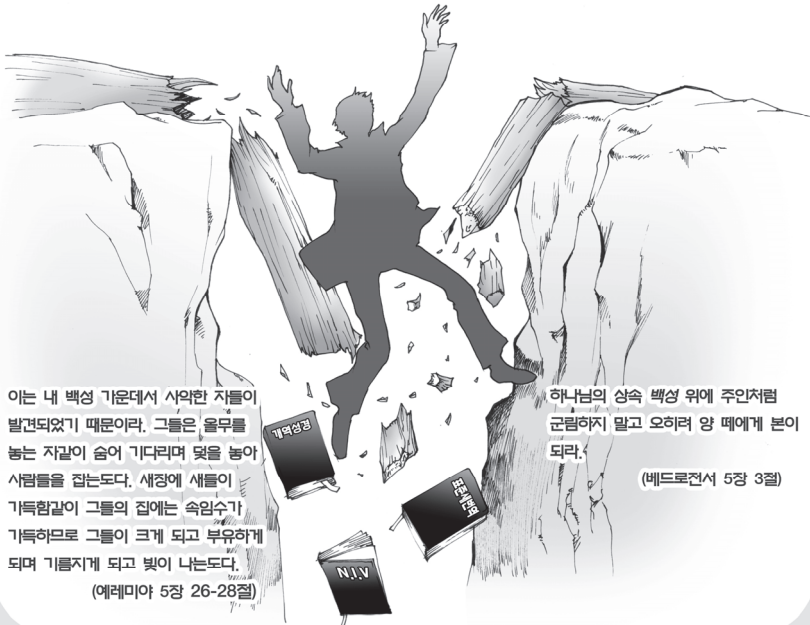
베자 사본(Codex Bezae, D)

알렉산드리아 사본(Codex Alexandrianus, A)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오리니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라. 그것은 빵으로 인한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며 주의 말씀들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갈이니라(암8:11).

Behold, the days come, saith the Lord GOD, that I WILL SEND A FAMINE IN THE LAND, not a famine of bread, nor a thirst for water, but OF HEARING THE WORDS OF THE LORD.

마귀의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이는 내 백성 가운데서 사악한 자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울루를 놓는 자같이 숨어 기다리며 멍을 놓아 사람들을 잡는도다. 새김에 새들이 가득함같이 그들의 집에는 속임수가 가득하므로 그들이 크게 되고 부유하게 되며 기쁨지게 되고 빛이 나는도다.

(에레미야 5장 26-28절)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히려 양 떼에게 본이 되라.

(베드로전서 5장 3절)

현대 역본들

수백 개의 왜곡된 성경들

나쁜 열매

모든 중요 교리가 공격을 받음

GNB

TLB

NASV

NEB

NIV

NKJV

RSV

변질된 나무

에큐메니즘

진화론

천주교

고통 비평

이성주의

자유주의

변질된 번역자들

이단과 불신자들

변질된 번역 방법

동적 일치 기법

변질된 본문

천주교 소수 사본

“변질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마7:17)

킹제임스 성경

거룩한 성경(Holy Bible)

좋은 열매

모든 중요 교리가 완전히 보존됨

그리스도의 신성

어린양의 피에 의한 구속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

좋은 나무

좋은 번역자들
경건한 사람들

좋은 번역 방법
형식적 일치 기법

좋은 본문
기독교 다수 사본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마7:17)

하나님께서 말씀하심



בראשית קרא אלקים את
השמים ואת הארץ: והארץ
קיתה תהו ובהו וחשך על
ההום ורוח אלקים כרחפת

히브리어 구약 성경

거룩한 사람들이 기록함

BIBΛOΣ γενέσεως
'Ιησου χριστου, υιου
Δαβιδ, υιου' Αβραάμ.
'Αβραάμ. ἐγέννησεν

그리스어 신약 성경

**원래의 기록
(자필 원본)**

**히브리어/그리스어 전통 본문
모든 사본 중 가장 신실한 것들**

번역자들
오직 경건하고
신실한 사람들

번역기술
단어 대 단어의
'축자 번역'
'동적 일치 배제'



번역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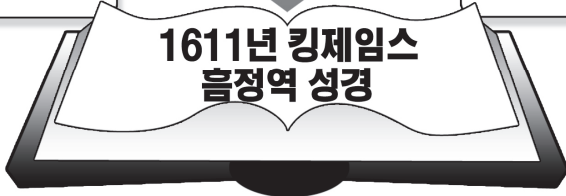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 성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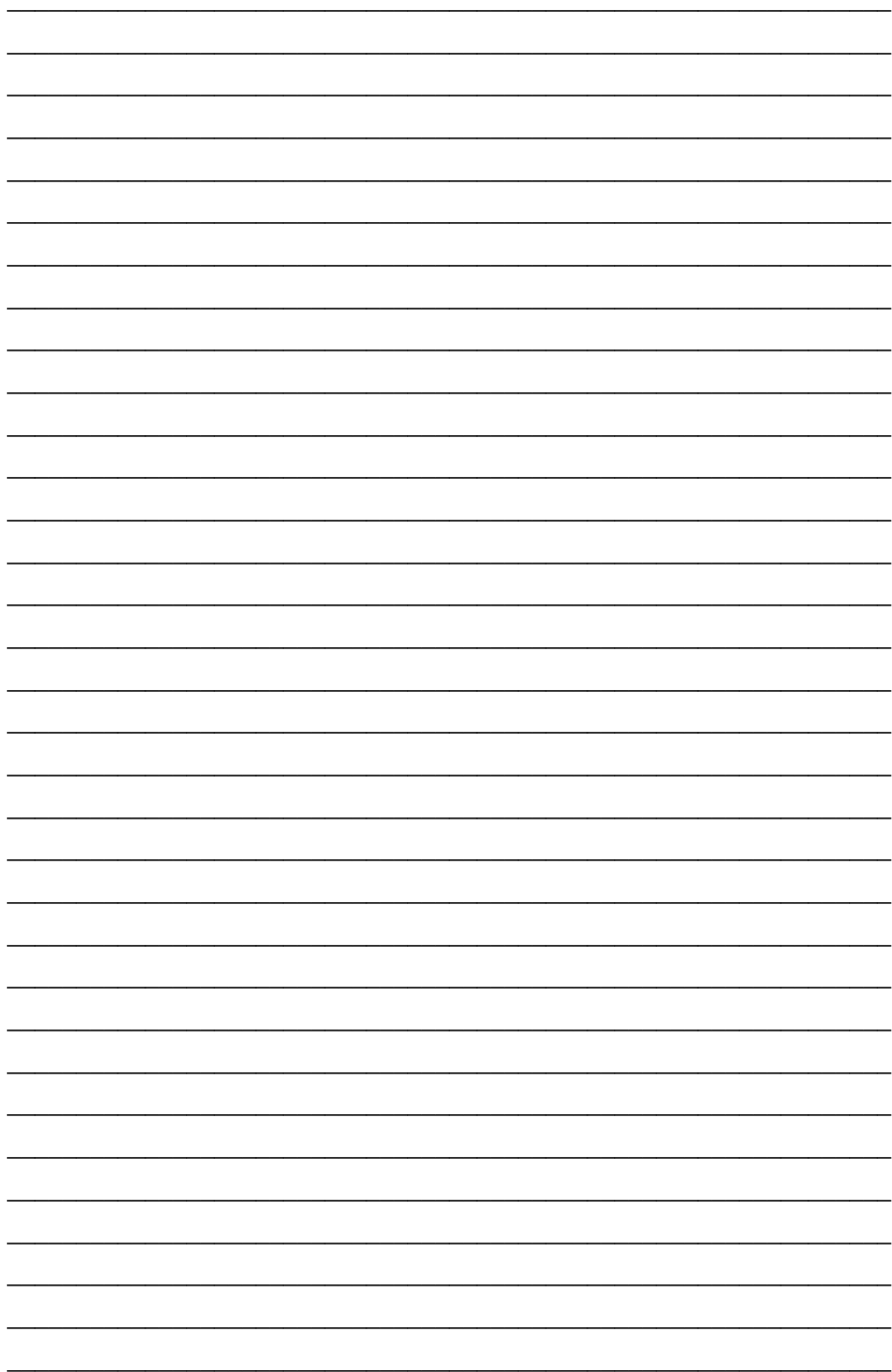
위클리프 성경 1382
틴대일 성경 1525
커버데일 성경 1535
매튜 성경 1537
그레이트 성경 1539
제네바 성경 15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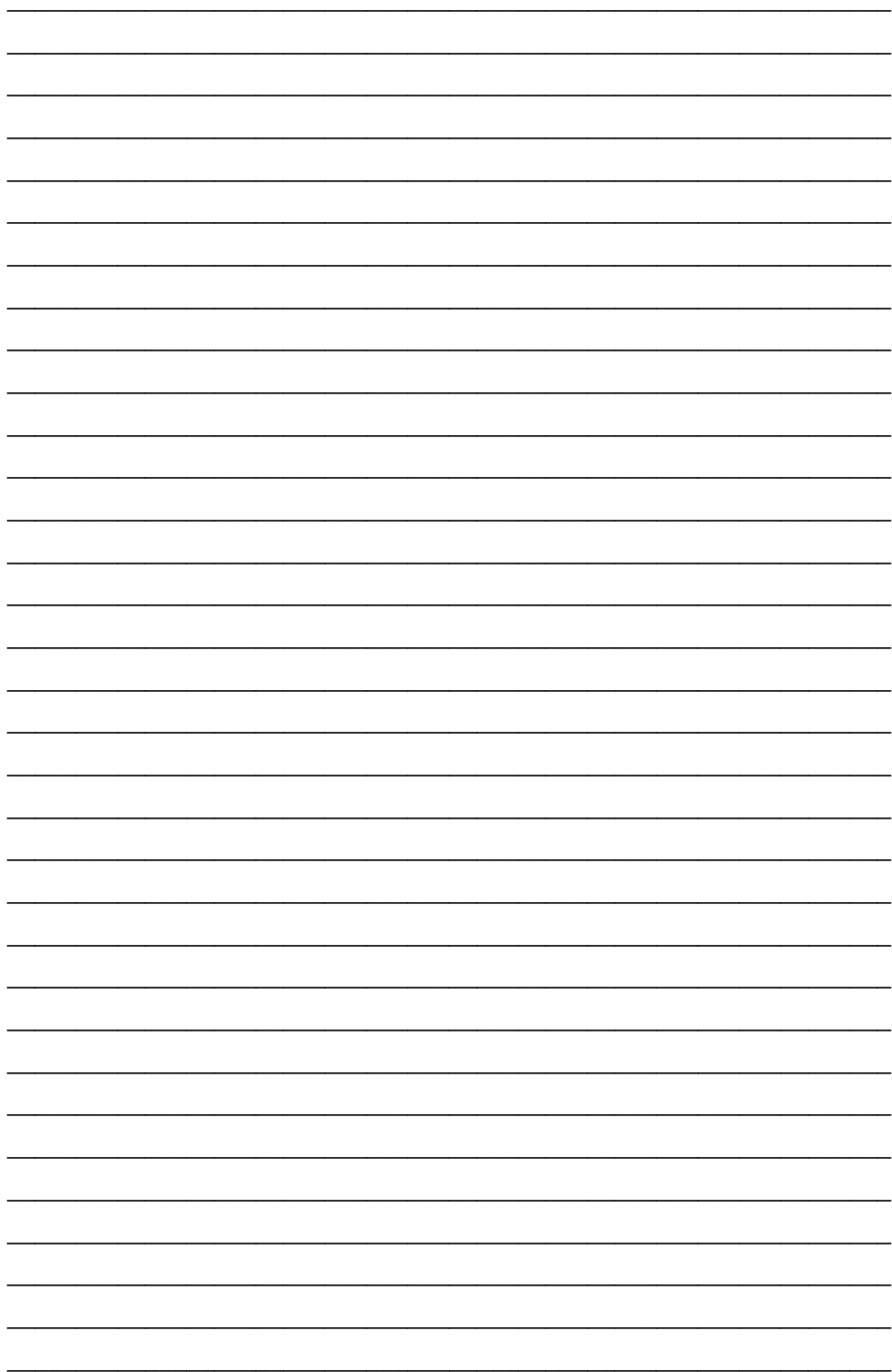
**종교 개혁의 정신과
함께 중요 교리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완전히
보존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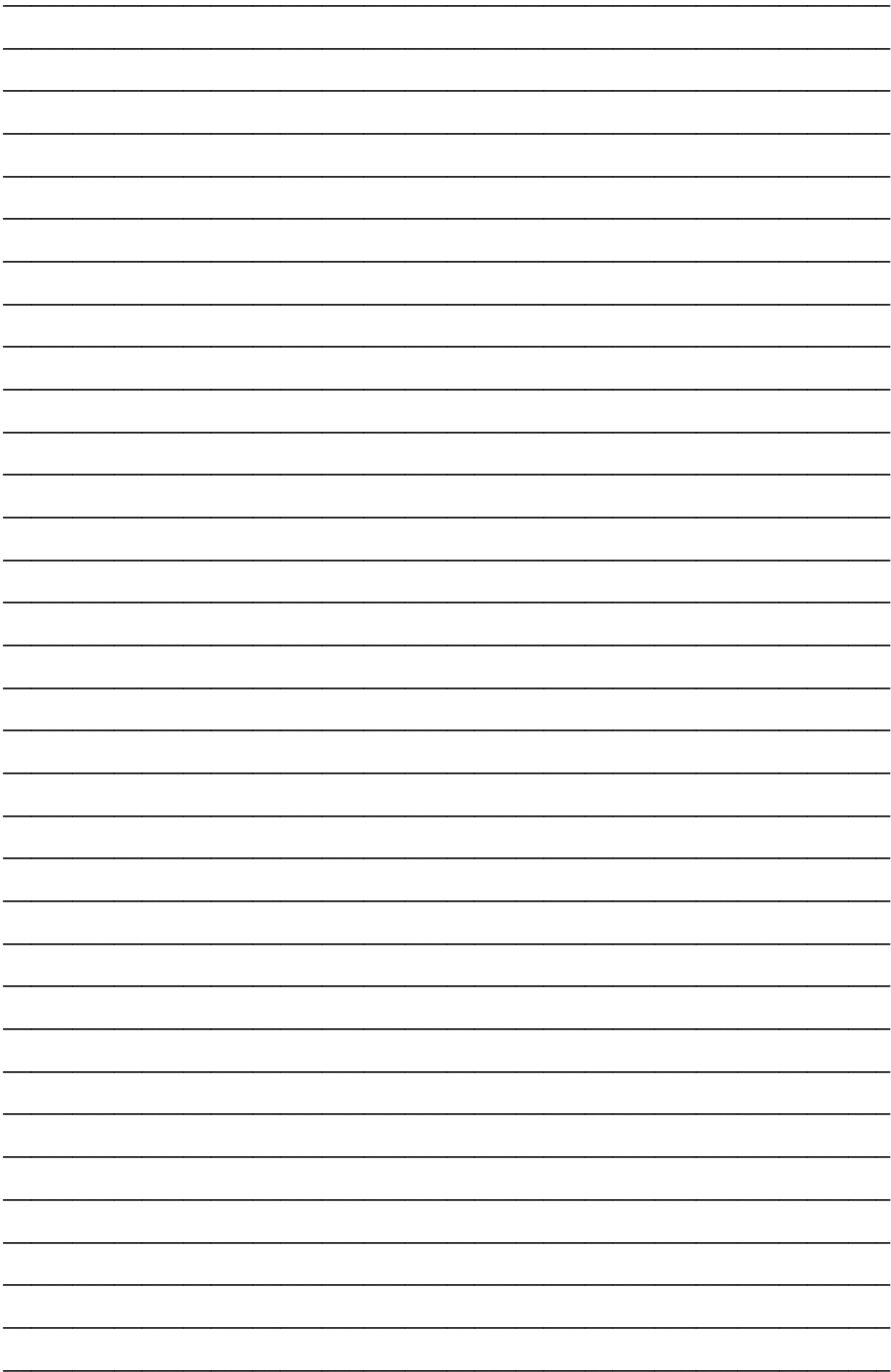
킹제임스 성경의 선구자들

**1611년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추천 참고도서

●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1.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한영대역, 스티디, 큰글자, 박사, 신약 성경 등) 그리스도예수안에(www.KeepBible.com)
2. 킹제임스 성경의 역사 S. 김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3. 킹제임스 성경 답변서(구 '킹제임스 성경에 관한 100가지 질문과 대답') S. 김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4. 킹제임스 성경 입문서(구 '킹제임스 성경 길라잡이') B. 버튼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5. 킹제임스 성경 번호 E. 힐즈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6. 킹제임스 성경의 4종 우수성 D. 웨이트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7. 킹제임스 성경의 영광 T. 홀랜드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8. 신약분석성경(한/헬/영 대역판) 송종섭 저, 신약원어연구소
9. 뉴바이블 송종섭 저, 신약원어연구소
10. 우리말 성경 연구 나채운 저, 기독교문사
11. New Age Bible Versions, Gail Riplinger(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2. Final Authority, William P. Grady(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3. Did the Catholic Church Give Us the Bible?
David W. Daniels(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 천주교

1. 천주교는 기독교와 완전히 다릅니다 R. 존스 저, 정동수 박노찬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 천주교의 유래 R. 우드로우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3. 마틴 로이드 존스의 천주교 사상 평가 M. 로이드 존스 외,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4. 무엇이 다른가? F. 리데나워 저, 생명의말씀사
5. 교황 대신 예수를 선택한 49인의 신부들 R. 베닛 & M. 버킹엄 저, 이길상 역, 아가페
6. 종교에 매이지 않은 그리스도인 F. 리데나워 저, 정창영 역, 생명의말씀사
7. 무모한 신앙과 영적 분별력 맥아더 저, 안보현 역, 생명의말씀사
8. 로마 카톨릭 사상평가 로레인 비트너 저, 이송훈 역, 기독교문서선교회
9. 천주교도 기독교인가? 유선호 저, 하늘기획
10. A Woman Rides the Beast Dave Hunt(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1. Babylon Religion David W. Daniels(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2. Queen of All Jim Tetlow(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 뉴에이지 운동

1. 천사와 UFO 바로 알기(구 '천사는 있다', 'UFO는 있다') 정동수 편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 뉴에이지 신비주의 - 이교주의와 뉴에이지 운동의 현재 김태한 저, 라이트하우스
3. 뉴에이지 운동 평가 박영호 저, 기독교문서선교회

4. 뉴에이지 운동(IVP소책자57) D. 그릇하이스 저, 김기영 역,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IVP)
5. 뉴에이지 운동(비교종교사리즈7) 론 로우즈 저, 은성
6. 뉴에이지에 대한 연구와 대책(울타리 문화교재시리즈6) 낮은울타리

● 오순절 은사 운동

1. 오순절 은사 운동 바로 알기 W. 유인 외,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 무질서한 은사주의 존 맥아더 저, 이용중 역, 부흥과개혁사
3. 사단은 성도를 어떻게 속이는가? 제시 펜 루이스 저, 전의우 역, 기독교문서선교회
4. 방언 정말 하늘의 언어인가?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 창조와 진화

1. 1318 창조과학 A to Z 김재욱 저, 생명의말씀사
2. 창세기연구(상,하) 헨리 M. 모리스 저, 전도출판사
3. 기원 과학 한국창조과학회, 두란노
4. 놀라운 창조 이야기 듀안 기쉬 저, 국민일보
5. 밝혀진 만물 기원과 창조 신비(창조과학시리즈1) 데니스 피터슨, 나침반
6. 숨겨진 공룡의 비밀 듀안 기쉬, 서용연 역, 꿈을이루는사람들
7. 자연과학과 기원 이용상 외 저, 한국창조과학회
8. 한 손에 잡히는 창조과학 이은일 저, 두란노
9. 가재! 신비한 공룡의 세계로 폴 테일러 저, 송지윤 역, 꿈을이루는사람들
10. 고대 한자 속에 감추어진 창세기 이야기 벨슨 외 저, 전광호, 우제태 역, 기독교출판공동체
11. 심판대의 다윈 제2판 : 지적설계논쟁 필립 E. 존슨 저, 이승엽 이수현 역, 까치
12. 젊은 지구 J. 모리스 저, 홍기범 조정일 역, 한국창조과학회
13. 창세기에 답이 있다(구 '신앙 대 신념') 켄 함 & 폴 테일러 저, 한국창조과학회
14. 재창조는 없다 정동수 외, 그리스도예수안에(근간)

● 기타

1. 설교와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저, 정근두 역, 복있는사람
2. 설교자는 불꽃처럼 타올라야 한다 김남준 저, 생명의말씀사
3. 청중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설교자 김남준 저, 생명의말씀사
4. 영혼을 인도하는 이들에게 주는 글 호라티우스 보나 저, 생명의말씀사
5. 월빙턴 종합성경연구 1,2,3 H. L. 월빙턴 저, 박광철 역, 생명의 말씀사
6. 하나님이 주신 보장된 삶 빌 길햄 저, 유상훈 역, 도서출판NCD엔시티
7. 성경은 해답을 가지고 있다 헨리 모리스 저, 전도출판사
8. 마케팅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9.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10.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11.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 존 맥아더 저, 생명의 말씀사
12. 칼빈주의 비평 데이빗 클라우드 외 저, 그리스도예수안에

개역성경 분석

〈표준새번역·공동번역·NIV·NASB 등 포함〉

성경은 단 두 종류뿐이다!!

당신의 성경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인가?

육체 밖에서 **욥기19:26** 육체 안에서

(없음) **사도행전 8:37** (있음)

짐승의 혼 **전도서3:21** 짐승의 영

삼위일체 삭제 **요한일서 5:7-8** 삼위일체 하나님 있음

계명성 **이사야14:12** 루시퍼

해골 **누가복음 23:33** 갈보리

당신의 성경, 어느 쪽인가?

왜 킹제임스 성경인가?



그리스도
예수안에

개역성경에서 삭제된 구절들

	성경 구절	개역성경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1	마17:21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의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서는 나가지 아니 하느니라, 하시니라.
2	마18:11	(없음)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왔느니라.
3	마23:14	(없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대! 너희가 과부 들의 집을 삼키고 위장하려고 길게 기도하니 그러므로 너희가 더 큰 징조를 받으리라.
4	막9:44	(없음)	저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5	막9:46	(없음)	저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6	막11:26	(없음)	그러나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범법 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니라.
7	막15:28	(없음)	이로써, 그는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도다, 하고 말하는 성경기록이 성취되 었더라.
8	눅17:36	(없음)	두 남자가 들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 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하시니라.
9	눅23:17	(없음)	(이는 그 명절이 되면 필히 빌라도가 반드시 한 사람을 그들에게 놓아주어야 하기 때문이더라.)
10	행8:37	(없음)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매 내 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고는
11	행15:34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라는 저기에 그대로 머무는 것을 기뻐하였으며
12	행28:29	(없음)	그가 이 말들을 하매 유대인들이 떠나 자기들끼리 큰 논쟁을 벌이더라.
13	롬16:24	(없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14	요일 5:6~7	6 ... 물과 피로 임 하였고 7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 령은 진리니라	6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증언하시는 분 은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7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 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개역성경은 7절을 빼고 원래 6절의 전반부는 6절에, 후반부는 7절에 넣음.)

표준새번역, 공동번역, NV, NASB 등도 위의 구절들을 빼거나 또는 원래 없는 것처럼 팔로나 각주 처리함.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24:35)



KEEP BIBLE
무료 PDF 책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소개



목회자·신대원생
무료 성경 증정



무료 배송
강해 노트



9 788995 158784

ISBN 978-89-951587-8-4



03230

값 8,000원

총판 : 생명의말씀사 www.lifebook.co.kr

www.KeepBible.com NAVER 성경지킴이

도서출판 그리스도 예수안에

킹제임스 흠정역

마제스티 에디션



한영대역 관주성경 스테디 바이블
큰글자 성경 작은 성경 비교 신약 성경



1611년 킹제임스 바이블
인류 역사 최고의 성경!

(없음)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거대 로마 카톨릭 교회의 권력 하에서 중세 암흑시대를 살았던 민초들은 성경을 읽을 수 없었지만, 성경을 번역한 죄로 화형당한 선조들의 기도가 응답되어, 왕의 명령에 의해 탄생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난 400년 동안 세상을 비춘 **진리의 빛 1611년 킹제임스 영어 성경**. 이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 있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 원어의 단어들을 그대로 일대일 대응시켜 번역한 성경입니다.
- 지난 400년 동안 한 번의 개정도 없이 순수하게 보존된 성경입니다.
- 영어권에서 모든 성경과 모든 신학 서적의 표준이 된 성경입니다.
- 전세계 모든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읽히고 번역된 성경입니다.

우리말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충실하게 번역한 성경입니다.
-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우며 운율이 유지되어 영감을 불러 일으킵니다.
- 용어 색인이 가능하도록 모든 중요 단어를 통일하였습니다.
- 역사성과 현실성을 인정하여 번역하였습니다.
- 원어와 영어의 감동 그대로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 **마제스티 에디션**은 30년 동안 번역/교정하여 완성한 성경입니다.



총판 : 생명의말씀사 www.lifebook.co.kr

본 출판사는 생명의말씀사 온라인서점에서 8대 성경 출판사로 꼽히며, 흠정역 성경은 첫 출간 때부터 베스트 성경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도서출판  그리스도 예수안에

www.KeepBible.com

NAVER

사랑침례교회

검색

바른 신앙을 위한 크리스천의 필독서!!

성경 바로 보기 라킨 외/ 정동수 역

그림과 도표 등 알기 쉬운 자료들이 컬러로 수록된 책. 라킨의 책과 부록들로 성경 신자의 필수 지식을 담아 성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는 책. 세대주의(경륜)에 관한 책 합본.

구원 바로 알기 정동수

누구나 꼭 알아야 할 영혼 구원의 이유와 방법과 바른 구원에 관한 진리를 쉽게 설명한 책으로 불신자는 물론 구원의 개념이 명확치 않은 모든 크리스천을 위한 내용. 강의 MP3포함.

천주교 시리즈 3권 우드로우, 릭 존스, 로이드 존스 외

천주교의 유래/ 천주교는 기독교와 완전히 다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의 천주교 사상 평가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해 철저히 파헤치는 책으로 기원과 교리는 물론 장차 일어날 마지막 때의 일까지 알게 해주는 책. 3권 중 한 권만으로도 그 심각성과 문제점을 잘 알 수 있다.

킹제임스 시리즈 3권 사무엘 킵, 버튼 외

킹제임스 성경의 역사/ 답변서/ 입문서

역사 : 성경의 기록과 보존 과정, 번역 과정, 번역상의 문제와 오류 등을 짚어 준다./ 답변서 : 100가지 질문과 답을 통해 킹제임스 성경의 오해를 풀고 왜 오류가 없는지 밝힌다./ 입문서 : 길라잡이 역할, 흥정역 사용자들의 생생한 체험담 수록.

예수님의 피 바로 알기 레이시 외

레이시 목사, 디한 박사 등의 책이 합본으로 담긴 책. 피의 성분과 성경적 원리를 통한 구원의 놀라운 섭리를 담은 책. 예수님 피의 복음이 왜 필요한지 알려주는 책.

천국과 지옥 바로 알기 레이시

레이시 목사의 천국 지옥에 관한 저서 2권 합본. 철저히 성경으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잘못된 개념 설명. 놀라움과 두려움을 넘어 희망과 소망을 주며 천도에 대한 위급함을 일깨우는 책.

천사와 UFO 바로 알기 정동수

천사와 네피림, 마귀의 천사들의 땅속 음모와 미확인 비행물체에 대해 속 시원히 풀어주는 흥미로운 책.

오순절 은사운동 바로 알기 유인 외

유인 목사의 저서와 부록들로 구성된 사도행전을 오해해서 생기는 은사운동의 양상과 폐해를 파헤치고, 체험 주의 은사운동의 신비함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참된 믿음을 알려 주는 책.

행위 종교와 은혜 복음 짝슨 외/ 고정민 역

모든 것을 끝내 복음과 행위로 이루어가는 불완전한 종교를 대비하여 구원의 영원성과 완결성을 일러스트와 함께 설명한 책.

성경의 역사: 어둠 속의 등불 핀토/ 정동수 역

성경의 언어, 성경의 영감, 그리고 성경의 보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의 손에 오기까지의 섭리 등 성경의 모든 역사와 바른 성경의 뿌리, 기타 역본들의 실체를 한눈에 보여 주는 책.

이슬람교 바로 알기 클라우드 외/ 박용환 외 역

테러와 우상숭배의 종교 이슬람의 정체 및 마지막 때의 역할을 분석한 책. 한국 이란인교회 이만석 목사의 글 등 부록에 수록.

죽음의 공포 극복하기 책 맥엘로이

불신자들과 확신 없는 교인들에게 다른 종교들을 모두 비교해 기독교와의 차이점을 알려면서, 영혼을 온전히 살릴 수 있는 바른 주 예수 그리스도뵘임을 변증한 책.

세상을 바꾼 책 킹제임스 성경(1611)

그리스도예수안에 편저/ 김용욱 외 역

영어성경의 역사와 함께 킹제임스 성경의 탄생 과정을 소개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지면으로 볼 수 있도록 소개한 책.

왜 안 하는가? 정동수

사도신경, 주기도문, 축도, 새벽기도, 통성기도, 구약의 십일조, 일천 번째, 열린 예배와 록 음악, 방언/신유, 축사 등을 신약교회에서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한 책.

요한계시록 바로 알기 김재욱/ 정동수 책임감수

유대인의 역사, 세계 정세, 다니엘서 해석, 배교 현황 등을 통해 말세의 징조를 돌아보고 시각 자료를 통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한 책. 바른 성경 해석과 배리칩 등 종말론 총정리.

재림과 휴거 시리즈 2권 모리스, 정동수 외

역사와 영원의 파노라마/ 바로 알기

창조과학의 아버지 헨리 모리스 박사가 성경을 추적한 종말 분석서와 재림과 휴거에 관한 기본 지식을 모은 두 권의 시리즈.

에스라성경사전/지도 2권 정동수 외

성경을 빠르게 공부하는 데 필요한 용어 색인 사전, 낱말 풀이 사전, 다양한 지도 및 선도 등을 제공한다.

킹제임스 흥정역

한영대역/ 스티디 바이블/ 큰글자 성경

다른 한국어 성경들은 물론, 기타 킹제임스 한글 번역본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정확한 번역본 흥정역! 이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증인이 되고 있다. 한영대역은 영문 원본과 대조할 수 있고, 스티디 바이블은 에스라 성경사전과 지도 및 선도 등을 포함하고 있다. 큰글자 성경과 작은 성경도 있다.

박사 성경

현대 역본 성경들이 안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번역의 대본인 본문이 킹제임스 성경, 루터 성경 등과 다르다는 데 있다. 박사 성경은 NIV같이 소수 사본에 근거한 신약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잘못되었는지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에 표시하여 누구라도 문제를 쉽게 볼 수 있게 하였다.

비교 성경

이것은 한글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 개역성경, 영어 킹제임스 성경(KJV), NIV 신약 성경을 4개의 열에 병행해서 배열하여 누구라도 쉽게 4개의 성경을 비교/분석할 수 있게 한 성경이다.

개역성경분석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해 온 개역성경이 신학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 주고 왜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인가를 보여 준다.